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6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학교 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 배주미

공동연구자 : 이승연

김은영

청소년상담연구 156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 학교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

인 쇄 : 2010년 12월
발 행 : 2010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1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아름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466-4 93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 학교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배주미 ; 공동연구자: 이승연, 김은영.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 cm. --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6)

참고문헌 수록
권말부록: 중고생 때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대학생) 면접동의서 및 인터뷰 등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
ISBN 978-89-8234-466-4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문제[靑少年問題]
자살[自殺]

334.3-KDC5
362.7-DDC21

CIP2010004493

간행사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주요 유명인사를 비롯한 특정 지역의 연이은 자살 소식들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사회적 사건으로 자리잡아 자살에 대한 관심을 우리나라의 일부 계층, 관련 전문가에서 전 국민으로 옮겨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은 자살전염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자살 소식을 접했을 때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매우 친한 친구가 자살하게 되면 자살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은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유명인사나 주변사람들의 자살 사망에 따른 청소년 자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연구를 통해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자살사망 청소년의 학급에 대한 심리적 중재가 매우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 자살위기청소년 개입모형을 개발하면서 청소년자살 사후개입에 대해서는 해외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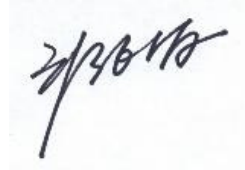
2009년에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수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구조화된 상담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0년에는 이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주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자살을 예방하고자 학교 현장 중심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사후개입매뉴얼의 개발 과정 뿐 아니라 학교 안 밖에서 학생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조직체계 구축 방안 및 주요 역할에 관한 지침을 함께 제공합니다. 아울러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는 절차 및 업무와 활동을 세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교현장에서 자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교직원 및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배주미 박사,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승연 교수, 그리고 본원의 김은영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하게 개발 업무를 도와준 신윤희님, 곽윤영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원 장 차 정 섭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차정섭' (Cha Jeong-seop), written in a cursive style.

초 록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보고되는 등 자살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장 큰 위기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이러한 직·간접적인 자살의 노출은 자살청소년 주변의 자살생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요 위기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의 주 생활무대이자,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곳으로, 학교 구성원의 자살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후개입은 더 이상 개인 및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 사후개입의 요구 증대에 따라, 청소년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학교장면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청소년 면접연구, 설문조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청소년 자살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사후개입 내용을 고찰하고,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해당되는 일본과 홍콩의 사후개입방안을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지지받는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살 관련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자 청소년기에 (학급)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 11명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국내 관련전문가 21명, 학교장 및 교사 201명, 중고생 1,490명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초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매뉴얼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하며, 자살 발생시 신속한 사후개입을 위해 사전에 위기관리팀의 조직을 상정하며, 위기관리팀의 상시활동을 명기하고, 자살 발생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후개입을 준비, 사후개입, 추후관리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매뉴얼 초안을 중심으로 현장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교의 위기관리 실무책임 담당 교사 12명과 자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자 5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개입지식척도와 자기효능감척도를 시범교육 전과 후에, 참여자 관점평가를 교육 후에 실시하여 사후개입 매뉴얼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자살 사후개입지식과 자기효능감이 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으며, 또한 본 사후개입 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부합성, 유익성, 실용성, 활용기여도 등에 관한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평균 4.2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자살에 대한 사후개입이라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입을 준비하게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철저한 시범운영 및 효과검증 연구로서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와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의의로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위기문제 중 하나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마땅한 대책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자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사후개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방대한 국내외 문헌 연구와 다각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명기하고, 구체적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실제 대처 경험이 없는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의 자살사후개입에 대한 효능감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의의로 제시되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본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이 연구기간의 시간적 한계 및 자살문제의 속성으로 인해 충분한 현장적용 경험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 현장 적용 및 장기적 효과 검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사후개입 훈련 모듈 개발, 자살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다른 후속 연구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이 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학교위기관리위원회의 사전 조직, 전문상담교사 양성 강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었으며, 관련 부처들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뉴얼의 현장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보건복지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학교를 비롯한 상담기관, 보건기관, 복지기관, 보호기관 등의 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에 기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과제	4

II. 이론적 배경 | 5

1. 청소년 자살의 실태 및 특성	5
2. 자살의 영향에 대한 이해	11
3.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자살의 영향	15
4. 학교 중심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17
5.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접근	19

III. 연구방법 | 61

1.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개발	61
2. 시범교육 및 평가	136
3.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수정 보완	148

IV. 요약 및 논의 | 150

참고문헌	156
------------	-----



부 록

부록 1. 중고생 때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대학생) 면접동의서 및 인터뷰 내용	170
부록 2. 인터뷰 내용의 예시	172
부록 3. 학생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지(관련전문가, 학교관리자 및 교사용)	182
부록 4. 학생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지(학생용)	188
부록 5. 교사의 성에 따른 위기상황 의견조사 문항별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94
부록 6. 중고생의 성에 따른 위기상황 의견조사 문항별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99
부록 7. 학생 자살 시 사후개입방안에 대한 국내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사후개입 의견 비교	206
부록 8. 시범교육평가지	210
부록 9.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215



표

표 1.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순위	5
표 2.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1983-2010	6
표 3.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09)	7
표 4. 연령별 자살률 추이(1999-2009)	7
표 5. 국제손상외인 대분류에 따른 자살 이유	8
표 6. 국제손상외인 소분류에 따른 연령대별 자살 이유	9
표 7. Maine주의 청소년 자살 예방, 개입,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내용	21
표 8. New Hampshire주의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프로젝트의 사후개입 내용	24
표 9. 미국 San Diego주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지침 내용	28
표 10. 호주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	31
표 11. 뉴질랜드의 자살 사후개입의 내용	37
표 12. 일본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postvention) 내용	40
표 13. 홍콩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43
표 14. 국내 사후개입의 비교	47
표 15. 국내외 선행 사후개입의 비교	54
표 16. 면접참여자 및 자살자 특성	64
표 17.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76
표 18. 학교장 및 교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78
표 19. 학생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79
표 20.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의견조사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80
표 21. 학교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83
표 22. 학교 안전관리 관련 교육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	85



표 23. 자살발생시 학교 안전 관련 상담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86
표 24. 자살소식 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 의견	87
표 25.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89
표 26. 관련 정보 제공내용 및 제공 범위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	91
표 27. 개입태도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92
표 28. 교사 및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94
표 29. 교사 및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 관련 교육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96
표 30. 교사 및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 관련 상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97
표 31. 교사 및 학생의 자살소식 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98
표 32. 교사 및 학생의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01
표 33. 교사 및 학생의 관련 정보 제공내용 및 제공 범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02
표 34. 교사 및 학생의 개입태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04
표 35. 학교급에 따른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06
표 36. 학교급에 따른 교육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08
표 37. 학교급에 따른 상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110
표 38. 학교급에 따른 자살소식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12
표 39.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14
표 40. 사후개입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16



표 41. 개입태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118
표 42.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면접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매뉴얼 개발 방향 도출	125
표 43.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초기개발안)의 구성요소	133
표 44. 시범교육 내용	137
표 45. 시범교육 평가 개요	138
표 46. 측정도구의 세부내용	140
표 47. 시범교육 참여자의 특성	141
표 48. 척도별 사전·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대응표본 t검증 결과	142
표 49. 시범교육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143
표 50. 사후개입 세부영역별 현행 담당자에 대한 의견	145
표 51.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수정방향에 대한 의견	147

I 그림

그림 1.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과정	61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 자살은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고, 내적 동기보다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 등 자살전염성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성인 자살과 차이가 있다(김용분, 이정섭, 2003; 남민, 1997; 신민섭, 1993; 오승근, 2006; Brent et al., 1997; Bridge, Goldstein & Brent, 2006).

모방자살 등과 같이 자살전염성에 따른 자살은 대부분 청소년과 초기성인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Grossman과 동료들(1995), 그리고 Poland와 McCormick(1999)에 의하면 주변에서 자살을 직접 접하거나 자살 관련 방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에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친구의 죽음은 청소년의 우울증 발생 증가와 관련되고,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며(Brent et al., 1993), 친구가 자살한 경우 자살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Bjarnason & Thorlindsson, 1994; Blum et al., 1992; Buddelberg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1; Harkavy et al., 1987; Kinkel, Bailey & Josef, 1989; Rubenstein et al., 1989). 또한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4,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주변 사람이 자살했다고 응답한 경우(384명) 자살을 시도해봤다는 응답이 28.6%로,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없는 경우(9.4%)보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주변인의 자살이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살생존자에 해당되는데, 자살생존자는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며 자살 사망에 따른 상실의 애도과정과 기능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Baume, 1992; Beautrais, 2004; Maine Children's Cabinet, 2004;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자살생존자의 애도과정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때문에 애도를 겪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지승희 외, 2008 재인용). 청소년 자살생존자들은 성인 자살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애도반응을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데, Brent 외(1993)에 따르면 모방자살의 위험이 자살 발생 후 3주 내에서 가장 높고, 사전에 정신증적 취약성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삶의 사건을 겪고 있을 때 자살위험을 높아진다고 하였다(Grossman et al., 1995). 즉 가까운 혹은 의미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고, 사전 취약성이 있을 경우 자살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학교와 연관지어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봐야 한다. 십대청소년들이 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공간인 학교에 있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고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구성원의 갑작스런 죽음은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도 같이 충격적으로 경험되고 (Pitcher & Poland, 1992), 특히 동년배인 학생의 죽음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친구가 자살한 청소년은 자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Bjarnason & Thorlindsson, 1994; Blum et al., 1992; Buddeberg et al., 1996; Grossman et al., 1991; Harkavy-Friedman et al., 1987; Kinkel et al., 1989; Manson et al., 1989; Rubenstein et al.,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자살을 직접 다루기보다 숨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사회의 특성 상 자살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며 억측과 소문이 합쳐져 혼란되고 충격적인 분위기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Parrich & Tunkle, 2005). 이와 같이 자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영향을 간과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자살의 영향과 학교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학생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자살 사후개입은 매우 필요하다(문화일보, 2010; Leenaars & Wenckstern, 1998).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에 수반되는 상실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돕고, 자살 위험군 (suicide cluster)의 추가적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를 기반한 사후개입 방안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Grossman et al., 1995; Poland & McCormick, 1999 등). 또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Clark, 2001; Kovac & Range, 2000; Murphy, 2000; Murphy et al., 1998).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 ~ 2013)

이 마련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살 발생 이후 개입방안과 관련해서 10대 정책과제 중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과 세부 시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기관 혹은 민간 기관에서 자살생존자에 대한 개입으로 유가족 자조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라 그 활동이 미비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체계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사후개입 방안은 전무하다. 국내 자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생각 관련 영향 요인이나 자살 원인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에 치우쳐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살생존자 관련 연구는 대부분 자살 시도 후 살아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뿐이며(김현경, 2010; 박지영, 2007; 안성태 외, 1997), 학교 관련 자살 사후개입에 관한 연구는 이승연의 연구(2007)가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자살증가율 1위로 자살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자살에 따른 자살생존자의 발생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을 간과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자살전염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은 특히 그러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가족이나 친구, 소속 학급에 대한 심리적 중재가 매우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청소년 자살예방프로그램, 자살위기청소년 개입모형을 개발하면서 청소년자살 사후개입에 대해서는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에 대한 기초조사가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수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구조화된 상담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0년에는 이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이 발생했을 때 주변 청소년들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 교사, 교내 관련 전문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청소년상담사 등)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구체화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과제

청소년 자살이 발생했을 때, 주변 청소년들이 자살로 받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자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살의 실태 및 특성

가. 청소년 자살의 실태

국내 자살은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4위(표 1. 참조)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 사망률(2008년 발표, 인구 십만명당 11.0명)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치(2008년 기준, 통계청 자료, 26.0명)를 나타내고 있어 자살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2010, 표 2. 참조). 2009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당 31.0명에 이르며 만 5세 이상 인구 자살사망자 수가 15,413명으로 전년대비 2,555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1일 평균 42.2명(34분에 1명)이 자살하는 형국으로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10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통계청, 2010). 성별 자살사망자수를 보면 남성이 십만 명 당 39.9명, 여성이 22.1명으로 남성의 자살사망율이 여성보다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1.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순위 (통계청, 2009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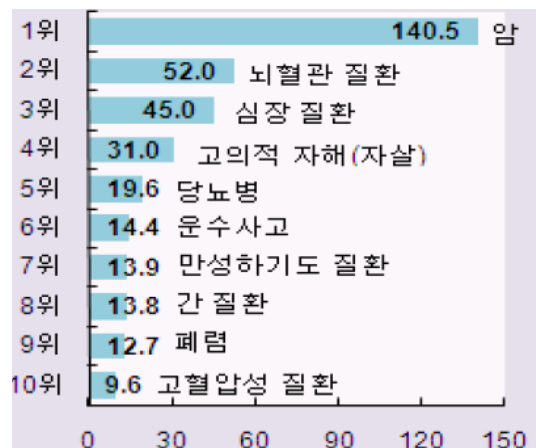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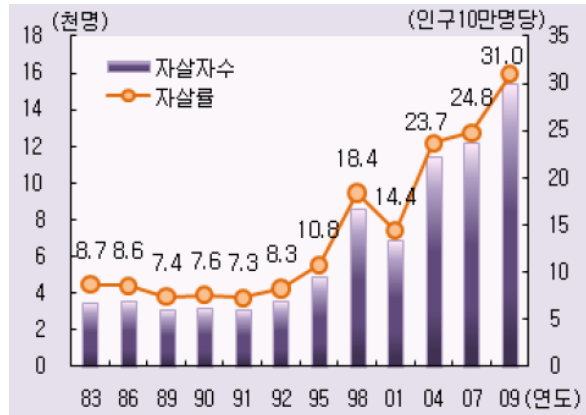


표 2.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1983-2009(통계청, 2010)



그 중에서도 십대청소년들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사망원인 중 사고에 뒤이어 2위를 차지해왔던 자살이 2009년에는 청소년 자살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섰고(표 3. 참조), 자살사망률은 십만명 당 29.5명으로 전년도 22.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2001년 5.3%에서 2009년 10.7%로 크게 상승하였고 전 연령층에 비추어볼 때 10대 청소년의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표 4. 참조).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2009년 학생 자살 현황'에서도 2009년 중·고등학생의 자살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문화일보, 2010), 국내 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는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으로, 지난해는 2008년보다 47%가 증가한 202명이 자살하는 등 최근 십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살사망에 대한 이러한 통계치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사과나 행동에 대해 조사한 설문 연구 결과들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도권 중·고등학생 1,2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학생의 13%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답하였다(메디컬투데이, 2009). 13세~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08)에서는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3.7%이었으며, 그 중 여학생은 28.9%로 남학생보다 1.5배 높았다. 일년 동안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은 4.7%이며, 남학생은 3.7%, 여학생은 5.9%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5.2%)은 고

등학생(4.2%)보다도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은 훨씬 더 어린 연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09)

(단위 : %, 십만명당)

연령	1위			2위			3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운수사고	17.5	3.0	악성신생물(암)	16.1	2.8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7.1	1.2
10-19세	고의적 자해(자살)	29.5	6.5	운수사고	19.7	4.4	악성신생물(암)	13.5	3.0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44.6	25.4	운수사고	17.3	9.8	악성신생물(암)	9.3	5.3
30-39세	고의적 자해(자살)	34.1	31.4	악성신생물(암)	19.2	17.6	운수사고	8.8	8.1
40-49세	악성신생물(암)	28.8	59.5	고의적 자해(자살)	15.9	32.8	간 질환	8.9	18.4
50-59세	악성신생물(암)	38.6	167.0	고의적 자해(자살)	9.5	41.1	심장 질환	7.4	32.2
60-69세	악성신생물(암)	42.5	425.5	뇌혈관 질환	9.7	97.1	심장 질환	8.1	81.1
70-79세	악성신생물(암)	33.5	927.4	뇌혈관 질환	13.2	365.0	심장 질환	9.6	265.1
80세이상	악성신생물(암)	15.7	1478.1	뇌혈관 질환	12.5	1176.2	심장 질환	11.2	1048.0

표 4. 연령별 자살률 추이 (1999-2009)

(단위 : %)

연령	1999	2008	2009	08년 대비증감률
계	15.0	26.0	31.0	19.3
10-19	5.1	4.6	6.5	40.7
20-29	13.1	22.6	25.4	12.2
30-39	17.3	24.7	31.4	26.9
40-49	21.3	28.4	32.8	15.5
50-59	23.2	32.9	41.1	24.9
60-69	28.9	47.2	51.8	9.7
70-79	38.8	72.0	79.0	9.7
80세 이상	47.3	112.9	127.7	13.1

한편,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청의 '04~'06년 자살사건기록 31,771건을 분석한 결과(보건복지가족부, 2008), 자살의 이유는 육체적 질병(25.3%), 정신과적 문제(14.9%), 가정문제(9.5%)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연령대별로 자살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십대 청소년들은 학교문제(11.7%), 부모와의 갈등(7.0%), 우울증(6.0%)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 자살에 육체적·정신과적 질병보다는 가족 및 또래관계 혹은 학업문제가 더 주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6. 참조).

표 5. 국제손상외인 대분류에 따른 자살 이유 (단위 : 명(%))

분 류	남	여	불명	계
가 정 문 제	1,983 (9.2%)	1,022 (10.1%)	10 (4.7%)	3,015 (9.5%)
남 녀 문 제	731 (3.4%)	469 (4.6%)	3 (1.4%)	1,203 (3.8%)
육 체 적 질 병	5,210 (24.3%)	2,827 (28.0%)	16 (7.6%)	8,053 (25.3%)
정 신 (과) 적	2,510 (11.7%)	2,209 (21.9%)	18 (8.5%)	4,739 (14.9%)
경 제 생 활	2,248 (10.5%)	572 (5.7%)	11 (5.2%)	2,831 (8.9%)
직 업 / 업 무	1,073 (5.0%)	122 (1.2%)	2 (0.9%)	1,197 (3.8%)
사 별 문 제	151 (0.7%)	99 (1.0%)	-	250 (0.8%)
학 대 / 폭 력	3 (0.0%)	4 (0.0%)	-	7 (0.0%)
기 타	4,986 (23.2%)	1,782 (17.6%)	136 (64.5%)	6,904 (21.7%)
미 상	2,557 (11.9%)	1,002 (9.9%)	15 (7.1%)	3,574 (11.2%)
계	21,452 (100%)	10,108 (100%)	211 (100%)	31,771 (100%)

보건복지가족부(2008)<http://www.mw.go.kr>/통계자료 참조

청소년은 동반자살, 모방자살과 같은 자살전염성 문제에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과 저명인사의 잇단 자살 소식과 자살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충동적 행동에 대한 무언의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심리로 인해 연속 자살이 이어질 수 있다(박상칠, 조용범, 1998). 2000년 영화배우 故 이은주씨 자살사망 전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지역 자살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일일 평균 0.84명에서 2.13명으로 2.5배 증가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9년 4월에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24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14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들 상당수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9). 2010년 8월에는 왕따를 당한 여고생 2

명이 함께 투신자살 사건이 있는 후 보름여 만에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이 동반하여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조선일보, 2010).

이와 같은 청소년 자살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유명연예인과 저명인사의 잇단 자살에 대한 언론 매체의 집중 보도, 사회적으로 자살이 주목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살 전염에 취약한 청소년 층의 자살 증가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겠다.

표 6. 국제손상외인 세부 분류에 따른 연령대별 자살 이유

(단위 : %)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	학교문제 (11.7)	우울증 (10.9)	우울증 (11.2)	육체적 질병 (10.9)	육체적 질병 (18.8)	육체적 질병 (34.4)
2	부모와의 갈등 (7.0)	이성교제 (4.2)	부채 (7.5)	우울증 (8.9)	우울증 (8.9)	우울증 (9.1)
3	우울증 (6.0)	배우자와의 갈등 (3.6)	배우자와의 갈등 (7.3)	배우자와의 갈등 (8.7)	부채 (7.0)	배우자와의 갈등 (5.0)

보건복지가족부(2008)<http://www.mw.go.kr>/통계자료 참조

나. 청소년 자살의 특징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함께 또래들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에 필요한 사회 기술들을 학습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개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분리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은 인지적, 행동적 대처 전략이나 정서적 자기조절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개인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맥락은 청소년 집단의 자살을 다른 연령대의 자살과는 차별화시키는 몇몇 특징에 기여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보인 자살시도의 대다수가 사전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Brent et al., 1987; Range, 1993).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성취해야 할 과업이 많아진데 비해 아직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 조절능력 또한 부족하므로 한 순간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다시 말해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에 비해 충동성이 높다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며 언제라도 행동화될 가능성이 크다(유성경, 2002).

둘째, 청소년 자살은 성인들과 달리 정신질환과 같은 개인적 취약성보다는 스트레스에 따른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선행연구들의 주된 입장을 이룬다. 예를 들어 평소 잘 기능하는 청소년이라도 대인관계의 갈등 증가, 갑작스런 성적 하락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환경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좌절, 분노, 짜증, 불안 등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위기감 수준에 따라 자살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신민섭 외, 1991; 양소영, 1998; 오승근, 2006; 이경진, 조성호, 2004; Peck, 1985; Petrie & Chamberlam, 1983; Shneidman, 1987).

셋째, 청소년의 자살은 죽겠다는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살은 성인기로 갈수록 자살사망율이 점점 증가되지만 자살 행동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로서(고두훈, 2008; 박상철, 조용범, 1998; 신민섭 외, 1991; Fremouw, Perczel & Ellis, 1990; Kleck, 1988),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살시도자 수와 자살자 비율은 약 100 대 1정도로 보고된다(육성필, 2002 재인용). 이러한 자살 행동은 덮에 갇힌 동물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혀 대처할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울음(cry for pain)으로서(Williams, 2001), 발달된 대처능력이나 충분한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대처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기의 '개인적 우화'와 같은 자아중심성이 증가되면서, 자신은 자살을 시도하여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성(invulnerability)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청소년기에 자살시도가 특히 많은 이유를 설명해준다(오승근, 2006).

다섯째, Allen(1987)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죽음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살을 보다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부활에 대한 환타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환타지 소설류나 인터넷게임 등의 영향은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강화한다(오승근, 2006). 이와 같은 특성들은 청소년들이 현실세계에서 강한 압력을 받을 때 죽음을 일종의 도피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하며, 자살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존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평상시 유대관계를 깊게 갖고 있었던 대상, 또래와 동반자살을 시도한다는 특징이 있다(남민, 1997).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내적 자살동기보다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성인들보다 더 많다(오승근, 2006). 또한 최근의 사회적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방송보도, 인터넷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청소년의 자살전염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교현, 2004; 김연중, 2005; 김인숙, 2009).

2. 자살의 영향에 대한 이해

가. 자살 생존자의 경험

자살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혹은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되어 삶이 변화되는 사람을 자살생존자라고 한다(Andriessen, 2009). 자살생존자의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자살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을 비롯한 친족들, 친구들, 학교 및 직장 동료 혹은 아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살 과정에 개입된 병원 관계자나 최초 발견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살은 자살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 사체의 발견 등'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잠재적인 자살생존자에 해당할 수 있다(지승희, 2008 재인용).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가까운 사람의 사망을 경험하는데 그에 따른 애도과정은 비교적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다(지승희 등, 2008 재인용). 미국의 Reverend Howard Gorle 애도 교육 및 상담센터(The Reverend Howard Gorle of the Bereavement Education and Counseling Center)에서 개발한 애도모델(TEAR)에 따르면(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애도는 죽음(상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To accept the reality of the loss),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Experience the pain of the loss), 상실 대상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Adjust to the new environment without the lost object),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것(Reinvest in the new reality)으로 바라보았다.

자살 생존자들의 애도과정은 다른 어떤 형태의 죽음보다 강렬하고 복잡한 경향을 보인다. 자살의 의미 찾기에 대한 매우 강한 욕구, 높은 수준의 죄책감, 비난, 책임

감, 거부와 자포자기, 강한 낙인과 고립감,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의 손상, 그리고 자살 시도의 증가 등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죽음과 구별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이다 (Baume, 1992; Beautrais, 2004; Maine Children's Cabinet, 2004;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살생존자들의 상실 관련 반응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죽음 형태에 따른 생존자들이 겪게 되는 애도반응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애도반응은 가까운 사람을 갑자기 잃은 결과에 따른 신체화 증상, 무망감, 분노, 죄책감, 사회적 지지의 상실, 그리고 자해 및 자살 시도와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 포함된다(Barrett & Scott, 1990). 그러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 자살 방법에 대한 놀라움 등 자살의 본질이 주는 충격에 의해 자살생존자의 애도반응은 한층 더 강렬하고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Baume, 1992).

둘째, 자살생존자들은 상실의 의미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한다(Main Children's Cabinet, 2004). 그들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계속해서 '왜'를 질문하게 되고,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질문은 계속된다. 자살생존자들은 사랑했던 사람의 물리적 존재의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자살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탐색한다.

셋째, 사망의 형태가 자살이라는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반응이 포함된다. 많은 사회에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금기시하며 자살자 뿐 아니라 자살자 유족을 처벌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Colt, 1987).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자살생존자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생존자들은 사랑했던 사람의 자살 결정에 자신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경험한다(Alexander, 1991; Carlson, 1999; Colt, 1987; Cvinar, 2005; Davis & Hinger, 2005; Doka, 2002; Fielden, 2003; Fine, 1997). Leenaars와 Wenckstern(1998)에 의하면 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생존자에게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낙인을 주는 죽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단순하지 않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자살로 인한 애도과정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죽음에 수반되는 애도과정보다 더 느린 회복기를 가지면서 길게 이루어진다(Beautrais, 2004). 자살생존자들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특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른 종류의 죽음, 즉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애도를 경험한 사람들도

다 자살의 복잡한 여파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 애도과정은 평균적인 애도 기간보다 3~5배 더 길게 걸린다고 한다(Main Children's Cabinet, 2004).

자살생존자들의 일상적 적응은 심각하게 방해받게 되는데, 보통 자살로 인한 상실 초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적 손상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Beautrais, 2004).

첫째, 인지적 혼란을 경험한다. 인지적 혼란은 사별 후 처음 몇 달 동안 상실 자체에 대한 몰입, 상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둘째, 정서적 고통 혹은 정신 불안을 경험한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고통에는 슬픔, 화, 짜증,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죽은 사람에 대한 동경 혹은 한탄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자살생존자들은 몇 달 안에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극복하지만, 일부는 극심하거나 만성적인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셋째, 사별 초기 몇 달 동안 신체적 고통을 겪는다. 신체적 고통은 두근거림, 짧은 호흡, 불면, 식욕부진, 소화불량, 면역체계의 단기적 손상, 호르몬의 변화와 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등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넷째,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역할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업무나 가족역할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기능적 손상은 자살생존자가 겪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들로서, 자살자와 생존자 간의 이전 관계적 특성이나 주검 목격 여부 등에 따라 기능 손상의 심각성이나 회복기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Beautrais, 2004). 특히, 자살생존자가 자살을 직접 목격하였을 경우 외상적 위기반응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애도과정은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자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전염 효과

자살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의 자살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위에 언급한 복잡한 애도반응과 여러 독특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Brent와 그 동료들(1993)이 실시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보인다(Grossman et al., 1995). 첫째, 자살 후 모방자살의 위험성은 3주 내에서 가장 높다. 둘째, 친구

의 자살을 목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불안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셋째, 통제 집단과 비교할 때 우울증 발병이 증가하며 증상의 오랜 지속기간을 보인다. 넷째, 또래의 자살에 노출된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요인에는 이미 존재하는 정신증적 취약성, 정신장애의 가족력,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는 삶의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들 중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살 전염성은 전문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살의 전염성은 자살에 뒤따라 발생하는 추가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사망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직(주변인의 사망)·간접(언론보도 등)적인 자살에 대한 노출이 자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Stack(2000; 2003)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보도 후 모방자살이 14.3배 높아지며, 영화나 TV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는 실제인물이 자살했다는 사실기사가 더 영향력이 높고,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는 신문이 TV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자살보도를 다루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을수록 파급효과가 커진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후속 자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재인용).

신문기사(Ishii, 1991; Jonas, 1992; Stack, 1991; Wasserman, 1984), TV보도(Bollen & Phillips, 1982; Phillips & Carstensen, 1986; Stack, 1993), 그리고 소설(Gould & Shaffer, 1986; Hawton et al., 1999) 등 대중매체의 보도양식이 청소년의 자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자살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흥미위주의 추측성 보도,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보도, 연예인 자살의 뉴스 상품화 등 선정적인 보도 형태는 자살 전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국내 언론의 자살기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신문은 72%, 방송은 80.6%가 이처럼 부적절하게 자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자협회보, 2008). Phillips와 Carstensen(1986)은 유명인의 자살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된 후 2~3주 동안 청소년의 자살이 7~10%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Shaffer(1988)는 대중매체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보도하거나 청소년의 자살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 방영 후 1~2주 동안에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였다. 2005년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직후 청년층의 모방자살의 급작스런 증가가 보고되었고(기자협회보, 2008), 2009년 상반기의 동반자살자 중 상당수가 10~20대로 나타나(조선일보) 예외 없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

등 전염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자살의 영향

자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룰 때 고려해야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학교 맥락이다. 대부분 학교시스템 상 발생한 자살에 대해 숨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승연, 2007), 이는 자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오해(Poland & McCormick, 1999)와 자살사망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Leenaars & Wenckstern, 1998)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 자살의 영향 요인에 관련된 연구는 많았으나 막상 자살 이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자살은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 영향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Parrish & Tunkle, 2005).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살은 청소년의 자살 전염 취약성과 함께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결국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록 자살의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십대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오랜 시간 다양한 장면에서 또래, 교사, 교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예기치 못한 자살 사망은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도 같이 충격적으로 경험되며(Pitcher & Poland, 1992), 학교 구성원들 간의 결속감이 강할수록 자살의 외상적 영향력은 더 강할 수 있다(Pitcher & Poland, 1992). Parrich와 Tunkle(2005)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자살로 사망했는데도 이를 감추거나, 사망의 원인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거짓 발표를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학교 내 자살에 영향받은 구성원들의 고통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차후 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관리자나 교사가 자살을 아무리 숨기려하여도 자살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며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소문이 합쳐져서 어수선하고 충격적인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래나 교사처럼 자신과 유사하며 잘 아는 사람의 죽음은 학교의 다른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살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결과들도 이러한 개입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Bjarnason & Thorlindsson, 1994; Blum et al., 1992; Buddeberg et al., 1996; Grossman & Milligan, 1991; Harkavy-Friedman et al., 1987; Kinkel et al., 1989; Manson et al., 1989; Rubenstein et al., 1989).

학교 구성원이 자살한 후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각을 많이 하며 작은 일에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더 많이 보이고, 이전에 존재하던 학업 문제들과 학업성취의 실패는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zell, 1991; Jimerson, Brock & Pletcher, 2005). 게다가 청소년 자살생존자들의 약물이나 비행, 자살시도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Pitcher & Poland, 1992).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적 변화는 개인 내적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기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스템 내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문제 또한 초래한다.

학교 장면에서 또래 학생이나 교사의 자살은 청소년 자살생존자들에게서 위와 같은 여러 행동적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죽음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naars et al., 2001). 즉, 반복된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문제해결방법이나 대처전략을 갖지 못하여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충동적인 청소년일수록 자살 행동 후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또래 학생이나 교사의 자살 사망 후 고인에게 주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주위와 관심에 크게 매료되어 이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naars et al., 2001). 즉, 학교 장면에서 구성원의 자살 후 주어지는 부적절한 관심과 대처는 학교 구성원의 자살의 위험을 높이고, 특히 충동적인 일부 학생들에게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지하고 정당화하며, 학교 사회 내 의사소통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Parrich & Tunkle, 2005).

이처럼 학교 구성원의 자살 후 주변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전형적인 자살생존자로서의 경험과 자살전염성에 대한 취약성, 학교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후개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Leenaars & Wenckstern, 1998; 이승연 2007 재인용).

4. 학교 중심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자살 사후개입(postvention)에 대해 가장 처음 정의한 사람은 Shneidman으로 그는 사후개입을 ‘자살 발생 이후에 제공하는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행동(Shneidman, 1969)’이라고 하였다. Shneidman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할 때 ‘자살’을 자살 시도와 자살 사망을 모두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자살 사후개입’은 ‘자살 사망 후 개입’만을 의미하며 자살 시도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자살시도 후 개입(postattempt care)과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Andriessen, 2009),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과 주변인에게는 자살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위기개입’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자살 사후개입은 “자살 이후의 회복을 돕고 자살행동을 포함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생존자에 의해, 자살생존자와 함께, 자살생존자를 위해 개발된 활동들”로 이해될 수 있다(Andriessen, 2009).

학교장면에서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첫째는 자살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외상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들이 애도하는 과정 동안 심리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을 줄이며, 둘째, 자살의 모방과 전염을 막고, 셋째, 자살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어 미리 예방하고 개입하며, 넷째, 교육과 학습이라는 학교사회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Callahan, 1996; Leenaars et al., 2001; Streufert, 2004). 자살은 자살사망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라는 응집력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죽음은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혼란과 정신적 고통, 자살 전염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 사후개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자살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시스템의 정상화 과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의 자살 사후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에게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보다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모, 교사, 정신건강전문가 등 관련된 인력과 자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사후개입의 가장 이상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이승연, 2007; Mauk &

Weber, 1991). 게다가 교사가 학생들과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생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인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된 전체적 예방 및 개입서비스의 효과가 어떠한지 추후 모니터링 역시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안양시청소년상담센터에서 고등학생 575명, 교사 455명을 대상으로 자살 사후개입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나 학생들이 사후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전문적 상담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 없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자살의 전염성이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Callahan, 1996).

현재 자살 사후개입이 실제로 수행되는 외국의 경우에도 교사들이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살피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간주하지만 자살의 위험요소나 단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거나, 자살 발생 이후 다른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Mulder, Methorst & Diekstra, 1989; Hamrick et al., 2004; Scouller & Smith, 2002). 또한 학교상담자나 학교심리학자들 역시 위기개입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일하고 있는 학교들이 위기개입을 실시할 시스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및 사후개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King, 2000; Nickerson & Zhe, 2004).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자살과 관련된 행동특징을 판단하는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교사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일반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살위험 학생의 식별에 대한 자신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연, 2007).

더구나 자살이 발생할 경우 학교 관리자나 교사 뿐 아니라 교내 상담자조차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로, 위기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사후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입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심리적 경험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이승연, 2007) 더 나아가 교내외 사후개입 인력의 사전 준비도를 높이는 것 또한 사후개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충실히 고려된 자살 사후개입 프로토콜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사후개입에 관여하는 인력들을 사전에 준비시킬 수 있는 훈련 모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접근

청소년 자살 이후 주변 생존자들이 겪게 되는 충격과 혼동, 정서적 고통과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외국의 경우 학교 장면에서 자살 발생 후, 자살생존자들이 자살 사건 후의 개인적 반응과 어려움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거의 즉각적으로 위기대응팀을 활용하여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자살위험군을 스크리닝하여 필요한 자원으로 연결시키는 체계적인 자살 사후개입 접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Grossman et al., 1995; Poland & McCormick, 1999). 특히 미국에서는 주 별로 개입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수차례의 개정판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여러 미국모델을 필두로(Clark, 2001; Kovac & Range, 2000; Murphy, 2000; Murphy et al., 1998) 호주, 뉴질랜드의 대표적 사후개입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 해당되는 홍콩이나 일본의 자살 사후개입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볼 것이다.

가. 미국 모델

(1) 미국 Maine주 청소년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의 지침

(Maine Youth 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 Postvention Guideline - A Resource for School Personnel)

Maine주 청소년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 지침은 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개발되었다(2002). Maine주의 학교 관리 연합(School Management Association), 학교장연합, 법무관, 그리고 학교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책임자들에 의해 여러 연구들이 검토되어 지침이 개발되었다.

이 지침은 학생 및 학교 관계자 모두 자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자살과 관련된 위기를 중재하기 위해 자살 예방, 중재, 사후개입의 계획에 있어 학교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Maine주 청소년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은 사후개입 계획에 필요한 요소와 사후개입의 절차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침의 내용 중 사후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후개입의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 사전 계획(advanced planning)의 수립이다. 사후개입의 계획은 학생들과 교사들, 직원, 부모의 애도를 지지하고, 학생의 감정 표현의 기회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살 모방을 예방하고, 학교를 일상으로 되돌리기와 같은 네 개의 목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의 위기관리 서비스와 함께 고안되었다.

둘째, 명확한 메시지(clear messages)의 소통을 강조한다. 명확한 메시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성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자살로 사망한 학생이 미화되거나 선정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살을 감추지 않고 사실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개입 인력의 자기돌봄(self-care)을 강조한다. 이는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을 다루는 직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돌보기 위한 에너지는 거의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조력하기 위해 능숙하고 유능한 외부 기관의 협력을 얻도록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의 심리적 경험보고(debriefing)를 강조한다. 이것은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때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학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3~5일 정도의 집중적인 심리적 경험보고 작업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기는 다음에 다가올 위기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위기대응팀은 사건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경험보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팀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기와 같은 사항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본 모델에서는 사후개입 절차에 대해 학교 사후개입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별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장 또는 그 밖의 지명된 사람, 위기대응팀의 책임 및 역할, 그리고 자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Maine주 청소년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 지침 중 사후개입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Maine주의 청소년 자살 예방, 개입,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내용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1) 교장 또는 지정된 사람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위기대응팀 소집 ■ 사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형제자매의 학교를 확인하여 공지 ■ 비상연락망을 통해 교직원에게 학생의 자살소식 공지 ■ 교직원 대상 정서적인 지지 제공, 다음 단계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일정 계획 ■ 학부모 대상 죽음과 장례 준비에 관한 정보 제공 ■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출석 관리 시스템 강화 ■ 인터뷰 관련 대변인 지정 및 사후개입 중심의 인터뷰 ■ 사전에 협의된 절차에 근거하여 자살한 학생의 사물함을 비우고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유품 전달
(2) 자살 위기대응 팀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잠재적인 자살의 모방을 줄이기 위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연락 : 자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교직원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자살소식 전달계획 확립, 학생 반응에 대한 대응 준비 - 교직원들의 심리적 경험보고 시간 마련 - 교직원과 학생, 부모 지원 절차 안내 : 애도상담, 심리적 경험보고 등 - 학생들의 하교 과정 관찰 및 출석 확인 - 자살의 모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학생 관찰 및 확인방법 안내 - 교직원의 언론 인터뷰 및 소문 유포 제한 안내, 대변인 소개 및 질문사항 전달 - 관련 기관 및 자원 소개 - 학생들의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 다루는 방법 안내 • 지역의 정신건강기관, 다른 학교 상담자, 성직자에게 도움 요청 • 학생 대상 자살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직접적으로 과장하거나 추측없이 전달 - 교내방송이나 집회를 통해 전달하지 않음 -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께 정보를 전달받고 토의시간 가짐 • 학부모 대상 자살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빨리 서신을 통해 자살 소식을 알림 - 서신 내용 :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방법,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한 자원 과 정보 제공 •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대상 장례식 관련 정보 전달 • 자살 위험 학생 대상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른 개입 - 학년의 변화, 졸업, 기일 등은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므로 유의 - 학생 및 가족 대상 사후개입은 필요한 만큼 지속 적용 - 자살사망자가 가입했던 또래그룹, 동아리 등의 학생들 역시 애도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두고 관찰할 것 • 사후개입활동의 문서화

표 7. Maine주의 청소년 자살 예방, 개입,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내용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3) 자살의 영향에 대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학사일정 유지 • 자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 대상 세심한 개입 • 자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학생들 역시 관심을 두고 관찰 •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 참여토록 관리 • 학생, 부모, 교사 대상 학교의 사후개입과정 안내 ■ 애도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혹은 집단 형태의 애도상담 제공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상담을 통해 감정이 표출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고, 애도를 통해 상실을 다루는 방법을 습득할 기회 제공 • 유의사항 : 자살에 대한 지나친 관심 표현의 기회는 취약한 학생들에게 자살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장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부모의 허락 하에 장례식 참여 • 장례식 참여는 방과 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 • 유의사항 : 학교를 장례식의 장소로 쓰지 않음(어떤 학생들의 경우 장례식이 거행된 공간을 영원히 죽음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 ■ 추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에 도움되는 방법 선택(예, 유족들을 위한 기금, 자선활동 혹은 자살예방 노력, 가족들이 추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차원의 노력 지원) • 학교 안에서 추모행사를 하거나 조기 달기, 대규모의 학생집회, 큰 액자나 장식판, 영구적인 마크 등 자살을 미화하는 방법은 피함 • 죽음을 미화하고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음 : 다른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자살이 고통을 끝내는 좋은 방법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적절하고 일관적인 헌정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신문, 졸업앨범에 죽은 학생을 위한 헌정 공간 마련 •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량의 공간 할당(사진, 이름, 출생일과 사망일, 개인이 했던 일 등 포함) ■ 졸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기념일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졸업과 수여식) • 모두 학생들에게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수립

(2) 미국 New Hampshire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 프로젝트의 사후개입 지침
(FRAMEWORKS YOUTH SUICIDE PREVENTION PROJECT POSTVENTION
- Community Response to Suicide)

미국 New Hampshire주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 프로젝트(The Frameworks Youth Suicide Prevention Project)는 미국의 자살예방협회(The Suicide Prevention Partnership), The Irving and Barbara C. Gutin 복지재단(The Irving and Barbara C. Gutin Charitable Foundation), New Hampshire의 국가정신질병연합(NAMI NH;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Chapter)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2006).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 프로젝트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한 다중 체계의 상호 협력적 접근의 필요성을 전제로 법관, 경찰, 정신 건강 또는 약물치료 제공자, 교육 및 복지기관 등 전문영역별로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생태학적인 접근이 사용되었는데 자살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이지만, 가까운 관계, 지역사회, 넓은 범위의 사회, 그리고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개인의 자살은 가족, 친구들,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Frameworks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중체계의 효과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소방관과 같은 첫번째 반응자, 검시관, gatekeeper, 가족, 학생·청소년, 성직자, 장의사, 정신건강관련전문가, 교사, 사회서비스기관 등 각 영역별로 자살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별로 실행 계획을 훈련 모듈(module)로 변환하였는데 이중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 모듈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New Hampshire주의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프로젝트의 사후개입 내용

사후개입 지침	
학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과정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다른 방법으로 슬퍼하고 있음을 주지할 것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음 •애도과정이 몇 주나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이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도움과 지지 받아들이기 •적응하기 힘들 때 도움 요청 •주변에 자살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는지(예를 들어 죽은 학생의 형제) 관심을 가질 것 •다음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지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위험 행동의 증가 2)자해 3)고립 4)물질 사용 증가 5)죽음에 몰두 •자살과 관련된 표현들(농담으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을 포함해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와주기 •자신이 자해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도움 청하기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면 도움 제공하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은, 좋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언급 없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함 •기념일, 명절, 생일과 같은 날은 고인이 특히 그립고, 생각이 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 ■ 자기관리(self-care skill) : 자살생존자, 도움제공자 모두의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적절한 음식과 영양을 유지할 것 •충분한 물을 마실 것 •운동을 할 것 •이완법을 사용할 것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것 •도움을 요청할 것 •알코올, 카페인 다른 물질 사용을 피할 것 ■ 자살생존자 조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도과정 동안 주의 깊게 비판단적으로 경청하고 도움 제공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그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표현의 강도를 받아들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 •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거야” 또는 “난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어”와 같은 진부하고 식상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함 •자살생존자에게 기념일이나 생일, 명절과 같이 중요한 날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함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 •위험요인들이 있는지 관심을 둘 것 •자살생존자가 자살생존자 집단이나 다른 애도집단에 관심이 있다면 연결할 것 ■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사항 : “성공적인”(또는 성공하지 못한 시도)과 같은 단어들은 자살행동을 긍정적으로 암시하는 위험이 있음 •바람직한 표현 : 자신의 생명을 앗아갔다, 자살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의 손에 의해 죽었다 등

표 8. New Hampshire주의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프로젝트의 사후개입 내용

사후개입 지침	
학교/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에서 자살의 발견 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공식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가 필요함 - 시체를 옮기거나 다른 증거들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함 - 구경꾼이나 학생들의 접근을 막을 것 - 자살을 발견하고 목격한 모든 학생과 직원의 이름을 기록할 것 - 목격자 격리 및 도움 제공(신속하게 심리적 경험 보고 제공, 목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음) •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 자살 발생시 가족 혹은 친척에게 공지할 법적 의무 - 형제자매가 있는 학교를 확인하여 자살소식 전달 • 학교 대표자가 경찰과 함께 가족에게 소식 전달 ■ 학교 기반 위기대응팀 소집, 학교 게시판 관리자에게 소식 전달 ■ 가족과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장례와 관련된 정보 제공 • 자살 소식 공개 관련 협의 : 가족들이 이 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워 할 수 있음. 이러한 가족의 뜻은 존중하되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살 전염을 막고, 지역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의 자살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공개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성직자나 장의사를 연계하는 것이 유용함 ■ 지역사회기관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찰서, 정신건강센터, 종교단체, 청소년 보호센터나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다른 사회 서비스 기관에 공지하여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도움 제공 •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위기중재인, 지역정신건강센터 전문가를 요청하여 도움과 상담 제공 ■ 학생 및 직원 대상 자살소식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나 자매에게 가장 먼저 알림 • 학생 대상 자살소식 전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단위로, 동시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람(담임교사)가 공지하고 논의시간 가짐 - 자살 사망자와 친했던 학생들을 모아 동시에 공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 대규모 집회 형태로 자살, 자살시도 소식 전달하지 않음 - 학교 직전에 공지하지 않음 -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되 지나치게 자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음 - 공지 후에는 학생들이 부모 허가나 성인의 동행 없이 학교를 이탈하지 못하게 함 • 학생 및 직원에게 상담 및 도움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위기대응팀(애도상담, 심리적 경험보고) 활용, 지역 정신건강기관 의뢰

표 8. New Hampshire주의 Frameworks 청소년자살 예방프로젝트의 사후개입 내용

사후개입 지침	
학교/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폐쇄하지 않음 • 위기상황에서 학생 및 직원들은 구조적, 지지적, 반복적, 일상적인 학교 환경에 있는 것이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됨 ■ 학부모 대상 자살소식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나 서신을 통해 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 자살위험 및 경고사인 안내 -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주는 방법 안내, 자녀와 관련된 염려사항이 있을 때 학교에 연락하는 방법 제공, 학교의 대처방법 소개 - 고인의 가족, 직원,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 안내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례 관련 정보 제공 ■ 자살 위험에 처해있거나 취약한 학생 확인 후 관찰 계획 수립

(3) 미국 San Diego주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지침
(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Postvention)

미국 San Diego주의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Postvention)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살예방전문가들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개입방안 목록을 선별하게 한 후 이러한 개입방안들을 크게 8개의 자살예방 전략 [학교 지킴이 훈련(School Gatekeeper Training), 지역사회 지킴이 훈련(Community Gatekeeper Training), 자살 교육(General Suicide Education), 선별프로그램(Screening Programs), 또래지지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s), 위기센터와 긴급전화(Crisis Centers and Hotlines), 치명적 도구 접근 제한(Restriction of Access to Lethal Means), 자살 사후개입(Intervention After a Suicide)]으로 범주화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전문가 그룹이 개입방안들의 사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그중 자살 사후개입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를 위한 지침으로 학교 책임자,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Maine 주 청소년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이 인용되었다.

다음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 이후에 겪게 되는 애도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살 이후 사후개입 지침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교사와 상담교사를 위한 제안과 학교 책임자가 자살이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루고 있다.

본 사후개입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 가지 전략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을 현 개입방안에 통합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후개입의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미국 San Diego주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지침 내용

사후개입 지침	
대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직후 - 자살 발생 다음날 ■ 단기 - 2~7일 또는 10일 ■ 장기 - 정해지지 않은 기간으로 해결의 기간
학교장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회의 소집 : 자살 발생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소집 ■ 교직원 대상 소식 공지 : 필요한 정보 및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 제공,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소식을 알리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 위기대응팀 소집 : 사후개입전략에 대한 논의, 교직원 ■ 학생 대상 자살 소식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일과 시작 시간에 공지 • 학생들이 반응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달 • 온갖 소문과 추측, 자살이 미화되거나 낭만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전달 ■ 학교의 정규적 수업 활동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경험하는 반응과 감정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평소와 같이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간 연기 가능 ■ 학교 내 Safe room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상담 전문가를 요청하여 배치 • 학교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학부모를 위한 상담자 배치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관해 학생들과 대화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자살자와 친밀했던 학생 등)과 대화하기 • 대화는 소문과 잘못된 정보를 통제하는 방법 ■ 대화의 내용 : 사실 전달 ■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나 첫 수업 교과목 담당 교사, 학생과 가까운 교사는 소문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 • 사전에 학교위기대응팀이 스크립트를 준비함 ■ 학생 대상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며 등글게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음 •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 침묵, 질문, 개인적인 대화 허용(학생들이 자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궁금해하는 것은 애도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
상담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대상 물리적, 정서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의 바람에 따라 학교가 관여하는 지지의 본질과 범위 결정 • 가족에게 애도를 공유하고 이해를 받는 장소 제공 • 가족과 학생들과의 접촉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 - 애도과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학생의 만남은 각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제공

표 9. 미국 San Diego주 자살 예방, 개입 및 사후개입의 사후개입 지침 내용

사후개입 지침		
상담교사 (교직원)의 역할	학생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학생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로 사망한 학생의 친구 혹은 형제 • 사망자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최근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상실을 경험한 학생 • 축적된 상실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학생 ■ 위험 행동의 세 가지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위축 • 지속적인 충동적 행동 • 지나친 순종 혹은 학업 몰두 ■ 위험에 노출된 학생이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 전문적 도움 제공
	애도 관련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안정과 치료관련 대처방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주치의에게 검사를 받음으로서 신체를 돌볼 것 • 애도의 초기단계에서 원하는 것 이상을 먹지 않음. 식욕은 건강하고 균형있게 먹음으로서 돌아옴 • 운동. 또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산책. 신체적 운동은 긴장을 늦추는데 도움됨 •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카페인을 줄이고, 술을 경계할 것 ■ 감정적인 안정과 치료 관련 대처방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며, 가끔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도 정상적임을 상기하기 •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특히 도움됨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또 말하기. 사랑하던 이를 기억하고 죽음의 경험을 기억하며, 좋았던 기억을 상기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애도함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지 않기 • 울고 싶을 때 울고, 많이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됨을 인식 •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서 죄책감과 맞서기 • 애도는 시간이 걸리며 애도경험과 감정은 다시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하며,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치료됨을 인정할 것 •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 도움을 청하는 일은 어렵지만 애도를 경험하는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지금은 새로운 인생 패턴으로 어려운 시간임. 과거 많은 활동으로서 애도를 다루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기. 예를 들어, 지지 그룹에서 활동적이 되기, 전화 친구를 찾기, 애도에 대해 읽고 공부하기, 새로운 대처기술들을 발전시키기, 다른 사람을 돕기

나. 호주의 사후개입 지침(Suicide Postvention Guideline)

호주는 자살예방 국가전략을 초기에 수립한 국가들 중 하나로서 1989년 서호주에 청소년자살자문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부터 자살예방 활동의 연원이 시작된다. 1995년경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계획(a national plan for youth in distree)을 수립하고, 그 다음 해에 국가청소년자살예방전략(the national youth suicide prevention strategy)으로 확대하여 하였고, 2007년에 재확립하였다.

그 중 자살 사후개입 지침(Suicide Postvention Guideline)은 호주 교육 및 아동지원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와 남호주 가톨릭교육(Catholic Education South Australia)와 서호주사립학교연합이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애도 상태에 있는 지역사회를 지지하고, 자살전염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학교와 정신건강 관련기관, 가정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지침의 특징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 사망 이후 즉각적인 대응, 최초 24시간, 48-72시간, 1개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시기별로 자살생존자를 지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시기별 단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필요성, 즉각적인 대응, 최초 24시간, 48-72시간, 1개월, 장기적 기간의 다섯 단계에 대한 실제 수행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교사, 부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유인물과 편지의 예시를 포함한다.

이 지침은 자살시도나 자살 발생에 대비하여 책임자와 응급대응팀이 사전에 모든 내용에 대해 익숙해져야함을 강조한다.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호주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자살 발생 후 즉각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에서 자살 발생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지 확인 • 의학적 문제, 경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응급서비스에 전화 • 신속하게 응급대응팀 구성 • 목격자 격리 : 임시 설립된 안전 장소로 옮기고, 경찰 증언이나 다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직원이나 상담가의 도움이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주위 환경 안전 확보 : 자살 시도자나 사망자가 사용한 수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환경을 바꾸거나 그 수단에 접촉하는 것을 고려할 것 ■ 학교 현장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관련 소문이나 유언 조사 : 학생이 직원들에게, 유서나 자살 e-mail 또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 이 경우 즉시 사후 추적 진행 • 상담자는 학생들의 안녕 평가, 자살 관련 배경 탐색, 학생 부모와 정보 공유 •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자살 소식은 경찰이나 병원직원을 통해 진위 확인을 요함 ■ 자살에 영향을 받은 학생, 부모, 교직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을 경험하게 된 직원, 학생, 부모들을 홀로 두지 않고 편안함과 도움 제공 • 도움이 필요한 학생 확인 ■ 응급대응팀(Emergency Response Team, ERT)의 소집 ■ 응급대응팀의 필수적 확인사항(체크리스트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확인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함 • 모든 의무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 • 학생과 직원, 학부모에게 올바르게 적절한 조언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함 • 한명의 직원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위기대응팀의 학교 사후개입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연락하기 • 취약한 학생, 직원을 확인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follow up 제공하기 • 학생과 직원, 학부모에게 문서화된 정보 제공 • 정신 건강 전문가와 연락 • 고인의 유품을 보호하고 경찰과 연락 • 언론 접촉 관리 • 모든 조치의 문서화 • 자살이나 자살시도가 일어날 만한 학교 환경의 안전 확보 (예를 들어 옥상 접근을 금지하고, 밧줄이나 독극물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은 확실히 보관)

표 10. 호주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p>첫 24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의 개입(일시적으로 위기대응팀에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요구를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적 컨설팅 • 자살 시도 학생 조력 계획 수립 • 자살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즉각적인 상담 제공 • 다른 취약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확인, 도움 제공 • 자살 위험 스크리닝을 통해 위험에 처한 학생을 확인하고 지지 계획 수립 • 가족이나 직원들 의뢰 • 부모나 학생, 직원 대상 상담정보 제공 • 장례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의 관리 계획 수립 • 병원 관계자나 관련된 언론과 연락 • 학교장과 고위험 학생의 보호를 위한 논의, 고위험환자의 상담 중단시 이를 학교에 알림 ■ 사건 후 24시간 내 학교의 대응 시 중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협조 구함 • 자살로 사망한 학생의 친한 친구(또한 취약하다고 확인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자살 관련 정보 제공. 이때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주어야 함 • 자살의 영향을 받은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가정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인의 형제나 친한 친구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학교장이 직접 연락, 확인해야 함 • 자살 사망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살사망이나 자살시도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말 것 ■ 특별상담실(Support room)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가나 정신건강전문가 등 적절한 직원이 항상 방을 관리할 것 • 특별상담실은 가능한 방음이 되고, 밝은 빛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좋음. 또한 그 방에 출입하는 학생들을 기록해야 함 ■ 고인과 친했던 친구 대상 자살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학생들에게 개인적 또는 작은 집단으로 상담자나 교직원이 사실 전달 • 그들의 반응에 따라 특별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부모가 데려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수 있음. 사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부모와 직접적인 연락이 없거나, 동반자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허가하지 말 것 ■ 사망 학생의 형제와 같은 반 학생 대상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친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 상담자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적절함

표 10. 호주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첫 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학생 대상 자살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빨리 응급대응팀이 공지자료 준비 •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인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 • 자살 발생시 온갖 소문과 루머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이 중요 • 가정이나 동아리, 학급, 같은 학년과 같이 소규모로 전달, 학교 전체 집회를 통해 공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반응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자살이나 자살시도 방법과 수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학부모 대상 자살 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대처 방안에 대해 정확하고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한하고 퍼지는 것을 막기 • 관리해야 할 질문의 수를 줄이기 • 학교의 사후개입 계획을 돕는 태도와 행동들을 고무시키기 • 자녀를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돕기
48-72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상담실의 사용 및 폐쇄 : 가능한 빨리 적절한 시간에 정상기능을 회복해야함. 대략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3일 정도 이후로 봄 • 정상적 일상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학교 내 영향을 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임 ■ 유가족 및 자살에 영향을 받은 가족들과의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대응팀은 유가족과 영향을 받은 가족들과 연락할 때 세심하고, 분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함 •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접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과 가족과의 관계 - 자살과 죽음을 다루는 가족의 문화적, 종교적 신념 -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친척과 지역사회 지지 수준 -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의 학교 재학 여부 ■ 장례 개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 참여 학생을 파악하고, 수업시간내 참여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장례식 참여자 : 자살자와 친한 친구, 교직원, 가족들이 원하는 사람 • 학생들이 운구할 때 장례 전 후 학생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정렬하는 것이 중요 ■ 추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나 유가족이 학교 추도식 개최를 원할 수 있음 • 가급적 처음 며칠동안 학교 특별상담실을 활용해 소규모의 집단으로 추도식 개최

표 10. 호주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48-72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을 모니터링한 후 정신건강기관에 평가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이내) 자살자와 친한 친구, 자살 목격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지 제공 • 위험에 노출된 학생 대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과 관련된 학생의 형제자매, 자살 시도의 과거력을 가진 학생 - 우울, 자살 사고, 자해로 인해 정신건강기관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학생 - 타인의 사망, 사고, 대참사, 가족 해체 또는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학대와 관련된 애도나 외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 • 자살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대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학교에 다니는 (이성)친구 - 자살이 발생하기 전, 혹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 - 자살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으나,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고 성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죄책감을 표현하는 학생 - 교직원, 학생, 부모들로부터 위험한 것으로 의뢰된 학생 대상 모니터링 ■ 학부모 대상 자살 소식 등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 절차 • 계획된 활동이나 소풍 일정 등의 변경 • 학교의 상담서비스 정보 제공 ■ 고인의 유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존중, 경찰 수사를 위한 유품 관리
첫 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녕(well-being) 관찰 ■ 학교 행사에 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책자, 졸업식, 시상과 같은 행사가 자살을 미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생의 성취를 축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계획 수립 •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사를 계획함 ■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관련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요구나 바람 고려(자살 관련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짐) •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위험의 신호 알아차리기,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해, 지지적인 양육 관련 정보 제공 - 자살에 영향받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반응 관련 정보 제공 - 위험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표 10. 호주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장기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직원 대상 지속적인 지지와 관찰 ■ 교사에게 아래의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가와 부모가 지속적인 지지와 관찰을 하고 있는 학생 • 사회지지 자원이 달라지는 상황(휴일, 시험기간, 진학 혹은 이사 등으로 인해 학교를 떠남)에 놓인 학생 • 가족 지지의 변화(이혼, 별거)가 예상되는 학생 ■ 학생의 애도반응 조력하도록 교사의 역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망한 친구를 애도하거나 기억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없으며,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함을 적절한 시기에 강화하게 함 ■ 응급대응팀이 부모, 학교 관계자, 학생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학교관계자, 학생들 간 정기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강조 • 잠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사망의 사건화, 기일, 대중매체의 접근 등에 대한 예측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관련 조언 ■ 기일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인의 기일 또는 생일에는 고인의 친구와 가족들이 초기 수준의 애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인식하는 것은 장기적 사후개입에서 매우 중요

다. 뉴질랜드의 자살 사후개입(Suicide Postvention)

뉴질랜드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전략 개발의 일환으로 청소년발달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에서 외국의 자살생존자의 지지와 서비스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사후개입모델과 함께 개입지침이 개발되었다.

본 개입 지침은 자살로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지지 서비스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과 애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지지와 서비스 관련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을 제공하며, 자살이 발생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살이 발생한 직후에 필요한 즉각적인 지원과 단기적, 장기적 지지와 지원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필요한 지지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의 사후개입과 정신건강기관, 그리고 다른 관련기관들과 심리적 경험보고(critical incident debriefing)를 설명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지와 서비스에서는 자살생존자를 위한 집단과, 관련서비스기관 종사자, 상담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같은 시설에서 고려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들, 시골지역, 정책입안자들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모델은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후개입을 위해서 자살생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심리적 경험보고를 활용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심리적 경험보고의 체계적인 검토 결과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살을 포함해 외상적인 사건 이후 심리적 경험보고에 대한 공공적 요구가 있고, 사람들도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 개입방안의 대처없이 심리적 경험보고를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살 사후개입에서 제시된 지침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뉴질랜드의 자살 사후개입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자살 발생 직후 개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사망 발생시 가족 구성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제공받아야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방법, 시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보 • 시신을 보거나, 집에서 입관식을 치를 기회, 시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 손바닥 자국을 가질 수 있는 기회 • 시체를 보는 동안 정서적 지지 제공 • 공식적인 절차, 조사, 사후 검사와 심리 절차에 대한 정보, 관련된 주제에 대한 문헌 정보 • 유서나 유언의 원본 또는 복사본 • 장례를 위한 경제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도움 •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과 조언 •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사후 검사보고서의 이해를 도움 •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 자살, 이용 가능한 자원들, 권장 리스트, 지역 애도센터, 자살생존자 애도센터, 지지 집단에 관한 연락처와 정보,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정보 제공 • 자살생존자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 언론 매체의 요청에 대한 대처 방법 ■ 모든 유가족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자살발생 후 장·단기적 개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사망 후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공 되어야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심에 관련된 정보, 조사기간 동안 사회적, 감정적 지지 제공 • 조사는 적절한 시기 실시(예를 들어 4개월 이내) • 가능하다면 자살생존자 지지 집단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기회 제공 • 치료나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가의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 •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 낙인감이 느끼지 않도록 접근하고, 자살에 관한 사실적 정보와 자살과 관련된 정신 병리를 이야기해줌 •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과 다른 자살생존자 가족들이 자살 발생 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 자살이 가족의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가족들이 자살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가족의 의사소통과 기능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표 11. 뉴질랜드의 자살 사후개입의 내용

사후개입 지침	
자살발생 후 장·단기적 개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대상 가족 구성원의 자살 소식 전달시 함께 제공해야할 사항 • 치료를 위한 평가받을 기회 • 애도서비스와 연계 • 자살사망 후 첫 일년간 지속적인 도움과 지지, 정보 제공
학교와 같은 기관을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사망 관련 외부전문가 초빙 고려 ■ 교직원 대상 제공해야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사망 관련 정보 제공, 자살 관련 일반적 정보 제공 • 자살 소식 전달시 자살이 교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말할 기회 제공 • 관련 지역사회자원과 기관 정보 제공, 다른 자살생존자의 지지서비스 정보 제공 • 개입 후 모든 직원들에게 심리적 경험보고(debriefing)시간 마련 • 전문적 관찰 평가 제공 ■ 위험 관리 절차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자살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용되어야 함 ■ 효과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심각한 애도반응을 보이거나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 대상 스크리닝 실시 • 자살 사망 관련 정보 제공, 자살 관련 일반적 정보 제공 ■ 자살 사후개입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시골지역을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의 경우 자살사망율이 너무 적어 지지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빅토리아 건강증진 위원회(The Victorian Health Promotion Commission)에서는 작은 마을에서 지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뉴질랜드식 접근모델) • 상실과 슬픔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 상실과 슬픔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정서적 안녕이 지역 사회의 안녕(well-being)에 미치는 영향 알림 • 적절한 가용 자원 목록 마련 및 홍보 • 지역사회교육, 전문교육과 훈련, 자살예방모금활동 등을 통해 상실과 슬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지각과 이해) 강화 • 건강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와 서비스가 필요한 자살생존자들을 확인, 평가, 의뢰 • 사별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입 지침 제공, 사회의 지지구조 강화 • 상담이 적절한 시간에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 •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자살생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 관리 • 서비스 제공자간 네트워크 발달을 촉진시킴

라. 일본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Postvention)

2008년도 기준 일본의 자살률은 십만명당 19.4명으로 선진국 중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장영식 외, 2010).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국가차원에서 2006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후생성을 중심으로 자살예방특별위원회가 국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21일,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총 6가지의 기본적 이념을 바탕으로 2016년까지 자살률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하며, 전 연령을 총 3세대 즉, 청소년(30세 미만), 중고령층(30세~64세), 고령자(65세 이상)로 구분하였고 세대별 자살 특징과 대응할 자살대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적 시책으로 '조사연구 및 국민의 이해증진, 인재의 확보, 마음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체제의 정비,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자살 발생을 피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자살미수자 지원, 자살자 유가족 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고 특별기구로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제안하여 그 조직 및 대강의 업무를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청소년 자살은 1998년도 자살자수가 급증했던 시기에 약 600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이래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어(전체 자살자 중 약 2% 추정)¹⁾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오다가 2007년 3월 「아동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이 제시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 대처방안은 자살예방을 prevention(사전예방), intervention(위기개입), postvention(사후개입) 3단계로 보고, 자살예방 관련 학교현장의 상담체제를 충실하게 갖추기 위한 학교 및 교직원의 역할, 따돌림 대책과의 연계, 학교와 의료의 연계, 자살사망 발생 후의 대응원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자살 사후개입과 관련한 대책을 살펴보면, 학생 자살 발생시 신속한 개입을 위한 교내 위기개입팀과 외부의 숙련된 위기대응전문가팀(CRISIS RESPONSE TEAM)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기개입팀의 정기 회의를 통해 돌발상황을 수시 보고-협력-결정을 진행하며, 보호지원(care)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정신건강관련 교내의 전문가간 긴밀한 협력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2에 수록되어 있다.

1) 아동자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2007). 아동,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관련 검토회.

표 12. 일본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postvention) 내용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자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 부적절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 ■ 자살 취약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악영향 방지 ■ 특정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 방지
핵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위기개입팀 사전 구성(교내 교육상담체제 구축) ■ 유가족 지원 ■ 자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접근 ■ 고위험 학생에 대한 접근 ■ 자살 방식을 고려한 자살소식 전달 및 정보 제공 ■ 자살 방식을 고려한 배경 조사 실시
위기대응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살 발생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응급처치, 목격자 관리, 보호자의 문의와 학교 방문에 대한 대응, 학생들을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 경찰과의 연계, 언론보도 대응 등 한번에 많은 일을 수행해야함 • 동시에 유가족과의 접촉, 교장과 담임교사와의 접촉을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야함 ■ 위기 대응과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관련기관 도움 요청 및 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 학부모 회의 등 개입 지휘 및 감독 - 교육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CRT(CRISIS RESPONSE TEAM, 외부의 숙련된 위기 대응 전문가팀)에 도움 요청, CRT가 없을 경우 지역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 • 교내 위기관리팀 회의(1일 2회) 개최, 보고-협력-결정 반복 • 보호지원(care) 회의 별도 개최(1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교육상담주사(교육위원회 소속, 학교심리학 혹은 상담전공자, 예방적 개입 담당), 스쿨카운슬러(임상심리사, 치료적 개입 담당), 학년 주임교사, 관련담임교사 등이 모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보호지원 관련 사항 총괄 협의 • 객관적 사실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적 추측을 삼가고 객관적 사실 파악 및 대처 계획 수립 • 유가족 접촉 및 사실 공개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 처리 요청 시 의견을 존중하되 거짓 소식 전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는 길이 되므로 지속적 접촉을 통해 '객관적 사실 전달의 중요성' 인식 조력 • 억측과 소문 전파 방지를 위한 사실 정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의 사전 양해를 구함, 사실이라도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전달 정보를 선별함. '원인'보다 '동기'와 '배경' 표현 사용, 자살 직전 사건을 강조하지 않기, 특정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 • 학사 일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 휴교는 하지 않음 - 자살한 학생과 관련된 상황에 따라 수업과 특별활동은 유연하게 대처하기. 평소와 똑같이 운영되면 학생의 죽음을 없었던 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표 12. 일본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postvention) 내용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위기대응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이 주된 접촉자로 활동할 것 •유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되, 사망자의 애도와 죽음을 미화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 것 •사망사실을 문서로(자살소식은 구두로) 전달하며, 학부모회에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유가족에게 문안을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며 진행할 것 •자살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지속 지원, 타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타학교와 연계 •유족의 애도반응을 존중하며 잘 받아줄 것 ■학부모회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에게 메일로 문서 발송, 학부모가 학생들이 하교할 때 동반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유가족의 양해를 얻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억측과 소문이 나도는 것을 방지 •전문가 강의 제공 :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접촉 방법 및 전문적 케어방법, 도움요청 기관 안내 ■언론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 방향 : 성실하게 대응, 자살사망자의 프라이버시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사실 정보 발표, 정기적으로 기자회견 개최 •보도 가이드라인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학교 안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되,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경찰과의 연계 - 자살한 학생과 관계있는 학생 대상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죄책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함 •학교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격리 대책 마련 필요(다만, 사망한 학생이 생활한 장소를 소중히 하여 현장을 향한 주목을 이끌어서는 안됨) ■학생들의 심리적 보호지원(care)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지원(care) 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주임, 보건교사, 교육상담교사, 스쿨카운슬러로 구성. 1일 1회 개최하여 학교 구성원 보호지원(care) 현황 정리, 필요에 따라 CRT, 특별활동 고문, 담임교사 등을 포함

표 12. 일본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postvention) 내용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위기대응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파악 및 전문가 연계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한 아이와 관련된 사람 목록 작성(같은/다른 반 친한 친구, 특별활동친구 등) - 자살취약자 파악(자살시도 경험 학생, 자해 행동 경험 학생, 자살을 암시한 적이 있는 학생, 본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학생) - 따돌림 등이 배경에 있는 경우 특정학생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별과 care가 필요함 - 대응이 어려울 때 외부기관(의료기관, 정신보건복지센터 등)과 연계 체제 구축 ■ 학생대상 사후개입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발생 후 첫 등교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상태를 확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 파악 - 학생과 교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급성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사전 주지 - 자살 소식 전달 내용을 협의, 문서화 - 상담과 카운슬링 준비(전문가 협조) ■ 학생 대상 사후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 파악이 가능한 규모로 자살 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방송 등 학생을 집합시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개개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고, 혼란 확대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집회에서는 사망한 사실만 전달하며 묵념하고, 자살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학급단위로 함 - 자살한 학생이 속한 학급은 담임교사 외, 지원교사 및 전문가 등 2~3명이 교실에서 함께 보조하며 자살 소식 전달 • 학급 자살 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대해 함구하지 않고 사실을 전달하고 충격에 직면, 전달법은 유족과 협의 - 전체 학급에서 공통된 내용으로 전달하되, 연령에 따라 전달방법을 달리함 - 소식 전달시 자살한 학생을 비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자살 수단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설명 - 학생들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사람의 자살 경험시 일어날 수 있는 반응과 증상을 설명 • 자살에 영향받을 가능성 있는 학생에 대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처하며, 가족과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관리

마. 홍콩의 자살 사후개입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의 Center for Suicide Research & Prevention(2003)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아동·청소년의 자살 사망률은 WHO에 의해 보고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다. 1999년 WHO 보고에서 5-14세 홍콩 아동들의 경우, 남자는 십만명 당 0.8명, 여자는 0.9명이었으며(세계적으로는 1998년 남자는 평균 1.2명, 여자는 평균 0.5명), 15-24세 홍콩 청소년의 경우, 남자는 십만명 당 7.3명, 여자는 4.8명이었다(세계적으로는 1998년 남자는 평균 19.2명, 여자는 평균 5.6명). 그러나 15-24세 연령대의 자살 사망률은 1997년 이래로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홍콩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세계 평균보다 28%나 높은 자살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서구사회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홍콩이 어떻게 청소년 자살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홍콩 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특히 Education & Manpower Bureau의 Educational Psychology Service Section(2005)은 청소년의 자살 사망 발생 시, 학교장면에서 운용되는 위기관리팀의 역할과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3. 홍콩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ety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 ■ Stability : 가능한 빨리 학교를 정상화함 ■ Consistency : 잘못된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 ■ Prevention of further injury : 자살에 따른 영향을 자각하도록 돕고,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및 교직원을 발견하여 도움 제공 ■ Support to individuals and groups :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일상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제공 ■ Empowerment of students' response capabilities :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북돋음
핵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교가 청소년의 자살과 학교의 위기사건을 다루기 위한 위기관리팀(crisis management team) 구성 ■ 외부기관의 교육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상담자의 지원
위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살 발생시 유의사항

표 13. 홍콩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학생, 부모, 교사로부터 전화, 경찰, 미디어로부터 알게된 모든 자살사고를 학교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며, 학교위기관리팀을 즉각 활성화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수행 ■ 교내 자살(시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도움을 구하기 전에 자살(시도, 아직 숨지지 않은 상황)학생이 신뢰하는 사람을 불러 정서적 지지 제공 • 경찰과 구급차를 부름, 자살 도구 제거(경찰에 넘김), 부모에게 연락하여 학교에 오도록 함 ■ 자살 정보의 진위 파악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 리더의 역할 • 자살사망 학생의 담임 교사, 그 학생과 가까웠던 교사들을 불러 정보 수집 • 가족, 필요하다면 경찰 등의 정보까지 수합하여 자살의 진위 파악 • 지역교육청과 학교 수퍼바이저에게 보고 ■ 긴급 위기관리팀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 리더의 역할 • 교장, 위기관리팀이 모여 자살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전체적 사후개입 계획 수립 • 지역사회 기관의 추가적 지원 요청 사항 결정 • 세부 위기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자별 업무 분장(방송매체 질문 대응자료 준비, 경찰 대응, 학부모, 유가족 및 외부인 대응, 자살 소식전달 대상, 방법 및 내용 결정 등) ■ 교직원 긴급연락망 가동 및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의 교직원 지원담당자의 역할 • 자살 소식 전달 및 위기관리팀 대응전략 설명 및 논의 • 특별수업기간(special class period) 정보 공유 • 교사 및 교직원의 정서적 반응 조율, 높은 외상반응 보이는 교사 식별, 상담 의뢰 ■ 학생 대상 자살소식 전달(특별수업기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역할 •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공유할 사항 결정 • 자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 표현 격려, 경험 경청 및 지원,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 • 가능한 억측과 소문 통제 • 학생의 애도반응에 대한 대처 : 충격과 거부, 분노와 방어, 죄책감 등의 감정 정상화,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 등 • 상담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 파악 : 자살 이후 강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학생, 행동과 정서상의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는 학생, 안절부절못하거나, 혼란되어있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소진되어 있는 학생 등

표 13. 홍콩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사후개입 절차를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 및 출석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학교장의 역할 • 학생들의 출결, 조퇴 상황 체크 • 많은 학생이 영향을 받은 경우 시험을 연기하는 등 융통성있게 대처 ■ 학부모 대상 자살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지원 담당자의 역할 • 가정통신문 발송, 구체적 자살 사실을 전달하기 보다 사후개입방안에 강조를 둬

바. 우리나라의 사후개입

자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책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9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자살예방 5개년종합대책이 처음으로 수립되었고, 2007년에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적 자살예방 대책 수립이 추진되었다. 2008년 12월에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 대책은 자살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과 같은 환경적 접근과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과 같은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체계의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 부족, 관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관련 대책은 크게 1차 예방 중심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살 사후개입은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에도 ‘자살자 유가족’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유가족 모임의 조직화,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지원 등 막연한 제안이 제시되어있다.

한편, 학생 자살 관련 사후개입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에 따라 학교생활 안전관리 영역의 하나로서 학생 자살 발생시 대처 절차를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마다 제각기 다른 대처를 취하고 있으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사후개입 활동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주로 자살자 유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방법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의 경우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학급 단위로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도가 자살 사후개입과 관련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전부이다.

자조모임의 경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의 전화,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대체로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원이 모이면 시작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생명의 전화에서는 2009년도부터 자살자 유가족 대상 자조모임을 기획하였으며, 총 8회기의 주 1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애도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다시 일상에 대한 재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14. 참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자조모임인 ‘자작나무’는 2시간씩 총 6회기로 진행되는 모임으로 1시간 교육, 1시간 경험담 나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살자 및 유가족의 심리에 대한 이해, 외상에 대한 이해 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유가족들이 경험담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표 14. 참조). 2009년도에 1차례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도 개설하여 모집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지지모임 이외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에서 자살자 유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단발성 활동, 예를 들어, 유가족 대상 걷기대회 등이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에 학교로부터 사후개입 요청이 들어오면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아직까지 학교의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위기대응팀의 부재, 학교상담자나 학교심리학자 등 정신건강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이나 호주에서와 같은 다각적이고 전체적인 자살 사후개입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자살에 따른 영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현재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Goldney & Berman, 1996; Maine Youth 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 Postvention Guidelines, 2002).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 사후개입과 활동들은 자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사후개입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뜻하지 않은 주변인의 자살로 인해 매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져 있을 자살생존자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했던 즉각적 위기상황이 이미 지난 후에 자살 생존자들이 스스로 전문가나 지지모임을 찾아야 하는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뿐, 정작 학교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결정적 취약성을 지닌다.

표 14. 국내 사후개입의 비교

기관명 구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의전화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프로그램)
대상	자살자 유가족 성인	자살자 유가족 성인	중고 청소년
시간	4회기	8회기	1단계, 2단계(6회기)
개입	자작나무	자살자 가족 자조모임	청소년자살예방교육
교육내용	-1회기 : 유가족 소개 유가족 심리에 대하여 -2회기 : 자살자의 심리에 대하여 -3회기 : 외상(트라우마) -4회기 : 편지 쓰는 시간 -5회기 : 야외활동 -6회기 : 비디오 시청	-1회기 : 지금여기에 -2회기 : 첫걸음~! 자신을 좀더 들여다봅시다, -3회기 : 당신이 희망입니다, -4회기 : 희망바이러스 -5회기 : 내가 사랑해야할 '나의 삶' -6회기 : 슬픔을 넘어 사랑으로 -7회기 : 나와 가족은 내가 지킨다 -8회기 : 변화의 시작이다	친구사이(1단계) -스트레스 탈출기, 빙고 게임 -친구돕기 등의 학년별 집단 활동 프로그램 위주 Pain club(2단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솔직한 이야기 속으로 -그들도 우리처럼(영화) -나의 미래를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평가 산행 Peer Supporter(3단계) -다양한 의사소통 훈련 -체험활동 중심 (건강한 자기이미지) -청소년 자조모임형태로 운영
방법	교육 및 자조모임	자조모임	학급단위 시청각, 활동형식
비고	-자살자 및 유가족의 심리에 대한 이해, 외상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교육 이후 유가족 간 경험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	-자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애도 과정을 좀더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다시 일상에 대한 재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진행	-사후개입으로 특화된 개입절차가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년 자살사망이 발생한 경우 학생 대상 교육 요청이 있을 때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을 적용 -1단계에서 자살고위험 청소년을 선별, 2단계 이후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

무엇보다 학교라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살의 전염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자살 사후개입 노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8년도에 국외의 사후개입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사후개입 및 지침들의 공통적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학교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발생 시 취해야하는 사후개입 절차 및 학생, 부모, 교사, 학교행정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관련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사후개입의 개념이 아직 생소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매뉴얼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청소년자살 사후개입의 개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요구를 사전에 잘 수합하여 보다 신중하게 사후개입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문화에서 개발된 사후개입 매뉴얼들은 사회구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기존 자살 사후개입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효과

자살 사후개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Callahan(1996)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관심 있는 변인에 대한 기저선(baseline)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자살은 발생 후에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검사 점수를 구할 수가 없다. 둘째, 자살 이후에 얻어진 측정치는 회상에 의한 것이므로 편차(bias)가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사후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평가에 포함시킬 사람은 전체 학생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가 불분명하다(Hazell & Lewin, 1993). 넷째, 만약 영향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을 선별해 낼 것인지 역시 불분명하다.

또한 학교 장면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데에는 실험 설계상의 문제와 통계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후개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경험에 근거한(evidence-based)’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과학적 경험에 근거한(evidence-based) 접근에서는 실험자와 실험대상자 모두가 실험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는 이중맹검법(double-blind)을 사용하지만, 사후개입에서는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사후개입의 통제집단을 만드는 것(즉, 개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자살률은 굉장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기 때문에 사후개입의 목적 중 하나인 ‘모방 자살의 감소’를 통계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Gunnell과 Frankel(1994)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 8년 기간을 두고 자살률이 15%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 45,000명의 피험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 자살사후개입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미국 질병예방관리센터(US Centers for Disease and Prevention)의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가이드(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 A Resource Guide, 1992)”에서조차 사후개입에 대한 효과 평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의해 학교 자살 사후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몇 가지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에 대한 지지모임의 효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Woof와 Carter는 11개의 사별지지모임을 검토하였고, 참여한 사람들이 지지모임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발견하였다(Clark, 2001). Jordan과 McMenemy(2004)는 자살생존자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지지집단(support group)의 참여자들이 심리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살, 타살, 또는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10주 지지 집단(support group)의 효과를 연구한 Murphy는 참여한 어머니들의 정서적 고통과 슬픔 증상이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Murphy, 2000; Murphy et al., 1998).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증가된 결과가 보고되어 사후개입의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지는 자살생존자를 위해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Davis & Hinger, 2005; Fielden, 2003). 자살생존자의 지지에 대한 요구를 평가한 Davis와 Hinger(2005)의 연구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이후의 위기 기간 동안

자살생존자에게 가장 좋은 위안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지지임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살생존자였던 동료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살을 통한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상실과 관련된 판단이나 낙인이 없고 자신의 큰 슬픔이 적절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Carman, 2007; Davis & Hinger, 2005).

또한 자살생존자가 집단운영자로 참여한 지지집단은 특히 유용하다고 보고되었다(Campbell et al., 2004). Davis와 Hinger(2005)의 연구에서, 12명의 연구 참여자 중 집단 치료를 받은 4명은 지지집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지지집단이 자살생존자에 의해 운영되었고, 모든 구성원이 자살생존자였기 때문에 치료과정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들은 장례 진행자나 응급 구조자들을 통해 서비스 의뢰나 자살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지모임 이외의 다른 개입방법의 효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Constantino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자살생존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애도 과정을, 다른 집단에서는 사회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우울, 슬픔, 고통, 사회적 활동에 의미있는 향상을 발견하였다.

가까운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실시된 일기 개입(journaling intervention)은 자살과 관련된 슬픔, 외상 증상 그리고 건강관리 기관의 이용에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으며(Kovac & Range, 2000), 이 개입방법은 타인에게 외상적 사건을 덜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는 남성에게 더 유용하다고 보고되었다(The Connecticut Center For Effective Practice of the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stitute, 2006).

학교 관련 사후개입에 대한 연구로서는 청소년 자살사망에 따른 학교 대처 사례연구를 시행한 Callahan(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개입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학생들의 모방 자살 행동이 늘어났다. Callahan은 이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교 장면에서 사후개입이 자살의 전염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자살에 대한 신비함을 없애고 자살생존자의 망자에 대한 동일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망자가 겪고 있었던 정신병리의 존재를 강조해야 한다(Garfinkel, 1989; Poland, 1989).

둘째, 죽음을 찬미하거나 극화하거나 감동적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CDC, 1988; Davidson et al., 1989; Poland, 1989; Underwood & Dunne-Maxim, 1992). 즉, 교사들

이 망자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주거나, 학생들이 그를 '순교자적 영웅'으로 보려는 경향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면, 이는 자살에 대한 찬양으로 보일 수 있다. '낭만적 비극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망자에 대한 추모비는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학생들과 비슷하거나 같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망자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망자를 찬미하며, 살아있는 학생들에게 자살을 통해 강렬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일 수 있다(Garfinkel, 1989; McEvoy & McEvoy, 1994; Poland, 1989; Schonfeld & Kline, 1994).

넷째, 잠재적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 혹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계획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학생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이차적 이득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제거해야 한다(Davidson et al., 1989).

Callahan의 연구에서는 약 20명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신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지위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이차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살 사후개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90년대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1993) 등의 대형사고를 경험한 이후 각종 재해 및 재난과 같은 외상적 사건 발생 시 심리적 치료와 위기개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신동균, 이준상, 이민수, 최윤경, 1997; 이선미, 김정희, 2002; 이인숙 외, 2003; 이지현, 김유숙, 최영안, 2004; 최웅용, 이수연, 2003), 이들 연구를 통해 자살 발생 이후 심리치료적 접근과 위기개입의 효과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위기상황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의 발병과 증상 양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상적 반응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는 이중 대구지하철 청소년 생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적 집단 위기상담(이수연 외, 2004; 최웅용 외, 2004)이 시도되어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외상적 사건에 대한 위기개입의 일부로 심리적 경험보고 방법이 김미리혜(1998)와 이윤주(2004)의 연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심리적 경험보고 방법은 미국 학교심리학자들이 위기개입전략으로 주되게 사용하

는 것으로(Adamson & Peacock, 2007), 심리적 경험보고 모델은 Mitchell(1983)이 처음 제안하였으며 본래 위기 발생 후 생존자들을 위한 개입이라기보다 조력 인력들 역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적용하기 시작한 개입방법의 하나이다(Gard & Ruzek, 2006). 이후 재난/재해의 생존자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Mitchell(1983)의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CISD)과 더불어 Nova모델(Young, 2002), Dyregrov모델(1997)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다.

CISD로 대표되는 심리적 경험보고 기법은 그 구성요소로서 첫째, 공통적으로 사건에 대한 사실과 기대, 생각, 감정적 반응과 감각적 인상들을 처리하고, 둘째,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증상들의 공유와 정상화(validation), 정서적 배출을 포함하며, 셋째, 외상적 스트레스 반응의 성격과 대처양식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적응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Lewis, 2003). Deahl(2000)에 따르면 심리적 경험보고가 발견법적으로 유용함(heuristically useful)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심리적 경험보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일관적 결과가 공존한다. CISD 개발 당시 심리적 경험보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을 목표로 하였으나(Mitchell, 1983),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McNally et al., 2003).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보고를 통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Bisson, 2003), 현재까지의 연구의 측정도구나 방법들로는 그 효과가 제대로 탐지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Deahl, 2000).

심리적 경험보고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심리적 경험보고의 적절한 국내 적용을 위한 이승연의 제언(2007)을 빌리자면 첫째, 심리적 경험보고는 외상적 사건 후 행해지는 다요인적 총체적 위기관리 활동의 일부로 쓰여야하며,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이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외상 경험으로 인해 추후 적응과 성장에 문제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며 적절한 후속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한다. 셋째, 급성의 외상적 반응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심리적 경험보고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개인 및 학교, 지역사회 준비도를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심리적 경험보고가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집단 과정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후속 경험보고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심리적 경험보고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된 정신건강전문가와 학교 위기관리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어 경험보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생존자 및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 지지자로 포함하는 지지모임은 비교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하나의 위기개입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요인적 총체적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위기개입 관여 인력의 스트레스와 고충을 고려한 심리적 경험보고의 도입 역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사후개입의 경우 자살에 대한 미화나 지나친 무관심 등의 부적절한 인식 대신 보다 성숙한 인지를 돕는 과정이나 전문적인 자살위험 평가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후개입은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전염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 청소년자살 사후개입의 개관 및 효과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이제까지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자살 사후개입 관련 내용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국내외 선행 사후개입의 비교

개입	개발자	대상	특징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 사항
미국 Maine 주 청소년 자살 사후 개입 지침	Maine 주 학교관리 연합, 학교장연합, 법무관, 학교관련 공무원 등	학교 기반	대상별 지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계획 수립, 명확한 메시지, 개입인력의 자기 돌봄, 관계자의 심리적 경험 보고 ■ 사후개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또는 지정된 사람의 책임 : 위기대응팀 소집, 유가족과 연락, 교직원 대상 자살소식 전달, 교직원의 정서적 지지 및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언론매체 대응, 자살한 학생의 소지품 관리 • 위기대응팀의 책임 : 경찰 연락, 교직원 회의(학생대상 소식전달 방법 및 관련 기관 소개), 지역 위기개입자에게 도움 요청, 학생 대상 자살소식 전달, 자살위험 학생 대상 개입, 사후개입 활동의 문서화 • 자살의 영향에 대한 관리 : 학사일정 유지, 애도상담 제공, 학생들의 장례 참여, 추모활동(헌정공간, 졸업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또는 지정된 사람이 사후개입 지휘감독 • 학교 위기대응팀의 주도적 역할 • 모든 학생 대상 소식 전달 • 학사일정 유지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애도상담 제공 • 적절한 추모활동
미국 New Hampshire Frameworks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젝트	법관, 경찰, 정신건강, 약물치료자, 교육 및 복지기관 전문영역별 작업그룹 형성	지역 사회 기반	대상별 모듈식 실행 계획 (훈련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도과정에 대한 이해 : 다른 사람 비난 않기, 도움요청하기, 위험행동 인식 및 관찰, 자살을 암시하는 다른 사람 돕기, 기념일에 대해 대비하기 • 자살생존자, 도움제공자의 자기관리 • 자살생존자 조력방법, 언어 사용 주의 ■ 학교/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살 발생시 대처 : 현장 보존 절차, 가족 및 친척 대상 자살소식 전달 • 학교 기반 위기대응팀 소집, 학교 게시판 관리자에게 소식 전달 • 가족 접촉 : 자살 소식 공개 협의 • 지역사회기관 협조 요청 : 경찰서, 관련 사회서비스 기관에 공지하여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추가적 도움 제공 • 학생 대상 자살 소식 공지 : 소규모 단위의 친숙한 사람의 전달, 위기대응팀과 지역 정신건강기관의 학생의 애도 조력, 교직원 심리적 경험 보고 조력 • 학사일정 유지 • 학부모 대상 자살소식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발생시 학생/청소년의 대처 관련 상세지침 제시 • 학교 위기대응팀 구성 • 자살 소식 전달시 유가족 사전 협의,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람의 전달 강조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애도상담 제공 • 학사 일정 유지 • 학부모 대상 소식 공지 상세지침 제시
미국 San Diego 주 자살	미국 및 캐나다의 자살예방 전문가의 효과적	학교 기반	학교 책임자, 교사 역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직후, 단기(2~10일), 장기(정해지지 않은 해결의 시간) ■ 학교장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회의 소집, 교직원 대상 소식 공지, 위기대응팀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처 단계 제시 • 위기대응팀 소집 • 자살 발생시 학교장, 교사, 상담교사의 역할별 실행

표 15. 국내외 선행 사후개입의 비교

개입	개발자	대상	특징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 사항
예방, 위기 개입 및 사후 개입	자살예방 개입방안 선별 작업 후 8개 자살예방 전략의 범주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평가)		Maine 주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대상 자살소식 공지, 학교의 정규 수업 활동 연기, 학교 내 safe room 설치(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상담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할 • 학생과 대화의 필요성, 대화방법 ■ 상담교사의 역할 • 가족 지지 : 유가족 대상 물리적, 정서적 지지, 애도 장소 제공, 가족과 학생 접촉 기회 마련 • 학생 개입 : 고위험 학생 관찰, 전문적 도움 제공 ■ 애도 관련 개입 • 신체 안정과 치료 관련 대처 방법 안내 • 감정 안정과 치료 관련 방법 안내 : 애도반응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p>사항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일정 변경 : 정규 수업 며칠간 연기 • safe room 설치 • 애도반응 상세설명
호주 사후 개입		학교 기반	시간 경과에 따른 대응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 자살 발생 시 즉각적 대응 • 학교 현장 자살 발생시 대응방법 • 학교 밖 자살 발생시 대응 •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 부모, 교직원 보호 • 응급대응팀 소집, 학교 사후개입 계획 수립(가족 연락, 취약학생 확인, 유품관리, 언론 접촉, 학교 환경 안전 확보 등) ■ 첫 24시간 •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의 개입(자살위험 스크리닝, 애도상담, 상담기관 정보 제공, 장례, 기념일 관리 컨설팅) • 학교장의 자살자의 형제, 친한 친구(학부모)에게 직접 연락 • 자살자 형제가 속한 반 대상 정보 제공 및 개입 • 특별상담실 설치 • 일반 학생 대상 자살소식 전달(가정, 동아리, 학교 소규모로 전달) • 학부모 대상 자살 소식 전달(학교 개입 안내, 소문 방지) ■ 48-72시간 • 학교의 일상복귀를 위한 재정비(특별상담실 폐쇄) • 유가족 및 자살에 영향받은 가족 연락 • 장례 개입 및 추도식 관리 • 학부모 대상 소식 전달(장례절차, 학사 일정 변경 사항 안내) • 고인 유품 관리 ■ 첫 한달 • 교직원과 학생 안녕 관찰 • 학교 행사(기념책자, 졸업식) 관리 계획 •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자살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해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경과에 따른 대응 제시 • 응급대응팀의 역할 강조 •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 역할 강조 • 자살자 형제가 속한 반 대상 개입 • 특별상담실 설치 • 학사 일정 관리 : 소풍 등 행사 변경 • 시기별 학부모 대상 소식 전달 • 장기적 대응시 교사의 역할 강조

표 15. 국내외 선행 사후개입의 비교

개입	개발자	대상	특징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직원 대상 지속적 관찰 • 교사의 역할 강조(자살위험학생, 가족 및 사회지지자원이 달라지는 상황에 있는 학생 관찰, 학생의 애도반응 조력 등) • 부모, 학교관계자, 학생 간의 정기적, 적절한 의사소통 강조 • 기일 및 주요 사건 관련 대처계획 수립 	
뉴질랜드 사후개입	청소년발달부에서 외국의 사후개입 서비스 고찰 후 사후개입 모델 제시	학교 기반	시간 경과에 따른 대응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발생 직후 개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자살 관련 정보, 현실문제에 대한 도움과 조언, 슬픔 대처방법 및 도움 받을 기관 등) ■ 자살 발생 후 장단기적 개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배심·조사 관련, 자살생존자 지지집단, 자살의 영향, 애도 관련 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 대상 가족 자살소식 전달시 제공되어야 할 사항 ■ 학교와 같은 기관을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초빙 고려, 자살 소식 전달 시 모든 직원 대상 심리적 경험보고, 전문적 관찰 평가 제공 ■ 시골지역을 위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토리아 건강증진위원회의 제안(상실과 슬픔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가용자원 목록 마련 및 홍보, 지역사회 교육, 건강 관련 전문가 양성, 사별한 사람 조력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전문가 관리, 서비스제공자간 네트워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경과에 따른 대응 제시 • 유가족, 가까운 사람 중심의 조력 내용 제시 • 학교 개입 시 숙련된 전문가의 개입 강조 • 교직원의 자살 소식 전달, 심리적 경험보고
일본 사후개입	아동,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처관련 검토회	학교 기반	시간 경과에 따른 대응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살 발생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응급처치, 목격자 관리 등 ■ 위기대응과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의 위기대응전문가팀(CRT) 도움 요청 • 교내 위기관리팀 회의 : 1일 2회 개최 • 보호지원(care) 회의 : 1일 1회 회의 • 객관적 사실 파악 • 유가족 접촉 및 사실 공개 협조 요청 • 억측과 소문 전파 방지를 위한 사실 정보 발표 • 학사 일정 조정 • 유가족에 대한 대응 • 학교장이 주된 접촉자, 지속 접촉을 통해 이해와 협력 구하기 ■ 학부모회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개최, 자살 소식 전달, 학부모 동반회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위기개입팀 사전 구성(교내 상담체제 구축) 강조 • 관련 기관의 위기 대응 전문가 팀(CRT) 의뢰 • 유가족 사실 공개 요청 • 학사일정 조정 • 교내 위기관리팀 외 care회의 별도 운영 • 전체 학생 대상 학급별 자살소식 전달

표 15. 국내외 선행 사후개입의 비교

개입	개발자	대상	특징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 대한 대응 • 적극적 사실 정보 발표 ▪ 학교 안전 활동 • 경찰과 연계, 현장 격리대책 마련 ▪ 학생들의 보호지원(care) 계획 • care 회의 운영, 피해파악 및 전문가 연계체계 구축 ▪ 학생 대상 사후개입 사전준비 • 자살 발생 후 첫 등교일 대비, 자살소식 전달 준비, 상담과 카운슬링 준비 ▪ 학생 대상 사후개입 • 자살 소식 전달 : 반응 파악이 가능한 규모, 학급단위 전달, 자살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대처 	
홍콩 사후개입	Education & Manpower Bureau의 Education Psycholoty Service Section	학교 기반	시간 경과에 따른 대응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살 발생시 유의사항 • 학교장은 학교 수퍼바이저에게 보고, 학교위기관리팀을 활성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관리 계획 수립 및 대응 • 자살 정보의 지위 파악 ▪ 긴급 위기관리팀 소집 • 자살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후계획 수립 ▪ 교직원 긴급 연락망 가동 및 소집 • 자살 소식 전달 및 위기관리팀 대응전략 설명 등 ▪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자살 소식 전달(특별 수업기간 적용) ▪ 학사일정 조정 : 상황에 따라 시험 연기 ▪ 학부모 대상 자살소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 구성 강조 • 위기관리팀내 담당자별 역할 명기 • 위기관리팀 수행 업무 관련 다양한 예시 제공 • 학사 일정 변경 : 특별수업기간 적용
국내 현황	기관 자체 개발	지역 사회 기반	집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성인 중심의 유가족 지지집단 운영 ▪ 청소년의 경우,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사후개입에 사용 	자살자 유가족 지지집단 운영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방안으로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효과 연구의 방법론상의 문제 등에 의해 효과적인 구성요소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을 위한 국외의 자살 사후개입 지침은 공통적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New Hampshire주를 제외한 미국의 Maine주, San Diego주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은 모두 학교를 기반한 사후개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New Hampshire주의 경우에도 생태학적 접근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나 청소년의 경우 자살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대처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후개입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지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팀의 개입순서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후개입 매뉴얼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처를 관련 담당자별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자살이 발생하면 많은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일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학생의 청소년 자살 발생은 학교에 상당한 위기상황을 초래하므로 사후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위기관리(응급대응)팀이 조직되어 자살 발생시 즉각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초기의 적절한 대처는 자살 사망이 자살생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심리적 외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모든 해외 청소년 사후개입에서 교내 위기(응급)대응팀의 사전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지역 정신건강기관(모두 공통), 다른 학교 상담자(Manie), 성직자(Manie주, New Hampshire)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함을 제안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내 위기관리팀 외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파견하는 위기대응전문가팀(CRT)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내 위기관리팀 조직과 활동,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력 사항이 상세한 지침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살 소식 전달에 관해서는 사실 전달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되 전달방식에 대해서는 사후개입 방안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Maine주에서는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New Hampshire는 소규모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람(교사 포함)이, San Diego주 호주에서는 첫 24시간 안에 우선 자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 친한 친구 등)부터 학교장, 교직원, 상담자가 개별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정, 동아리, 학급 등 교직원이 소규모로 전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집회를 통한 소식 전달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데 사망한 사실만 전달하고 '자살'은 학급 단위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에서는 특별수업시간을 마련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소식을 전달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살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전달 방식은 상황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 소식을 전달함에 있어 온갖 소문과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소식 전달시 강조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처럼 상황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자살 발생시 학사일정 관리 부분이 해당될 것이다. 미국 Maine주나 New Hampshire주의 경우 학사일정의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San Diego주는 며칠간 정규수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보며, 호주의 경우에도 소풍 등의 행사는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 일본과 홍콩의 경우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후개입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전문가 의견과 학교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통적으로 자살 사후개입에서 모방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전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살에 영향받은 사람을 확인하고 개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교내 위기관리팀의 상담자, 학교카운슬러, 학교심리학자, 상담교사 등 정신건강 관련 분야 배경의 교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자살위험 스크리닝과 취약한 학생을 파악하고 애도상담 등을 의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위기관리팀 회의를 진행하여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것 외에도 교내외 관련 전문가 그룹이 보호지원(care)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보호지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살위험 스크리닝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에 영향을 받거나 자살위험에 노출된 학생과 교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자살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상담, 혹은 정신과에 의뢰하는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역의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이들을 연계하고,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해 알리고 지지해 주기 위한 지침, 장례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직원들을 포함한 위기개입 관여 인력 역시 청소년의 자살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 및 표현 방법,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 자살의 모방 가능성이 높은 학생과 취약성이 있는 학생들의 확인과 관찰, 또한 고위험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 지역의 정신건강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기개입 과정에서 관여 인력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리적 경험보고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사후개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의 생일, 기일 등과 관련하여 추후관리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 일본, 홍콩 등 대부분의 사후개입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의 애도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자살자의 생일, 기일 뿐 아니라, 전학, 부모의 이혼 등 사회적 지지 자원의 변화가 있는 학생이나 시험 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심과 관리를 하는 것이 연속 자살, 모방 자살을 예방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도의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광역정신보건센터, 교육청 및 산하 상담센터가 청소년 자살의 사후개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자살에 영향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후개입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되어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CYS-Net)를 활용하여 접근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및 훈련모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2003)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매뉴얼 개발의 범위를, 기획하고 구성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실행 후 평가하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발 과정은 아래의 순서와 같고, 그 흐름도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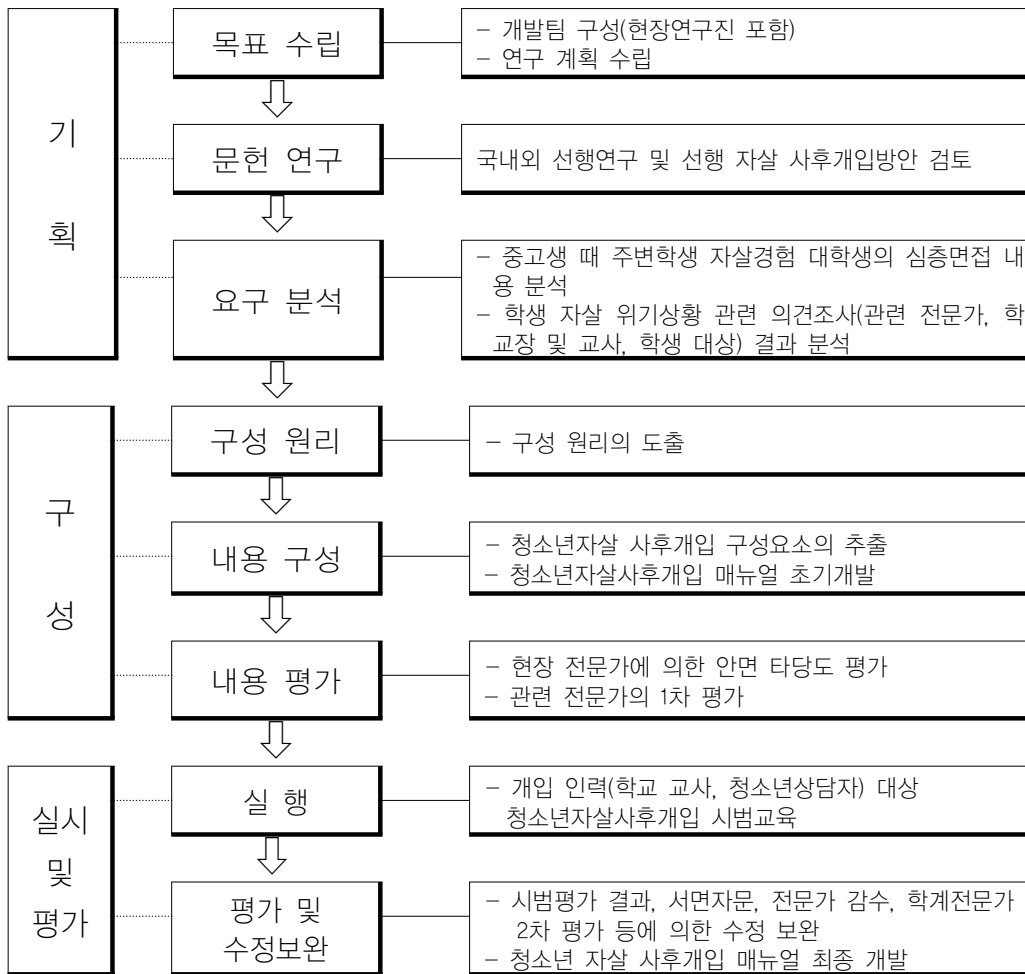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과정

가. 기획 단계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국내 심리학과 교수, 전 미국 Houston ISD 학교 위기관리팀 리더) 및 본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개발팀은 우선 국내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중고생 때 같은 반 친구나 친한 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11명을 면접조사 하였고, 약 1,500명의 중고생 및 약 90명의 교사, 10명의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사후개입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매뉴얼의 구성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 목표 수립

본 연구과제를 수행할 내외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연구 절차 및 방법, 기대효과 등에 관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발표회를 가졌다. 이때 토론자 및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2) 문헌 연구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의 실태, 사후개입 관련 개념, 사후개입 관련 국내의 자살 사후개입방안 현황, 개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3) 중고교 때 친구 자살경험 청소년의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조사 목적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살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자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중고교 재학 시기에 (학급)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학교의 개입과 (학급)친구의 자살로 인해 자신이 받은 영향, 학교 및 다른 학생들이 받은 것으로 관

찰된 영향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 대상

자살경험 청소년 심층면접은 중, 고등학교 때 (학급)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살에 관한 심층면접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면접대상자가 경험을 언어화하여 표현할 수 있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경험을 분리할 줄 아는 인지 능력이 필요하며, 본 심층면접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심리적 역량과 자원 활용 역량이 갖춰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자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자살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위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생들을 면접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장시간(자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이후의 회상을 통한 자료 수집의 한계가 예상되었으나, 현재 애도과정 중에 있는 중고교에 재학 중이면서 친구가 자살한 지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면접대상자의 안전성과 대처가능역량을 최우선으로 하여 면접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대상자들은 2010년 3월~4월 서울 소재 대학교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 모집하였다. 1차 전화면접을 통하여 연구에 부합되는 조건임을 확인한 후 2차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2차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총 11명으로 만 19세~24세였으며 여성이 9명, 남성이 2명이었다(표 16. 참조).

다) 조사 도구 및 절차

면접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을 구성하였다. 학급(친한) 친구가 자살한 상황, 자살 소식 전달 경로, 자살이 학생 및 선생님, 학교에 미친 영향, 유품 처리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질문으로 채택되었다. 마무리 질문으로는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개인적 인적 사항은 표 16과 같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질문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진행자들은 전문상담가들로 임상전문가 박사 1명, 상담심리사 석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자살경험 인터뷰 질문지, 부록 1. 참조).

심층면접은 총 11사례가 이루어졌으며, 각 사례 당 약 70~90분 간 실시되었다. 면접 참가자들에게는 시작 전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지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참가자들의 성함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렸다.

표 16. 면접참여자 및 자살자 특성

사례	면접참여자 특성			자살자 특성			
	나이(만)	성별	자살자와의 관계	자살시기	성별	자살방법	추정된 자살이유
a	20세	여	같은 반 학생	고 3	여	모름	성적압박
b	22세	여	친한 친구	고 1	여	투신	개인 성적체성 폭로
c	24세	여	친한 친구	중 3	남	투신	이성친구와의 이별
d	20세	여	같은 반 학생	고 1, 중간고사 기간	남	투신	성적압박
e	19세	남	같은 반 학생	중 3, 중간고사 이후	남	목 맴	따돌림
f	25세	여	친한 친구	고 2, 여름방학	여	음독	모름
g	19세	여	친한 친구	고 3, 첫날	여	목 맴	모름
h	19세	여	친한 친구	고 2, 2학기	여	투신	따돌림
i	21세	남	같은 반 학생	고 2	남	음독	따돌림
j	20세	여	친한 친구	고 3, 졸업 직전	여	연탄가스	따돌림
k	21세	여	같은 반 학생	고 2, 중간고사 기간	여	투신	성적압박

라) 자료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전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자 면접을 실시한 면접자들이 1차적으로 2개의 면접 축어록을 읽고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면서 부호화 영역 및 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후 독립적으로 면접 축어록을 읽고 Nvivo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면접용 질문을 토대로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 전원이 모여 각각의 면접 축어록에 대해 토의를 통해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개념을 구성하였다. 핵심 개념의 구성은 연구자들의 임의적인 추론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이 직접 한 말을 근거로 삼았다.

마) 결과

심층면접의 결과는 크게 자살이전의 상황과 자살이후의 상황으로 나누었다. 인터뷰의 세부 예시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 이전 상황

• 학교상황

면접참여자(자)가 보고한 자살자의 자살이전 학교상황을 살펴보면 ㉠ ‘공부만 함’, ‘공부에 관한 주류만 남음’, ‘공부 잘하는 애 편애’,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 농담 많이 함’ 등의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4사례), ㉡ ‘자살자의 소극적이거나 4차원적 성격으로 인한 친구들의 회피’, ‘초등학교 때 왕따를 시켰던 아이와 같은 반’ 등의 따돌림(4사례), ㉢ ‘개인 정체체성의 왜곡된 시선’, ‘이전 자살시도에 대해 쉬쉬거림’ 등 자살자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2사례)이 있었다.

• 추정된 자살이유

자살자의 추정된 자살이유를 살펴보면 ㉠학교성적 압박(3사례), ㉡개인 정체체성 폭로(1사례), ㉢따돌림(4사례), ㉣이성친구와의 이별(1사례), ㉤이유 모름(2사례)이 있었다.

② 자살 이후 상황

②-1. 자살소식 전달 및 반응

• 자살 소식 전달

자살소식 전달에 있어서 최초 전달자는 ㉠직접목적(2사례), ㉡친구(5사례), ㉢담임 교사(4사례)로 나눌 수 있다.

직접목적은 자살자가 학교 옥상에서 추락하거나 반 아이들 앞에서 제초제를 마시

는 등의 상황을 직접 본 경우이다. 최초 전달자가 친구인 경우는 문자, 통화 등으로 서로에게 알리거나 타 학교 친구로부터 소식을 접하는 등의 전달방식을 가졌다. 담임교사가 최초 전달자인 경우 자살임을 확실히 이야기하는 경우와 직접적 언급을 피하는 경우(‘사고사라고 말함’, ‘이젠 볼 수 없다고 말함’, ‘경찰서에 갔다 왔다고만 말함’ 등)로 나눌 수 있다.

전달 방식에 있어서 담임교사가 자살임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거나 친구 또는 부모님들끼리 전달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되거나 소문과 억측이 확산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 자살소식에 대한 즉각적 반응

자살소식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학생과 교사의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학생반응

자살소식을 접한 학생반응은 면접참여자의 반응, 친한 친구의 반응, 학급의 친하지 않은 학생의 반응, 가해자(추정된 자살이유가 따돌림인 경우)로 지목되는 학생의 반응으로 나뉜다.

자살소식을 접한 면접참여자들의 반응 중 자신이 느낀 감정으로는 ④분노감(학교 반응에 대한 분노, 따돌린 친구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⑥배신감, ③허전함, ④명함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③‘설마 아니겠지’, ‘사실이 아니다’, ‘꿈같음’, ‘루머라고 생각하고 안 믿음’ 등의 부인반응, ①‘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등의 수긍반응, ⑧‘신경을 못써줬나’, ‘내가 의지가 못됐나’, ‘못 해 준 것만 생각’, ‘미안함’ 등의 자책반응을 보였다. ⑥‘교무실로 달려감’, ‘그 반으로 확인하러 감’ 등의 자살여부 재확인, ①‘울기만 함’, ‘자기도 모르게 통곡’ 등의 울음, ①장례식장 참석도 함께 나타난 행동이었다. ⑥그 외에 몸이 아프고 구토증세가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면접참여자가 자살자와 친한 친구가 아니었을 경우, ①별로 슬프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고하였다.

친한 친구의 반응을 관찰하여 보고한 결과 ④쇼크 상태의 반응으로 ‘하해지고 아무 얘기 못함’, ‘멍해짐’, ⑥‘울음을 멈추지 못함’, ③‘실신 직전까지 울음’, ④자책반응, ③‘안 믿김’ 등의 부인반응이 나타났다.

학급의 친하지 않은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보고한 결과 ④애도하는 분위기와

⑥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나누어진다. 학급 전체가 슬렁이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했다는 반응과 자살현장의 상황을 영웅담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면접자의 보고에서 나타난 가해자(추정된 자살이유가 따돌림인 경우)들로 지목되는 학생들의 반응은 자살사건과 상관없다는 식의 언행(‘난 안 그랬다는 식의 반응’, ‘시시덕거림’, ‘별 일 없다는 듯이 노는’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 면접자들이 자살자와 친한 친구이거나 혹은 가해자와 같은 반 친구이더라도 친밀하지는 않아 가해자들의 표면적인 반응일 뿐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은 잘 알지 못하였다.

- 교사반응

면접참여자가 관찰한 자살 소식을 접한 담임교사는 ④‘힘들어함’, ‘우는 모습을 보임’, ‘애써 태연하려 함’, ‘실신’ 등 자살사건에 대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⑥‘무심함’, ‘심각해 보이지 않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 등 자살사건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 교사들은 대체로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 미칠까 우려하여 피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②-2. 학교의 공식적 대응절차 및 반응

• 즉각적인 학교 안전관리

학교의 공식적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④학사일정(보충수업, 중간고사 등)은 모두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⑥위험장소에 대한 조취(1사례-옥상 폐쇄), ③자살 이유로 추정되는 사항들에 대한 개입(3사례-이반검열, 따돌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시험 난이도 조정)이 나타났다.

•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학교가 보인 공식적 애도반응으로는 ③추모식(1사례)과 ⑥장례식 참석(7사례)이 있다. 추모식이 이루어진 사례는 한 사례로 학급 내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장례식의 참석 여부와 형태는 사례마다 달랐다.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는 담임교사, 간부교사, 친한 친구 위주의 장례식 참석(6사례), 장례식에 단체로 참석(1사례)이 있었으며, 장례식 불참 경우는 장례식에 못 가게 함(2사례), 기타(2사례-방학중

이라 알지 못함, 장례식에 관해 알지 못함)이 있었다.

- 자살자 관련 학사 관리

그 외 면접참여자에게 관찰된 자살자에 대한 학급에서의 학사 관리는 ①출석부의 자살자 이름 위로 빨간 줄이 쳐지고(1사례), 자살자의 책상이 한 달 안에 치워 졌으며(6사례), 유품은 정리 후 부모님께 전달(3사례)되었다.

②-3. 자살 발생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후유증 및 어려움

- 후유증 및 어려움이 관찰된 기간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면접참여자가 보고한 학급 학생들에게 표면적으로 후유증 및 어려움이 관찰된 기간은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①일주일 이내(3사례), ②1~2주(2사례), ③2주~한 달(5사례)이었다.

- 학생들이 보인 후유증 및 어려움

자살사건 이후 학생들이 보인 후유증 및 어려움은 면접참여자, 친한 친구, 학급의 친하지 않은 학생, 가해자(추정된 자살이유가 따돌림인 경우)로 지목되는 학생으로 나뉜다.

자살사건 이후 면접참여자들이 자신이 겪었다고 보고한 후유증으로는 ①정서적인 어려움(분노감, 죄책감, 우울감, 후회, 불안감 등)과 ②대인관계의 어려움(‘오히려 밝은 척’, ‘성격을 바꾸려 노력함’ ‘다른 사람을 안 사귀려 함’ ‘선을 그어 놓고 대함’ 등)을 겪고, ③어둡고 현실적인 생각들(‘사람 죽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내가 죽어도 아무렇지 않겠구나’,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등)을 하게 되고 ④자살생각을 재고하거나 자해 및 자살욕구가 일어나는 엇갈린 영향들을 보고하였다. ⑤학교 체제에 대한 불신, ⑥비밀 폭로자와 싸움, ⑦자살자를 추억하는 행동(‘미니홈피 방문’, ‘사진, 일기 태움’, ‘종종 사진과 문자 봄’ 등)을 하며, ⑧자살자 가족을 챙기고(‘동생과 놀아줌’, ‘친구 부모님께 안부전화 함’,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림’), ⑨향후 진로에 영향(대학 와서 인권운동, 청소년 관련 학과 진학)을 받은 것이 나타났다.

참여자가 관찰한 친한 친구는 자살사건 이후 ①‘정신과 상담’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②‘말수 적어지고 조용해짐’, ‘다른 사람 안 사귀려 함’, ‘참여자와의 연락을 끊음’

등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㉔‘자살자를 없던 사람처럼 행동함’, ‘서로 금기시하여 이야기하지 않음’, ‘종종 이야기하며 자살자를 추억하고 추모함’ 등 자살자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을 보고하였다.

학급의 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괜찮아 보이고 자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고하였다.

면접참여자가 관찰한 가해자(추정된 자살 이유가 따돌림인 경우)로 지목되는 학생들은 ㉕별 일 없다는 듯 지내거나 ㉖유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면접참여자들이 자살자와 친한 친구이거나 혹은 가해자와 같은 반 친구이더라도 친밀하지는 않아 가해자들의 표면적인 반응만 보고되었을 뿐 가해자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잘 알지 못하였다.

- 교사가 보인 후유증 및 어려움

자살 이후 담임교사의 경우 ㉗우울감, ‘힘없어 함’, ‘수업에 열의가 없어짐’, ‘휴직’ 등의 무력감을 보이고 ㉘학생들 앞에서 의연하려는 모습과 ㉙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말과 행동을 나타냈다.

그 외 교사들은 ‘반 분위기를 보며 차분히 수업 진행’, ‘얘기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물어보면 뉴스로 찾아보라고 말함’ 등 대체로 내색하지 않으려 하고 자살사건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기타

그 외 자살 이후 학부모의 반응은 면접참여자의 부모와 자살자 부모의 ㉚‘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너희라도 열심히 살아라’ 등의 남은 사람들에 대한 격려반응과 면접 참여자 부모와 주변 학부모들의 ㉛‘나약하다’, ‘철없다’ 등의 자살자에 대한 비난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자살자 가족에 의한 ㉜학교의 입장과 다른 정보 제공(‘사고사가 아닌 자살임을 이야기함’)이 있었다.

③ 사후개입에 대한 의견

-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면접참여자들의 애도반응에 대한 사후대처방안 의견은 ㉝공식적인 추모행사 필요(‘공식적 끝맺음 절차 필요’, ‘촛불의식’, ‘추도식’, ‘사과문 낭독’, ‘영결식’, ‘학교차원 애

도), ⑥교사에게 바라는 의견들(‘완곡적 표현 필요’, ‘중립적 태도’, ‘대처행동 필요’), ⑦에도반응에 대한 교육(‘학생 대상 에도반응 교육’,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는 분위기’)이었다.

- 자살 발생시 즉각적 학교 안전관리 및 자살 예방 관련 개입

면접참여자들의 사후대처방안 의견은 ①상담 필요(‘상담실 설치’, ‘집단상담’, ‘개별 면담 제도화’, ‘학년단위 보다 자발적 개인상담’, ‘막힌 것 풀어줘야 함’, ‘심리치료’, ‘죄책감 덜어주기’), ②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상담기관 소개’, ‘상담 또는 도움 주는 사람 연계’, ‘담임교사와 상담원 연계’), ③학부모 대상 안내(‘부모 대상 공지’, ‘학부모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④학교에서 ‘아무런 개입을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바) 면접 결과의 시사점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의 위험신호의 식별과 개입 필요

자살자가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을 하고, 어려움(트랜스젠더, 자살 시도경험, 따돌림, 이성친구과의 이별 등)을 보고한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개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해서 자살자가 크게 고통 받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의 위험 신호에 대한 식별과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심각한 사건에 압도된 학생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살시도 후 연이은 시도에 따른 사망이 3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② 일관되고 정확한 자살 소식 전달방법이 요구됨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자살 발생시 소식의 최초 전달 경로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통해 소식을 전달되기보다 학생들 간 휴대폰의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구두 등에 의해 추측된 자살이유나 자살방법 등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졌거나 주변 학부모에 의

해 편견으로 왜곡된 내용으로 전달된 사례가 있었고 담임교사가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사' 등으로 포장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전달방식에 대해 '자살'소식을 접하게되는 것은 주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애도반응을 적절하게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1. 자살 소식을 접한 학교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

자살소식을 접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친한 친구들의 경우, 명함, 사망사실에 대한 부인하거나 돕지 못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자책을 보였고, 지목된 폭력 가해자가 있는 경우 자살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 이상의 어려움이 부여되는 등 추가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2. 학교 구성원간 협의된 개입 절차가 필요

첫째,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고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구의 자살로 혼란스러운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교의 대처는 가혹한 것으로 비춰졌다. 부적절한 과잉 개입이 있었을 때에는 2차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존재하였고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던 참여자에게는 극심한 분노를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자살한 학생을 기리는 위한 꽃다발이나 자살한 학생이 공부했던 자리를 방치하는 것도, 혹은 신속하게 치워버리는 것도 자살자 주변 친구들에게는 자살한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 비춰졌다. 이와 같은 학교의 대응방식은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교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가 보인 공식적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으로는 추모식을 갖거나(1사례), 장례식 참여가 있었다. 주로 교사나 반장 등의 임원학생, 친한 친구 위주의 비공식적 참여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예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장례식장에 간 사례도 있었다. 혹은 학급이 단체로 참여하게 해서 친한 친구가 아닌 학생들은 불편한 감정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급 단위로 추모식이 이루어진 경우 자살자와 친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점에 대해 비난의 시선을 바라보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례식 참여에 관한 공식적으로 협의된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예 장례식 참여를 못하게하거나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은 애도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자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대처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②-3. 자살 발생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후유증 및 어려움 심각

자살 발생 후 표면적으로 보고된 학생들의 반응은 자살자와 친한 여부, 가해자로 지목된 위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경우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친하게 되면 친구가 자살할까봐 두려워 깊이 사귀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밝고 활발하려고 애쓰거나 말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심지어 자살 생각이나 자살충동을 경험하거나 현재까지 자살자를 추억하고 애도하는 행동들이 지속되는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짧게는 4~6개월 이상 길게는 대학생이 된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급의 친하지 않은 학생들은 표면적으로는 일정 기간 후 괜찮아보였지만 자살자에 대한 얘기는 금기시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생들은 시시덕거리고 자살자에 대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으나 면접참여자가 지목된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개입시킨 것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 대한 고려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담임교사의 경우 자살한 학생과 이전에 맺은 관계에 따라 우울, 실신, 휴직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찰되거나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자살자와의 이전 관계에 따라 생존자 대상 개입이 달라야 함을 시사하며 담임교사도 생존자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사후개입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학부모의 반응은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든가, 자살한 학생이 나약하고 철 없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자살자에 대한 낙인 문제와 연결되므로 자살자 주변 청소년들이 애도반응을 억압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자살자에 대한 낙인문제 역시 생존자에게 부정적 경험을 가져다주므로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사후개입 영역임을 알 수 있다.

③ 면접참여자의 사후개입에 대한 의견

③-1. 공식적 추모활동에 대한 요구

많은 면접참여자들이 촛불의식이나 학교차원의 공식적인 추모행사를 추천하거나 혹은 학생들을 위해 공식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전자의 의견을 제안한 이유로는 공식적인 끝맺음이 필요하고 자살한 친구에 대한 존중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자살이 주는 영

향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의견을 제안한 참여자들은 중고생 때 자살에 대한 금기를 지키느라 힘들었던 일들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자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살한 학생을 적절하게 애도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③-2. 자살에 영향받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적 개입 요구

많은 면접참여자들이 학교의 개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이나 담임교사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집단 상담을 통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개인마다 처한 입장과 받은 영향 정도가 다르므로 자발적 개인 상담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 소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의견에 비추어보건데 담임교사와의 협의 하에 학생들의 자살 영향정도를 스크리닝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라 보여지며, 상담 역시 학생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① 조사 목적

국외 문헌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지되고, 실제 수행되고 있는 자살 사후개입 영역과 세부 절차를 확인하였으나, 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교구성원 즉, 학교장 및 교사, 학생의 자살이나 사후개입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살을 ‘사고사’, ‘전학’ 등으로 알리는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자살에 대한 소식 전달 자체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나 ‘반드시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었다. 학교의 사후 개입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 교사, 학교관리자들이 자살을 바라보는 태도나 사후개입에 대한 인식이 현재 사후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공통적으

로 지지받는 개입방법일지라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이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지 현장 의견을 조사하여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 등 위기문제로 청소년들을 자주 접하는 국내의 관련 전문가집단(자살 관련 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전문가, 교육복지전문가 등)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 집단, 중학교 학교장,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개입 세부영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대상별로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② 조사 대상

국외 문헌들과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의 설문조사(2009)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세부지침에 관한 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2008년 6월~9월에 걸쳐 자살예방 관련 기관 팀장(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 및 위기개입팀장, 상담원(청소년상담자), 자살 관련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관련 학과 교수(교육복지전문가, 임상 및 상담 전문가) 총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장 및 교사의 경우 2010년 5월~6월에 서울, 인천, 경기, 대전지역에 소재한 31개교 약 134명의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02명(76.1% 회수)의 자료가 수합되었다. 학교관리자는 5월 중순 서울, 대전 등에 소재한 40개교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받는 형식으로 요청하여 10부(25% 회수)의 자료가 수합되었고, 교사의 경우 21개교 94부를 전송하여 92부(97.9% 회수)의 자료가 수합되었다.

학생의 경우 2010년 5월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12개 중학교, 43학급(약 1,500명)을 임의 선정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6개교 22학급은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나머지 6개교 21개 학급에는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학급담임이 설문을 실시하고 수합하여 본원으로 반송하도록 협조를 얻어 수합 완료하였다

(1,490부, 99.3% 회수).

의견조사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21명)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15명(71.4%), 남자가 6명(28.6%)이고, 소속은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전문가가 3명(14.3%), 시도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가 14명(66.7%)이고, 대학교 교수가 4명(19.0%)이었다. 근무지역은 대도시가 13명(61.9%), 중소도시가 7명(33.3%), 읍면지역이 1명(4.8%)이었다. 연령은 대부분 30~40대에 속하였고, 근무경력은 10년 미만 16명(76.2%), 20년 미만 4명(19.0%)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참여한 교장 및 교사(102명)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67명(65.7%), 남자가 35명(34.3%)이고, 학교는 중학교가 49명(48.0%), 고등학교가 53명(52.0%)이고, 교사 직위로는 학교장이 10명(9.9%), 일반교사가 82명(80.4%), 특수교사가 4명(3.9%), 보건교사 3명(2.9%), 상담교사가 3명(2.9%)였다. 근무지역은 대도시가 63명(61.8%), 중소도시 18명(17.6%), 읍면지역이 21명(20.6%)이었고, 연령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30대 36명(36.2%), 40대 32명(31.5%) 순이었으며, 근무경력은 10년 미만이 44명(43.1%), 30년 미만이 28명(27.5%) 순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33명(32.4%), 없음이 32명(31.4%)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학생 참여자(1,490명)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866명(58.1%), 남자가 624명(41.9%)이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402명(27.0%),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80명(25.5%)순으로 참여하였다(표 19. 참조).

표 17.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성별	여자	15	71.4
	남자	6	28.6
소속	자살예방 관련 기관	3	14.3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4	66.7
	대학교	4	19.0
직위	상담 및 위기개입 관련 팀장	15	71.5
	상담원	2	9.5
	교수	4	19.0
근무지역	대도시	13	61.9
	중소도시	7	33.3
	읍면지역	1	4.8
연령	30대(30~39)	11	52.4
	40대(40~49)	9	42.8
	50대(50~59)	1	4.8
근무경력	10년 미만(0~9년)	16	76.2
	20년 미만(10~19년)	4	19.0
	30년 미만(20~29년)	1	4.8
전체		21	100.0

③ 조사 내용

자살 사후개입의 주된 목적, 애도반응 조력 및 모방자살 위험 감소에 초점을 두고 문헌 연구를 통해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진 ‘사후개입 방법 리스트’를 구성하였는데 이 문항들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또한 공통되는 하위범주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관련 통계전문가에게 요인분석 방법 및 결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문항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얻고자 학생용 설문자료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전문가,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설문자료는 1번, 4번, 29번, 31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42개의 문항이 학생용 설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본 설문은 ‘학생이 자살한다면...’을 가정하고 각 문항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

각하는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고 각각 그렇게 응답한 이유나 근거를 문항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로서의 문항을 가진 검사 자료의 차원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축요인추출방법을 통해 성분을 추출하고, 프로맥스 방법으로 회전하여 결과를 얻었다(표 20. 참조).

그 결과 총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별 고유치는 요인 1이 5.944, 요인 2가 2.867, 요인3이 1.755, 요인 4가 1.497, 요인 5가 1.446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 중 약 13.51%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 2는 6.52%, 요인 3은 3.99%, 요인 4는 3.40%, 요인 5는 3.29%로 전체 설명량은 30.70%이었으며, .2이상의 요인부하량 값을 지닌 문항들을 포함하였다(표 20. 참조).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1에 포함된 17개의 문항은 ‘교장선생님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현장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약약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등 자살 발생 직후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되었다.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선생님은 자살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등 교육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한다’,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등 상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자살 발생시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요인 2에 포함된 5개 문항은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은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등의 ‘자살 소식 전달’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요인 3에 해당되는 9개의 문항에는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자신의 충격과 애도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 등의 ‘애도 반응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18. 학교장 및 교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성별	여자	67	65.7
	남자	35	34.3
학교	중학교	49	48.0
	고등학교	53	52.0
교사직위	학교장	10	9.9
	일반교사	82	80.4
	특수교사	4	3.9
	보건교사	3	2.9
	상담교사	3	2.9
근무지역	대도시	63	61.8
	중소도시	18	17.6
	읍면지역	21	20.6
연령 (무응답=1)	20대(20~29)	9	8.8
	30대(30~39)	36	36.2
	40대(40~49)	32	31.5
	50대(50~59)	20	19.6
	60대(60~69)	4	3.9
근무경력	10년 미만(0~9년)	44	43.1
	20년 미만(10~19년)	17	16.7
	30년 미만(20~29년)	28	27.5
	30년 이상	13	12.7
종교 (무응답=1)	없음	32	31.4
	천주교	12	11.7
	기독교	33	32.4
	불교	23	22.5
	기타	2	2.0
전체		102	100

표 19. 학생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성별	여자	866	58.1
	남자	624	41.9
학교	중학교	608	40.8
	인문계고	600	40.3
	실업계고	282	18.9
학년	중1	206	13.8
	중2	199	13.4
	중3	203	13.6
	고1	402	27.0
	고2	380	25.5
	고3	100	6.7
전체		1,490	100

요인 4에 해당되는 4개의 문항에는 ‘교장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등 ‘사후개입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표 20. 참조).

요인 5에 해당되는 7개의 문항에는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등 ‘개입태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④ 조사 결과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살 발생 후 사후개입의 흐름에 따라 5개의 하위범주의 순서를 조정하고 개념적으로 부적절하게 묶인 문항 일부를 재조정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이 .2이하인 문항의 경우에도 개념

표 20.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의견조사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5
31 타인 비난 않도록 교육	0.577				
36 장례식 참가 허용	0.544				
30 학생들의 애도 차이 존중	0.482				
27 교사 자살영향 학생 관찰	0.476				
42 자살영향 친구 도움 청하기	0.459				
39 자살의 위험신호 배우기	0.455				
19 자살 사실 솔직하게 알리기	0.32				
17 학교 안전관리 강화	0.316				
43 자살위험 친구 도움청하기	0.315				
29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	0.310				
38 자살영향 학생 개별 상담	0.310				
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0.28				
15 자살 추측 정보 차단	0.273				
34 자살위험학생 구별법	0.262				
44 특별상담실 설치	0.256				
16 경찰 조사를 위해 격리	0.247				
6 죽음 미화하지 않기	0.232				
26 자살방법 및 이유 다른 학급에 알리기		0.756			
20 자살방법 및 이유 해당 학급에 알리기		0.611			
25 자살 사실 다른 학급에 알리기		0.578			
2 대강당이나 교내방송		0.450			
3 학교 직전에 알리기		0.299			
23 교사와 애도 나누기			0.591		
37 장례식 후 감정 나누기			0.544		
24 특별한 날의 애도반응 계획			0.467		
40 소집단형태로 감정 나누기			0.445		
22 학급내 학생 개별상담 실시			0.444		
33 교사의 애도 돕는 방법 습득의 필요성			0.292		
14 출결 관리			0.266		
4 학사 일정 미루기			0.247		
5 공식적 추모행사 실시			0.203		
8 학부모에게 대처방안 제공				0.678	
7 자살예방지침 및 기관정보 제공				0.629	
9 상담센터 등 기관번호 제공				0.477	
1 자살 가족에 기관정보 제공				0.229	
12 공부집중을 위해 언급 않기					0.376
10 학교내부에서 조용히 해결					0.354
28 교사의 감정표현 부적절					0.306
11 학교 적극적 개입 불필요					0.303
35 전교생이 아는 건 불필요					0.298
41 자살 영향의 기간					0.284
32 자살에 대한 농담 내버려두기					0.211
고유근	5,944	2,867	1,755	1,497	1,446
설명변량(%)	13.51	6.52	3.99	3.40	3.29
누적설명변량(%)	13.51	20.03	24.01	27.42	30.70

적으로 분류하여 포함하고, '자살 발생 관련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 '자살 소식전달 방법', '에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 '사후개입 관련 정보내용과 제공 범위', '개입태도의 특성' 순으로 모든 문항을 재분류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전문가 및 학교장, 교사 대상 설문 문항 역시 재조정하였다.

우선 각 하위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내용별 전문가 의견을 '예(찬성)'와 '아니오(반대)'의견으로 나누어 선택 이유를 정리하였다. 조사 대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항별 빈도와 유효백분율을 구하는데 그쳤다.

한편, 학교장 및 교사, 학생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별로 빈도와 유효백분율을 구하고, 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교사의 성에 따라 반응차가 어떠한지(부록 5. 참조), 학생의 경우 학교급에 따른 반응차가 어떠한지, 학교급별 성에 따른 반응 차가 어떠한지(부록 6. 참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문항별 응답자들의 반응이 찬성과 반대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Domino(1991)의 '의견 일치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각 문항별로 '예(찬성) 혹은 '아니오'(반대) 중 한쪽 의견이 3/4를 차지하여 75% 이상일 경우를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보고,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를 의견 불일치로 보았다. 찬성 일치나 반대 일치, 의견 불일치 모두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찬성과 반대의 차가 10% 이상이지만 어느 한 쪽도 75%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방향에 따라 찬성 경향과 반대 경향으로 보았다.

(a) 관련 전문가의 의견

(a)-1. 자살 발생 관련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

문항에 제시된 자살 발생 관련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에 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표 21. 참조).

우선 학생 자살 발생시 학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의견이 수렴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학교장은 학교위기관리팀의 조직을 통해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찬성, 95.2%), '학교장은 먼저 교사들에게 자살 사망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야할 내용

을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찬성, 100.0%), '교직원, 학생, 학부모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한다'(찬성, 95.0%), '학교장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를 위해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찬성, 95.0%),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찬성, 95.2%), '모든 교사는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한다'(찬성, 100.0%)로 나타나, 학교 위기관리 팀의 사전 조직, 교사 대상 자살 사실 전달 및 학생 공지에 관한 협의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간 추측된 정보 교류 방지, 자살 가능 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학생의 자살 영향 여부 주의 관찰 등에 대해서 해외 자살 사후개입 지침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다(표 21. 참조).

한편 학생 안전을 위한 출결 관리 강화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경향(71.4%)을 보였는데, 찬성 의견으로는 일정기간 모방자살과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고, 반대의견으로는 자칫 통제로 보일 경우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평소 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자살 발생시 학사일정 관리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찬성 47.6%-반대 52.5%). 찬성 입장에서는 교내 자살 발생시 문제해결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험 같은 경우는 미룰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 입장에서는 중요한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사 일정 연기는 이슈화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표 21. 참조).

또한 자살발생시 학교 안전 관리 관련 교육(표 22. 참조)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찬성, 100.0%),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찬성, 100.0%), '교사는 자살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95.0%),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100.0%),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찬성, 95.2%) 등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 및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지만 찬성 쪽 의견이 더 많았는데(61.9%), 자살의 문제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과 자살자에 대한 비난과 오해를 우려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개입을 선호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였다(표 22, 참조).

표 21. 학교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1. 학교장은 평소에 학교위기관리팀을 조직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0(95.2)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으로써 문제 인식과 대처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준비를 갖추어야 함 - 자살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평소 관리가 필요 - 자살은 다른 학생에게 종종 정신병리와 자살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체계적 대응 필요 	
2. 학교장은 먼저 교사들에게 자살 사망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	21(100.0)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전달하고 대처할지 협의시간을 마련해야 함 - 자살은 외상적 상황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정신적 충격 최소화 - 문제 왜곡, 확산으로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18.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19(95.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측, 짐작은 일을 확대시키고 애매 모호하게 하므로 - 추측된 정보는 오히려 상황을 왜곡하거나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잘못된 정보는 망자나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음 - 가능한한 상황에 대한 사실 전달, 애도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 	
19. 학교장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에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19(95.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하고 기본적 조치 - 정확한 평가와 대처를 위해 - 빠른 문제해결과 학교 안정을 위해 	
20.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발출이나 화학약품 등	20(95.2)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 - 자살수단은 규제하거나 대비하는 것 	- 학생들의 거부감 우려가 있음

표 21. 학교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 중요 -관리가 허술할수록 자살충동과 맞물려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10(47.6)	11(52.4)
7.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교내 발생이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이 필요 -모든 일정을 미룰 필요는 없으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룰 필요가 있음 ----- -(미결정)중요 일정 미루고 위험한 상황을 대면해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함. 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함	-다른 사망의 경우 학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동일 지침 적용 -중요한 학사일정이 바로 상황 발생 날이 아니라면 위기조치와 함께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 -중요한 학사일정은 진행하되, 적절한 애도과정을 거치도록 함 -애도는 필요하나 이슈화될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은 그대로 진행
17.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5(71.4)	6(28.6)
	-일정 기관 관리가 필요 -위기상황이므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 -모방자살 및 집단 행동(이탈)을 막기 위해	-평소 하듯이 하되, 보다 활발한 대화와 의사소통이 필요 -학생 위로차원이 아닌 통제의 수단으로 느껴진다면 거부감이 들 우려가 있음
28. 모든 교사는 자살에 영향을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21(100.0)	0(100.0)
	-사후개입동안 수업에 들어갈 때 신경써야할 사항 -혹시 있을 상황에 대비해 적절히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2차 피해 예방) -예방차원과 PTSD로 힘들어할 수 있으므로	

다음 자살 발생시 학교 안전관리 관련 상담(표 23. 참조)에 대해서는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100.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88.9%),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100.0%)에 찬성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여 우리나라 관련 전문가 역시 해외 자살 사후개입방안과 마찬가지로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후개입 기간동안 특별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 학교 안전관리 관련 교육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32.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3(61.9)	8(38.1)
	-자살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차원에서 필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음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음	-사후개입에는 적절하지 않아보임.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강조 -학생들 스스로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개입이라고 봄 -자살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33.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0(100.0)	0(0.0)
	-사후개입시 기본적인 사항 -애도과정의 순서, 시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그 차이를 인정 -성격과 표현방식이 다르므로 당연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몰라 서로 상처줄 수 있으므로	
34.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20(100.0)	0(0.0)
	-사후개입시 기본적인 사항 -비난 받을 대상이 충격과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되므로 주의 -비난보다는 이해와 용서, 배려에 대한 교육	
37. 교사는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19(95.0)	1(5.0)
	-사후개입시 스크리닝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방법을 익힘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살 발생을 예방 -척도검사나 전문가와의 교류가 필요	-학생들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담교육과 학교 문화, 시스템 정비가 더 중요
44.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21(100.0)	0(0.0)
	-자신과 친구의 보호를 위해 필요 -위험요소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필요 -또래 상담자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 -자살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음	
16.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95.2)	1(4.8)
	-이미 자살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당연히 예방이 필요하므로 -자살은 예방과 사전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에 자살이 아닌 다른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을 통해 제공	-검증된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이 아직 부재하므로

표 23. 자살발생시 학교 안전 관련 상담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41.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20(100.0)	0(0.0)
	-위기개입 차원에서 필요 -해당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제공, 보통 상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주는 정도가 적당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해 당연히 필요 -외상후 스트레스로 경험될 수 있으므로 개별상담 필요	
4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	16(88.9)	2(11.1)
	-스크리닝 후 필요한 학생에게만 상담 -원하는 학생에게 한해서 -친한 친구 등에게는 특히 필요 -개별, 집단 어떤 형태로든 필요	-모두가 상담 받는 것 보다는 정도에 따라 개별상담
46.(전문가용 설문자료)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20(100.0)	0(0.0)
	-특히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필요 -위기상황이므로 위기상담적 요소를 갖출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 관찰과 대응 병행 -기존 상담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므로 별도로 마련하여 즉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빠른 개입으로 효과 증대	

(a)-2. 자살소식의 전달

우선 문항에 제시된 자살소식 전달방법(표 24. 참조)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반대 95.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반대, 90.5%),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찬성, 95.2%),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반대, 95.2%)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살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전달, 대규모 동시 전달에 대한 우려, 자살방법 및 이유 설명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외 사후개입 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일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교생 범위까지 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경향을 보였는데, 찬성하는 이유로는 오해와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학내 자살인 경우에는 당연히 전교생에게 고지해야하지만 학외 자살일 경우 그럴 필요가 없으며 자살을 강화하는 효과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24. 참조).

표 24. 자살소식 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5.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1(4.8)	20(95.2)
	-일원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교사 변인에 따른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음	-자살은 위기이나 다른 사망소식을 알리는 것처럼 개별학급단위 접근이 적합 -전체적인 알림은 오히려 학생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일반적인 형식보다는 애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향소를 마련 -학급중심으로 알리고 추모메세지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
6.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8(38.1)	13(61.9)
	-교내 회의가 소집된 뒤 학생들에게 종례하면서 전할 수 있음 -영향 받아 하루종일 학사운영이 힘들거나 동요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어떤 시기든 정확한 상황 전달 필요	-학교직전에 알리는 것은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나 동요를 학교 후 혼자 처리해야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조금씩 흘러나간 이야기들은 더 동요되게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함께 감정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전하는 것이 좋음 -자살소식 전달에서는 즉시성보다는 적절성이 중요,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서 전달시기 잡음 -오전에 알리고 학교에 있을 동안 안정되도록 방법을 모색
2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2(9.5)	19(90.5)
	-자살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나눈 것은 필요하나 자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음	-다른 사망의 경우 병의 경과나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애도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자살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방법과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음 -자살의 구체적 사안보다는 심리와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요 -모방적 사건화 가능성을 부추기는

표 24. 자살소식 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자살의 이유는 담임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2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20(95.2) -충격적, 슬픈 상황을 개방적으로 다루어 또 다른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될 것임 -자살 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자세한 방법과 짐작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한함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도 필요 -교내 자살일 경우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감추는 것은 자살문제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킴	1(4.8)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해야 함
26.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12(70.6) -자살이란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음 -오해나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 -시기와 장소, 적절한 설명과 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예방적 차원의 정보제공 필요	5(29.4) -자살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적절하게 정리한 후에만 솔직하게 -(미결정)학내자살일 경우 필요하나 학외자살은 필요 없다고 생각
27.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1(4.8) -자살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나눈 것은 필요하나 자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음	20(95.2) -다른 사망자에 대한 대처와 동일 -자살 이유는 추측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삼감 -자세한 내용보다는 학생의 마음과 대처에 대한 교육이 중요

(a)3.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사항(표 25. 참조) 중 장례식과 관련하여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찬성, 88.9%),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찬성, 90.0%)로 나타나, 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방과 후 자발적 장례식 참여를 지지하였고, 인솔교사의 지도 하에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사의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단위 혹은 소집 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표 25.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39. 원하는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6(88,9)	2(11,1)
	-장례식은 애도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배려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장례식 참여 -애도과정을 홀로 하는 것이 더욱 위험하므로	- 총동적 행동 우려(인솔교사의 동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40.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18(90,0)	2(10,0)
	-애도 감정을 나누는데 개인차 있어서 주의할 필요 있음 -감정 정리를 도와야함	
4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단위 혹은 소집단 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20(100,0)	0(0,0)
	-소집단 형태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용이하므로 -역량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담임교사도 함께 애도과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됨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됨	
36. 교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20(95,2)	1(4,8)
	-다른 사람도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줄 필요 있음 -학생들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 -학생들에게 적극적 개입은 정서안정에 도움이 됨 -교사도 애도반응에 미숙할 수 있으므로 학생지도를 위해 배울 필요 있음	
25.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 나 생일에, 반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애도 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20(100,0)	0(0,0)
	-PTSD예방차원에서 필요 -학생의 애도과정을 알고 다루어주어야함 -기일에 대해 함께 의견 나누는 것이 학생들의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8.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0(100,0)	20(100,0)
		-다른 사망 사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애도는 필요하나 추모방식은 학생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좋음
9.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20(100,0)	0(0,0)
	-자살사망은 미화할 일이 아님 -자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부추김	

(찬성, 100.0%), 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95.2%), '추모활동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찬성, 100.0%)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위 개입과 교사들의 애도반응 조력 방법의 습득의 필요성, 공식적·선정적 추모활동의 금지안 찬성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표 25. 참조).

(a)4.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표 26. 참조)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학교장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찬성, 90.5%),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한다'(찬성, 100.0%),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찬성, 95.0%), '학교장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찬성, 100.0%)로 나타났다. 자살한 학생의 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관, 자살 예방 지침, 학교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a)5. 개입태도의 특성

개입태도의 특성(표 27. 참조)에 관해서는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반대, 95.2%),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반대, 100.0%),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반대, 95.2%)와 같이 소극적인 개입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일치되었다. 관련전문가들은 자살은 주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태도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반면, '학생이 자살한 후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찬성 52.6%-반대 47.4%),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찬성 42.1%-반대 57.9%)의 경우 관련 전문가 간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자살에 관한 교사의 감정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표 26. 관련 정보 제공내용 및 제공 범위 문항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3. 학교장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9(90,5) -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배려 사항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정보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자살유가족이 자살위험성이 가장 크므로 사후개입 필요	2(9,5) - 꼭 학교장이 아니라도 담임교사나 위기관리팀에서 정한 자가 할 수 있음
12.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21(100,0) -예방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자살 발생 상황이라면 당연히 필요 -학교차원에서의 교육이나 안내 필요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역할 분담	0(0,0)
11.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9(95,0) -학생 자살에 대해 전체가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 -가능한 빨리 정보를 제공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부모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학부모가 정확하고 신속한 학교 대처에 대해 알게 되면 학교를 신뢰하고 그만큼 동요가 적음	1(5,0) - 최소의 부모에게만 알려야 함
10. 학교장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00,0) -학생 자살에 대해 전체가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부모에게 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적절 -최소 부모에게만은 알려드려야 함 -학교차원에서의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	0(0,0)

이유로는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동료교사와 같이 해결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다(표 27. 참조). 한편 슬픈 감정을 감추려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적절한 표출과 공유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교생의 자살 발생 인식에 관해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소문과 추측 발생에 대한 대처, 공식적 행사를 통해 자살자에 대한 애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전교생의 자살 인식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학급, 해당 학년을

표 27. 개입태도 문항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응답	예	아니오
	빈도(%)	빈도(%)
13.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4.8)	20(95.2)
		-자살은 주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 교사 모두 영향을 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내부에서 민감하여 꺼내놓기 힘들 수 있으므로 -자살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되어야 함
14.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0(0.0)	21(100.0)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후개입이 필요 -자살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소극적 개입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보여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소속감을 떨어뜨릴 수 있음
15.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1(4.8)	20(95.2)
	-빈번한 상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	-발생한 일을 감춘다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학생의 성장과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어야 함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학업에 더 방해 받을 수 있음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필요
30. 학생 자살 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0(52.6)	9(47.4)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컨트롤 필요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과 동료교사 혹은 기타 다른 자원과 나눌 수 있는 부분 구분	-인간의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고 도움 받는 것이 좋음 -슬픈 감정을 감추려고만 한다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줌 -자연스러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
35.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2(10.0)	18(90.0)
		-학생마다 위기상황에서의 표현방식이 다르므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되, 지나친 농담은 계속하지 않도록 지도 -자살 사건에 대한 오해나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강하게 규제
38.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	8(42.1)	11(57.9)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음 -저학년, 해당학년 아닌 경우 굳이 알릴 필요 없음 -학급 중심으로 알리고 추모메시지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	-소문과 추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음 -각 반 담임교사가 사실만 전달 -공식적인 애도행사를 통해 함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음
45.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5(26.3)	14(73.7)
	-적극적 대처를 통해 파급효과를 최소화 한다면 가능 -충격은 오래 가지만 초기가 더 위험	-개인차가 존재, 기간을 규정할 수 없음 -보통 학생은 경미하게 잊혀지나 위험학생은 지속적 영향

중심으로 하되 굳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표 27. 참조).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반대경향(73.7%)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애도의 개인차, 위험 학생에 대한 자살의 지속적 영향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자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과급효과를 감소되어 그 영향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하였다(표 27. 참조).

(b) 학교장 및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b)-1. 자살 발생 관련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

자살 발생 관련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에 관한 학교장 및 교사(이하 교사로 기술)의 의견이 어떠한지, 학생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 자살 발생시 학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표 28. 참조)에 관한 문항에 교사들이 응답한 현황을 보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한다’(찬성, 92.1%),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찬성, 99.0%), ‘모든 교사는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한다’(찬성, 99.0%)로 나타나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간 추측된 정보 교류 방지, 자살 가능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학생의 자살 영향 여부 주의 관찰 등에 대해서 교사들은 확고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한다’($\chi^2=24.690, p<.001$),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chi^2=10.403, p<.01$)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부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들었다.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일정은 뒤로 미루어야한다’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반대경향을 보이는 반면 학생들은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보였다($\chi^2=42.411, p<.001$).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학사 일정의 연기는 자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여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라

도 변함없는 일상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학사 일정을 연기해야한다고 하였다(표 28. 참조).

표 28. 교사 및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빈도(%)		χ^2
	교사	학생	
18.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24.690***
예	93(92.1)	1012(68.7)	
아니오	8(7.9)	461(31.3)	
19. 학교장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041
예	73(73.7)	1071(72.8)	
아니오	26(26.3)	400(27.2)	
20.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약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10.403**
예	101(99.0)	1318(88.9)	
아니오	1(1.0)	164(11.1)	
7.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42.411***
예	26(25.7)	872(58.9)	
아니오	75(74.3)	608(41.1)	
17.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024
예	68(66.7)	999(67.4)	
아니오	34(33.3)	483(32.6)	
28. 모든 교사는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3.793
예	101(99.0)	1396(94.6)	
아니오	1(1.0)	79(5.4)	

** $p < .01$, *** $p < .001$

또한 자살발생시 학교 안전 관리 관련 교육(표 29. 참조)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찬성, 92.1%),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찬성, 93.1%),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

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찬성, 89.1%), '교사는 자살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100.0%),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95.1%),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찬성, 99.0%) 등 자살 사후개입 및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제시된 방법에 대해 교사들은 확고하게 동의하는 의견을 주었다(표 29. 참조).

교사와 학생 간의 반응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chi^2=3.912, p<.05$), '교사는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chi^2=18.673, p<.001$),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chi^2= 5.162, p<.05$)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보다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돌발행동의 잘못됨을 알리고 예방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살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구별하는 방법을 교사들이 학습할 필요에 대해 교사들이 찬성하는 까닭은 교육을 통해 어려운 학생을 알아차려서 돕고, 청소년의 돌발행동에 대한 다양한 대처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학생 대상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꾸준히 교육해야한다'는 등 찬성의견을 보였다.

자살 발생시 학교 안전관리 관련 상담(표 30. 참조)에 대해서는 '자살한 학생과 절친 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찬성, 99.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찬성, 79.8%),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찬성, 88.1%)에 찬성하는데 교사들은 의견 일치를 보였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chi^2=10.410, p<.01$),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chi^2=7.983, p<.01$)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보다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모방 자살의 예방과 조속한 충격 극복, 우울증과 같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등을 들

어 개별상담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후 질문에 대해서는, ‘충격이 가장 클 수 있는 그룹이며, 연쇄 자살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치료하는데 지속적인 개별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표 30. 참조).

표 29. 교사 및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 관련 교육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교사	학생	χ^2
	빈도(%)	빈도(%)	
32.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93(92.1)	1258(84.9)	3.912*
아니오	8(7.9)	224(15.1)	
33.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787
예	95(93.1)	1333(90.5)	
아니오	7(6.9)	140(9.5)	
34.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058
예	90(89.1)	1311(89.9)	
아니오	11(10.9)	148(10.1)	
37. 교사는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20.677***
예	102(100.0)	1217(83.0)	
아니오	0(0.0)	250(17.0)	
44.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2.685
예	97(95.1)	1322(90.2)	
아니오	5(4.9)	144(9.8)	
16.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5.919*
예	101(99.0)	1375(92.7)	
아니오	1(1.0)	108(7.3)	

* $p < .05$, *** $p < .001$

(b)-1. 자살소식 전달방법

우선 문항에 제시된 자살소식 전달방법(표 31. 참조)에 대해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반대 88.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반대, 83.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찬성, 78.0%),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반대, 90.2%)가 포함되었다(표 31. 참조).

표 30. 교사 및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 관련 상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교사		학생		χ^2
	빈도(%)		빈도(%)		
41.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	101(99.0)		1301(88.9)		10.410**
아니오	1(1.0)		162(11.1)		
4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					
예	79(79.8)		976(66.0)		7.983**
아니오	20(20.2)		503(34.0)		
46.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	89(88.1)		1268(86.7)		.159
아니오	12(11.9)		194(13.3)		

** $p < .01$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교사들은 자살소식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알리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고, 학생이 자살한 학급에는 자살 소식을 알리되, 추정된 자살 이유를 알리는 데는 찬성하지 않으며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 간의 반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chi^2=27.247, p<.001$),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chi^2=17.266, p<.001$),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chi^2=14.798, p<.001$)에 대해 교사와 학

생이 모두 반대하기는 하나 그 정도에 있어 교사가 좀 더 명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대규모 자살 소식 전달에 관한 교사가 반대한 의견으로는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감한 사안이 이슈화될 우려가 있어서’ 등의 이유가 제기되었다(표 31. 참조). 자살방법 및 이유에 대한 상세 설명에 관해서는 ‘모방자살 발생 우려’, ‘자살한 학생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이유로 자살방법 및 이유에 대한 모든 교사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31. 교사 및 학생의 자살소식 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교사		학생		χ^2
	빈도(%)		빈도(%)		
5.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27.247***
예	12(11.8)		556(37.4)		
아니오	90(88.2)		932(62.6)		
6.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249
예	38(37.6)		592(40.1)		
아니오	63(62.4)		883(59.9)		
2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17.266***
예	17(16.7)		548(37.1)		
아니오	85(83.3)		931(62.9)		
2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1.715
예	78(78.0)		1230(83.1)		
아니오	22(22.0)		250(16.9)		
26.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315
예	54(53.5)		745(50.6)		
아니오	47(46.5)		728(49.4)		
27.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14.798***
예	10(9.8)		399(27.1)		
아니오	92(90.2)		1075(72.9)		

*** $p < .001$

한편,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교사 찬성, 53.5%; 학생 찬성, 50.6%)의 문항은 교사와 학생 모두 찬성과 반대 유사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의 찬성 이유로는 ‘알 권리’, ‘어차피 알게 되므로’, ‘자살 예방 차원’, ‘사건 왜곡 방지’ 등을 들었고, 반대이유로는 ‘모든 교사가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될까봐’, ‘담임교사가 알리는 것이 좋음’ 등이 제시되었다(표 31. 참조). 학생들의 찬성 이유로는 ‘알 권리’,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알려야 한다’, 반대이유로는 ‘자살을 너무 떠드는 것은 좋지 않다.’, ‘굳이 알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에 따라 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지 살펴본 결과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방법이나 자살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 여자(95.5%)가 남자(80.0%)보다 반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264$, $p<.05$, 부록 5. 참조). 여교사들은 ‘모든 교사가 할 필요는 없다. 담임교사로 충분하다’와 같이 전달자의 범위에 초점을 두거나 ‘자세한 설명이 그릇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용과 방법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등 전달내용을 초점을 두거나 ‘너무 이슈화 될 수 있다’, ‘모방자살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의 과급효과를 고려해서 반대하였다.

(b)-3.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사항(표 32. 참조) 중 장례식과 관련하여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찬성, 95.1%),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찬성, 83.2%)로 나타나 교사들은 방과 후 자발적 장례식 참여와 인솔교사와의 경험 공유에 찬성하는데 일치를 보였다.

학생 및 교사의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단위 혹은 소집단 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찬성, 79.2%), ‘교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90.2%), ‘추모활동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찬성, 100.0%)에 대해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돕는 방안과 선정적 추모활동의 금지안 찬성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chi^2=6.233$, $p<.05$),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chi^2=11.088$, $p<.01$), '교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chi^2=13.149$, $p<.001$), '추모활동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chi^2=16.845$, $p<.001$)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보다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장례식 후 감정 공유에 대해, 참여 후 더 우울할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막기 위해 등이 교사들의 찬성 이유로 제시되었다. 학생이 자살한 학급 학생들의 생각 및 감정 공유에 관한 문항에는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등 때문에 교사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의 애도반응 방법 습득의 필요성 관련 문항에는 교사들이 '긍정적 애도방법을 배워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하므로', '조속한 충격 극복을 돕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추모활동의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모방 자살,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모두 찬성을 표하였다.

한편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에 대해서 교사는 반대율이 높은 반면 학생들은 찬성율이 높았다($\chi^2=16.383$, $p<.001$).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식적 행사는 필요하지 않아서, 자살이 미화되지 않기 위해, 자살 이유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등이 제기되었고, 학생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같은 학교 학생이니까, 우리는 공동체니까, 명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등이 제시되었다.

교사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학생들의 장례식 참여, 참여 후 감정과 경험 공유에 여자(98.5%, 90.9%)가 남자(88.6%, 68.6%)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869$, $p<.05$; $\chi^2=8.152$, $p<.05$), 교내 공식적 추모행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남자(82.4%)가 여자(59.1%)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492$, $p<.05$) (부록 5. 참조). 여교사들은 학생의 장례식 참여에 대해 '급우로서의 예의', '무조건 막으면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고, 참여 후 감정 공유에 대해 '감정을 정리하고 보다 긍정적 결론을 유도할 필요'를 지적하였다. 공식적 추모행사에 대해서 남교사들은 '죽음의 미화', '동요와 파급효과의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32. 교사 및 학생의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교사	학생	χ^2
	빈도(%)	빈도(%)	
39. 원하는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97(95.1)	1337(90.7)	2,245
아니오	5(4.9)	137(9.3)	
40.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	84(83.2)	1051(71.7)	6,233*
아니오	17(16.8)	415(28.3)	
4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예	80(79.2)	911(62.7)	11,088**
아니오	21(20.8)	541(37.3)	
36. 교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예	92(90.2)	1079(74.2)	13,149***
아니오	10(9.8)	376(25.8)	
25.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반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	67(66.3)	882(60.0)	1,567
아니오	34(33.7)	587(40.0)	
8.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	33(33.0)	798(53.9)	16,383***
아니오	67(67.0)	683(46.1)	
9.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예	100(100.0)	1239(85.4)	16,845***
아니오	0(0.0)	211(14.6)	

* $p < .05$, ** $p < .01$, *** $p < .001$

(b)-4.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표 33. 참조)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학교장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찬성, 94.1%),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한다’(찬성,

90.1%),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찬성, 84.2%), '학교장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찬성, 96.1%)로 나타나 자살한 학생의 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관, 자살예방 지침, 학교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치된 지지율을 보였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장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 교사(찬성, 96.1%)가 학생(86.0%)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963, p<.01$). 교사가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살 예방과 조기 대처를 위해,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학생들에 대한 가정의 지도가 필요하므로'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표 33. 참조).

표 33. 교사 및 학생의 관련 정보 제공내용 및 제공 범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교사	학생	χ^2
	빈도(%)	빈도(%)	
3. 학교장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96(94.1)	1310(88.5)	3.083
아니오	6(5.9)	171(11.5)	
12.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	91(90.1)	1293(87.1)	.780
아니오	10(9.9)	192(12.9)	
11.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85(84.2)	1283(87.0)	.689
아니오	16(15.8)	191(13.0)	
10. 학교장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98(96.1)	1269(86.0)	6.963 **
아니오	4(3.9)	207(14.0)	

** $p < .01$

(b)-5. 개입태도의 특성

개입태도의 특성(표 34. 참조)에 관해서는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반대, 95.0%),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반대, 84.8%),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반대, 95.1%)와 같이 소극적인 개입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표 34. 참조).

반면, '학생이 자살한 후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에 대해서는 교사들 간 의견 불일치를 보여 교사와 학생 간 감정 공유, 자살에 학생이 영향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자살 발생 후 학생과의 감정 공유에 대해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들도 같이 동요되고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 한편 솔직한 모습을 통해 함께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감정 공유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도 '선생님은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같이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등 교사와 유사한 이유로 선생님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슬픔을 같이 나눠야 하므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다', '감정에 솔직해야한다' 등의 이유로 선생님의 감정 표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chi^2=18.108, p<.001$),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chi^2=6.178, p<.05$)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보다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chi^2=4.085, p<.05$)에 대해서는 교사의 찬성율이 학생보다 높았다.

외부전문가의 도움과 관련하여 교사는 '민감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코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일단 자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도움이 받아야한다', '조용히 해결될 필요는 있으나 모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그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학생들의 공부 집중을 위해 자살을 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교사들은 '쉬쉬하다 학생들의 억측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

직해서'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였다. 한편, 자살 행동 발생에 대한 전교생의 인식에 대해서는 '작게 다루려해도 그렇게 될 사안이 아니다', '오해와 추측이 더 문제다', '소문으로 잘못된 정보를 아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을 밝혔다.

표 34. 교사 및 학생의 개입태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교사		학생		χ^2
	빈도(%)		빈도(%)		
13.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1.186 ***
예	5(5.0)		371(25.1)		
아니오	96(95.0)		1106(74.9)		
14.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2.882
예	15(15.2)		322(21.8)		
아니오	87(84.8)		1153(78.2)		
15.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7.495 **
예	26(25.7)		585(39.4)		
아니오	75(74.3)		898(60.6)		
30. 학생 자살 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554
예	56(55.4)		871(59.2)		
아니오	45(44.6)		600(40.8)		
35.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4.242 *
예	5(4.9)		170(11.5)		
아니오	97(95.1)		1305(88.5)		
38.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					5.677 *
예	67(68.4)		824(56.1)		
아니오	31(31.6)		646(43.9)		
45.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170
예	53(54.1)		752(51.9)		
아니오	45(45.9)		696(48.1)		

* $p < .05$, ** $p < .01$, *** $p < .001$

(c)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의견 차이 분석 결과

(c)-1. 자살 발생 관련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

문항에 제시된 자살 발생 관련 학교 안전관리 및 교육, 상담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 자살 발생 시 학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표 35. 참조)에 관해 찬성으로 일치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찬성, 88.9%), ‘선생님은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찬성, 94.6%)로 나타나 자살 가능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학생의 자살 영향 여부 주의 관찰 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반응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한다’($\chi^2=26.331, p<.001$), ‘교장선생님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chi^2=9.789, p<.01$), ‘선생님은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chi^2=12.246, p<.01$)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chi^2=5.722, p<.05$),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chi^2=4.496, p<.05$)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찬성 경향이 높았다.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이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관찰에 대해 여자(96.1%)가 남자(89.2%)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9.538, p<.01$, 부록 6. 참조). 여학생들은 ‘최대한의 예방’,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더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찬성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내 자살 발생 시 현장 격리, 옥상이나 창문 등 안전관리 강화, 일정기간 출결 관리,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이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관찰에 대해 여자(79.9%, 91.5%, 67.7%, 97.8%)가 남자(66.9%, 83.0%, 59.1%, 93.1%)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7.269, p<.001$; $\chi^2=14.042, p<.001$; $\chi^2=6.241, p<.05$;

표 35. 학교급에 따른 안전관리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15.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26,331***
예	1012(68.7)	366(61.6)	646(73.8)	
아니오	461(31.3)	232(38.8)	229(26.2)	
16. 교장선생님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9,789**
예	1071(72.8)	407(68.4)	664(75.8)	
아니오	400(27.2)	188(31.6)	221(24.2)	
17.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015
예	1318(88.9)	537(89.1)	781(88.9)	
아니오	164(11.1)	66(10.9)	98(11.1)	
4.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4.496*
예	872(58.9)	375(62.2)	497(56.7)	
아니오	608(41.1)	228(37.8)	380(43.3)	
14.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5.722*
예	999(67.4)	427(70.9)	572(65.0)	
아니오	483(32.6)	175(29.1)	308(35.0)	
27. 선생님은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12,246**
예	1396(94.6)	533(92.2)	843(96.3)	
아니오	79(5.4)	47(7.8)	32(3.7)	

* $p < .05$, ** $p < .01$, *** $p < .001$

$\chi^2=11.915$, $p<.01$, 부록 6. 참조). 여학생들의 지지 의견을 살펴보면, 현장 격리에 대해서는 ‘안하면 증거가 훼손되니까’, ‘큰일이니까’, ‘현장을 보게되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다’ ‘최소한 학생들은 막아야된다’ 등의 이유를 들었고, 옥상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충동이 생기더라도 자살할 수 없게 해야하니까’, ‘다른 피해를 막아야하니까’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으며, 일정기간 출결 관리에 대해서는 ‘어수선할 때 선생님이 더 관심 가져야’, ‘다음에 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막아야하니까’,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경써주고 관리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자살발생시 학교 안전 관리 관련 교육(표 36. 참조)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찬성, 84.9%),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찬성, 90.5%), ‘선생님은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찬성, 89.9%), ‘선생님은 자살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83.0%),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찬성, 90.2%),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찬성, 92.7%) 등 모든 하위 문항에서 학생들은 사후개입 및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확고하게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반응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chi^2=15.932$, $p<.001$)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애도방식의 차이 존중, 비난의 위험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에 대해 여자(91.8%, 92.5%, 94.6%)가 남자(83.0%, 84.5%, 89.6%)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9.897$, $p<.01$; $\chi^2=8.744$, $p<.01$; $\chi^2=4.988$, $p<.05$, 부록 6. 참조). 여학생들의 지지 의견을 살펴보면, 애도 방식의 차이 존중 교육에 대해 ‘가치관이 달라 의견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당연하니까’, ‘사람은 다 틀리니까’ 등의 의견을 들었고, 비난의 위험성 교육에 대해서는 ‘자살도 죽은 자의 선택이므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의 피해를 입는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대해서는 ‘더는 자살하는 청소년이 나오지 않기 위해’, ‘생명은 소중하니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애도방식의 차이 존중, 비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에 대해 여자(95.2%, 93.6%)가 남자(88.4%, 86.0%)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404$, $p<.001$; $\chi^2=13.322$, $p<.001$, 부록 6. 참조). 여학생들의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애도방식의 차이 존중 교육에 관해 ‘애도방식은 친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다르니까’, ‘그래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차이니까’ 등의 의견을 들었고, 비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에 관해 ‘맹목적 비난을 삼갈 수 있도록’, ‘매사

에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부록 6. 참조).

표 36. 학교급에 따른 교육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29.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1258(84.9)	511(84.5)	747(85.2)	.142
아니오	224(15.1)	94(15.5)	130(14.8)	
30.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	1333(90.5)	520(86.8)	813(93.0)	15.932***
아니오	140(9.5)	79(13.2)	61(7.0)	
31. 선생님은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	1311(89.9)	525(87.9)	786(91.2)	4.071
아니오	148(10.1)	72(12.1)	76(8.8)	
34. 선생님은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예	1217(83.0)	498(83.4)	719(82.6)	.150
아니오	250(17.0)	99(16.6)	151(17.4)	
39.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예	1322(90.2)	530(88.9)	792(91.0)	1.775
아니오	144(9.8)	66(11.1)	78(9.0)	
13.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	1375(92.7)	555(91.7)	820(93.4)	1.459
아니오	108(7.3)	50(8.3)	58(6.6)	

*** $p < .001$

자살 발생시 학교 안전관리 관련 상담(표 37. 참조)에 대해서는 ‘주변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자살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찬성, 91.3%), ‘주변에 자살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른(선생님, 부모님 등)들께 도움을 청한다’(찬성, 88.7%), ‘자살한 학생과 절친 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찬성, 88.9%),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찬성, 86.7%)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표 37. 참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반응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chi^2=7.578$, $p<.01$), '주변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자살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chi^2=5.031$, $p<.05$)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살에 영향받은 친구를 위해 담임교사에게 도움 청하기, 자살 고위험 친구를 위해 어른들께 도움 청하기에 대해 여자(92.5%, 92.5%)가 남자(86.8%, 87.3%)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971$, $p<.05$; $\chi^2=4.200$, $p<.05$, 부록 6. 참조). 여학생들의 지지 의견을 살펴보면, 자살에 영향받은 친구를 위한 도움 청하기에 대해 '자살 방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되니까', '정신적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등의 의견을 주었고, 자살 고위험 친구를 위한 도움 요청에 대해서도 '자살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등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살자와 친하거나 영향받은 학생 대상 개별상담 제공, 특별상담실 설치에 대해 여자(93.3%, 88.8%)가 남자(85.4%, 83.9%)보다 더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922$, $p<.001$; $\chi^2=3.995$, $p<.05$). 여학생들의 지지 의견을 살펴보면, 자살자와 친하거나 영향받은 학생 대상 개별상담 제공에 대해 '심적 타격이 클 것이므로', '친한 친구에게 모방심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등의 의견을 주었고, 특별상담실 설치에 대해 '자살 예방을 위해', '아주 힘들어서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언제든 상담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주었다.

(c)2. 자살소식 전달방법

자살소식 전달방법(표 38. 참조)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찬성, 83.1%)라는 내용에 찬성을 보였다. 그러나 대강당이나 방송을 통한 소식 전달 방법(반대 62.6%), 하교 직전 알리는 방법(반대 59.9%), 자살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자살 발생 학급 및 다른 학급에 자세히 알리는 것(반대 62.9%, 반대 72.9%)에 대해서는 반대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선생님은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불일치를 보였다(찬성 50.6%).

표 37. 학교급에 따른 상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42. 주변 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자살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예	1339(91.3)	533(89.3)	806(92.6)	5.031*
아니오	128(8.7)	64(10.7)	64(7.4)	
43. 주변에 자살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른(선생님, 부모님 등)들께 도움을 청한다.				
예	1298(88.7)	531(89.5)	767(88.2)	.675
아니오	165(11.3)	62(10.5)	103(11.8)	
38.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	1301(88.9)	512(86.2)	789(90.8)	7.578**
아니오	162(11.1)	82(13.8)	80(9.2)	
2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을 교내 상담선생님이나 외부 상담전문가에게 개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	976(66.0)	385(63.8)	591(67.5)	2.083
아니오	503(34.0)	218(36.2)	285(32.5)	
44.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	1268(86.7)	510(86.0)	758(87.2)	.458
아니오	194(13.3)	83(14.0)	111(12.8)	

* $p < .05$, ** $p < .01$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자살소식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알리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고, 학생이 자살한 학급에는 자살 소식을 알리되, 다른 학급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자살 방법이나 추정된 자살 이유를 자살 발생 학급 및 다른 학급에 자세하게 알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반응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chi^2=17.341$, $p<.001$), '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다른 학급학생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린다'($\chi^2=13.563, p<.001$)에 대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찬성율이 더 높았다($\chi^2=6.561, p<.05$, 표 38. 참조).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급에 자세히 알리는 것에 대해 여자(74.2%)가 남자(63.0%)보다 더 반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8.488, p<.01$, 부록 6. 참조). 여자 중학생들은 '따라하는 학생이 생기거나 더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반면, 대강당, 방송을 통한 자살 소식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남자는 의견이 분분한 반면(찬성 50.7%-반대 49.3%), 여자는 반대경향(65.8%)을 보여 남녀간에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430, p<.001$, 부록 6 참조). 남자 중학생의 찬성의견으로는 '교내 방송을 해야 사망소식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이 슬픔을 나눠야하니까', '학생들이 소식을 다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등의 의견을 주었고, 반대의견으로는 '이런 거 안해도 여차피 소문이 퍼지니까', '시끄럽게 전달하기보다 담임교사가 조용히 전달하는 게 좋겠다', '교실에서 하는 게 더 낫다' 등의 의견을 주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친구가 죽었는데 공개적으로 그러면 안 좋다', '강당에선 집중이 안된다. 교실에서 조용히 전달하는 게 좋다', '전체적으로 갑자기 전달하면 학생들이 동요된다. 조용히 교실마다 돌아다니며 전달하는 게 좋다' 등의 이유로 대규모, 방송 전달방식을 반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강당·방송 전달, 담임교사의 자살 방법 등 상세 전달, 다른 학급 대상 자살방법 등 상세 전달 관련 문항에 대해 여자(70.4%, 67.6%, 79.8%)가 남자(59.6%, 57.2%, 69.2%)보다 반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0.009, p<.01; \chi^2=8.856, p<.01; \chi^2=11.787, p<.01$, 부록 6. 참조). 담임교사의 솔직한 자살소식 전달에 대해 여자(87.0%)가 남자(81.2%)보다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148, p<.05$, 부록 6. 참조). 여고생들은 대강당·방송 전달에 대해 '자살 전에 충분히 고통 받았을 학생이 죽어서도 구설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학생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동요할 것 같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고, 담임교사의 자살방법 등 상세 전달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알려주면 많은 충격을 받을 듯', '잔인하다',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더 충동이 질어질 것 같다', '모방자살'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다른 학급 대상 자살방법 등 상세 전달에 대해 '호기심에 따라할 것 같다', '이상한 소문이 돌 것 같다', '자살한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해친다' 등의 이

유로 반대하였다.

표 38. 학교급에 따른 자살소식전달방법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2.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17.341***
예	556(37.4)	265(43.7)	291(33.0)	
아니오	932(62.6)	342(56.3)	590(67.0)	
3.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3.208
예	592(40.1)	259(42.9)	333(38.2)	
아니오	883(59.9)	345(57.1)	538(61.8)	
2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반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				1.823
예	548(37.1)	235(39.1)	313(35.6)	
아니오	931(62.9)	366(60.9)	565(64.4)	
19.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6.561*
예	1230(83.1)	483(80.1)	747(85.2)	
아니오	250(16.9)	120(19.9)	130(14.8)	
25. 선생님은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1.368
예	745(50.6)	315(52.4)	430(49.3)	
아니오	728(49.4)	286(47.6)	442(50.7)	
26. 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린다.				13.563***
예	399(27.1)	193(32.2)	206(23.5)	
아니오	1075(72.9)	406(67.8)	669(76.5)	

* $p < .05$, *** $p < .001$

(c)-3.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표 39. 참조)에 대해서는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찬성, 90.7%),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찬성, 85.4%)에 찬성 일치율을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반응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장

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χ²=17.541, p<.001), '추모활동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χ²=6.678, p<.05)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장례식 참여, 담임교사와 함께 애도할 기회 마련 관련 문항에 대해 여자(92.6%, 78.2%)가 남자(82.7%, 71.1%)보다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12.604, p<.001; χ²=3.919, p<.05, 부록 6. 참조). 여자 중학생들은 장례식 참여에 대해 '친구가 죽었는데 그냥 가면 안된다', '위로 차원'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고, 담임교사와 함께 애도할 기회 마련에 대해 '속에 묻어두면 안좋으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애도해야 좋으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애도반응 개입방법 관련 모든 문항에 대해 성차를 보였는데, 장례 참여(여 96.1%, 남 87.2%), 인솔교사와 감정 나눔의 필요성(여 73.0%, 남 65.4%), 학생이 자살한 학급 학생들을 위한 담임교사와 함께 애도할 기회 마련(여 77.6%, 남 63.4%), 학생이 자살한 학급 학생들을 위한 학급·소그룹 형태의 감정 및 생각 나눔(여 66.6%, 남 52.0%), 선생님의 애도반응 조력방법 습득 필요성(여 80.4%, 남 66.4%), 담임교사의 기일 대비 계획 수립(여 64.1%, 남 54.9%), 공식적 추모행사의 적절성(여 56.8%, 남 46.7%), 비선정적 추모활동(여 90.4%, 남 80.8%)에 관해 여자가 남자보다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24.047, p<.001; χ²=5.193*, p<.05; χ²=19.330, p<.001; χ²=16.761, p<.001; χ²=19.941, p<.001; χ²=6.631, p<.05; χ²=7.746, p<.01; χ²=15.624, p<.001, 부록 6. 참조).

여자 고등학생들의 애도반응 개입방법 관련 찬성 이유를 밝히자면 먼저 장례 참여에 대해 '장례식 참여까지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니까', '당연히 친구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변학생들이 원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인솔교사와 감정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학생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서', '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듯', '소감을 공유하고 자살을 막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학생이 자살한 학급 학생들을 위한 담임교사와 함께 애도할 기회 마련에 관해서는 '공동체 중 한사람이 죽었으니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줄 시간이 필요하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추모하기 위해' 등의

표 39.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방법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36. 원하는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1337(90.7)	524(86.9)	813(93.3)	17.541***
아니오	137(9.3)	79(13.1)	58(6.7)	
37.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	1051(71.7)	437(73.2)	614(70.7)	1.128
아니오	415(28.3)	160(26.8)	255(29.3)	
2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자신의 충격과 애도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				
예	1086(73.5)	444(74.1)	642(73.1)	.184
아니오	391(26.5)	155(25.9)	236(26.9)	
4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예	911(62.7)	377(63.8)	534(62.0)	.469
아니오	541(37.3)	214(36.2)	327(38.0)	
33. 선생님은 담당학급에서 또는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예	1079(74.2)	423(71.5)	656(76.0)	3.812
아니오	376(25.8)	169(28.5)	207(24.0)	
24.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보일 수 있는 반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	882(60.0)	348(58.3)	534(61.2)	1.283
아니오	587(40.0)	249(41.7)	338(38.8)	
5.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	798(53.9)	328(54.2)	470(53.7)	.045
아니오	683(46.1)	277(45.8)	406(46.3)	
6.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예	1239(85.4)	482(82.5)	757(87.4)	6.678*
아니오	211(14.6)	102(17.5)	109(12.6)	

* $p < .05$, *** $p < .001$

이유로 찬성을 표명하였다. 학생이 자살한 학급 학생들을 위한 학급·소그룹 형태의 감정 및 생각 공유에 대해서 ‘충격을 덜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좋겠다’, ‘아

는 사람끼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게 좋겠다' 등의 이유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선생님의 애도반응 조력방법 습득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학생이 어떻게 애도해야할지 선생님이 모르니까', '학생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등의 의견을 주었다. 담임교사의 기일 대비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같이 추모하기 위해', '애들이 덜 슬퍼하도록', '선생님이 먼저 말하고 챙겨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일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c)-4. 사후개입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

사후개입관련 정보내용과 제공범위(표 40. 참조)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교장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찬성, 88.5%),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한다'(찬성, 87.1%),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찬성, 87.0%),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찬성, 86.0%)에 관하여 자살한 학생의 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관, 자살예방 지침, 학교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학교급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411, p<.05$).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살 발생시 관련기관 응급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 학부모 대상 관련기관 정보 제공에 관해 여자(88.4%, 89.6%)가 남자(81.8%, 83.4%)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998, p<.05; \chi^2=4.793, p<.05$, 부록 6. 참조). 여중생들은 관련기관 정보 제공에 관해 '자살자 친구도 정신적으로 피해 입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적 충격이 있으므로', '또 죽으면 큰 일이니까'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상 관련기관 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청소년 자살 대처방안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대처가능하니까',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살 발생시 관련기관, 응급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 학부모 대

상 학교 대처방안 혹은 관련기관 정보 제공에 관해 여자(90.6%, 92.3%, 89.3%)가 남자(84.8%, 79.1%, 78.5%)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339$, $p<.05$; $\chi^2=31.475$, $p<.001$; $\chi^2=18.279$, $p<.001$). 여고생들은 관련기관, 응급전화번호 등 제공에 관해서 ‘학생들이 더 동요할 수 있어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기에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잘못된 해결책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학부모 대상 학교 대처방안에 관해서 여고생들은 ‘학교에서 발생한 일을 학부모가 아는 일은 당연한 것이므로’, ‘돈과 시간이 들겠지만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더 신경써야 한다’, ‘해당학년 친구들끼리 알던 사이라서 당연히 그 학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니까’, ‘빨리 말해서 자살을 예방해야하니까’, ‘학교에서 대처방안을 세운다면 자살한 학생의 부모에게 위로되지 않을까?’ 등의 이유를 들어 찬성하였다(부록 6. 참조). 또한 여고생들은 학부모 대상 관련기관 정보 제공에 관해 ‘부모가 그런 돕는 방법을 배워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자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부모가 자녀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년, 나이 상관없이 같은 학교 학생이 그런 일을 했다면 전 학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찬성하였다.

표 40. 사후개입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1. 교장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1310(88.5)	527(87.4)	783(89.2)	1,114
아니오	171(11.5)	76(12.6)	95(10.8)	
9.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	1293(87.1)	512(84.6)	781(88.8)	5,411*
아니오	192(12.9)	93(15.4)	99(11.3)	
8.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1283(87.0)	513(85.4)	770(88.2)	2,552
아니오	191(13.0)	88(14.6)	103(11.8)	
7.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1269(86.0)	519(86.1)	750(85.9)	.007
아니오	207(14.0)	84(13.9)	123(14.1)	

* $p < .05$, ** $p < .01$,

(c)-5. 개입태도의 특성

개입태도의 특성(표 41. 참조)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반대, 88.5%),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반대, 78.2%)와 같은 소극적인 개입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반면,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찬성, 51.9%)에 대해서는 의견불일치가 나타났다.

학교급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chi^2=5.198, p<.05$).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고($\chi^2=8.426, p<.01$),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높았다($\chi^2=7.015, p<.01$). 한편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반대의견(53.4%)이, 고등학생은 찬성의견(55.6%)이 많았다($\chi^2=11.289, p<.01$).

또한 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비교한 결과(부록 6. 참조),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는 공부 집중을 위한 자살에 대한 이야기 단속, 죽음에 대한 농담 내버려두기 관련 문항에 대해 여자(66.4%, 94.6%)가 남자(52.5%, 78.8%)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846, p<.01$; $\chi^2=29.595, p<.001$). 반면 남자(66.1%)는 여자(56.0%)보다 선생님의 감정 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더 많이 찬성하였다($\chi^2=6.308, p<.05$).

여중생들은 공부 집중을 위한 자살에 대한 이야기 단속에 관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부보다 죽음이 우선이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문은 퍼진다.’ ‘자살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등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죽음에 대한 농담 내버려두기에 관해서는 ‘말이 씨가 되므로 안하는 게 좋겠다’, ‘가볍게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 중요한 일임을 상기시킨다’, ‘한 생명이 사라지는 중대한 일이므로’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다. 반면, 남자들은 선생님의 감정 표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선생님이 어려워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는다’, ‘학생들이 동요할까봐’, ‘어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등을 꼽았다. 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집중을 위한 자살에 대한 이야기 단속, 죽음에 대한 농담 내버려 두기 관련 문항에 대해 여자(66.2%, 92.1%)가 남자(52.9%, 86.9%)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153$, $p<.001$; $\chi^2=6.081$, $p<.05$). 여고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부 집중을 위한 자살 이야기 단속에 관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교가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등을 꼽았고, 죽음에 대한 농담 내버려두기에 관해 ‘이러한 농담이 나중에 자살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담은 자살을 쉽게 만든다’, ‘고인에게 실례이다’,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해야 한다’ 등을 꼽았다.

표 41. 학교급에 따른 개입태도의 특성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응답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χ^2
	빈도(%)	빈도(%)	빈도(%)	
10.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04
예	371(25.1)	159(26.4)	212(24.2)	
아니오	1106(74.9)	443(73.6)	663(75.8)	
11.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5.198*
예	322(21.8)	113(18.9)	209(23.9)	
아니오	1153(78.2)	486(81.1)	667(76.1)	
12.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1.898
예	585(39.4)	251(41.6)	334(38.0)	
아니오	898(60.6)	353(58.4)	545(62.0)	
28. 학생이 자살한 후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814
예	871(59.2)	372(61.8)	499(57.4)	
아니오	600(40.8)	230(38.2)	370(42.6)	
32.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8.426**
예	170(11.5)	87(14.4)	83(9.5)	
아니오	1305(88.5)	516(85.6)	789(90.5)	
35.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				7.015**
예	824(56.1)	311(51.9)	513(58.9)	
아니오	646(43.9)	288(48.1)	358(41.1)	
41.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11,289**
예	752(51.9)	274(46.6)	478(55.6)	
아니오	696(48.1)	314(53.4)	382(44.4)	

* $p < .05$, ** $p < .01$

③ 조사 결과의 시사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학생용 설문지를 중심으로 문항별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사후개입방안의 의견을 정리하여 부록 7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조사대상자의 의견 및 외국 사후개입과의 방향

(a)-1. 조사대상자 간의 의견 방향의 유사성

몇 가지 문항을 제외하고 관련 전문가, 교사와 학생, 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서로 유사한 방향의 의견을 수렴되고 있고, 학교장면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국외 사후개입과도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내용과 절차를 구성하는데 있어,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외 사후개입의 입장과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사 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외 사후개입에서도 접근 방향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관련 전문가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학생들은 찬성 경향, 교사들은 반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학급, 전교생 대상 자살 소식 전달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국외 사후개입에서는 대부분 전교생 대상 개입을 지지하지만, 우리나라 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학급까지는 찬성하지만, 전교생 대상의 소식 전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해당 학급 이상의 소식 전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좀더 관련 전문가들 간 숙고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절차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b) 자살 발생 관련 즉각적 학교 안전관리, 교육 및 상담

(b) -1. 자살 발생 관련 즉각적 학교 안전관리

자살 발생 시 즉각적인 학교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와 교사들은 국외 사후개입지침과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즉, 학교 위기관리팀의 사전 조직, 자살 사망 전달 내용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 협

의,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간 추측된 정보 교류 방지, 자살 가능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학생의 자살 영향 여부 주의 관찰, 언론과의 의사소통 통로 단일화 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밝혔듯이 학사일정 연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와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모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일정의 연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성 이유로 자살의 교내 발생, 시험과 같은 주요 학사일정 등 조건적 상황에서의 일시적 연기를 말하며, 반대 이유로는 자살에 다른 사망과 동일 지침을 적용해야 하며, 학사일정 연기는 자칫 이슈화되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학생들의 찬성 이유로 '사람이 죽었으므로', '충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공부에 집중되지 않을테니까', '자살이 생기면 정신이 없으므로 중요한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충격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교사들의 반대 이유로는 학사 일정의 연기는 자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여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변함없는 일상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언론과의 의사소통 통로 단일화에 대해 관련 전문가, 교사, 국외사후개입은 지지를 표명하는데 비해, 학생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장선생님의 당연한 의무니까', '자살에 대한 내용이 단일화되어야 소문을 막을 수 있어서', '누가 다른 말하면 안심이 안되니까'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반대 이유로는 '언론까지 소문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봐야 한다' 등으로 나타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반대하는 경우 본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관련전문가, 학생 및 교사 모두 자살 발생시 즉각적인 안전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자살 발생시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 처리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b)-2. 자살 발생시 학교 안전 관련 교육 및 상담

또한 자살발생시 학교 안전 관리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생과 교사 모두 국외 사후개입과 마찬가지로 자살 사망에 대한 성숙한 이해, 애도반응의 다양성 존중,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 자살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에 대해 모두 확고하게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후개입 관련 사전 교육 및 애도반응을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살한 학생의 친구 및 영향받은 학생 대상 개별상담 제공, 자살사건 발생 직후 일정기간 교내 특별상담실 설치 등 학교 구성원 안전 관리 차원의 상담 제공에 대해서는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과 우리나라 전문가, 학생과 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09년에 실시한 설문 결과와도 일치되 된다.

(c) 자살 발생 시 자살소식의 전달방법

자살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전문가, 학생과 교사,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모두 집회, 교내방송으로 자살소식을 알리는 것은 반대하였고, 자살 소식을 솔직하게 전달하되 자살방법이나 추정된 자살 이유를 자세하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에서는 학생이 자살한 학급 뿐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살한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관련전문가들은 관련된 다른 학급(동학년 전학급, 혹은 형제자매가 있는 학급 등)까지 소식을 전달하는데 동의 하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전교생 전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소문과 추측 발생을 막기 위해 사실을 알려야하며, 각 반 담임교사가 사실만을 전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반대 이유로는 '자살을 이슈화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학외 자살인 경우 굳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식을 전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자살 소식 전달 범위를 학생들과 교사들은 판단하기 어려워하였다. 교사가 찬성하는 경우 '소문을 통해 어차피 알게 되므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교사가 직접 말해주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반대하는 경우 '괜히 동요하게 만든다', '궁금해하지 않으면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자살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학생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른 학급에도 자살한 학생의 친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같은 학년끼리는 소문이 퍼지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궁금증이 풀린다',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하니까',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살한 학생을 계속 들춰내는 건 옳지 않다', '알려주면 죽은 아이가 안쓰러워질 것 같다', '루머가 퍼지니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살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학생과 교사, 국외사후개입 모두 찬성하지만, 자살 소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학생, 교사 모두 의견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외 사후개입에 의하면 자살 소식이 온갖 소문과 억측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전교생에게 동시에 실시하되 학생에게 친숙한 사람(담임교사 등)이 소규모 단위로 전달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d) 애도 과정과 관련된 개입방법

자살한 청소년에 대한 애도는 남아있는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돕고 사망한 청소년을 정서적으로 떠나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자살로 인한 사망일 경우, 죄책감과 분노, 자살자에 대한 동일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치 않은 애도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애도반응에 대한 개입 사항 중 방과 후 자발적 장례식 참여와 참여 후 인솔교사와 감정과 경험 공유에 대해 찬성하는데 전문가, 학생, 교사,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모두 일치하고 있다. 또한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돕는 방안과 교내 공식적 추모행사 실시, 선정적 추모활동의 금지안에 찬성하는데 일치를 보였다. 반면, 공식적 추모행사에 대해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과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학생은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대상 심층면접에서도 많은 면접참여자가 추모활동에 찬성하는 제안을 보였는데, ‘자살한 친구를 기리고 끝맺기 위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에 따르면 자살자 가족들의 추모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방안은 바람직하나 공식적 추모행사는 자칫 자살을 미화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외 사후개입과 관련 전문가들은 자살이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의 경우 교직원들의 심리적 경험보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e)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범위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포괄

자살한 학생의 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관, 자살예방 지침, 학교 대처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해 관련 전문가, 학생과 교사 모두 국외사후개입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관련기관, 자살예방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f) 소극적이고 은밀한 학교의 개입태도에 대한 반대

앞의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면접조사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 '청소년의 자살'을 '사고사' 등으로 왜곡하려 하거나 소극적이며, 조용히 상황을 은폐하거나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사후개입과 마찬가지로 국내 관련 전문가, 학생과 교사 대부분은 이러한 소극적인 학교의 개입태도에 반대하고 있다.

즉, 전문가, 학생 및 교사 모두 학교의 내부적 해결, 자살 영향의 자연 감소를 기대하며,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농담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학교에 소속된 구성원들 간에 국외 사후개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모방자살이나 자살위험 감소, 자살예방, 애도반응 조력 등을 목적으로 학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몇 가지 세부 사항에서 집단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교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관한 것인데 국외 사후개입에서는 자살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학생들 뿐 아니라 교직원도 받을 것임을 인정하고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심리적 경험보고, 상담 의뢰 등이 위기관리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학교 당국의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로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감정을 보이면 동요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반대율이 더 높았으며, 관련 전문가 및 교사의 경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실제 자살 발생 사례들을 고찰하면서 실제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자살 소식 전달 대상에 대해 집단 간 의견 차가 있다. 국외 사후개입에서는 전교생 대상 개입을 기본 절차로 보고 있는데 비해, 학교 현장의 교사나 학생의 경우 전교생 대상 자살행동 소식 전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관련 전문가 역시 전교생 대상의 전달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 사후개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목적 충족적인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들과 깊은 숙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구성 단계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구현해야 할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사후개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 사후개입 적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단계에서는 국내외 사후개입 관련 문헌 연구, (학급)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관련 전문가, 학교장 및 교사, 학생의 의견조사 결과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개발방향 및 구성요소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고, 학생 자살 사망 이후 대응시기별, 참여대상별,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후개입 세부운영 절차를 개발하였다(표 42. 참조).

선행 연구와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본 매뉴얼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7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사후개입의 구성요소들을 조직하고 그에 맞는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초기 개발하였다.

표 42.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면접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 방향 도출

사후개입 관련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친구 자살 경형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개발 방향
				학생 의견조사	교장 및 교사 의견조사	
위기관리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자살 사후개입의 공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상담실 부재 사례 다수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의 사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위기관리(응급대응팀)의 구성 및 역할 상세 제시 - 뉴질랜드, 일본 : 외부의 숙련된 전문기팀 협조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발생시 체계적 대처하는 조직 부재 - 학교장, 담임교사 등이 개인 - 사전준비 없는 갑작스런 개입 활동에 대한 면접 참여자들의 불신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의 사전 조직, 구성원의 자격기준, 책임 및 역할 명시 - 교내 전문가 부재시 외부 기관 협력 명시
자살의 진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자살을 구분, 진위를 파악하는 세부절차 제시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자살을 구분, 진위를 파악하는 세부 절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자살 발생시 현장격리, 유가족 접촉 등에 관해 세부 절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협조시 교사, 학생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가치관 노출 사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격리 및 경찰 협조 - 목격자 관리 절차 및 방법 제시
정보 수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팀 소집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수합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정보 공유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전교생, 학부모 대상 자살 사실과 도움 정보 제공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정보 공유방법 결정 절차 제시
사후개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등 : 자살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학교 위기관리 계획 수립 - 홍콩 : 실행점검체크리스트 사용, 구체적 시인보고 작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개입 요구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파급효과 평가방법 제시 - 실행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표 42.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면접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 방향 도출

사후개입 관련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개발 방향	
				학생 의견조사	교장 및 교사 의견조사		
사후개입 단계	사인보고서 작성	- 일반, 홍콩 : 객관적 사실 정보 자료 - 일본 : 교육위원회 촉각 보고를 통해 외부 위기대응팀 협조	찬성	찬성	찬성	- 사인보고서 작성방법 및 예시 제시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교육청	- 형제, 자매가 소속된 학교에 소식 전달	찬성	찬성	찬성	- 협조 요청 절차 제시
		다른 학교	- 상담기관, 정신과, 보건센터, 성직자 등과 연계	찬성	찬성	찬성	- 협조 요청 절차 제시
		외부 전문기관	- 직원회의를 통해 소식전달 방법 교육	찬성	찬성	찬성	- 협조 요청 절차 제시
		교직원	- 친구, 문자 메시지, 다른 학원 학생 등으로부터 처음 지살 소식 접촉 사례 많음	찬성	찬성	찬성	- 교직원 대상 소식전달 방법 상술
	교내의 자살 소식 전달	학생	- 친구가 자살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비호의적으로 경험	찬성	찬성	찬성	- 학생 대상 소식전달 방법 상술 - 전달 내용 예시 제시
		학부모	- 학부모 대상 공식적 전달 사례 없음	찬성	찬성	찬성	- 학부모 대상 소식전달 방법 상술 - 전달 내용 예시 제시

표 42.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면접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 방향 도출

사후개입 관련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개발 방향
				학생 의견조사	교장 및 교사 의견조사	
학급 위기개입	인론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제시 일본 : 학부모회를 통한 소식 전달과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대응자 지정, 일관된 정보 전달에 힘씀 일본 : 언론에 대한 적극적 협조 	찬성	의견 불일치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론 담당자 선정 협조 요청시 정보 전달을 일원화 하는 방안 제시
특별상담실 운영	특별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care 회의를 통해 스크린링 계획 수립 및 대처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리닝 절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SanDiego주), 호주 : 특별상담실 설치 운영 홍콩 : 특별 수업시간 적용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상담실 설치 및 안내 특별상담실 운영 절차 및 예시 상술
장례식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학생 대상, 부모의 사정 등과의 조정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참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식 참여를 일괄 등 제한하여 반발한 사례 보고 자살자 소속 학급의 경우 장례식 강제 참석에 대한 불편함 표현 사례 보고 장례식장에서 '자살자'를 비난하는 이야기나 자살 이유에 관한 소문을 접한 사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식 참석 절차 및 참석 후 대응 사항 제시

표 42. 국외 사후개입 매뉴얼, 면접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 방향 도출

사후개입 관련	국의 사후개입 매뉴얼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개발 방향
				학생 의견조사	교장 및 교사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 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Maine, New Hampshire FrameWorks) : 유지 미국(San Diego주) 호주, 일본, 홍콩 : 상황에 따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 등 학사일정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 '생명의 경시' 를 느낀 경험 보고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 유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관찰 및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모활동 : Maine 주 상제지침 제시 고위험 학생 대상 지속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살에 따른 지속적 영향을 보고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일, 고위험 학생 대상 지속 관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예방을 위한 준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일본, 홍콩 : 자살예방 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	자살예방교육 찬성	자살예방교육 찬성	자살예방교육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예방 전반에 걸쳐 갖추어야 사항 제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구성요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팀 상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호주, 일본, 홍콩 : 자살예방 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tekeeper훈련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관리 담당자 별도 선정하여 관리 	-	찬성	찬성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방법 제시

(1) 매뉴얼의 개발 방향

선행 연구와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매뉴얼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다(표 42. 참조).

가) 청소년들의 생활터전인 중·고등학교 등의 학교장면을 개입대상으로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며, 청소년의 발달특성상 모방심리가 있고 정서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이 나타나는 경우, 그 학교를 주요 개입대상으로 한다. 이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홍콩의 주요 사후개입 역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접근들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위기관리팀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안한다.

국의 사후개입 매뉴얼에서는 사후개입을 위한 학교 위기관리(위기대응, 응급대응)팀의 사전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전문가, 학교장 및 교사, 학생들 역시 이러한 사전 조직과 준비에 대해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재학 중인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학교의 행정적 책임을 맡고있는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교감, 일반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와 외부의 관련 전문가(예, 지역센터의 상담전문가 및 정신보건전문가 등)를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조직하고, 상시 활동을 통해 자살을 대비하고 자살 발생시 사후개입 준비단계, 사후개입 단계, 사후개입 추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모방자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 청소년의 자살 발생 직후부터 후유증까지 다루는 사후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국의 대부분의 사후개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 중 하나가 자살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상술하는 개입방안이 많으며, 국내 전문가 및 학교구성원 역시 이에 대한 요구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갈

은 학급 학생 및 타학급 학생들에게 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취약한 청소년이나 교사 등의 심리적 개입에 이르는 전반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라) 자살에 대한 미화나 낙인 예방을 위한 개입을 포함한다.

자살한 청소년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미화를 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모두 매우 위험한 태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 학급 위기개입, 특별상담실 운영 과정에서 미화나 낙인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면서도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가르치는 교육을 포함한다.

마) 자살 위험 청소년과 영향받은 교사를 식별하는 스크리닝 절차와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제안한다.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개입으로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을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 학부모에게도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학교 학생이 자살한 상황을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을 적게 초래하고 취약성이 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변별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진단과 상담,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상시 혹은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 언론 인터뷰 방안, 외부 조사 응대, 기타 행정적 처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외국의 선행 사후개입 매뉴얼에서도 경찰 조사 협조, 언론협력담당자의 선정 등의 필요성과 선정 및 응대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직접적 자살 소식의 접촉 뿐 만 아니라 간접적 접촉의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기자협회보, 2008;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 재인용; Phillips & Carstensen, 1986; Shaffer, 1988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언론 응대가 어떠한가에 따라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미치는 과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학생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내 자살 발생시 현장 조사와 목격자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살 목격자가 입는 피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받은 바 있다. 또한 자살 발생 후 학사 관리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자'에 대한 학교 입장이 어떠한지 짐작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언론 인터뷰 방안 및 경찰 등 외부 조사에 응대와 목격자에 대한 개입 절차, 학사일정 진행 등의 다양한 행정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자살 발생시 학사 일정, 자살 소식 전달 대상 등 국외 사후개입과 국내 전문가, 교사 및 학생 간 의견이 불일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외 사후개입 방안의 취지, 국내 의견조사 상의 찬반 양상과 찬반 양측의 이유를 좀 더 분석한 결과에 따라 연구진이 접근 방향 및 세부 절차를 결정하였다.

(2)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구성

가)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목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자살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학교장 및 교사, 관련 지역 정신건강전문가의 효과적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을 보장한다.
- 청소년 자살 발생시 체계적·일관적·효율적인 학교 내 개입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감소시킨다.
- 다른 학생들, 교사 및 학부모 등의 주변사람들이 적절하게 애도반응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살위험성이 높고, 친구의 자살로 영향 받은 청소년을 식별하여 적절한 개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자살 발생을 예방한다.

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구성

본 사후개입 매뉴얼은 크게 개입시기별, 개입영역별, 학교관리자, 위기관리팀, 해당 학급 교사, 전체 교사, 상담교사 및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등의 역할에 대한 지침, 업무 수행절차,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학생(학교구성원)의 자살 발생 이전에 갖추어야 할 필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내 위기관리팀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팀의 목적, 구성 및 역할, 구체적 활동에 대해 기술하였다.
- 위기관리팀의 상시 활동에는 자살예방을 위해 갖춰야 사항 파악 및 점검,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gatekeeper 훈련이 포함되며, 옥상, 화학약품 등 자살 수단 관련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의 수행과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시활동은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매뉴얼 상으로는 사후개입의 실제 활동 뒤에 배치하였다.

둘째, 학생 자살 발생 직후 사후개입의 순서에 맞추어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후개입 준비단계로서 자살의 진위를 파악하고, 필요시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위기관리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자살관련 정보를 수합하고, 공식적 사안보고서 (fact sheet)를 마련하고 자살의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개입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고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교내 자살 발생시 경찰 조사 협조를 위한 현장 격리 및 목격자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 본격적인 사후개입 단계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자살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내용 관련 프로토콜이 포함된다. 또한 외부 언론 등의 인터뷰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살의 파급효과를 줄이고 소문을 막고 학생들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하여 학급 위기개입을 통해 해당학급 및 영향 받은 학생에 대한 스크리닝과 개입방법, 특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 구성원 자살에 따른 후유증과 이로 인한 모방자살 등의 2차적 자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중요한 개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살한 학생의 소지품이나 책상 처리 절차, 조의를 표하기 위한 꽃다발의 마련과 처리 방법,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개입, 애도반응에 대한 이해와 애도반응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이 포함되었다.

- 사후개입 추후 관리 방법으로 자살한 학생의 생일, 기일, 졸업식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43.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초기개발안)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세부 내용	담당자	
위기관리 팀의 조직과 활동 (사전 조직)	위기관리팀 조직	•목적 : 안전 확보, 학교의 정상화, 정보의 일관성 유지, 추후 자살예방, 자살위험 예방, 심리적 지지 제공, 대처역량 강화	학교	
	위기관리팀의 구성과 역할	•위기관리팀장 : 자격과 역할 •안전관리담당자(팀) : 학교 안전 확보, 언론 대응, 지역사회 연계 •학생·교직원·학부모 지원 담당자(팀): 자살위험스 크리닝, 학급위기개입, 유가족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위기관리팀	
사후 개입 준비 단계 (자살 발생 후 24시간 이내)	자살의 진위 파악 (자살 발생 확인 직후)	•자살상황 목격자 및 소식 접촉자 소집 •자살 진위 여부 확인	위기관리팀의 안전관리담당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	
	경찰조사 협조 (교내 자살 발생 확인 직후)	•학교장 및 교내 위기관리팀에 연락 •목격자 격려·보호 •학생, 교직원, 외부인 등의 현장접근 차단 •경찰조사 조력, 현장 경험 공유	안전관리담당자	
	위기관리팀 긴급회의 (자살 진위 파악 후)	정보 수합	•위기관리팀 회의 소집 •자살의 파급효과 예측(학생 관련 정보, 이전 경험, 발생시기, 학사일정 등)	위기관리팀
		자살정보 공유방법 결정	•공개 대상과 범위 결정 •대상별 공개 방법 결정 •자살에 영향받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개입 절차 수립	
		사후개입 준비	•세부계획 수립, 개입장소 확보 •교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학부모 응대담당자 결정 •영역별 세부 계획 수립,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사안보고서' 작성		•공개할 정보 내용 및 범위, 대상 결정	위기관리팀	
관련	교육청	•구두보고, 사안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담당자	

표 43.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초기개발안)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세부 내용	담당자	
	기관 협조 요청	다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대응책 공유 •외부 지원 사항 협조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 친구·이성친구가 속한 학교에 연락하여 자살상황 및 유의사항 알리기 	(지역사회연계)
		외부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기관 목록 사전 확보 •위기관리팀에서 외부 전문기관 대상 지원 요청사항 협의 •학교 방문시기, 개입 대상, 개입 장소 및 절차를 협의 •외부전문가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 	
사후개입 단계 (자살 발생 후 1~7일 이내)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 (자살 발생 후 48시간 이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교직원 대상 자살 사후개입 관련 정보 제공 	위기관리팀의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가 학급 단위로 전달 •자살한 학생과의 관계에 따라 자살소식 전달 방식을 달리함 	담임교사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별 학부모 비상연락망 사전 마련 •가정통신문 발송 •자녀에 대한 상담 및 도움 요청 •자살소식에 대해 추측이나 짐작한 내용을 학부모들이 서로 주고받지 않도록 당부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팀)
		언론 매체 (발생 후 약 1~7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매체에 먼저 자살 관련 정보를 주지 않음 •언론대응의 일원화-언론대응담당자 선정 •공식적 사안보고서(fact sheet) 활용 •전교직원 사안보고서 숙지 •학교 사후개입 및 지원기관 공개에 중점 •언론접촉 내용 기록 •자료 수집 및 평가, 보관 	언론관리담당자, 언론대응담당자
		학급 위기개입 (48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개: 개입 목적, 시간, 과정, 규칙 안내 •사실 확인: 사실적 정보와 추측 정보 구별 •경험 공유: 경험 후 생각, 느낌, 행동 등 •대처: 스트레스대처 교육 •종결: 개입에 대해 느낀 점 공유, 특별상담실 안내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 외부 정신건강전문가
고위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리닝 1단계(준비): 고위험 학생 명단 확보 •스크리닝 2단계(관찰, 고위험 학생 스크리닝): 학급 위기개입 도중 심각한 증상을 보이면 특별상담실에 의뢰 • 고위험 학생 대상 상담 및 정신과 의뢰 			

표 43.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초기개발안)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세부 내용	담 당 자
	특별상담실 운영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상담실 설치 및 안내 •특별상담실 상담 운영 •의뢰 경위에 따른 상담 구조화 •자살위험스크리닝 및 자살위험수준 면접 평가 •학생의 자살위험성에 따른 의뢰 	위기관리팀의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 외부 정신건강전문가
	장례식 참석 (7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식 참여자 결정 •장례식 참여 및 나누기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 담임교사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사후개입 추후관리	위기관리팀 활동평가 및 심리적 경험보고 (1~7일간 매일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팀 활동 발표 및 평가, 심리적 경험보고 •향후 개선 사항 및 활동 계획 	위기관리팀
	지속적 관찰 및 개입 (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일 및 기일, 졸업식 등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 행동 변화 등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 학생 발견 시 상담 의뢰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 학급 담임교사
위기 관리팀 상시 활동	자살예방을 위한 준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팀 구성 및 활동, 자살예방, 응급상황, 사 후개입,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원 관련 준비사항 	위기관리팀
	Gatekeeper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적합한 Gatekeeper 훈련프로그램 구성 (우리나라 자살의 실태, 청소년 자살의 특성, 자살 관련 위험 및 보호요인, 자살에 관한 오해와 진실 에 관한 지식, 자살위기청소년 인식을 위한 프로 파일 등) 	학생·교직원·학 부모지원담당자
	시설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의 전반적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결정, 안전관리자의 활동, 긴급사태의 활동 등 	안전관리담당자

다.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 단계

2010년 9월 29일, 초기 개발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현장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 대전, 경기 지역에 소재한 12개 중·고등학교에서 추후 학생 자살 발생 시 위기관리의 실무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12명과 서울, 경기, 충청남북 지역의 자살위기청소년 상담개입 경험이 많은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자 5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 평가를 위해 사후개입 지식, 자기효능감에 대해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라.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수정·보완 및 개발, 보급 단계

2010년 11월~12월에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 참가자의 평가의견을 수합하여 이를 토대로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내용 감수를 거쳐 개발을 완료하고자 한다.

완성된 매뉴얼은 2011년에 우선적으로 전국 중고교 학교장, 교사, 상담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보급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전문가 등)가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 위기관리팀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전문가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2. 시범교육 및 평가

가. 시범교육의 개요

(1) 시범교육 평가의 개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에 참여한 학교관리자, 학교 위기관련 실무 책임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자의 사후개입지식,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사전, 사후점수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여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입 매뉴얼 수정·보완

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다.

참여자인 학교관리자 및 학교 위기관련 실무책임 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격을 갖춘 상담자로 임의 표집하고, 실험집단에 처치를 하고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이며, 종속변인은 사후개입 지식, 자기효능감이다. 또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 참가 후 참여자 관점평가가 포함된다.

시범교육 내용은 표 44, 평가 개요는 표 45와 같다.

표 44. 시범교육 내용

교육명	시간	내용
	15분	사전검사 참석자 전원 제출
		들어가기 - 본 교육의 취지
	1시간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 청소년 자살 실태, 자살 특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 청소년 자살에 대한 개입방법(예방적 접근, 위기개입, 사후개입)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사후개입 준비단계	- 사후개입의 필요성 - 위기개입팀의 조직, 구성 및 역할 - 청소년 자살 파급효과 예측방법 - 교내외 자살별 진위파악 방법, 사후개입 준비단계 설명 (국외 사후개입, 교내 전문가, 교사 및 학생의 의견조사 결과, 면접 결과 예시를 포함한 강의)
시범교육	1시간	사후개입 및 추후관리 - 자살 소식 전달 방법(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언론 대응 - 자살위험 스크리닝 - 특별상담실 운영 및 고위험 학생 의뢰방법 - 추후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등 (국외 사후개입, 교내 전문가, 교사 및 학생의 의견조사 결과, 면접 결과 예시를 포함한 강의)
	30분	질의 응답 - 본 사후개입 매뉴얼에 대한 질의 응답 등, 논의
	15분	사후검사 9월 30일에 참석자 중 2명은 사후검사 자료를 e-mail로 받음

표 45. 시범교육 평가 개요

연구대상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O₁ : 사전검사(사후개입 지식, 자기효능감)

O₂ : 사후검사(사후개입 지식, 자기효능감) + 참여자 관점평가지

X :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 측정 도구

시범교육에 참여한 교사 및 학교관리자, 지역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ber 등(2009)이 실시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젝트 효과성 평가에 쓰인 Frameworks Postvention Survey 척도를 참고하고, 자살 관련 사후개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선정하여 연구진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본원 내외 자살 관련 전문가 5인에게 보여 내용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11개의 2지 선택형, 7개의 4지 선택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측정은 문항별로 정답은 1, 오답은 0의 이항점수로 채점되어 총점은 0~18점에 이른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후개입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주요 내용은 표 46과 같다.

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시범 교육 이후 교사와 학교관리자, 상담자의 사후개입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이 기대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한다. 자기효능감이란 청소년 자살이 발생할 때 사후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박정미(2006)가 Schlessel 등(1995)과 강경희(2004)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구체적 자기효능감’ 척도 12문항을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내용에 맞게 연구진이 수정하였다. 본원 내외 자살 관련 전문가 5인에게 보여 내용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99를 나타냈다. 척도의 주요 내용은 표 46에 제시되었다.

다) 참여자 관점 평가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시범교육의 효과 평가 외에도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관점의 평가란 수혜자 즉, 교육의 참가자가 교육 내용과 함께 그 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 참가자에게 보다 큰 만족을 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의 평가 척도는 교육의 성과 만이 아니라 과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의 가치 또는 장점을 의사결정자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합평가의 의미를 갖는다(이성흠, 2005). 참가자 관점 평가를 하기 위해 사후검사 직후 시의적절성, 목적 부합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도를 나타내는 5개의 질문을 5점 척도 형식의 질문지로 제공하였다. 평가지의 주요 내용은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3) 연구 대상

시범교육에는 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위기관리 실무책임자로서 추천을 받은 교사 6명, 교내 상담, 인성교육 등 관련 부의 부장급 교사 6명,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위기개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상담자(상담관련 학과 석·박사) 5명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주요특성은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체 남자가 5명(29.4%), 여자가 12명(70.6%)이며, 나이는 30~65세로 평균 46.4세로 나타났다.

표 46. 측정도구의 세부내용

도구명	문항별 세부 내용	문항 번호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지식	청소년 자살 관련 지식(청소년 자살의 특성, 자살 생존자 개념)	1, 3
	사후개입 전반에 관한 지식 (개입 순서, 개입 기간, 학사일정 관리, 개입방안의 적절성)	2, 7, 9, 18
	자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방법 (일관된 정보 제공, 원인 추측하지 않기)	5, 6
	학급 위기 개입 (자살위험스크리닝 실시, 관찰대상, 특별상담실 의뢰)	4, 13, 16
	자살 소식 전달 관련 (전달 범위, 전달 시기, 전달시 유의사항 2문항)	8, 10, 11, 14
	교직원 지원 사항	12
	자살 파급 효과 파악시 고려사항	15
	언론 매체 관련 대응방법	17
자기 효능감	학생 자살 발생 시 효과적 대처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19, 22
	학생 자살 대처에 대한 부담감	20, 21, 28
	자살위험학생과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의 식별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23, 29
	학교현장에서 학생 자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24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 제공	25
	자살에 학생들이 영향받을 때 적절한 대처능력에 대한 자기확신	26
	학생 자살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외부기관 인식	28
	학생 대상 자살에 관한 올바른 인식 교육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30
참여자 관점 평가지	매뉴얼 개발의 시의적절성, 목적부합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도	각 1 문항

표 47. 시범교육 참여자의 특성

번호	성별	지역	나이	직위	이전 자살 경험(학생 접촉한 경우) (밝힌 경우)
1	여	서울	45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
2	여		30	중학교 진로상담부장	-
3	여		55	고등학교 상담부장	있음
4	남		48	고등학교 상담부장	-
5	남		47	고등학교 인성교육부장	있음
6	여		48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장	있음
7	여		35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	-
8	여	대전	60	중학교 교장	-
9	여		48	중학교 상담교사	(근교 접촉)
10	남		48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
11	남		65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근교 접촉)
12	여		49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
13	남		54	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
14	여	경기	33	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
15	여		4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	있음
16	여	충북	3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	-
17	여	충남	4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	-

나. 시범교육의 평가 결과

(1)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의 효과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이 참여자의 청

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대응표본 t-검증(a 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가) 시범교육에 따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의 변화

시범교육에 따른 참여자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지식이 시범교육 이전과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a 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자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점수의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t=-5.533$,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참여자의 청소년 자살사후개입 지식이 시범교육 처치를 받은 직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표 48. 척도별 사전·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변인	종속 변인	평균	표준편차	t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	사전	12.06	1.886	-5.533***
	사후	14.53	1.736	
자기효능감	사전	62.94	12.796	-5.279***
	사후	81.00	16.136	

*** $p < .001$

나) 시범교육에 따른 참여자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자기효능감의 변화

시범교육에 따른 참여자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자기효능감이 시범교육 전후 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a 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t=-5.279$,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참여자의 청소년 자살사후개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시범교육 처치를 받은 직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가)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참여한 교장, 교사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자 17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부합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도에 관한 5개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매뉴얼이 시의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는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인지, 학생들에게 유익할지, 현장 활용시 기여도가 높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표 49. 참조). 본 매뉴얼에 대하여 시의적절성은 평균 4.65, 목적 부합성은 4.53, 기여도는 4.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 시범교육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단위 : 명(%)]

질 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계(%)
1. 본 매뉴얼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35.3)	11 (64.7)	4.65	17 (100)
2. 본 매뉴얼이 개발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 (47.1)	9 (52.9)	4.53	17 (100)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5.9)	10 (58.8)	6 (35.3)	4.29	17 (100)
4. 본 매뉴얼을 고객(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11.8)	8 (47.1)	7 (41.2)	4.29	17 (100)
5.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5.9)	8 (47.1)	8 (47.1)	4.41	17 (100)

또한 참여자에게 매뉴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 결과, 주된 의견으로는 ‘마침 지금 필요한 매뉴얼이다’,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 노력한 것 같다’과 같이 본 매뉴얼의 즉각적 현장활용성을 지지하는 의견과 ‘위기관리팀의 구성은 학교장이나 교육청 의견을 들어봐야 결정할 수 있다’, ‘교내 위기관리팀 담당자를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공문으로 내려보내야 구성할 수 있다. 아니면 교직원들간에 서로 역할을 미루느라 위기관리팀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위기관리팀 구성의 제도적 구축을 우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시범교육을 마친 후 참여한 교장, 교사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자 17명에게 청소년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에 대한 평가 질문지를 e-mail로 발송하여 추가 정보를 수합하였다. 질문 내용에는 본 매뉴얼에서 제안한 위기관리팀과 유사 기능을 지닌 조직(위원회, 팀 등)을 현행 학교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명칭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본 매뉴얼의 수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표 51. 참조).

첫째,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위기관리팀과 유사한 현행조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참여자 17명 중 교사 10명, 상담자 3명(13명)이 답신을 보내왔는데, 교사 10명 중 2/3명이 교내 유사한 현행 조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3명은 교내 현행 조직을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조직으로는 1) '학생안전관리위원회'로 교사 및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응급상황시 체계적인 대처를 수행하고 있거나, 2) 통합위원회(학생지도위원회-소위원회)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 운영부장,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 지역사회부장, 학년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화재, 학생활동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 사후처리를 맡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변호사, 관련업무 경찰관)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이 예방활동과 가족-학교 조직을 연계하는 생활지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폭력 근절과 지역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학교 주변 폭력과 기타 상황 발생 예방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팀'은 학교 행정조직 상으로 잘 쓰이지 않으며,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위기관리팀을 '위기관리위원회' 혹은 '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안이 있었다. 세부 구성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주된 담당부장은 생활부장, 상담파트에 한정하여 상담부장을 협력부장(상담부가 없는 학교는 생활부 상담계)으로 지정하고 기타업무는 생활부 기획 및 안전사고 담당자가, 예방업무는 생명존중계로 구성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래서 본 매뉴얼에서 제안한 자살 사후개입 뿐 아니라 학교의 화재, 학생활동 등 각종 교내외 사고 예방 및 사고 사후처리를 총괄하는 통합적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후개입의 세부영역에 대해 현행 학교조직상에서

가장 적절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의견을 조사하였다(표 50. 참조). 우선 사후개입 준비 단계에서 자살 진위파악은 주로 생활부장이, 경찰조사 협조에는 생활부장 혹은 교감이, 사안보고서 작성은 교감과 학생부장이나 연구부장이, 교육청 연락은 교감 혹은 학생부장, 상담부장, 다른 학교 연락은 상담부장이나 지역사회부장이, 외부 전문기관 협조 요청은 상담부장이나 생활지도계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사후개입 단계에서 교직원 대상 자살소식 전달은 교감 혹은 교무부장이, 학생은 담임교사나 학년부장이 적합하다고 보았고, 학부모는 학생부장이나 학년부장, 언론매체는 교감 혹은 학생부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학급위기개입은 주로 외부 정신건강전문가가 맡아야하며, 장례식 참석 주관 및 특별상담실 운영은 상담부에서 진행하며, 위기관리팀 심리적 경험보고는 교감 혹은 교장이 주관하고 사후개입 추후관리는 상담부 외에 학급 담임과 교과담임, 학생부장, 학년부장 등 다양한 담당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50과 같다.

표 50. 사후개입 세부영역별 현행 담당자에 대한 의견

[단위 : (응답자수)]

구성 요소		현행 학교조직의 담당자
사후 개입 준비 단계	자살의 진위 파악	생활(지도)부장(5), 인성부장(3), 담임교사(2), 교감(1), 교무부장(1)
	경찰조사 협조	생활(지도)부장(6), 교감(3), 학생부 교내 및 교외생활지도 담당자(1), 안전교육담당자(1)
	위기관리팀 긴급회의 (사후개입 준비)	교감(4), 학생부장(3), 생활(지도)부장(2), 상담부장(1), 보건교사(1), 교장(1), 교무운영부장(1) * 협조-교무부장, 연구부장
	'사안보고서' 작성	교감 및 학생부장(3), 교감 및 연구부장(2), 생활지도부기획(1), 학부모운영위원회장(1)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교육청 : 교감(협조 : 상담부장)(3), 학생부장 및 상담부장(3) 다른 학교 : 상담부장(3), 지역사회부장(2) 외부기관 : 상담부장(3), 생활지도계(2), 상담교사(1)
사후개입 단계	교내 외 자살 소식 전달	교직원 : 교감(3), 교무(운영)부장(3), 학생부장(2), 행정실장(1), 상담부장(1) 학생 : 담임교사(6), 학년부장(2), 교장 혹은 교감(1) 학부모 : 학생부장(3), 학년부장(2), 학급담임(1), 교감(1), 지역사회부장(1), 교무부장(1), 생활지도부장(1)

표 50. 사후개입 세부영역별 현행 담당자에 대한 의견

[단위 : (응답자수)]

구성 요소		현행 학교조직의 담당자
	언론매체	학생부(교내계 교외계)(2), 교감(2), 지역사회부장(1), 교무부장(1), 교육정보부장(1)
	학급위기개입 (자살위험 스크리닝 등)	외부 정신건강전문가(6), 상담담당 교사 전원(3), 상담부장(2), 보건교사(1), 인성부장(1), 지역사회부장(1)
	장례식 참석	상담부장(상담교사 전원)(4), 보건교사(1), 인성부장(1), 생활지도부(1)
	특별상담실 운영	상담부(3), 인성부장(2), 상담부장(1), 교감(1), 학생부(1)
	위기관리팀 심리적 경험보고	교감(4), 교장(2), 인성부장(1), 상담부장(1)
추후관리 단계	지속적 관찰 및 개입	상담부장(상담교사 전원)(3), 학급 담임교사(2) 및 교과담임 협조(2), 학생부장(2), 학년부장(2), 보건교사(1), 생활지도부장(1)

이 밖에도 본 매뉴얼 내용의 수정 방향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사후개입 제도화 및 준비와 관련하여 교육청 단위의 전문가 의뢰 제도화,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개입 관련 전문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사후개입 추후관리 방법을 좀 더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표 51. 참조).

사후개입 매뉴얼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체험 교육 방식의 도입을 권하고 있고, 본 매뉴얼 보급 체계와 관련해서는 교장 및 교감 자격 연수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역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를 지역단위 강사로 키워 신속하게 본 내용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본 매뉴얼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실질적 교사훈련을 기획하고, 자살생존자에 대한 적극적 위기개입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생존자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생존자의 충격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밖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또래지지훈련, 지킴이훈련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자살시도자의 학교복귀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표 51.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수정방향에 대한 의견

매뉴얼 내용	진술 예문
사후개입 제도화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협조 요청 : 학교 특성 상 자율적 처리가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의뢰한 관련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청 보고 후 전문가 팀이 출동하여 학교에 개입하는 시스템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바람 -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 관련 예방교육 및 개입담당 기관을 일원화해주시기 바람(지역정신보건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사후개입 추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학급 학생, 담임교사 등 자살생존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부족해보임. 위기상황 정리 후 감정 동요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학교에서 지속적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 안도감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 예를 들어, 3주 정도에 걸쳐 2회 정도 외부전문가의 강연이 필요하다고 봄
매뉴얼 보급 체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 교감 자격 연수가 필요하며 제도화를 통해 연중 교육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 사후개입 대책 연수는 사안 발생시 매뉴얼을 배부하며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하루빨리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기 바람. 공립교처럼 매년 담당교사의 업무가 바뀌는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기 어려움 - 지역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를 지역단위 강사로 양성
매뉴얼 교육방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과 현실은 다르므로 역할을 분담하여 스스로 체험해보는 교육 방법이 필요함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강화 : 현재 일선학교에 상담관련 학위를 지닌 교사가 많지 않고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 매뉴얼을 바로 따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학교실정에 맞도록 실질적 교사훈련을 기획 필요 - 학교사회 특성에 따른 현실 적용의 어려움 : 매뉴얼은 체계적이고 상세하나, 학교 조직사회에서는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 모든 행동이 결정되므로 현실적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상담자 매뉴얼 개발 필요 : 지역센터의 경우 학교폭력처럼 조정자의 역할, 자문역할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용 지침서 추가적 개발 필요 - 자살 생존자에 대한 적극적 위기개입 필요 : 친구 자살 후 2주 뒤 자살 사례가 관할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적 있음. 자살생존자에 대한 더욱 세밀한 보살핌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봄 - 자살 생존자 충격에 대한 더 많은 조사 필요 - 자살예방 관련 : 또래지지훈련, 지킴이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추가적 개발 필요 - 자살시도자의 학교 복귀프로그램 필요 : 인근학교에서 자살시도 후 학교로 복귀하고 바로 전학을 간 사례가 있음. 학교, 담임, 친구들도 그 친구를 대하는 적절한 방법을 몰랐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자살시도 학생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수정 보완(11월~12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시범교육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초기 개발된 사후개입 매뉴얼의 수정 방향을 수립하였고 1차 수정한 후 12월 초 학계전문가에게 매뉴얼에 대한 감수를 받아 2차 수정·보완한 후 매뉴얼을 완성하였다.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전체 수정방향과 관련하여, 시범교육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시범교육의 효과에 대해 수용할만한 결과가 나타났고, 참여자 중에 실제 학교에서 학생 자살을 경험해보았던 교사나 자살위험청소년 등을 경험한 상담자들 역시 본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므로 매뉴얼의 전체적 구성 및 하위 구성요소는 유지하였다.

수정, 보완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개입을 주관하는 위기관리팀과 관련하여, 학교의 현행 조직들과 유사한 명칭인 '위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세부 영역 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학교 조직 담당자를 고려하여 재배치하였다.

둘째, 자살 발생시 학사 일정, 자살 소식 전달 대상 등 국외 사후개입과 국내 전문가, 교사 및 학생 간 의견이 불일치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좀더 고찰하여 연구진이 접근 방향 및 세부 절차를 결정하여 초기 개발하였다. 그렇지만 학생이 자살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의견들을 구한 결과 자살 발생 시기가 '학교 축제', '소풍' 등과 같이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학사 일정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예외 조항 등이 예시로 제안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정안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예시를 제안하여 보다 현실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셋째,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개입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사전 정황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학교 구성원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자살의 원인을 학교 구성원에게 돌리는 유가족의 원망, 분노에 접할 때 학교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난감하고 어려울 수 있다. 면접 및 의견조사, 시범교육 참여자 중 실제 학생 자살을 경험했던 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자살한 학생이 자살 발생 직전에 결석했을 때 부모에게 연락 취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든가, 자살 발생 전에 처벌이 있었다든가 하는 경우 담임교사나 처벌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

한 가족들의 원망이 실제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 자살 사고를 경험했던 교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은 부모의 주변 자원(친척, 성직자, 이웃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어 부모가 분노를 조절하고 애도반응을 적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에 자살자 유가족의 자원 활용과 개입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완하였다.

넷째, 사후개입과 관련된 상시 활동과 관련하여 ‘자살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이 사후개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만큼 이를 구체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기관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IV. 요약 및 논의

청소년 자살 실태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자살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살에 접촉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며, 자살전염성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모방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발생시 동년배인 청소년들에게 미칠 과급효과를 고려할 때, 자살을 더 이상 개인, 가정,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후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가족, 친구, 학교에 대한 심리적 중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2007), 우선적으로 국외 사후개입에 대한 기초 조사(2008)를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이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이 발생했을 때 주변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교사, 교내 관련 전문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청소년상담사 등) 등이 연계하여 개입할 수 있는 구체화된 학교 현장 중심의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개발 과정은 기획-구성-실시 및 평가 단계를 거쳤다. 우선 청소년 자살의 실태와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살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국가적 전략 개발로 자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사후개입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해당되는 일본과 홍콩의 사후개입방안을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지지받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자살 발생시 학교의 대처, 자살소식이 학교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기에 (학급)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교사의 자살 및 사후개입에 대한 인식이 국외 사후개입 방안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작업하는 관련 전문가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후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의 관련전문가 21명 그리고 학교장 및 교사 201명, 중교생 1,490명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련전문가, 교

사와 학생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국외 자살 사후개입 방향과 상당한 일치를 나타내어 사후개입 방안의 보편적 구성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국내 전문가와 교사 및 학생, 국외 사후개입 간에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살 발생 시 학사 일정 운영 문제, 자살 소식 전달 대상과 범위, 공식적 추모행사, 교직원의 감정 표현 및 개입 등에 관해서는 연구진들이 국내 전문가 등의 의견조사의 찬반의 이유를 분석하여 주된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 연구와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이 초기 개발되었다. 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초기 개발안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하며, 자살 발생시 신속한 사후개입을 위해 사전에 학교 위기관리팀의 조직을 상정하며, 위기관리팀의 상시활동, 자살발생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후개입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위기관리팀의 조직 구성원과 자격기준, 담당자별 활동 영역 및 주요 업무를 명기하였다.

자살 발생시 사후개입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 주로 시행하게 되는 사항으로는 자살의 진위를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협조하며, 위기관리팀 긴급회의를 통해 정보를 수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교직원 대상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또한 언론 및 학부모에 대한 응대 담당자의 선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안보고서를 작성하며, 교육청, 다른 학교,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 사후개입 단계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소식을 전달하고 학생에게 자살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 소식을 전달한다. 그동안 언론대응담당자가 전담하여 언론매체에 대응하고, 자살에 영향을 받기 쉬운 학급(상황에 따라서는 전교생을 학급단위로 동시에)을 대상으로 위기개입을 실시한다. 자살위험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위험성이 엿보이는 학생은 특별상담실로 안내하고 자살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교내외 상담실 및 정신과 의뢰가 진행되도록 한다. 위기관리팀은 매일의 활동을 발표하고 평가하며, 심리적 경험보고를 실시하고 향후 사후개입 개선사항 및 활동을 계획하게 된다.

마지막 사후개입 추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자살위험에 놓인 학생이 발견되면 상담에 의뢰하고, 자살한 학생의 생일 및 기일, 졸업식 등에 대한 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추가적으로 위기관리팀의 자살예방을 위한 준비활동, Gatekeeper훈련, 시설안전관리 등에 관한 상시 활동이 제시되었다.

초기 개발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현장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 등에 소재한 12개 중교의 위기관리 실무책임 담당 교사 12명과 자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자 5명이 참석하였고, 시범교육 전과 후에 사후개입지식척도와 자기효능감척도를 실시하여 성취도평가를 수행하였고, 교육 후에는 참여자 관점평가를 실시하여 사후개입 매뉴얼의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받았다. 그 결과 참여자의 자살 사후개입지식과 자기효능감이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또한 본 사후개입 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부합성, 유익성, 실용성, 활용기여도 등에 관한 참여자 관점 평가 결과 평균 4.2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또한 매뉴얼 수정을 위한 구체적 피드백을 수합하기 위해 서면 자문을 요청한 결과 본 매뉴얼의 즉각적 현장활용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었고, '위기관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범교육 평가 및 서면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 전까지 수정·보완작업을 시행하였다. 수정작업 후에는 학계전문가의 감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매뉴얼을 완성하였다.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살예방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의 사후개입 방법들을 고찰하여 공통적으로 지지받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실효성이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자살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학교를 기반으로 한 사후개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위기관리위원회의 사전 조직을 전제로 학교장 이하 위기관리위원회가 자살 발생 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준비단계, 사후개입, 추후관리까지 담당자별로 해야 할 업무와 세부절차를 상술하였다.

둘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관련전문가, 학교장 및 교사, 학생들에게 사후개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매뉴얼에 담고자 하였다. 자살 발생 시 사후개입을 직접 수행하게 될 학교관리자와 교사의 사후개입 관련 인식 수준 및 요구를 확인하고,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오랜 숙고를

통해 세부절차를 상세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뉴얼의 즉각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명기하고, 구체적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실제 대처 경험이 없는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의 자기효능감과 실제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방향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자살'의 속상 상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만약 학생 자살이 발생한다고 해도 외부에 쉽게 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현 학교 체제에서, 또한 제한된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실제 자살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후개입을 시범 운영하여 평가하는 설계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청소년 자살사후개입 시범교육을 통해 현재 학교 위기관리 실무책임담당자인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 준비도와 사후개입지식 및 자기효능감의 성취를 파악하고,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의 요구를 수렴하는데 그쳤다.

또한 선행되는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국내 상황과 학교시스템을 고려하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프로토콜 개발의 필요성과 사후개입에 관여하는 인력들을 사전에 준비시킬 수 있는 훈련 모듈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매뉴얼은 마련하였으나, 이것을 사후개입 관여 인력을 위한 훈련 모듈로 구체화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본 매뉴얼은 시개발되었으므로 아직 현장 적용 경험이 풍부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본 매뉴얼을 사용하게 될 학교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 역시 활용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본 매뉴얼에 능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매뉴얼의 지속적 현장 적용과 장기적 효과 검증 과정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정교화 과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충실한 학교 자살 사후개입 관여 인력의 훈련 모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제작한 사후개입지식 척도와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제한된 연구 기간으로 인해 자살 사후개입 개발과정에 집중함으로써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평가받는데 그쳤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평

가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개입 과정에서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의 식별 방법을 주로 관련 전문가의 관찰에 의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을 식별하고, 자살 영향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표준화된 평가 도구의 부재는 관련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개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의 영향성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매뉴얼은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외 사후개입 방안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학교의 사후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가의 협력과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한 학교의 폐쇄적, 소극적 대처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들도 학교현장 사후개입에 능숙한 자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사후개입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본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효과검증을 통해 학교 현장에 맞춤형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의 보급과 관련 인력 교육을 통해 청소년 자살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준비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모방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을 위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사전 조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자살 문제는 한 개인, 가정, 학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선 갑작스런 청소년 자살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개입을 위해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과 담임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기관, 전문기관의 효과적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등의 양성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본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초기개발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사실 상 학교와는 행정부처가 다르므로 직접 보급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 자살개입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에 제시된 사후개입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여성가족부)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학교를 비롯한 상담기관, 보건기관, 복지기관, 보호기관 등의 연계체계가 보다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두훈(2008). **자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강경희(2004). **자기효능증진 기본생명소생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심정지 고위험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교현(2004). 한국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55-68.
- 김미리혜(1998). 외상적 스트레스의 단기 관리: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102-113.
- 김연중(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140-166.
- 김용분, 이정섭(2003). 자살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2(4), 394-401.
- 김인숙(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차 효과 :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5~36.
- 김현경(2010). **반복 자살 시도자의 생존 경험: 늪에서 헤어나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민(1997). 청소년 자살. **대한의사협회지**, 453, 1282-1287.
- 문화일보(2010. 9. 13). **청소년 자살 예방, 관심이 관건이다**.
- 메디컬투데이(2009. 2. 5).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 해법은?**. 윤주애 기자.
- 박상철, 조용범(198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학지사.
- 박정미(2006). **자기주도적 학습이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및 유지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영(2007). 노인자살 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295-330.
-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2008).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2008).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 배주미, 양윤란, 김은영(2008). **자살위기청소년 상담개입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50.
- 수원시자살예방센터(2005). **2005 자살예방세미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함께**.

- 서울신문NTN(2010. 8. 23). <http://www.seoulntn.com/> 대구여중생 투신 통해 본 청소년 자살...‘빠져버린 중2병’
- 신동균, 이준상, 이민수, 최윤경(1997). 삼풍사고 생존자들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고통의 단계. **신경정신의학**, 36, 612-619.
- 신민섭(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 안성태, 이용주, 백광제, 김준식, 이일근, 하충건(1997). 의수 자살 기도 후 알파 혼수를 보이다 생존한 사례. **대한응급의학회지**, 8(1), 113-119.
-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2009). **2009 청소년 자살예방 한·일 심포지움 자료집**.
- 안황권(1999).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 **경찰행정논집**, 13, 149-169.
-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소영(1998). **청소년기의 수동적 삶의 자세 및 이상-현실 괴리와 자살욕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 석사학위 논문.
- 오승근(2006). **청소년의 자살태도,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교육 참여 요구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선유(1999).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 (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 육성필(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진, 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선미, 김정희(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547-563.
- 이성흠(2005). **학습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 교육과학사.

- 이승연(2007).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사후중재. **상담학연구**, 8(1), 161-180.
- 이인숙, 하양숙, 김기정, 김정희, 권용희, 박진경, 이나운(2003). 일개 지역사회 재해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3, 829-838.
- 이윤주(2004). 재난피해의 심리적 영향과 재난 극복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방법: 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2, 28-40.
- 이지현, 김유숙, 최영안(2004). 전쟁으로 인한 PTSD 집단과 사고로 인한 PTSD 집단의 MMPI 프로파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221-229.
- 이호준(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임순옥(2009). **웹기반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응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식, 고경환, 도세록, 김나연, 장현경(2010). 2010년도 OECD 보건통계생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일보(2009. 6. 4).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고독의 병'입니다**.
- 조선일보(2010. 8. 30). **부산서 여고생 2명 동반 투신자살**.
- 기자협회보(2008. 11. 19). **제대로 된 자살 보도가 생명을 구한다**.
- 지승희, 구분용, 배주미, 정익중, 이승연, 김은영, 김태성, 박재연, 허진석(2007). **청소년 자살예방체제구축방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34.
- 지승희, 김명식, 오승근, 김은영, 이상석(2008).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 및 개입방안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41.
- 최용용, 이수연(2003). 위기 유가족을 위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 189-208.
- 최용용, 홍종관, 김춘경, 이수연(2004).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5, 505-518.
- 통계청(2010). **2009 사망원인 통계 결과**.
- 한국자살예방협회(2005). **한국자살예방협회 2005년도 학술 심포지움**.

Alexander, V. (1991). *In the wake of suicide: Stories of the people left behin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Allen, B. P. (1987). Youth suicide. *Adolescence*, 22, 271-290.

- Andriessen, K. (2009). Can postvention be prevention?. *Crisis*, 30(1), 43-47.
- Andriessen, K., Beautrais, A., Grad, O. T., Brockmann, E., & Simkin, S. (2007). Current understandings of suicide survivor issues: Research, practice, and plans. *Crisis*, 28(4), 211-213.
- Baber, K., & Bean, G. (2009). Frameworks: A community-based approach to preventing youth suicid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6), 684-696.
- Barrett, T., & Scott, T. (1990). Suicide bereavement and recovery patterns compared with non-suicide bereavement patter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ur*, 20(1), 1-15.
- Baume, P. (1992). Suicide: A crisis for the whole family should suicide survivors be managed differently? *AIC conference proceedings*, 13, 279-288.
- Beautrais, A. (2004). *Suicide Postvention Christchurch*. NZ: Christchurch School of Medicine & Health Services.
- Bisson, J. I. (2003). Single-session early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llowing traumatic eve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481-499.
- Bjarnason, T., & Thorlindsson, T. (1994). Manifest predictors of past suicide attempts in a population of Icelandic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350-358.
- Blum, R. W., Harmon, R., Harris, L., Resnick, M. D., & Bergeisen, L. (1992). American Indian/Alaskan Native youth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637-1644.
- Bollen, K. A., & Phillips, D. P. (1982). Imitative suicide: A national study of the effects of television news st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802-809.
- Bonanno, G. A., & Kaltman, S. (2001). The varieties of grief experience. *Clinic of Psychology*, 21, 705-734.
- Brent, D., Bromet, E. J., Dew, M. A., & Greenhouse, J. B. (1987). A quantitative literature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cen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239-244.
- Brent, D. A., Perper, J. A., Goldstein, C. E., Kolko, D. J., Allan, M. J., & Allman, C. J. (1988).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 comparison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with suicidal in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6), 581-588.

- Brent, D. A., Kerr, M. M., Goldstein, C., Bozigar, J., Wartella, M., & Allan, M. J. (1989). An outbreak of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a high schoo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918-924.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Schweers, J. et al.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521-529.
- Brent, D. A., Johnson, B. A., Perper, J. A., Connolly, J., Bridge, J., & Bartle, C. (1994).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traits, impulsive violence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1080-1086.
- Brent, D. A., Holder, D., Kolko, D., Birmaher, B., Baugher, M., Roth, C. et al. (1997). A clinical psychotherapy trial for adolescent depression comparing cognitive, family, and supportive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4*, 877-885.
- Bridge, J., Day, N., Day, R., Richardson, G., Birmaher, B., & Brent, D. (2003).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ts exposed to a friend's suicid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1294-1300.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72-394.
- Buddelberg, C., Buddeberg, F. B., Gnam, G., Schmid, J., & Christen, S. (1996). Suicidal in Swiss students: An 18-month follow-up survey. *Crisis, 17*, 78-86.
- Callahan, J. (1996). Negative effects of a school suicide postvention program: A case example. *Crisis, 17*, 108-115.
- Campbell, F. R., Cataldie, L., McIntosh, J., & Millet, K. (2004). An active post-prevention program. *Crisis, 25*(1), 30-32.
- Carlson, T. (1999). *Suicide survivors' handbook*. Duluth: Benline Press.
- Carmean, S. (2007). *Suicide postvention: How can we improve existing models?*

- Smith College School for Social Work.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1988). CDC recommendations for a community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ainment of suicide cluster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38, S-6.
- Center for Suicide Research & Prevention i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03). Suicide Prevention in Schools. http://csrp.hku.hk/files/163_895_224.pdf
-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Connecticut, Inc. (2006). Endangered Youth: A Report on Suicide Among Adolescents Involved With the Child Welfare and Juvenile.
- Clark, S. (2001). Bereavement after suicide: How far have we come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Crisis*, 22(3), 102-108.
- Colt, G. H. (1987). The history of the suicide survivor: The mark of Cain. In E. Dunne, J. McIntosh, & K. Dunne-Maxim (Eds.), *Suicide and its aftermath: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the survivors* (pp. 3-18).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Colt, G. H. (1991). *The enigma of suicide*. New York: Simon & Schuster.
- Constantino, R., Sekula, L., & Rubinstein, E. (2001). Group intervention for widowed survivors of suicid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1, 428-441.
- Cvinar, J.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 14-21.
- Davidson, L. E., Rosenberg, M. L., Mercy J. A., Franklin, J., & Simmons, J. T. (1989). An epidemiologic study of risk factors in two teenage suicide clust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2, 2687-2692.
- Davis, C., & Hinger, B. (2005). *Assessing the needs of survivors of suicide*. Alberta: Calgary Health Region.
- Deahl, M. (2000). Psychological debriefing: Controversy and challeng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929-939.
- Doka, K. (2002). Disenfranchised grief. In K. Doka (Ed.), *Living with grief: Loss in later life*. Washington: The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
- Domino, G.(1991).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 suicide. In A. A. Leenaars, & S. Wenckstern (Eds.). *Suicide prevention in schools* (pp. 27-37).

-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Dyregrov, A. (1997). The process in psychological debrief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589-605.
- Education and Manpower Bureau (2005). School Crisis Management.
<http://www.emb.gov.hk/index.aspx?langno=1&nodeID=2316>
- Education and Manpower Bureau (2006). Student Suicide Cases.
<http://www.emb.gov.hk/index.aspx?langno=1&nodeID=1748>
- Elklit, A. M. (2001).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debriefing.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 423-437.
- Farberow, N. (2001). Helping suicide survivors. In D. Lester (Ed.), *Suicide prevention: Resources for the millennium* (pp. 189-212). Philadelphia: Brunner-Routledge.
- Fielden, J. (2003). Grief as a transformative experience: Weaving through the different life worlds after a loved one has completed su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2*, 74-85.
- Fine, C. (1997). *No time to say goodbye: Surviving the suicide of a loved one*. New York: Doubleday.
- Fremouw, W. J., Perczel, M., & Ellis, T. E. (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New York: Pergamon Press.
- Gard, B. A., & Ruzek, J. I. (2006). Community mental health response to cri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Session, 62*, 1029-1041.
- Garfinkel, B. D. (1989).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s. In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s task force on youth suicide. Vol. 3: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in youth suicide* (pp. 294-304). Washington, D. C.: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oldney, R. D., & Berman, L. (1996). Postvention in schools: Affective or effective?.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17*(3), 98-99.
- Gould, M. S., & Shaffer, D. (1986). The impact of suicide in television movies: Evidence of imita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690-694.
- Grossman, D. C., & Milligan, B. C., 7 Deyo, R. A. (1991). Risk factors for suicide

- attempts among Navajo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 870-874.
- Grossman, J., Hirsch, J., Goldenberg, Dorothea., Libby, S., Fendrich, M., Mackesy-Amiti, M. E., Mazur, C. & Chance, G. H. (1995). Strategies for school-based response to loss: Proactive training and postvention consultation. *Crisis*, 16(1), 18-26.
- Gunnell, D., & Frankel, S. (1994). Prevention of suicide: Aspirations and evidence. *British Medical Journal*, 308, 1227-1233.
- Hamrick, J. A., Goldman, R. L., Sapp, G. L., & Kohlet, M. P. (2004). Educator effectiveness in identifying symptoms of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e.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1, 246-252.
- Harkavy, F. J., Asnis, G. M., Boeck, M., & DiFiore, J. (1987). Prevalence of specific suicidal behaviors in a high school sam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1, 870-874.
- Hawton, K., Simkin, S., Deeks, J. H., O'connor, S., Keen, A., Altman, D. G., Philo, G., & Bulstrode, C. (1999). Effect of a drug overdose in a television drama on presentations to hospital for self poisoning: Time series and questionnaire study. *British Medicine Journal*, 318, 972-977.
- Hazell, P. (1991). Postvention after teenage suicide: An Australian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ce*, 14, 335-342.
- Hazell, P. & Lewin, T. (1993). An evaluation of postvention following adolescent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01-109.
- Jimerson, S. R., Brock, S. E., & Pletcher S. W. (2005). An integrated model of school crisis preparedness and interven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 275-296.
- Ishii, K. (1991). Measuring mutual causation: Effect of suicide news on suicides in Japan. *Social Science Research*, 20, 188-195.
- Jonas, K (1992). Modeling and suicide: A test of the Werther effec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295-306.
- Jordan, J. R. & McMenemy, J. (2004). Interventions for suicide survivo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4), 337-349.

- King, K. A. (2000). Preventing adolescent suicide: Do school counselors know the risk fact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 255-264.
- Kinkel, R. J., Bailey, C. W., & J J f, N. C., (1989). Correlate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lienation,9).ugs and social background.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4*(3), 85-96.
- Kleck, G.(1988). *Suicide and Threatening Behavior, 18*. Miscounting suicide. 219-236.
- Kovac, S. H., & Range, L. M. (2000). Writing projects: Lessening undergraduates' unique suicidal bereave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50-60.
- Leenaars, A. A., & Wenckstern, S. (1998). Principles of postvention: Applications to suicide and trauma in schools. *Death Studies, 22*, 357-391.
- Leenaars, A. A., Wenckstern, S., Appleby, M., Fiske, H. Grad, O., Kalafat, J., et al. (2001). Current issues in dealing with suicide prevention in schools: Perspectives from some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2*, 365-384.
- Lewis, S. J. (2003). Do one-shot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PTSD work? A systematic research synthesis of psychological debriefing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329-343.
- Maine Children's Cabinet (2004). *Preventing youth suicide through gatekeeper training: A resource book for gatekeepers.*
- Maine 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2002). Youth 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 postvention guideline: A resource for school personnel.
- Maine 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2006). Youth suicide prevention, intervention & postvention guideline: A resource for school personnel. <http://www.maine.gov.suicide/doc/guideline.pdf>.
- Manson, S. M., Beals, J., Dick, R. W., & Duclos, C. (1989).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Indian adolescents at a boarding school. *Public Health Report, 104*, 609-614.
- Mauk, G. W., & Weber, C. (1991). Peer survivors of adolescent suicide: Perspectives on grieving and post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113-131.
- McEvoy, M. L. & McEvoy, A. W. (1994). *Preventing youth suicide: A handbook for*

educators and human service professionals. Holmes Beach, FL: Learning Publications.

- McMenamy, J. M., Jordan, J. R., & Mitchell, A. M. (2008). What do suicide survivors tell us they need? Results of a pilot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4), 375-389.
- McNally, R. J., Bryant, R. A., & Ehlers, A. (2003). Does early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mote recovery from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45-79.
- Mitchell, A., Dysart, G. D., Garand, L., & Wesner, S. (2003). The use of narrative data to inform the psychotherapeutic group process with suicide survivor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4*, 91-106.
- Mitchell, J. T. (1983). When disaster strikes, the critical incident debriefing process.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9*, 36-39.
- Mulder, A. M., Methorst, G. J., & Diekstra, R. F. W. (1989).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The role and training of teachers. *Crisis, 10*, 36-51.
- Murphy, S. A., Johnson, L. C., Cain, K. C., Das Gupta, A., Diamond, M., Lohan, J., et al. (1998). Broad-spectrum group treatment for parents bereaved by the violent deaths of their 12 to 28 year old childr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ath Studies, 22*, 209-235.
- Murphy, S. L. (2000). Deaths: Final data for 1998.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48*(11), 1-108.
-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ew Hampshire. (2006). *Frameworks Youth Suicide Prevention Project: Postvention*.
- Nickerson, A. B., & Zhe, E. J. (2004). Cri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 survey of school psycholog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 777-788.
- Parrish, M., & Tunkle, J. (2005). Clinical challenges following an adolescent's death by suicide: Bereavement issues faced by family, friends schools and clinician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3*, 81-102.
- Peck, M. L. (1985). Crisis intervention treatment with chronically and acutely suicidal adolescents. In M. L. Peck, N. L. Farerow, & R. E. Litman(Eds.), *Youth suicide*(pp. 112-122). New York: Springer.

- Petrie, K., & Chamberlam, K. (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 Phillips D. P., & Cartensen, L. L. (1986). Clustering of teenage suicides after television news stories about suicid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5*, 685-689.
- Phillips, D. P., Leysna, M., & Paight, D. J. (1992). Suicide and media. In R. W. Maris, A. L. Berman & J. T. Maltzberger (Eds.), *Assesment and prediction of suicide* (pp. 499-519). New York: Guilford.
- Pirkis, J. E., Burgess, P. M., Francis, C., Blood, R. W., & Jolley, D.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reporting of suicide and actual suicide in Australia. *Social Science & Medicine, 62*, 2874-2886.
- Pitcher, G. D. & Poland, S. (1992). *Crisis intervention in the schools*. New York: Guilford.
- Poland, S. (1989). The school and postvention. In *Suicide intervention in the schools* (pp. 122-152). New York: Guilford.
- Poland, S., & McCormick, J. S. (1999). *Coping with crisis: Lessons learned*. Long Mont, CO: Sopris West.
- Range, L. M. (1993). Suicide prevention: Guidelines for school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5*(2), 135-154.
- Rubenstein, J. L., Heereen, T., Housman, D., & Stechler, G. (1989).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59-71.
- Schlessel, J. S., Rappa, H. A., Lesser, M., Rogge, D., Ennis, R., & Mandel, L. (1995). CPR Knowledge, Self-Efficacy, and Anticipated Anxiety as Functions of Infant/Child CPR TraPR ng. *Ann Emerge Med, 25*(5), 618-623.
- Schonfeld, D. J., Kline, M., & colleagues. (1994). School-based crisis intervention: An organizational model. *Crisis Intervention and Time-Limited Treatment, 1*, 155-166.
- Scouller, K. M., & Smith, D. I. (2002). Prevention of youth suicide: how well informed are the potential gatekeepers of adolescents in distress? *Suicide &*

- Life-Threatening Behavior*, 32, 67-79.
- Shaffer, D. (1988). The epidemiology of teen suicide: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5, 406-451.
- Shneidman, T. (1987). Adolescent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8, 56-63.
- Shneidman, E. (1969). Prologue: Fifty-eight years. In E. Shneidman (Ed.), *On the nature of suicide* (pp. 1-30). San Francisco: Jossey-Bass.
- Shneidman, E. S. (1988). Some reflections of a founde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8, 1-12.
- Stack, S. (1987). Celebrities and suicide: a taxonomy and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402-411.
- Stack, S. (1991). Social correlates of suicide by age: Media impacts. In A. Leenaars (Ed.), *Life span perspectives of suicide: Time lines in the suicide process* (pp. 187-213). New York: Plenum.
- Stack, S. (1993). The media and suicide: Anonadditive model, 1968-1980.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63-66.
-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 Stack, S. (2003). Suicide influences and factors: Media effects. In R. Kastenbaum (Ed.) *MacMillan encyclopedia of death and dying* (pp.821-824).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USA.
- Streufert, B. J. (2004). Death on campuses: common postvention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Death Studies*, 28, 151-172.
- Underwood, M. M. & Dunne-Maxim, K. (1992). *Managing sudden violent loss in the schools (New Jersey Adolescent Suicide Project)*. Piscataway, NJ: New Jersey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Human Services.
- Williams, M. (2001).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London: Penguin Books.
- Wasserman, IM. (1984). The influence of economic business cycles on United States Suicide rate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13(3), 143-156.
- Young, M. A. (2002). The community crisis response team training manual, volume 1. Washington, DC: NOVA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www.mw.go.kr

부산생명의전화 www.bsllifeline.or.kr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www.youthlove.or.kr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www.suicide.or.kr

서울시 정신보건네트 www.seoulmind.net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www.csp.or.kr

정신건강 HOT LINE www.suicide.or.kr

정신질환 조기검진 사이트 www.semis.or.kr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healthy1318.cdc.go.kr

한국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www.1388.or.kr

부 록

- 부록 1. 중고생 때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대학생) 면접동 의서 및 인터뷰 내용
- 부록 2. 인터뷰 내용의 예시
- 부록 3. 학생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지(관련전문가, 학교관리자 및 교사용)
- 부록 4. 학생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지(학생용)
- 부록 5. 교사의 성에 따른 위기상황 의견조사 문항별 빈도 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 부록 6. 중고생의 성에 따른 위기상황 의견조사 문항별 빈도 분석 및 카이자승 검증 결과
- 부록 7. 학생 자살 시 사후개입방안에 대한 국내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사후개입 의견 비교
- 부록 8. 시범교육평가지
- 부록 9.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부록 1. 중고생 때 친구 자살 경험 청소년(대학생) 면접동의서 및 인터뷰 내용

면접 참여 동의서

참여자 인적 사항	성명	개인 연락처	소속학교	연령
				만()세
성별	남(), 여(), 트랜스젠더()	계좌번호	()은행	
주소				
친구 자살 시기 및 지역	()지역 ()학교 ()학년			
<p>면접 참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p> <p>본 면접은 학교에서 청소년이 자살한 일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p> <p>면접과정 중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위해 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나는 대로 소각됩니다.</p> <p>나는 면접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는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참여자 성명 : _____ (인)</p>				

항 목	내용
도 입	<p>1. 학생이 자살한 일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겠어요.</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 행동?
전 개	<p>2. 학생이 자살한 후 학생들이나, 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이나 일들이 있었나요?</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 감정 등 경험?
마 무 리	<p>3.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점이 달랐다면, 혹은 무엇이 있었다면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교에 좀 더 도움이 되었을까요?</p> <hr/>

부록 2. 인터뷰 내용의 예시

항 목		진 술 예 문
보고 자 특 성	자살 자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함 •친하지 않음 <p>•친함: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둘이 단짝이 되어 있더라구요.(g사례); 친해서 밥 같이 먹고, 깊은 얘기까지는 하는 사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친한 친구였어요.(f사례)</p> <p>•친하지 않음: 저랑 별로 안 친한 애였어요.(a사례); 저랑 같은 반 된지는 얼마 안됐을 때여서 많이 친해지진 않았었는데(k사례)</p>
	개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렌스젠더 •자살생각 경험 •따돌림에 방관자적 입장 <p>•자살생각 경험: 저는 중 3때 자살하려 했어요. (a사례)</p> <p>•트렌스젠더: 성적소수자 친구들이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더라구요. 절 편하게 생각했는지...나도 그래...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애들 몇 생기게 되더라구요.(b사례)</p> <p>•따돌림에 방관자적 입장: 저같은 경우는 회피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서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어서...(i사례)</p>
자 살 자 특 성	개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렌스젠더 •밝고, 인기있음 •조용하고, 내성적임 •따돌림경험 •품생품사 <p>•트렌스젠더: 여기 나오는 친구 둘 다 여자인데, 동성애자였고.. (b사례)</p> <p>•밝고 인기 있음: 개가 인기가 많아서 반장이 됐지만...(d사례); 되게 워낙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고 이러니깐..(g사례); 되게 밝은 친구, 댄스 동아리 들어가고, 공연 좋아하고(b사례)</p> <p>•조용하고 내성적임: 얌전한 애였어요. 예쁘고 차분하고.(a사례); 원래 조용한 애였거든요.(f사례); 성격도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그게 좀 더 심해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 같아요.(e사례)</p> <p>•따돌림 경험: 초등학교 6학년 때 둘이 사이가..다른 아이가 개를 왕따 비슷하게 시키고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h사례)</p> <p>•품생품사: 그땐 물론 품이었겠지만 멋 내고 싶어서 삭발하고 일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c사례)</p>
	가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성정체감 부정 •경제적 어려움 •고지식한 부 •성적압박 <p>•기독교: 그 친구 집안이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b사례)</p> <p>•성정체감 부정: 어머니께서 알게 되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해야 하나 선택캠프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부정해 버린거죠. (b사례)</p> <p>•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g사례)</p> <p>•고지식한 부: 아버지가 많이 고지식하다고 하셔야 되나(g사례)</p> <p>•성적 압박: 그 친구네 부모님이 평소에 되게 압박하는 분위기였으나봐요.(k사례)</p>
자 살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따돌림 	<p>•경쟁적인 분위기: 저희 학교가 외고 빼고 일반고에선 잘한 애들이 예선 와요. 시험으로 뽑는걸; 저희치열해요. 잘한 애들만 있어서걸;자기 애부 바빠 애들끼리보고애길 안 해요.(a사례); 서로 숨도 안 쉬고 애부만 한거</p>

전 학 교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자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 		<p>에요.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요.(d사례); 애들끼리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언저리들이 소외감 느끼는. 그 학교의 경우에는 특목고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애들을 뽑아 갔던 학교였기 때문에 대체로 애들 대화가 어떤 대학을 갈지 그런 류의 얘기였어요.(i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돌림: 소심하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분위기가 돌았어요...그런 중간에 따돌림이라는 그렇고 괴롭힘을 좀 받았던 거 같아요.(e사례); 고 2 들어가면서부터 처음부터 맘에 안 드는 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둘 사이가..다른 아이가 개를 왕따 비슷하게 시키고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그런 일이 있었나봐요.(h 사례) •자살자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 사진이 공개된 후 계속 선생님께 불러 갔었어요...다 알아버렸다는 사실에 무서워했어요.(b사례); 전교생이 전부 다 재 자살하려고 했던 애잖아 이렇게 알고..안그래도 힘든데 전교생이 다 재 뭐야..이러고...(h사례)
	추 정 된 촉 발 사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정체성폭로 •이성친구와 이별 •따돌림 •시험난이도 급상승 •이유 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정체성 폭로: 그 친구가 당시 사귀던 친구 있었는데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근데 반의 좀 못된 애들이 보고 사진이 다 퍼진 거예요. 애가 이렇다는게 일이 커져서 학교선생님까지 알려졌어요. (b사례) •이성친구와 이별: 집에선 남자친구 사귀는 거 안좋아하고 뭐라고 하니깐 여자애가 이 남자애랑 깐거예요. 헤어졌어요. 둘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남자애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c사례) •따돌림: 노는 애들한테 약간씩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것 같아요.(e사례); 제 친구가 앞에 있으면 재 짜증나. 안 좋은 얘기를 개가 듣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좋은 얘길하고 지나가면서도 욕하고..다 들리게 하면서 너한테 한 말 아닌데 하면서 지나가고...(h사례) •시험난이도 급상승: 2학년이 되면서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해서...다들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다들 서로 못 봤다는 걸 알았으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k사례) •이유 모름: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냥 다..(g사례); 지금도 믿겨 지지 않아요. 평소에 우울하거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f사례)
반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살 자 •죽음암시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가는 말처럼 죽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도 했었고.(b사례) •친구가 저한테 되게 심각한 메일을 보냈어요. 죽는다. 이걸 니가 가지고 이걸 누구 주고, 니 친구 진짜 좋아했는데 그거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뭐 진짜 유서식으로. (c사례) •교환일기 쓰자해서 갖다 줘도 잘 안 쓰고, 정말 딱 한 번 쓴게 죽지 못해 안타깝다 썼더라고요.(h사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자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담임선생님만 저랑 저 친구랑 친한 거를 아셔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개네들한테도 조용히 얘기 좀 하신 거 같은데...그게 안됐던 거 같아요.(h사례)
자살 소식 전달	전달자	직접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무 놀라고, 죄책감 전에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또 제가 봐 버렸단 말이에요.(b사례) •앞문을 열더니 앞에 앉아있던 어떤 애를 내리치려고 하던 와중에 앞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애가 막고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걔가 거기서 제초제 꺼내 마셨어요.(i사례)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임을 분명히 밝힘 •회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임을 분명히 밝힘: 선생님께서 애가 죽었다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처음에...그냥 오셔서 자살했다고.(a사례); 어머니가 연락하셔서 선생님이 불러서 알려주셨어요.(h사례) •회피함: 얘기 전혀 없었어요. 담임도 사고로 우연히 죽었다. 되게 회피하는 느낌이었거든요...말은 그렇게 해요. 친구가 우연히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신경쓰지 마라, 너희랑 관련 있는 일이 아니니까 친구로서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거지 딴 생각하지 마라. (b사례); 선생님이 그것도 되게 단편적으로 사고로 볼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안하시는 거예요. 묻지마. 이런거,.....죽었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완곡하게.(i사례);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만 전달하셨어요.(k사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부모님 •인터넷 뉴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친구가 전화로 알려주면서 뉴스에 뒀다고...(i사례) •저녁 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로 왔어요.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k사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선생님 오시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자살인 것 같고, 이를 후에 뉴스가 났어요.(c사례) •학교 가는 봉고차가 있어요. 40~50분 정도 걸리는데, 같은 반 친구한테 들었어요. 엄마께서 중간고사 첫 날 집에 오니까 황급히 전화를 끊으시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는 아줌마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부모님들끼리 전화를 하고 저는 봉고에서 친구한테 들었어요.(d사례)
자살 당일 반응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감 •배신감 •허전함 •멍함 •부인반응 •수긍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감: 분노같은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따돌림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못했던 거 같은데 따돌렸던 그 친구들한테도 분노가 있었고 말리지 못한 저 자신한테도 분노가 있었던 거 같아요. (e사례) •배신감: 처음엔 걔가 입고 배신감 느끼다가(j사례) •허전함: 도저히 너무 너무 뭔가 제 마음에 2%가 아니라 절반이 사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느낌(j사례) •명함: 그냥 멍하다고 해야되나...(a사례); 머리가 백지장처럼 됐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f사례); 그냥 뭐 앉아 있어도 멍하니 있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멍했던 거 같아요. (g사례) •부인반응: 아닌 줄 알았죠. 설마 아니겠지.(c사례); 안 믿었어요. 그냥 루머 아니냐. 거짓말 하지마,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 유치하다고. 했는데 애가 거짓말할 애는 아닌데.(j사례) •자책반응 •자살여부 재확인 •울음 •신체적 반응 •슬프지 않음 •수긍반응: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오히려 저 같았으면 더 빨리 했겠다 싶고.(i사례); 이런 일이 뉴스에서만 나오는데 아니라 현실에도 있을 수도 있구나.(e사례) •자책반응: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연락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방학 중에 연락을 해줬으면 그 때 말이라도 해줬으면 여기까지 안 되었을텐데 싶기도 하고 (g사례); 친구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그냥 제가 신경을 더 못 써준거 같아서...(h사례); 제가 밉고 아.. 진짜 친구를 제가 죽였다는 마음도 들었구요.(j사례) •자살여부 재확인: 그래서 교무실 갔죠. 갔는데 계속 진짜 아닐거야 아닐거야 하는데....그 반 담임선생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g사례) •신체적 반응: 구토하는 느낌. 몸이 덜덜 떨려요. •슬프지 않음: 슬프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d사례)
친한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크반응 •울음 •자책반응 •부인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크반응: 개들은 계속 멍한 것 같더라구요.(b사례); 서로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h사례) •울음: 그 친구는 실신할 정도로 울었어요. (d사례); 한 명은 울고 난리났었어요.(f사례) •자책반응: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죄책감이 있었나봐요. 나 땀에 죽었나 뭐 이런. (c사례) •부인반응: 못민겠다. 못민겠다. 하면서도.(g사례)
학급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도 분위기 •그렇지 않은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도분위기: 그 애기 나온 날 학교가 정말 조용했어요. (a사례); 애들 막 울고 있고...(d사례); 아무튼 죽었으니 동정론. 개 되게 불쌍하다. 뭐 이런 느낌(b사례) •그렇지 않은 분위기: 같은 반 다른 아이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보였어요. (k사례); 1학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애들이 잘됐다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g사례)
가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관없는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네들은 오히려 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e사례) •제일 원인이 됐던 그 친구는 별로 죄책감같은 건 없더라구요.(h사례) •개가 마치 영웅담같이 얘기했던 거죠. 무용담같이. (i사례)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회피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담임선생님은 그냥 우셨어요. 우시면서 말하고. (a사례); 슬퍼 보이셨던 거 같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는 거 같고,(e사례); 쓰러지셨어요. 아이들한테 소식전하다 잠깐 정신을 잃으신거죠. (c사례) •회피하는 모습: 선생님이 먼저 애길하진 않았어요. (i사례)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피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들 태도가 대체로 회피를 하는 애들 앞에서...그 얘기 나오는 걸 허용을 안 했어요.(i사례)
공식적 개입 과정 및 반응	즉각적인 학교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 •위험장소조취 •자살이유로 추정되는 사항들에 대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 학교 커리큘럼은 개가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수업하고 야자 할 거 다 하고, 당일 날도 그랬고, 다음날도 전혀 달라진 것 없었어요.(a사례) •위험장소조취: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학교 옥상 폐쇄했어요.(d사례) •자살이유로 추정되는 사항들에 대한 개입: 이반검열이란 말 아세요?동성 애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검열을 해요. 머리 짧거나 보이시하게 다니면 같이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손도 못 잡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선생님들끼리 말하기를 이상한 애가 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대책이 안 선다. 진로상담부나 이런데 넘기면 어떨까? 몇몇 담임선생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b사례); 개가 유서 같은 거 썼는데 거기에 따돌렸던 애들 이름 같은 거 썼던 거 같아요.....개네들은 경찰서까지 갔었던 거 같아요. 결국 학교 차원에서 처벌이 됐던 거 같고.(e 사례); 시험 난이도는 다시 내려갔어요.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같다고. (k사례)
	애도 반응에 대한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모식 •장례식 참석 여부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모식: 중간고사 끝나고 모여서 추모식을 했어요. (d사례) •단체참석: 단체로 한 번 갔는데 그 날 오후에 간 거 같아요. 담임선생님이 한번 가자고 해서...(e사례) •담임교사, 간부교사, 친한 친구 위주의 참석: 그래서 친한 친구랑 둘이 해가지고요. 점심 안 먹고 바로 그냥 갔어요...단체로는 아니고 친한 애들끼리 무리 지어서.. (g사례); 선생님들은 그래도 다 화장할 때라든가 장례식까지 몇 번 갔다 오셨고. (g사례); 담임선생님이랑 그반 반장...이런 애들 온 거 같더라구요.(h사례); 다들 그냥 자발적으로 갔어요. (k사례) •장례식에 못 가게 함: 애들이 장례식을 그 날 하루 가고 싶는데 못 가게 했어요.(c사례); 담임선생님이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d사례) •기타: 제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저는 못 갔어요.(b사례); 고 2 여름 방학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장례식은 이미 다 치러졌다고 그래서...(f사례)
	학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자살자 책상 •유품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빨간 줄 그어지던데요. (b사례) •자살자 책상: 자리는 없어졌어요. 한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치워버렸어요. (b사례); 책상은 나중에 치웠어요. 물건은 개 동생이 같은 학교 1학년이라 가져갔어요. (e사례) •유품정리: 그 반 담임선생님이 저하고 친했던 거 아니깐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정리해서 부모님 갖다드릴 거니까 학교물건만 빼고 돌려드릴 것만 딱 골라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g사례); 친구 물품은 반장이 다 해서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이 부모님께.(h사례)
	관찰 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주일이내 •1~2주 •2주~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주일이내: 3일정도 꽃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엔 안 놓고 자리고 꺾고.. 그 다음에는 잊혀지더라구요.(f사례) •1~2주: 보름정도 되는지 일주일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k사례) •2주~한달: 한달 정도? 2주? 2주도 안 갔나?(h사례); 2~3주 정도 간 거 같아요.(i사례)
자 살 발 생 에 따 른 후 유 증 및 어 려 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 여 자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어둡고 현실적 생각 •자살 및 자해의 엇갈린 반응 •학교체제 불신 •비밀 폭로자와 싸움 •자살자 추억 •자살자 가족책임 •향후진로 영향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어려움: 지금은 제가 나름 정신과 상담, 학교상담도 받고 있어요.(b사례); 개가 죽어 가는데 방치한 거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애 힘들어하는데 내 할 일 하면서 방치한 것 같아요.(a사례); 칼보면 몸 난자해버리고 싶고, 손목 그어 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약을 구해서 먹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b사례) •대인관계 어려움: 정말 그렇게 터났던 친구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가 없으면 난 정말 더 이상 이제 친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더 밝은 척하고 그때부터 성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일부러 더 밝은 척 하고... (g사례); 내가 또 가까워지다가 애가 상처받는데 내가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자살로 이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는 애들도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대해주고 말았죠.(j사례); 저도 3학년 때는 친구 안 사귀려고 했거든요. 저도 일부러 얘기 안하고 그랬으니까.(h사례) •인간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c사례) •어둡고 현실적 생각: 나에 대한..내가 소중하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나 없어도 굴러갈 세상인데...(a사례); 남들보다 어둡고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기엔. 지금 제 나이에서 보면 부정적인.(c사례); 내가 죽으면 다들 엄청 슬퍼하거나 일상생활에도 못 잊고...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하나 죽는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생각.(e사례) •자살 및 자해의 엇갈린 반응: 칼보면 몸 난자해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

		<p>진짜 많이 했어요. 약을 구해서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b사례);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하던 와중에 그런 일이 터진거죠. 실제로.(살고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네. 그런게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니까 경각심 같은 게 드는 거죠, 생각의 재고가...(i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체제 불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학교라는 체제를 신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눈에 보이는 차별을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b사례) •비밀폭로자와 싸움: 그 애들과 크게 싸운 적 있어요...애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놀고 있길래,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화나서 ‘너희 미친놈, 살인자. 개념없는 애들이 밥이나 먹고 있고...(b사례) •자살자 추억: 핸드폰 바꿨는데 그 전에 쓰던 거는 그거 못 지우고 친구 번호를, 문자 저장해 놓은 거 보기도 하고, 사진 찍었던 거 보기도 하고.(h사례) •자살자 가족 챙김: 한 달에 한번씩은 꼬박꼬박 만나서 셋이 안부 전화 드리고, 두 번 정도는 동생들 놀아주러 갔었어요.(h사례) •향후 진로 영향 받음: 대학 와서 인권 쪽 활동하고 있거든요...그 때 저 혼자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친구 기억하면서 도움 줄 일 하겠다.(b사례); 아마 걔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과 선택한 이유가 걔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j사례)
친한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자살자에 대한 엇갈린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적 어려움: 저 아닌 다른 친구는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h사례) •대인관계 어려움: 안 받아요. 안 받다가 전화번호 바뀌었더라고요. 없는 번호라 그러더라고요.(j사례) •자살자에 대한 엇갈린 반응: 싸이월드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일촌평 남기고 그랬어요.(k사례); 얼마 전에는 모지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 개랑 어디 놀러 갔을 때 좋았는데 누구누구랑 다같이 갔었는데 다음에는 거기 다시 가보려고...(k사례); 한 명은 거의 개가 없었던 애처럼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h사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f사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빨리 잊더라고요. 그애에 대해 말도 안하고, 원래 있던대로 분위기 저절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b사례) •개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고가 패가 나뉘어서 놀잖아요. (f사례) •그 친구 얘기는 좀 쉬워했던 거 같아요.(k사례)
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친구들은 별일 없이 똑같은 학생으로 돌아가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더라고요.(b사례)

	자	•억울해함	•그 중에서 한 명은 억울하다 그랬고, 오히려 화내고 안 그랬다 억울하다 그랬고...(e사례)
교사	담임	•우울감과 무력감 •의연하려는 모습 •죄책감 •소문퍼짐	•우울감과 무력감: 점점 우울증이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담임선생님이. 그날 이후로 안색이 되게 어두워지시면서 농담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열의가 되게 없어 보이셨어요.(k사례); 선생님이 그 이후에 잠깐 휴직인지 휴가인지 잠깐 쉬셨던 거 같아요. 한달 정도. (e사례) •의연하려는 모습: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 앞에서 의연한 모습 보여주려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애쓴다’ 생각...(d사례) •죄책감: 제가 교무실에 갔다가 들었어요. 종례시간에도 얘기하시고, 괴롭혔던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 자기가 제일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소문퍼짐: 그 선생님이 그 친구 자살한 그 때보다 1년인가 2년 전에 말으셨던 반 애가 죽었었어요. 자기가 담임한 반 학생 죽은 게 두 번째인 거예요...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소문이 돌아서 담임선생님이 예전에 그 학생도 담임을 했었다 그랬어요.(k사례)
	그 외	•회피	•그 일 이후로 계속 몇주 동안 그런 얘기 없고 수업만 딱 하고 나갔어요. (i사례) •오셔서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특별히 훈내거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농담도 함부로 던지지 않으시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기타	학부모	•격려반응 •비난반응 •정보제공	•격려반응: 부모님께서 저희를 불렀거든요. 잘 지내고 있냐..공부 못한 거 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냐..열심히 공부하라구..좋은 대학 가서..(h사례); 엄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g 사례) •비난반응: 어머니랑 싸우고 곧바로 자살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철없다, 나약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요.(d사례) •정보제공: 이모 분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게 정신 상태가 안 좋았던 거 같아요...비닐하우스에서 농약을 마셨다고...너희들은 친하니까 얘기해주겠다고. 친구들은 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학교 쪽에서 먼저 사고사라고 알려도 되냐고 요청을 하셨다고. 한참 입시 중이라고 그 일이 퍼지면 안 좋다고.(i사례)
의견	•애도 반응 다루기	•공식적 추모행사 •교사에게 바라는	•공식적 추모행사: 작별인사나 저희들만의 장례식이나 뭐 그런 의식같은 절차? 그런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학생회장이 낭독같은 걸 할 수 있는 거고, 묵념같은 걸 할 수도 있는거고, 그 다음날 일괄적으로라도 학교에서 먼저 간 친구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p>의견</p> <p>•애도반응 교육</p>	<p>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c사례); 누구 한 명 나와서 보내는 글 그런 거 읽고,,그런 전체적으로 하는게 필요하지 않았을까...(e사례); 학교에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그 반에서만 촛불의식 같은 거 해서 그 친구를 기리는 작별인사라도 하는 뭔가 매듭을 지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그 학급 친구들도 같은 상처를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c사례)</p> <p>•교사에게 바라는 의견: 선생님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상황을 알려주되, 너희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특성을 배려했을 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b사례); 담임선생님이 뭔가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거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뭐 조회시간, 종례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모두가 슬프겠지만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뭐 열심히 살자던가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고 격려해주는 식으로 한 마디 해주셨으면...(k사례)</p> <p>•애도반응 교육: 생명의 소중함 이런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냥 지금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도 보내는 만큼은 고인에게 만큼은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자고 그런거. 그런 말,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g사례); 그 친구 보내게 된 그 애들이 진심으로만 사과를 해줬으면...사과는 둘째치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h사례)</p>
<p>•추후 자살 예방</p>	<p>•상담필요</p> <p>•외부 전문가의 도움</p> <p>•학부모 대상안내</p> <p>•개입하지 말 것</p>	<p>•상담필요: 미리 알았더라면 그 친구한테 소개도 해주고 같이 상담도 받고 좋았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모르고, 대학 와서 그나마 관심 있으면 알게 되니(b사례); 심리상담사가 집단상담이라도 해줬더라면 아이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에 대해서 집단상담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는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c사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 친숙한 사람이 하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1:1도 좋고. 아는 학부모님이 전체로 하는 것도 좋고(d사례);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라도 일대일로 선생님이랑 면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었으면.(f사례); 니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갑작스런 일 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되지않냐, 그래서 그 아이한테 조금 과거라고 해야 하나 저처럼 조금 묶여 있기 보다는 아예 그냥 뭐 추억 같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도록,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게 너무 미안한 감정 들지 않게, 아이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너무 자기가 자책하지 않도록(g사례)</p> <p>•외부 전문가의 도움: 학교에 역량이 없으면 누굴 초빙해서라도 아직까지</p>

		<p>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었을 거 같긴 하지만...(c사례);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상담하는데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요. 담임, 주변 선생님, 상담원하고 연계가 됐을 때 이 아이 심리가 어떠하다 정보 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받았을 감정에 대해 담론화되어야 한다고 봐요(b사례); 담임이 직접 개 그런 아이들한테 상담 쪽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상담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j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대상 안내: 부모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교에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대화를 이렇게 나눠주시는게 어떨까요'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고,,(c사례) •개입을 하지 말 것: 학교에서 뭔가 한다면 가식으로 보일 것 같다. 그전에는 우리 맘 같은 것은 신경도 안쓰다가 애들 공부에 영향줄까봐 될 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a사례),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그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니까(d사례), 그동안 아무런 개입을 안해오다가 자살이 일어날 때만 한다는 것은 너무 혼란스러움을 줄 것 같다. 어색하고(k사례)
--	--	--

부록 3. 학생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지(관련전문가, 학교관리자 및 교사용)

안녕하세요?

항상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학교관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7년도에 청소년자살예방 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청소년자살예방대책(안)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가적으로 「청소년자살예방대책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하였습니다.

올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소년 자살사후 개입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을 대하고 있는 학교관리자님들께(청소년 자살 관련 전문가분들에게) 학생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 대처방안에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향후 지원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누락되면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 문의사항 : 02-2250-3071, eun0@kyci.or.kr

귀하의 인적사항에 √표 하세요.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세
소 속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직 위	① 교장() ② 학교감()		
근무지	① 대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근무경력	()년 ()개월		
종 교	① 없음()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불교() ⑤ 기타()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원

만약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상황이라면 다음에 제시된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혹은 '아니오' 중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응답한 이유나 근거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1	학교관리자는 평소에 학교위기관리팀을 조직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2	학교관리자는 먼저 교사들에게 자살 사망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3	학교관리자는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4	교직원들도 자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살로 인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5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	예	아니오
6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이유:	예	아니오
7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8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유:	예	아니오
9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유: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10	<p>학교관리자는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 '예'라고 응답했다면, 그 범위는? __① 해당학급 부모, __② 해당학년 부모, __③ 전학년 부모</p> <p>이유:</p>	예 아니오
11	<p>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p> <p>* '예'라고 응답했다면, 그 범위는? __① 해당학급 부모, __② 해당학년 부모, __③ 전학년 부모</p> <p>이유:</p>	예 아니오
12	<p>자살 발생 후 학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13	<p>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 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p>이유:</p>	예 아니오
14	<p>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p> <p>이유:</p>	예 아니오
15	<p>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p> <p>이유:</p>	예 아니오
16	<p>학생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17	<p>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18	<p>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19	<p>학교관리자는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0	<p>학교관리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21	<p>학교관리자는 학생 자살에 대해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책임지거나, 교직원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언론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단일화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22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3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반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4	<p>자살한 학생의 좌석이나 소지품 등은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p> <p>이유:</p>	예 아니오
25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반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6	<p>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7	<p>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8	<p>모든 교사는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29	<p>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로 크게 영향을 받았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30	<p>학생 자살 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p> <p>이유:</p>	예 아니오
31	<p>교사는 학생의 자살과 관련하여 개별상담이나 자문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p> <p>이유:</p>	예 아니오
32	<p>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3	<p>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34	<p>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5	<p>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p> <p>이유:</p>	예 아니오
36	<p>교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7	<p>교사는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8	<p>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p> <p>이유:</p>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39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40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41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인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4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V표해주세요) ①담임교사, ②교내 상담교사(또는 담임 이외의 교사), ③외부 전문상담가 이유:	예	아니오
4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유:	예	아니오
44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45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이유:	예	아니오
46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연구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록해주십시오. 저희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4. 학생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지(학생용)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 및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을 파악하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여러분들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전체 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해주시는 이 자료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힘드시더라도 **한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드림

(※ 문의사항: 02-2250-3071, eun0@kyci.or.kr)

다음 질문의 내용을 읽고 자신이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④ 고 1() ⑤ 고 2() ⑥ 고 3()
3.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약 같은 학교 학생이 자살한다면...’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각 문항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 혹은 ‘아니오’에 V표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그렇게 답한 이유나 근거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1	교장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2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	예 아니오
3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이유:	예 아니오
4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5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유:	예 아니오
6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이유:	예 아니오
7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그 범위를 누구까지로 하면 좋을까요?(V표해주세요) __① 해당학급 부모, __② 해당학년 부모, __③ 전학년 부모 이유:	예 아니오
8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그 범위를 누구까지로 하면 좋을까요?(V표해주세요) __① 해당학급 부모, __② 해당학년 부모, __③ 전학년 부모 이유:	예 아니오

문항	내 용	
9	<p>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10	<p>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p>이유:</p>	예 아니오
11	<p>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p> <p>이유:</p>	예 아니오
12	<p>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p> <p>이유:</p>	예 아니오
13	<p>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14	<p>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15	<p>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16	<p>교장선생님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17	<p>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18	<p>교장선생님은 학생의 자살에 대해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책임지거나, 선생님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언론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단일화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19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0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반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p> <p>이유:</p>	예 아니오
21	<p>자살한 학생의 좌석이나 소지품 등은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p> <p>이유:</p>	예 아니오
22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교내 상담선생님이나 외부 상담전문가에게 개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p> <p>이유:</p>	예 아니오
23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자신의 충격과 애도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24	<p>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보일 수 있는 반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5	<p>선생님은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26	<p>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린다.</p> <p>이유:</p>	예 아니오
27	<p>선생님은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28	<p>학생이 자살한 후 <u>선생님이</u>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p> <p>이유:</p>	예 아니오
29	<p><u>선생님은</u>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0	<p>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u>선생님은</u>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31	<p><u>선생님은</u>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2	<p>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p> <p>이유:</p>	예 아니오
33	<p><u>선생님은</u> 담당학급에서 또는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4	<p><u>선생님은</u>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35	<p>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p> <p>이유:</p>	예 아니오
36	<p>원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p> <p>이유:</p>	예 아니오
37	<p>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p> <p>이유:</p>	예 아니오

문 항	내 용	
38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유:	예 아니오
39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4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표해주세요) _____ ①담임선생님, _____ ②교내 상담선생님(또는 담임 이외의 선생님), _____ ③외부 전문상담가 이유:	예 아니오
41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이유:	예 아니오
42	주변 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자살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이유:	예 아니오
43	주변에 자살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른(선생님, 부모님 등)들께 도움을 청한다. 이유:	예 아니오
44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유:	예 아니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연구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록해주시시오. 저희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5. 교사의 성에 따른 위기상황 의견조사 문항별 빈도분석 및 카이검증
결과

하위 요인	응답	남	여	χ^2
		빈도(%)	빈도(%)	
학교 안전 관리 관련	18.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2,975
	예	30(85.7)	63(95.5)	
	아니오	5(14.3)	3(4.5)	
	19. 학교장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324
	예	27(77.1)	46(71.9)	
	아니오	8(22.9)	18(28.1)	
	20.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약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528
	예	35(100.0)	66(98.5)	
	아니오	0(0.0)	1(1.5)	
	7.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224
	예	10(28.6)	16(24.2)	
	아니오	25(71.4)	50(75.8)	
17.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사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48	
예	22(62.9)	46(68.7)		
아니오	13(37.1)	21(31.8)		
28. 모든 교사는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1,933	
예	34(97.1)	67(100.0)		
아니오	1(2.9)	0(0.0)		

하위 요인	응답	남		χ^2
		빈도(%)		
자살 소식 전달 방법	5.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예	4(11.4)	8(11.9)	.006
	아니오	31(88.6)	59(88.1)	
	6.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예	15(42.9)	23(34.8)	.625
	아니오	20(57.1)	43(65.2)	
	2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	8(22.9)	9(13.4)	1.470
	아니오	27(77.1)	58(86.6)	
	2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예	27(77.1)	51(78.5)	.023
	아니오	8(22.9)	14(21.5)	
	26.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예	21(60.0)	33(50)	.919
아니오	14(40.0)	33(50)		
27.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 방법이나 자살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	7(20.0)	3(4.5)	6.264*	
아니오	28(80.0)	64(95.5)		

* $p < .05$

하위 요인	응답	빈도(%)		χ^2
		남	여	
학교 안전 관리 관련 교육	32.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34(97.1)	59(89.4)	1.883
	아니오	1(2.9)	7(10.6)	
	33.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43
	예	32(91.4)	63(94.0)	
	아니오	3(8.6)	4(6.0)	
	34.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636
	예	30(85.7)	60(90.9)	
	아니오	5(14.3)	6(9.1)	
	37. 교사는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계산할 수 없음
	예	35(100.0)	67(100.0)	
	아니오	0(0.0)	0(0.0)	
학교 안전 관리 관련 상담	44.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075
	예	33(94.3)	64(95.5)	
	아니오	2(5.7)	3(4.5)	
	16.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1.933
	예	34(97.1)	67(100.0)	
	아니오	1(2.9)	0(0.0)	
	41.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1.933
	예	34(97.1)	67(100.0)	
	아니오	1(2.9)	0(0.0)	
	4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			.031
	예	26(78.8)	53(80.3)	
	아니오	7(21.2)	13(19.7)	
46.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3.372	
예	28(80.0)	61(92.4)		
아니오	7(20.0)	5(7.6)		

하위 요인	응답	빈도(%)		χ^2
		남	여	
애도 반응	39. 원하는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31(88.6)	66(98.5)	4.869*
	아니오	4(11.4)	1(1.5)	
	40.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	24(68.6)	60(90.9)	8.152*
	아니오	11(31.4)	6(9.1)	
	4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예	24(68.6)	56(84.8)	3.679
	아니오	11(31.4)	10(15.2)	
	36. 교사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예	32(91.4)	60(89.6)	.092
	아니오	3(8.6)	7(10.4)	
25.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교사는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반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	21(61.8)	46(68.7)	.480	
아니오	13(38.2)	21(31.3)		
8.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	6(17.6)	27(40.9)	5.492*	
아니오	28(82.4)	39(59.1)		
9.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예	33(100.0)	67(100.0)	계산할 수 없음	
아니오	0(0.0)	0(0.0)		

* $p < .05$

하위 요인	응답	성별		χ^2
		남 빈도(%)	여 빈도(%)	
관련 정보 제공 내용 및 제공 범위	3. 학교장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32(91.4)	64(95.5)	.696
	아니오	3(8.6)	3(4.5)	
	12.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 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	29(85.3)	62(92.5)	1,326	
아니오	5(14.7)	5(7.5)		
11.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32(91.4)	53(80.3)	2,123	
아니오	3(8.6)	13(19.7)		
10. 학교장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35(100.0)	63(94.0)	2,175	
아니오	0(0.0)	4(6.0)		

부록 6. 중고생의 성에 따른 위기상황 의견조사 문항별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 결과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χ^2	남	여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학교 안전 관리 관련	15.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예	207(60.5)	159(62.1)	.155	193(70.2)	453(75.5)	2.760
	아니오	135(39.5)	97(37.9)	82(29.8)		147(24.5)		
	16. 교장선생님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예	229(67.6)	178(69.5)	.264	184(66.9)	480(79.9)	17.269***
	아니오	110(32.4)	78(30.5)	91(33.1)		121(20.1)		
	17.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예	299(86.9)	238(91.9)	3.749	229(83.0)	552(91.5)	14.042***
	아니오	45(13.1)	21(8.1)	47(17.0)		51(8.5)		
	4.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예	214(61.8)	161(62.6)	.040	157(57.1)	340(56.5)	.029
	아니오	132(38.2)	96(37.4)	118(42.9)		262(43.5)		
	14.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248(71.9)	179(69.6)	.357	163(59.1)	409(67.7)	6.241*
	아니오	97(28.1)	78(30.4)	113(40.9)		195(32.3)		
	27. 선생님은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	307(89.2)	246(96.1)	9.538**	257(93.1)	586(97.8)	11.915**
	아니오	37(10.8)	10(3.9)	19(6.9)		13(2.2)		

* $p < .05$, ** $p < .01$, *** $p < .001$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χ^2	남	여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학교 안전 관리 관련 교육	29.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	295(85.0)	216(83.7)	.189	235(85.1)	512(85.2)	.000
	아니오	52(15.0)	42(16.3)		41(14.9)	89(14.8)	
	30.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	284(83.0)	236(91.8)	9.897**	243(88.4)	570(95.2)	13.404***
	아니오	58(17.0)	21(8.2)		32(11.6)	29(4.8)	
	31. 선생님은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	290(84.5)	235(92.5)	8.744**	233(86.0)	553(93.6)	13.322***
	아니오	53(15.5)	19(7.5)		38(14.0)	38(6.4)	
	34. 선생님은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예	292(85.1)	206(81.1)	1.712	225(82.1)	494(82.9)	.077
	아니오	51(14.9)	48(18.9)		49(17.9)	102(17.1)	
39.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예	300(87.7)	230(90.6)	1.187	244(89.1)	548(91.9)	1.928	
아니오	42(12.3)	24(9.4)		30(10.9)	48(8.1)		
13.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	309(89.6)	246(94.6)	4.988*	252(91.6)	568(94.2)	2.005	
아니오	36(10.4)	14(5.4)		23(8.4)	35(5.8)		

* $p < .05$, ** $p < .01$, *** $p < .001$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χ^2	남	여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학교 안전 관리 관련 상담	42. 주변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자살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예	297(86.8)	236(92.5)	4.971*	250(91.6)	556(93.1)	.667
	아니오	45(13.2)	19(7.5)		23(8.4)	41(6.9)		
	43. 주변에 자살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른(선생님, 부모님 등) 들께 도움을 청한다.	예	296(87.3)	235(92.5)	4.200*	243(89.0)	524(87.8)	.275
	아니오	43(12.7)	19(7.5)		30(11.0)	73(12.2)		
	38.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	287(84.7)	225(88.2)	1.563	234(85.4)	555(93.3)	13.922***
	아니오	52(15.3)	30(11.8)		40(14.6)	40(6.7)		
	2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교내 상담선생님이나 외부 상담전문가에게 개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	215(62.3)	170(65.9)	.816	174(63.5)	417(69.3)	2.852
	아니오	130(37.7)	88(34.1)		100(36.5)	185(30.7)		
	44.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	286(84.4)	224(88.2)	1.763	229(83.9)	529(88.8)	3.995*
	아니오	53(15.6)	30(11.8)		44(16.1)	67(11.2)		

* $p < .05$, *** $p < .001$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χ^2	남	여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자살 소식 전달 방법	2.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예	176(50.7)	89(34.2)	16.430***	112(40.4)	179(29.6)	10.009**
	아니오	171(49.3)	171(65.8)		165(59.6)	425(70.4)	
	3.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예	158(45.8)	101(39.0)	2.794	101(36.7)	232(38.9)	.385
	아니오	187(54.2)	158(61.0)		174(63.3)	364(61.1)	
	2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반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						
	예	141(41.1)	94(36.4)	1.351	118(42.8)	195(32.4)	8.856**
	아니오	202(58.9)	164(63.6)		158(57.2)	407(67.6)	
	19.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예	268(77.7)	215(83.3)	2.958	224(81.2)	523(87.0)	5.148*
	아니오	77(22.3)	43(16.7)		52(18.8)	78(13.0)	
25. 선생님은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예	184(53.3)	131(51.2)	.275	134(48.7)	296(49.6)	.055	
아니오	161(46.7)	125(48.8)		141(51.3)	301(50.4)		
26. 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린다.							
예	127(37.0)	66(25.8)	8.488**	85(30.8)	121(20.2)	11.787**	
아니오	216(63.0)	190(74.2)		191(69.2)	478(79.8)		

* $p < .05$, ** $p < .01$, *** $p < .001$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χ^2	남	여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애도 반응에 대한 개입 방법	36. 원하는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287(82.7)	237(92.6)	12,604***	239(87.2)	574(96.1)	24,047***
	아니오	60(17.3)	19(7.4)		35(12.8)	23(3.9)	
	37.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예	244(71.3)	193(75.7)	1,403	178(65.4)	436(73.0)	5,193*
	아니오	98(28.7)	62(24.3)		94(34.6)	161(27.0)	
	2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자신의 충격과 애도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						
	예	243(71.1)	201(78.2)	3,919*	175(63.4)	467(77.6)	19,330***
	아니오	99(28.9)	56(21.8)		101(36.6)	135(22.4)	
	4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단위 혹은 소집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예	206(60.6)	171(68.1)	3,553	141(52.0)	393(66.6)	16,761***
	아니오	134(39.4)	80(31.9)		130(48.0)	197(33.4)	
	33. 선생님은 담당학급에서 또는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예	240(70.2)	183(73.2)	.648	180(66.4)	476(80.4)	19,941***
아니오	102(29.8)	67(26.8)	91(33.6)		116(19.6)		
24.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보일 수 있는 반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를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	189(55.4)	159(62.1)	2,687	150(54.9)	384(64.1)	6,631*	
아니오	152(44.6)	97(37.9)		123(45.1)	215(35.9)		
5.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	183(53.0)	145(55.8)	.444	129(46.7)	341(56.8)	7,746**	
아니오	162(47.0)	115(44.2)		147(53.3)	259(43.2)		
6.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예	271(80.7)	211(85.1)	1,939	219(80.8)	538(90.4)	15,624***	
아니오	65(19.3)	37(14.9)		52(19.2)	57(9.6)		

* $p < .05$, ** $p < .01$, *** $p < .001$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χ^2	고등학생		χ^2
		남	여		남	여	
		빈도(%)	빈도(%)		빈도(%)	빈도(%)	
		1. 교장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296(85.8)	231(89.5)	1.872	238(86.2)	545(90.5)	3.626
	아니오	49(14.2)	27(10.5)		38(13.8)	57(9.5)	
사후 개입 관련 정보 내용과 제공 범위		9.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	283(81.8)	229(88.4)	4.998*	234(84.8)	547(90.6)	6.339*
	아니오	63(18.2)	30(11.6)		42(15.2)	57(9.4)	
		8.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288(83.7)	225(87.5)	1.724	216(79.1)	554(92.3)	31.475***
	아니오	56(16.3)	32(12.5)		57(20.9)	46(7.7)	
		7.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286(83.4)	233(89.6)	4.793*	215(78.5)	535(89.3)	18.279***
	아니오	57(16.6)	27(10.4)		59(21.5)	64(10.7)	

* $p < .05$, *** $p < .001$

하위 요인	응답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χ^2	남	여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개입 태도	10.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85(24.8)	74(28.6)	1,091	77(28.1)	135(22.5)	3,261
	아니오	258(75.2)	185(71.4)	197(71.9)		466(77.5)		
	11.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예	74(21.6)	39(15.2)	4,004	75(27.3)	134(22.3)	2,572
	아니오	268(78.4)	218(84.8)	200(72.7)		467(77.7)		
	12.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예	164(47.5)	87(33.6)	11,846**	130(47.1)	204(33.8)	14,153***
	아니오	181(52.5)	172(66.4)	146(52.9)		399(66.2)		
	28. 학생이 자살한 후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228(66.1)	144(56.0)	6,308*	163(61.7)	330(55.5)	2,965
	아니오	117(33.9)	113(44.0)	105(38.3)		265(44.5)		
	32.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예	73(21.2)	14(5.4)	29,595***	36(13.1)	47(7.9)	6,081*
	아니오	272(78.8)	244(94.6)	238(86.9)		551(92.1)		
	35.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	예	186(54.1)	125(49.0)	1,496	166(60.4)	347(58.2)	.357
	아니오	158(45.9)	130(51.0)	109(39.6)		249(41.8)		
41.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예	154(45.2)	120(48.6)	.674	154(56.8)	324(55.0)	.248	
아니오	187(54.8)	127(51.4)	117(43.2)		265(45.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7. 학생 자살 시 사후개입방안에 대한 국내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사후개입 의견 비교

영역	문 항 ²⁾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자살 발생 시 학교와 관련된	15.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경향	찬성
	16. 교장선생님은 자살이 교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방해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경향	찬성 경향	찬성
	17. 학교는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이나 창문, 밧줄이나 화학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의견 불일치	반대 경향	찬성 경향	의견 불일치
	14. 자살 발생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님의 동의없이 학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출석과 결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경향	찬성	찬성
	27. 선생님은 자살에 영향 받은 학생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8. 교장선생님은 학생의 자살에 대해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책임지거나, 선생님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언론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단일화한다.	찬성	찬성	의견 불일치	찬성
	교사1. 학교장은 평소에 학교위기관리팀을 조직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찬성	찬성	-	찬성
	교사2. 학교장은 먼저 교사들에게 자살 사망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	찬성
	29.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찬성 경향	찬성	찬성	찬성
학교와 관련된 세부 내용	30. 사람이 자살하면 주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슬퍼하므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1. 선생님은 자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4. 선생님은 자살 생각이 많거나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9. 학생들은 자살의 경고신호나 위험요소들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학생들은 자살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문항 내용은 학생용 설문지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였음.

영역	문항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³⁾
학내·학외·학부모·학원·학급	42. 주변 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자살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찬성	-	찬성	찬성
	43. 주변에 자살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른(선생님, 부모님 등)들께 도움을 청한다.	찬성	-	찬성	찬성
	38. 자살한 학생과 절친했거나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을 교내 상담선생님이나 외부 상담전문가에게 개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찬성	찬성	찬성 경향	찬성
	44. 자살 발생 후 2~3일 동안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일부 주장
	교사29. 모든 교사는 학생의 자살로 크게 영향을 받았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찬성	찬성	-	찬성
자살·소식·전체·개별·학급	교사31. 교사는 학생의 자살과 관련하여 개별상담이나 자문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	찬성	찬성	-	찬성
	2. 학생들에게 자살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는 대강당에서 학생 전체에게 전달하거나 교내 방송을 하는 것이 좋다.	반대	반대	반대 경향	반대
	3.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하교 직전에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다.	반대 경향	반대 경향	반대 경향	반대
	2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반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알린다.	반대	반대	반대 경향	반대
	19.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5. 선생님은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찬성 경향	의견 불일치	의견 불일치	찬성
	26. 선생님은 학생이 자살한 방법이나 추정되는 자살 이유 등을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린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영역	문항	전문가	교사	학생	국외
국내 단위 개교	36. 원하는 학생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7. 장례식 참여 후, 학생들은 인솔 교사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경향	찬성
	23.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자신의 충격과 애도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한다.	찬성	-	찬성 경향	찬성
	40.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단위 혹은 소집 단형태로 모여 자살 발생 후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	찬성	찬성	찬성 경향	찬성
	33. 선생님은 담당학급에서 또는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경향	찬성
	24.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기일이나 생일에 보일 수 있는 반 학생들의 애도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경향	찬성 경향	찬성
	5.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운구행렬, 기념비 제막식 등)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반대	반대 경향	의견불 일치	반대
	6. 추모 활동 시 죽음을 미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교사4. 교직원들도 자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살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찬성	의견 불일치	-	찬성
	관련 정보 제공	1. 교장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9. 자살 발생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건강관련 기관, 자살예방 응급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가능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영역	문항	전문가	교사	학생	해외
개입태도	10. 자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반대	반대 경향	반대
	11. 학생의 자살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
	12.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반대	반대 경향	반대 경향	반대
	28. 학생이 자살한 후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견 불일치	의견 불일치	반대 경향	반대
	32.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
	35.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전교생이 알 필요는 없다.	의견 불일치	찬성 경향	찬성	반대
41. 자살발생 후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은 보통 몇 주 이내이다.	반대 경향	의견불 일치	의견불 일치	반대	

부록 8. 시범교육평가지

사전(사후)검사	성함을 반드시 작성해주십시오. 성함 : _____
<p>항상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7년도에 청소년자살예방 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청소년자살예방대책(안)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가적으로 「청소년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하였습니다.</p> <p>올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p> <p>본 조사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향후 지원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누락되면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9월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p> <p style="text-align: center;">※ 문의사항 : 02-2250-3071, eun0@kyci.or.kr(0은 숫자), 팩스번호 (02) 2250-3005</p>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사전·사후검사)

1. 청소년 자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은 실제로 자살할 위험이 적다.
 - ② 대부분의 자살한 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자살하려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④ 청소년의 자살 행동은 도움을 청하거나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표현이다.

2. 학생 자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 ② 교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 ③ 학생 자살의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 ④ 지역 교육청에 사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옳다고 생각되면 '예', 그르다고 생각되면 '아니오'에 V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내 용		
3	자살 생존자라는 말은 자살 시도 후 살아남은 사람을 지칭한다.	예	아니오
4	학급 자살 위기 개입의 목표 중 하나는 자살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스크리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아니오
5	자살 사후개입 시 모든 활동은 자살에 대한 기본적 사실보고양식(fact sheet) ⁴⁾ 의 내용에 기초하여 일관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아니오
6	자살 사후개입 시 자살의 원인을 추측해보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예	아니오
7	자살 사후개입은 자살 발생 후 즉각적으로 해야 하며 개입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는 것이 좋다.	예	아니오
8	선생님은 자살한 학생이 속한 학급이 아닌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도 학생이 자살한 사실을 솔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예	아니오
9	자살이 발생하면 시험이나 기타 중요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뤄야 한다.	예	아니오
10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달할 때는, 자살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예	아니오
11	하교 직전이라도 학생들에게 자살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살로 인한 불필요한 동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	아니오
12	교직원들도 자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살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아니오
13	학급을 대상으로 자살 위기개입을 할 때 자살한 학생과 친하지 않은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없다.	예	아니오

14. 학생에게 자살 소식을 전달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살 행위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 ② 학생들에게 자살이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한다.
 - ③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간에 자살에 관한 추측된 정보를 나누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④ 자살한 학생이 속한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자살 방법이나 추정 원인 등을 알린다.
15. 학생 자살의 교내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학생의 자살 방법
 - ② 학교의 이전 자살 발생 여부
 - ③ 자살로 사망한 학생의 인지도
 - ④ 위기 상황 대처에 도움되는 학생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
16. 다음 중 학생 자살 발생 후 사후개입을 위해 설치된 특별상담실에 의뢰할 필요가 없는 학생은?
- ①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학생
 - ② 울며 불며 자신의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 ③ 매우 가까운 친구의 자살을 목격했는데 정서반응이 없는 학생
 - ④ 이전부터 가출 경험이 있거나 도벽 등의 비행행동을 보이는 학생
17. 자살사건 발생 후 언론 매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 ① 부모가 원한다면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지원한다.
 - ② 자살의 영향력을 생각해 언론매체의 접근을 무조건 막는다.
 - ③ 언론매체를 담당할 담당자를 정하여 모든 매체로 나가는 정보를 일원화한다.
 - ④ 언론 매체의 질문을 받게 되면 가능성 있는 정보를 모두 수합하여 최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기본적 사실보고양식(Fact Sheet) : 발생한 자살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를 말함
 ※ 청소년자살사후개입지식 (정답) : 1-①, 2③, 3-아니오, 4-예, 5-예, 6-아니오, 7-아니오, 8-예, 9-아니오, 10-예, 11-아니오, 12-예, 13-아니오, 14-④, 15-①, 16-④, 17-③, 18-④

18. 자살 사후개입 시 올바른 것은?

- ① 학급 위기개입을 실시하는 인력은 교내에서만 동원한다.
- ② 학급 위기개입은 학년 순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 ③ 자살한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은 다 같이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조치한다.
- ④ 다른 개인사정으로 상담실을 찾는 학생이 있으므로 일반상담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지식 측정(사전 · 사후검사)

다음은 각 문항에 기술된 행위를 본인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본인의 자신감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한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 자신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확신이 없다	매우 확신한다
19. 학생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나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20. 학생의 자살에 대처하는 것은 내게 너무 힘들다.	0 1 2 3 4 5 6 7 8 9 10	
21. 나는 학생의 자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할 것 같다.	0 1 2 3 4 5 6 7 8 9 10	
22. 학생의 자살이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23. 나는 자살위험을 보이는 학생을 식별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24. 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자살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25. 나는 학생이 자살한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26. 나는 학생이 자살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27. 나는 학생이 자살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알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28. 나는 학생의 자살이 발생한 상황에 개입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29. 나는 자살 발생에 특히 영향을 받은 학생을 식별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30. 나는 학생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참여자 관점 척도

질 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본 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본 매뉴얼을 고객(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9.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책임연구자 : 배주미

공동연구자 : 이승연

김은영

제 1 장 청소년 자살 이해 및 접근

I.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220
1. 청소년 자살의 정의 및 특성	220
2. 청소년 자살 영향 요인	224
3. 청소년 자살 영향에 대한 이해	227
II. 청소년 자살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229
1. 예방적 접근	229
2. 위기개입적 접근	230
3. 사후개입적 접근	231

제 2 장 위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I. 위기관리위원회	234
1. 위기관리위원회의 목적	235
2.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236
3. 위기관리위원회의 활동	241

제 3 장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실제

I. 사후개입 준비단계	246
1. 자살의 진위 파악	246
2. 경찰 조사 협조	248
3. 위기관리팀 긴급회의	251

4. 공식적 사안보고서 작성	263
5. 관련기관 협조 요청	266
II. 사후개입	272
1.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	272
2. 학급 위기개입	292
3. 특별상담실 운영	311
4. 장례식 참석	320
5. 위기관리위원회 활동평가 및 심리적 경험 보고(Debriefing)	323
III. 사후개입 추후관리	326
1. 지속적 관찰 및 개입	326

제 4 장 위기관리위원회의 상시 활동

I. 자살 예방	332
1. 자살예방을 위한 준비 작업	332
II. Gatekeeper 훈련	336
III. 시설안전관리	347

부 록

자살보도기준	349
상담 관련 기관	355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가교육	356
자살예방 관련 기관	358

제 1 장

청소년 자살 이해 및 접근

I.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1. 청소년 자살의 정의 및 특성

Ⅰ 가. 청소년 자살의 정의

청소년의 자살 행동(suicidal behavior)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힘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극단적 대처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

자살 행동은 자살생각, 자살계획(자살의도), 자살시도, 자살사망으로 구분된다(홍영수, 전선영, 2005; Reynolds, 1988).

-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 죽고 싶다는 생각부터 자살수단(칼, 농약 등)에 관한 생각까지 포함
- 자살계획(suicidal plan) 및 자살의도(suicidal intent)
 - 자살시간, 수단, 장소 등에 관한 계획 구상
 -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살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행동(유서 작성, 소지품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자살관련 정보 수집 등)
- 자살시도(suicidal attempt) : 죽으려는 의도가 있는 실제적인 자해 행동
- 자살사망(suicidal completion) : 자살 실행으로 죽음에 이르는 실제적 자살

Ⅰ 나. 청소년의 자살 특성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래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기술을 습득한다. 앞으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인지적, 행동적 대처 전략이 부족하고 정서적 자기조절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발달적 특징 때문에 성인들과는 몇 가지 다른 자살 특성을 보인다.

-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크다.
성인들은 경제적 빈곤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계획적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순간 현실을 도피하려는 방법으로 사전 계획 없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
- 청소년 자살은 급성스트레스에 따른 극단적 반응이기 쉽다.
평소에 잘 기능하는 청소년이라도 갑작스런 성적 하락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환경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좌절, 분노, 짜증, 불안 등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위기감 수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 청소년 자살은 ‘도움을 청하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극단적 표현이다.
청소년은 아직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다. 어려울 때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못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단순히 주의를 끌려는 행동으로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 청소년은 자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죽음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후세계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 성인들보다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청소년 자살은 또래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또래들과 먼저 의논한다. 그렇지만 서로 해결방법

을 모르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영향을 주고받다가 동반자살이나 모방자살로 이어지기 쉽다.

■ 다. 청소년의 자살 실태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현재까지의 전체적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기준, 통계청자료).

- 인구 십만명당 31.0명 자살, 만 5세 이상 인구 자살사망자 수가 15,413명으로 전년대비 2,555명 증가
- 남성이 십만명당 39.9명, 여성이 22.1명 자살(남성이 여성보다 1.8배 이상 높음)
- 십대 청소년의 자살은 사망원인 1위(표 1 참조), 자살율은 십만명당 29.5명으로, 2008년(22.1명)에 비해 크게 증가
- 15세~19세 청소년 자살율은 2001년 5.3%에서 2009년 10.7%로 상승

청소년은 모방자살, 동반자살 경향을 보이는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영화배우 故 이은주씨 자살 전후 서울지역 자살률이 일일 평균 0.84명에서 2.13명으로 증가(2.5배), 이중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보건복지가족부, 2008).
- 2009년 4월~ 5월 동반자살 24명 시도, 14명 사망, 이들 상당수가 10~20대로 나타남(조선일보, 2009년 6월 4일).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경찰청의 2004~2006년 자살기록 31,771건을 분석한 결과(보건복지가족부, 2008)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십대 청소년 자살은 학교문제(11.7%), 부모와의 갈등(7.0%), 우울증(6.0%)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 이 결과는 청소년 자살이 육체적·정신과적 질병보다는 가족 및 또래관계 혹은 학업문제로 인한 것임을 시사함(표 2. 참조).

표 1.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2008)

(단위 : %, 십만명당)

연령	1위			2위			3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운수사고	17.5	3.0	악성신생물(암)	16.1	2.8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7.1	1.2
10-19세	고의적 자해(자살)	29.5	6.5	운수사고	19.7	4.4	악성신생물(암)	13.5	3.0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44.6	25.4	운수사고	17.3	9.8	악성신생물(암)	9.3	5.3
30-39세	고의적 자해(자살)	34.1	31.4	악성신생물(암)	19.2	17.6	운수사고	8.8	8.1

표 2. 연령대별 자살 이유

(단위 : %)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	학교문제 (11.7)	우울증 (10.9)	우울증 (11.2)	육체적 질병 (10.9)	육체적 질병 (18.8)	육체적 질병 (34.4)
2	부모와의 갈등 (7.0)	이성교제 (4.2)	부채 (7.5)	우울증 (8.9)	우울증 (8.9)	우울증 (9.1)
3	우울증 (6.0)	배우자와의 갈등 (3.6)	배우자와의 갈등 (7.3)	배우자와의 갈등 (8.7)	부채 (7.0)	배우자와의 갈등 (5.0)

보건복지가족부(2008)<http://www.mw.go.kr/> 통계자료 참조

2. 청소년 자살 영향 요인

가.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

위험요인이란 개인의 내외적 환경과 개인의 특성 중에서 발달 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하나의 큰 위험요인보다는 경미하지만 다수의 위험요인이 합쳐질 경우 부정적 효과는 더욱 강력해지므로, 위험요인들의 양상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

- 우울감 : 자신과 세상,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우울한 청소년들은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할 수 있다.
- 충동적 경향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 : 충동적이거나 감정 조절을 못하면 학업 및 생활 과제의 성취,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좌절과 실망을 겪기 쉽고, 육해 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 술과 약물 사용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려운 감정에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극복 할 힘이 약화되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자살을 감행하기 쉽다.

2) 가족 특성

- 학대 피해경험 :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학대받고 자라면 고통과 슬픔, 분노가 쌓여 이를 벗어나려고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혼·사망 등 상실 : 부모(가족)의 사망, 이혼, 이별 등 상실 경험은 심리적 상처를 크게 주므로 만성적 우울, 자살위험성이 늘게 된다.
- 가족 불화 : 가족들끼리 자주 싸우거나, 너무 무관심하면 청소년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받고 쉴 곳이 없으므로 자살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경제적인 어려움 : 돈을 쓰는데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이 열등감, 수

치심을 느끼기 쉽고, 부모도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 지원도 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무기력, 우울로 인해 자살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3) 학교 및 또래 환경 특성

- 교사의 편애나 무관심, 따돌림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성적 및 진로문제 등 : 학교에서 겪게되는 많은 문제는 청소년에게 상당히 중요하며 미래에도 영향을 주므로 스트레스를 높여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친한 친구의 자살(죽음) : 청소년들은 또래 동일시 욕구가 매우 크다. 친한 친구의 자살(죽음)은 큰 충격을 주며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4) 사회 환경 특성

- 자살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 유명인사 및 연예인의 잇단 자살과 이에 대한 집중적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자살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 자살에 관한 선정적 언론 보도 :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언급, 자살 관련 시각적 자료의 노출, 자살 이유의 단순화 혹은 확대보도, 자살자에 대한 이해심 표출 등 자살에 대한 잘못된 언론의 보도 방식은 자살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익숙하거나 우상화했던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 큰 충격과 동일시 욕구로 청소년들의 모방자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나.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

- 자기효능감 :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 학업이나 생활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믿음을 말한다. 이러한 믿음은 청소년이 역경에 처했을 때 절망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문제 해결 중심적 대처 :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약물, 게임 등 기분을 전환하는데 매달리기 보다 문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해보고, 답이 안나오면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하면 어려움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게 된다.
- 자존감 : 자존감이 낮으면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확대하여 우울이나 자살 행동이 유발되기 쉽다. 반면 자존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

2) 환경 특성

- 가족의 지지 :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관심과 신뢰 속에서 성장해왔고 가족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 쉽다.
- 교사 및 친구의 지지 : 선생님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친구관계가 좋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 힘든 일을 겪게 되도 자살 위험이 적다.
- 학교의 적극적 안전 관리 : 자살 수단(총, 칼, 옥상, 창문 등)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접근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청소년 자살 영향에 대한 이해

가. 자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전염 효과

주변사람이 자살했거나 간접적으로 자살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 모두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살로 죽으면 청소년들은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등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2007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주변 사람이 자살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시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우 그렇와 같은 결과들은 주변인의 자살이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보도가 나가면 모방자살이 14.3배 높아지며, 영화나 TV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는 실제인물이 자살했다는 사실기사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는 신문이 TV보다 더 영향을 끼치며, 자살보도를 다루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을수록 파급효과가 커진다.

특히 자살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흥미위주의 추측성 보도,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보도, 연예인 자살의 뉴스 상품화 등 선정적인 보도 형태는 자살 전염성을 높인다.

2005년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직후 청년층의 모방자살이 급증했다고 보도되었고, 2009년 상반기의 동반자살자 중 상당수가 10~20대로 나타나 예외 없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 등 전염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자살의 영향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또래, 교사, 교직원과 매우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예기치 못한 자살 사망

은 가까운 친지의 죽음과도 같이 충격적으로 경험되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결속감이 강할수록 자살의 외상적 영향력은 더 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구성원이 자살한 후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각을 많이 하며 작은 일에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더 많이 보인다. 이전에 존재하던 학업 문제들과 학업 성취의 실패가 더 심각해진다. 이전보다 약물이나 비행, 자살시도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적 변화는 개인적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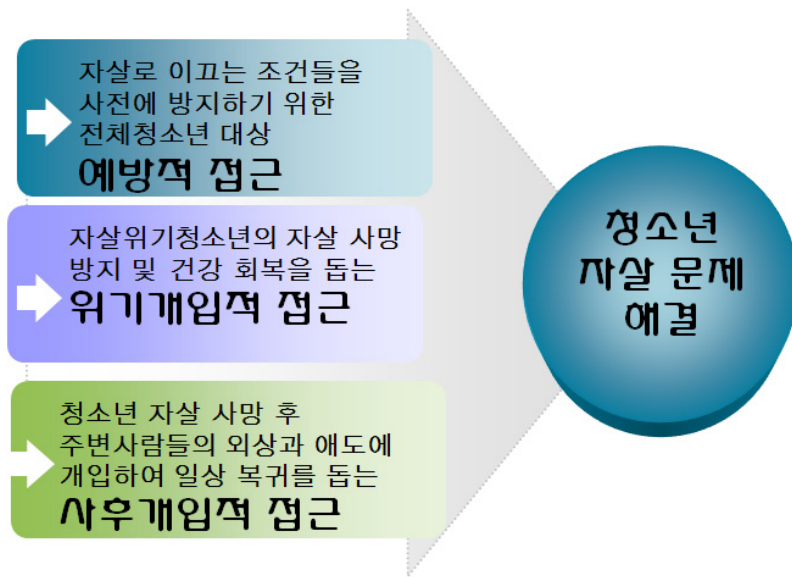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자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학교에서 자살 소식을 감추거나 사망 원인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거짓 발표를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 자살에 영향받은 학교 구성원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자살을 아무리 숨기려하여도 자살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며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소문이 합쳐져서 어수선하고 충격적인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또래 학생이나 교사의 자살은 주위의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문제해결방법이나 대처전략을 갖지 못하여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충동적결지 못하일수록 자살 행동 후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또래 학생이나 교사의 자살 사망 후 고인에게 주어진 자살은젠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에 크게 매료되어 자살을 효과적결지수단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학교 장면에서 구성원의 자살 후 주어진자살은부적절한 관심과 대처살은학교 구성원의 자살의 위험을 높이고, 특히 충동적인 일부 학생들에게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이 발생하면 사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에 따른 영향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도우며, 학교 사회 내 의사소통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II.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1. 예방적 접근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자살의 원인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 자살 예방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방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가치관 조성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적 환경 조성,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 등

- 자살위기청소년 발견 및 의뢰 방법 훈련 : Gatekeeper 훈련프로그램, 청소년 또래지지 프로그램, 학교지킴이 훈련 등
- 자살 수단 억제 전략 : 옥상 담 높이기, 유해화학 물질 관리 등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Gatekeeper 훈련을 제공하고, 학교 창문, 옥상, 화학물질 등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2. 위기개입적 접근

청소년이 자살 행동을 하면 바로 전에 일어난 일(부모, 친구와의 다툼 등)을 원인으로 단정짓기 쉽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 계속 악화되면 매우 취약해져서 사소한 일 한가지로도 자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자살위기청소년을 돕는데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자살 위험도 평가 : 자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한 자살 가능성 평가
- 자살 위험 수준별 개입 계획 : 자살의 위험도 수준에 따른 24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감독, 정신과 입원/외래 평가 의뢰, 모든 자살 위험 수준의 청소년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기청소년 대상 심리적 역량 강화 활동 : 자살의 스트레스 대처 및 갈등해결 전략, 효과적 문제해결 방법 습득, 자존감 향상 훈련 등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자살위기청소년 상담자 매뉴얼’(2009)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www.kyci.or.kr/>-교육연수정보시스템 참조).

한편, 학교에서는 자살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을 목록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 시도 중인 청소년들은 신속하게 구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19 구조대, 청소년전화(1388), 서울시자살예방센터(블루터치 핫라인 1577-019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사후개입적 접근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모방자살, 동반자살 등 자살 전염성에 매우 취약하다. 주변사람이 자살로 사망하거나 방송에서 자살소식을 접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특히 학교는 십대 청소년들이 주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으로 또래와 교사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고 받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의 자살은 마치 가족의 자살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더구나 동년배인 학생의 죽음은 동일시되기 쉽고 현실적이라서 그 충격은 매우 심각하다.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학생들이 우울이나 자살 행동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살 전염성을 막고, 자살에 따른 부정적 과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후개입 전략들을 개발하고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자살 발생 사전 대비 :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학교 안전 관리시스템 가동
-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 체계 확립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안전한 자살 소식 전달 절차 수립, 언론인터뷰 일원화
- 비상시 학교 운영 체계 확립 : 비상시 학사일정 운영 방안, 학생들의 출결관리, 장례식 참여 절차 등
- 학급 위기개입 및 개별 상담 제공 : 자살한 학생이 속한 학급 대상 위기 개입,

자살위기학생 스크리닝, 정신과 의뢰, 후속 처리 등

- 위기관리위원회 심리적 경험보고 : 자살 발생 후 사후개입 결과 평가, 위기관리위원회원간 심리적 경험 공유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사후개입’이란 말이 생소한 표현이고, 아직 국내 사정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사후개입 방법이 소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후개입 접근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2 장

위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I.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의 자살 사후개입은 아직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으로 현재 학교 체제에서 자살을 전담하여 다루는 조직은 부재하다. 그렇지만 1년에 200명 이상의 학생이 자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과 교사가 밀집하여 서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 받는 학교는 반드시 자살 사후개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자살 예방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살을 전담하는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상시활동, 자살 발생시 사후개입의 전 과정(준비, 개입 및 추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때, 자살 뿐 아니라 각종 위기상황(학교폭력, 따돌림, 성폭행, 재난 및 재해 등)에 개입할 수 있는 학교의 포괄적 위기대응시스템으로 마련한다.

둘째, 보다 접근하기 쉬운 방법의 하나로 현존하는 학교의 관련 조직(학생안전관리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에서 자살 사후개입 관련 업무와 활동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셋째,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교육청 소속 학생생활지원단(WeeCenter) 등의 관련 외부기관을 위기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학교의 자살 사후개입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학교의 상담 및 보건 교사를 학교 위기 관리 인력으로 지정하여 학교구성원 자살 발생시 지역사회의 위기관리전문기관의 지휘 하에 개입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제안한 어떠한 방안이든 실제로 구현되려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장급 교사들이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며 이에 관여하는 모든 교사들의 훈련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위기관리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록 자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이하 관련 교사들의 연 1회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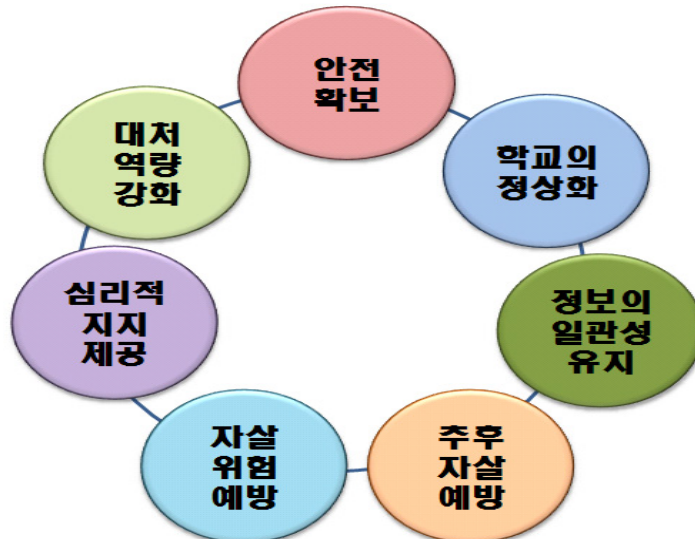
정기적 사후개입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위기관리위원회 신설’ 안에 근거하여 사후개입 수행절차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위기관리위원회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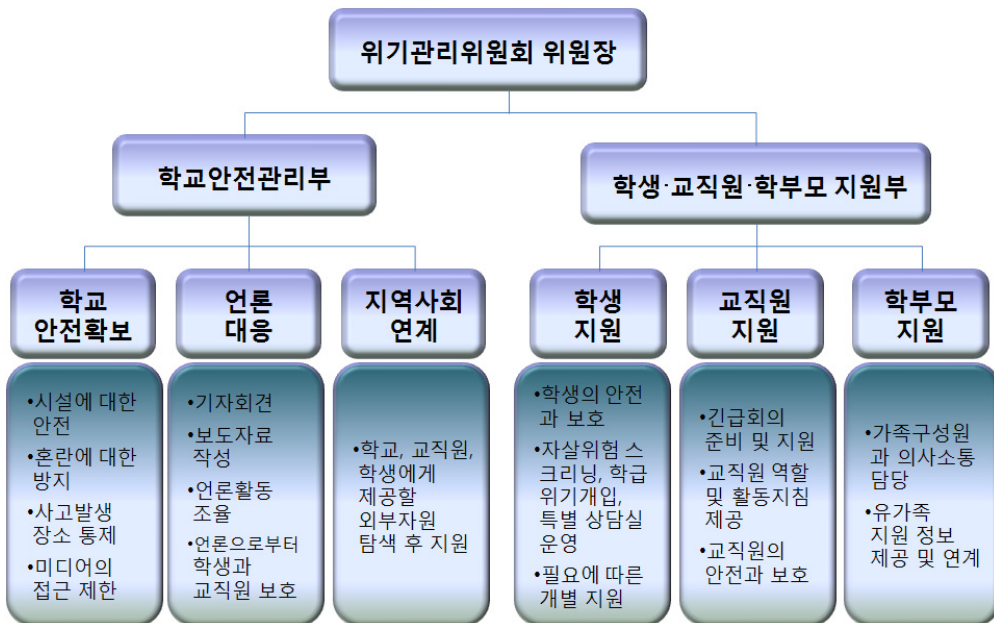
학생 및 교직원의 자살은 학교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때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기관리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2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위기관리위원회는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학교안전관리부와 학생·교직원·학부모 지원부로 구성된다.



Ⅰ 가.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자격

-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 교감 등 학교 전체, 소속 교육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학교 위기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가 맡는다.

2) 역할

- 상시 관리 :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정기적 훈련과 활동 관리
- 위기상황 관리

- 위기상황 공표(언론 대응 포함)
- 위기대응계획 수립
- 위기대응 관련 주요 사항 최종 결정
- 위기대응 노력 감독
- 위기 상황 종결 : 위기상황 종결 공표, 위기대응결과 관련 교내외 서면보고 내용 최종 결정, 위기대응 결과에 대한 평가, 사후처리 감독

Ⅱ 나. 학교 안전관리부장

1) 자격

- 위기관리위원회의 학교안전관리부장은 위기관리 관련 실무 책임을 지닌 자가 맡는다.
 - ※ 원칙적으로 심리학적 개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맡아야 하나 현실적 방안으로 심리, 사회복지에 이해가 있는 교감(교장이 위원장일 경우), 교무부장 교사, 학생부장 교사 중에서 맡는다.

2) 역할

- 상시 관리
 -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및 정규적 활동 실무 관리
 - Gatekeeper 훈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에 대한 감독
 - 학생, 교직원, 학부모 긴급연락망 감독
 -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망 구축 노력 및 의뢰절차 확립
- 위기상황 관리
 - 학교 안전 확보 : 시설 안전 관리, 혼란 방지, 사건 발생 장소 통제, 미디어의 접근 제한

- 언론 통제 : 언론 보도 내용 및 범위 결정, 보도자료 작성, 언론이 학교 위기 상황 관리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율, 언론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보호
- 지역사회 연계 :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기관 및 자원 목록화, 자살위기청소년 및 정신 건강 위험 청소년 지역사회정신건강전문기관 의뢰, 병원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 외상치료 후 학생들의 학교 복귀 조력 등의 의료기관 연계

- 위기 상황 종결 : 위기대응결과 관련 최종 서면보고서 작성, 사후처리 실무 감독

※ 위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원들을 선정할 수 있다.

- 학교 안전 확보 담당자는 생활부장교사가 맡고, 생활부 기획 및 안전사고담당자, 경비실 직원을 협력담당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연계 담당자는 교무부장 교사, 지역사회 부장교사 중에서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이밖에도 학교 행정 조직 상에서 학교안전관리부의 역할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Ⅱ 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원부장

1) 자격

- 학교체제상 진로상담부, 인성교육부 등 학교 상담부를 맡고 있거나, 전문상담 교사, 학교사회사업가, 보건교사 등 학교의 정신건강 실무책임을 지닌 자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원 책임을 맡는다.
- 위기관리의 목적, 방법, 제한점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심리학,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 등의 학문적 배경과 현장전문성을 지닌 자가 적합하다.

- 교내 정신건강전문가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외부 정신건강전문가를 본 담당자로 위촉한다.

2) 역할

- 상시 관리
 - Gatekeeper 훈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기관 목록 관리
 - 정신건강서비스 및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 위기상황 관리
 - 학생지원 : 위기 대응시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침 제공, 자살위험스크리닝, 학급 위기개입, 특별상담실 운영 계획 및 정보 제공, 자살위기청소년 및 정신 건강 위험 청소년 지역사회정신건강전문기관 의뢰, 필요에 따른 개별 지원
 - 교직원 지원 : 교직원 긴급회의 준비 및 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교직원의 역할 및 활동 지침 제공, 교직원 긴급연락망 확보, 교직원 언론 대처 양식 제공, 교사 상담 의뢰 등 교직원의 안전과 보호 활동
 - 학부모지원 : 자살자 가족 면담, 의사소통 방법 제공 및 서면 자료 작성, 유가족 지원 자원(장례식, 정신건강전문 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학부모 긴급연락망 확보, 학부모 대상 자살 소식 전달 자료 작성 및 배포 절차 수립
- 위기 상황 종결 : 위기개입결과 서면보고서 작성, 사후처리

※ 위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학생 지원담당자는 현행 학교 조직상의 상담교사, 생활부 상담계 교사, 생활부

지도계 교사, 보건교사 중에서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교직원 지원담당자는 생활부 상담계 교사, 생활부 지도계 교사 중에서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학부모 지원담당자는 인성부장 교사, 생활지도계 교사, 학생 부장 및 학년 부장 중에서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3. 위기관리위원회의 활동

Ⅰ 가. 위기관리위원회의 상시 활동

- 자살예방시스템 점검
-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정기훈련과 교육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 Gatekeeper 훈련
- 시설 안전 관리

나. 자살 발생 시 개입활동

1) 준비단계(자살 발생 후 24시간 이내)

		업 무	담당자
1	자살의 진위 파악 (자살 발생 확인 직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상황 목격자 및 소식 접촉자 소집 • 자살 진위 여부 확인 	위기관리위원회의 학교안전관리부장,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
2	경찰조사 협조 (교내 자살 발생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및 교내 위기관리위원회에 연락 • 목격자 격려·보호 • 학생, 교직원, 외부인 등의 현장접근 차단 • 경찰조사 조력, 현장 경험 공유 	위기관리위원회의 학교안전관리부 (안전 확보)
3	위기관리 위원회 긴급회의 (자살 진위 파악 후)	정보 수합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관리부,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자살정보 공유방법 결정	
		사후개입 준비	
4	'사안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할 정보 내용 및 범위, 대상 결정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학교안전관리부장,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
5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교육청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관리부 지역사회연계 담당자
		다른 학교	
		외부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보고, 사안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위기대응책 공유 • 외부 지원 사항 협조 •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 친구·이성친구가 속한 학교에 연락하여 자살상황 및 유의사항 알리기 • 외부 전문기관 목록 사전 확보 •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기관 대상 지원 요청사항 협의 • 학교 방문시기, 개입 대상, 개입 장소 및 절차 등을 협의 • 외부전문가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 	

2) 사후개입 단계(준비단계 직후~7일 이내)

		업	무	담당자
1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 (자살 발생 후 24시간 이내)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긴급연락망 가동 •교직원 대상 자살 사후개입 관련 정보 제공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교직원 지원담당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가 학급 단위로 전달 •자살한 학생과의 관계에 따라 자살 전달 방식을 달리함 	담임교사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별 학부모 긴급연락망 사전 확보 •가정통신문 발송 •자녀에 대한 우려사항 발견시 학교에 도움 요청, 상담 •자살소식에 대해 추측이나 짐작한 내용을 학부모님들끼리 서로 주고받지 않도록 당부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학부모 지원담당자
		언론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매체에 먼저 자살 관련 정보를 주지 않음 •언론대응의 일원화·언론대응담당자 선정 •공식적 사안보고서(fact sheet) 활용 •전교직원 사안보고서 숙지 •학교 사후개입 및 지원기관 공개에 중점 •언론접촉 내용 기록 •자료 수집 및 평가, 보관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관리부 언론대응담당자
2	학급 위기개입 (자살 발생 후 48시간 이내)	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개입 시기, 대상 결정, 자살관련 정보 조사 •소개: 개입 목적, 시간, 과정, 규칙 안내 •사실 확인: 사실적 정보와 추측 정보 구별 •경험 공유: 경험 후 생각, 느낌, 행동 등 이야기 나누기 •대처: 스트레스대처 교육 •종결: 개입에 대해 느낀 점 공유, 특별상담실 안내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학생 지원 담당자, 외부 정신건강전문가
		고위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리닝 1단계(준비): 고위험 학생 명단 확보 •스크리닝 2단계(관찰, 고위험 학생 스크리닝): 학급 위기 개입 도중 심각한 증상을 보이면 특별상담실에 의뢰 • 고위험 학생 대상 상담 및 정신과 의뢰 	
3	특별상담실 운영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상담실 설치 및 안내 •특별상담실 상담 운영 •의뢰 경위에 따른 상담 구조화 •자살위험스크리닝 및 자살위험수준 면접 평가 •학생의 자살위험성(하~중)에 따른 의뢰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학생 지원 담당자, 외부 정신건강전문가

4	장례식 참석 (7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식 참여자 결정 •장례식 참여 및 나누기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장 및 학부모 지원담당자, 담임교사/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5	위기관리위원회 활동평가 및 심리적 경험보고 (1~7일 매일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발표 및 평가, 심리적 경험보고 •향후 개선 사항 및 활동 계획 	위기관리위원회

3) 사후개입 추후관리 단계(장기간)

	업	무	담당자
1	지속적 관찰 및 개입 (장기간의 해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일 및 기일, 졸업식 등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 행동 변화 등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 학생 발견 시 상담 의뢰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 지원 부장 및 학생지원 담당자, 학급 담임교사

제 3 장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의 실제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준비 단계

1. 자살 진위 파악

Ⅰ 가. 목적

- 발생한 사건이 자살인지, 사고인지를 파악한다.

Ⅱ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학교안전관리부장,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

Ⅲ 다. 수행 시기 및 대상

- 교내 자살 발견 즉시 / 위기관리위원회, 목격한 학생 및 교직원, 담임교사, 경찰, 의료진
- 교외 자살 소식 접촉 즉시 / 위기관리위원회, 담임교사, 학부모, 경찰

Ⅳ 라. 수행 절차

1) 학교 내 발생 시

- ① 현장을 우선 통제하고 목격자(시신발견자)를 격리한다.
 - 응급조치 및 구명조치를 취한다(119 구조대 협조).
 -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한다.
 -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관리부원들은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들을 격리시킨다.

-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이하 부원)은 자살 상황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을 별도로 만난다.

② 목격자(시신 발견자)의 자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 언제 무엇을 보았는가?
(예시) 친구와 복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밖을 내려다보니 한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예시)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내가 아는 다른 반 친구였다. 달려가 애를 흔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 무엇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생각했는가?
(예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몰라 위층을 올라다보니 자살한 학생반 아이들이 우르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렸어’ 하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 경찰과 의료진으로부터 자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2) 학교 밖 발생 시

① 자살 소식을 접한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알아본다.

- 자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을 불러, 자살한 학생 혹은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살하였고 이 소식을 누가 전달하였는지를 질문한다.

② 경찰 혹은 부모 등 자살 소식을 전달한 사람에게 업무담당자가 연락한다.

- 경찰이나 부모가 소식을 전해왔다면, 다시 연락하여 ‘상황’ 및 ‘자살 여부’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2. 경찰조사 협조

가. 목적

- 공식적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자살 상황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발견한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 학생과 교직원을 최대한 보호한다.

나. 담당자

- 현장 보존 등 총괄 :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안전관리부장 이하, 지역 경찰
- 목격자 관리 관련 :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지역 정신건강전문가 협력),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가

다. 대상

자살을 목격한 학생 및 교직원, 자살한 학생의 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사안에 따라서는 전교생 및 전 담임교사 포함)

라. 수행절차

① 목격자는 학교장 및 위기관리위원회에 연락한다.

- 자살 상황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발견한 교직원 및 학생은 시신을 움직이거나 다른 증거를 건드리지 않고 학교장 및 위기관리위원회에 연락을 취한다.

②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은 목격자를 격리·보호한다.

-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은 자살

목격 및 시신 발견자들을 모아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격리시키고 명단을 작성한다.

③ **학교안전관리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현장 접근을 막는다.**

- 학교안전관리부는 현장 보존 및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해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한다.

④ **학교안전관리부는 외부인의 현장 접근을 막는다.**

- 학교안전관리부는 특히 외부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교문을 관리·감독한다.

⑤ **전 교사는 학급 분위기를 안정화한다.**

- 담임교사 혹은 담당과목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 안정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불만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현장 목격은 충격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자꾸 생각나 여러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궁금하고 답답하더라도 참아보자’고 당부한다.

⑥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은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 최초의 목격자부터 경찰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인터뷰 순서를 정한다. 목격한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본 사실을 응답하게 한다.
- 학생 인터뷰 순서를 기다리는 목격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불안해보이거나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가가 ‘지금 표정을 보니 힘들어 보이네요. 어떠세요?’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한다.
- 조사 순서를 기다리는 목격자 중에서 현장을 불가피하게 떠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담당자가 동행한다.
- 목격자가 충격을 받아 실신할 경우 보건교사가 1차 처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다.
- 경찰과의 인터뷰를 마치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장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소집단 위기개입을 실시하여 현재의 감정, 생각 등을 자세하게 이야

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충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 이와 같은 개입을 위해 지역 정신건강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⑦ 경찰조사가 끝나면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한다.

- 필요하면 경찰에서 재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조를 부탁한다.
- 교실(교무실)로 돌아갔을 때 주변에서 아무리 궁금하다고 말하더라도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3. 위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가. 목적

- 파급효과 및 자살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사후개입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 유가족에게 학교의 관심과 애도를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나. 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나. 대상

위기관리위원회, 담임교사(다른 자살 관련 교직원)

라. 수행 절차

1)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 ① 위원장은 모든 팀원들에게 긴급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② 학생이 자살한 학급 담임교사 및 관련 교직원(목격·발견자)에게도 동일사항을 통지한다.

2) 관련 정보 수합

- ① 소집 목적을 설명하고, 각자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 ② 자살 진위 파악 시 수합한 정보를 공유한다.

3) 자살의 학교 내 파급 효과 예측

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살의 파급 효과를 예측한다.

영역	자살의 파급 효과 예측 ⁵⁾
1. 자살사망자의 인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한 학생(교직원)의 인기도가 어떠한가? 자살사망자가 학교, 지역사회 등에 잘 알려지고 인기가 좋은 학생(예, 학생회장 등)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큼. 반면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라면 파급 효과가 덜 심각할 수 있음
2. 자살 접촉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마나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자살을 목격하였는가? 교내 자살처럼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목격했을수록 파급효과가 더 큼
3. 학교의 이전 자살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에도 학생(교직원)의 자살 시도 혹은 자살 사망이 있었나? 학생이나 교직원이 이전에도 자살(시도)한 적이 있었다면 현재 일어난 자살 사고 자체가 주는 충격 뿐 아니라 과거의 위기반응을 되살리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음
4. 다른 위기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에 다른 위기상황이 학교에서 발생했는가? 최근에 교내 폭력사건, 다른 교직원·학생의 사망, 학교 건물 파기사건 등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위기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5. 자살 사고의 발생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가? 학기 중이라면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있으므로 온갖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기 쉬우므로 파급효과가 더 큼. 반면 방학 중이라면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적을 것임(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의 안전관리의 어려움 있음)
6. 자살 소식 확산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 사고 소식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었는가? 자살 사고가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그 소식이 다양한 경로로 지역사회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큼.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을 확대시키고 좀 더 심각한 위기반응을 초래할 수 있음
7. 가용한 자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적, 가족적,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원이 적을수록, 위기반응과 파급효과가 더 심각할 것임

② 사후개입 규모를 결정한다.

- 자살 파급 효과와 상관없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자살 소식을 전달하고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파급 효과가 비교적 적을 경우 특정 학생, 학급, 학년을 주된 개입 대상으로 삼아 신속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학교 자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④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할지를 결정한다.

4) 자살 정보 공유 방법 결정

① 공개할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

- 자살사망자의 인기도, 자살 사고 접촉 수준, 학교의 이전 자살 발생 여부, 다른 위기의 발생, 자살 사고 발생 시기, 자살 소식 확산 정도, 가용한 자원 수준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개 여부, 공개 대상 및 수준을 부모와 협의한다.
 - 부모에 따라서는 자살 사망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살 소식을 감출 경우 온갖 억측과 소문으로 오명을 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사실 정보 제공이 중요함을 밝힌다.
- 공개 대상은 사안에 따라 자살자와 친한 학생/ 자살한 학생 학급 및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 학급/ 동학년/ 전학년/ 학부모 포함 수준으로 구분하여 택한다.

② 대상별 공개 방법을 결정한다.

- 교사 대상 : 공식 서한을 학교 홈페이지 중 교직원 전용 창에 올려놓고, 이

5) Brock, Sandoval, & Lewis (2001). p. 103. 학교 위기 영향력 평가 시 고려사항 참고.

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고 모든 교직원들에게 알려 자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한다.

- 학부모 대상 : 파급효과에 따라 해당학급, 해당학년, 전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 소식을 전달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이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③ 자살에 영향받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 대상 개입절차를 수립한다.

- 자살 위험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 방법, 담당자를 결정한다.

5) 사후개입 준비

① 사후개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학급 위기개입 대상으로 결정된 학급에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학생 명단을 확보한다.
 -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 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등)이 있는
 - 평소 개인, 가족문제, 관계문제(따돌림 등)로 스트레스가 많은
 -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험이 있는
 -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 자살자의 친구(이성친구)나 형제·자매
- 학급 위기개입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왜냐하면 동시에 개입할 때 학생들간 온갖 잘못된 소문과 억측, 불필요한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개입 당일 오전 중으로 모두 실시하여 소문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입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청, 다른 학교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입인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개입전문가가 실제 너무 부족하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예시) ㉠자살한 학생 학급⇒ ㉡자살한 학생과 친한 친구들이 속한 학급⇒
㉢자살한 학생의 형제, 자매 학급 등

② 개입장소를 확보한다.

- 학급별 위기개입을 실시한다.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자살자가 속한 학급,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이 있는 학급, 자살자와 친한 친구가 있는 학급은 학생들을 약 15~20명을 한 조(한 학급당 최소 2개조 구성)로 묶어 개입함으로써 학급 학생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개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별상담실을 마련한다.

이때, 기존에 있던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상담실은 문제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상담실을 이용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살과 별도로 다른 개인사정으로 상담실을 찾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 일반상담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교직원 긴급연락망을 가동한다.

- 자살이 방과 후에 일어났다면 바로 다음날 아침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긴급연락망을 통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자살 소식을 알린다.
- 교사 긴급회의 소집 일정을 알린다. 참석 대상에는 위기관리위원회 외에도 자살한 학생 학급, 그리고 매우 친한 학생이 속한 학급, 형제·자매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와 교과목 담당 교사,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이는 교사들을 포함한다.

- 자살이 수업 중에 발생했다면, 자살 진위 파악 후 공식적 사안 보고서(fact sheet)를 작성하는 대로 교직원들을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사고소식을 전달한다.

④ 학부모 응대 담당자를 정한다.

- 학부모 응대 담당자는 학교장 비서실, 행정실 직원 중 한 사람을 선정한다.
- 담당자는 학부모 및 외부인의 문의 전화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사후개입 대응책을 숙지하고 아래의 사항을 전달한다.
 - 자살 관련 소식을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게 되면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게끔 공식적 사안보고서에 기반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한다.
 - 지속되는 문의에는 ‘학교의 사후개입 대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자녀에 대한 걱정일 경우 사안에 따라 교내 상담자에게 연계하거나 외부 협력기관(정신건강전문센터, 정신과 등)으로 연계시킨다.

⑤ 사후개입 영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학교 안전 확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 등 개입영역별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점검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한다.

⑥ 학사 일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자살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과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을 계획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사 일정을 유지하는 것은 급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매우 어수선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구조(structure)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학생들의 기존 대처능력을 회복하도록 조력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할 사항이다.
 - 자살 발생 시 학사 일정의 연기는 자칫 자살에 취약하거나 자살위험에 놓인 학생들에게 ‘자살이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

- 기본적으로는 자살 발생 시 관할 교육청 및 지역사회 기관, 다른 학교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위기상황에 대처하면서 본래의 학사 일정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출석과 결석, 지각, 조퇴 등 출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 교내에서 자살이 발생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살 발생 과정 혹은 사체를 목격한 경우
 - 소풍, 축제 등 학생의 안전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 행사 당일
 - 이 밖에도 발생한 자살의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예측되고,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휴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자살자 가족 접촉 및 애도 표현

① 애도를 전달한다.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에 대한 애도를 전한다.

② 자살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의 정보를 얻는다.

부모님이 알고 있는, 자살한 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학생들의 명단을 얻는다.

③ 학교에 대한 부모의 바람을 듣는다.

• 부모가 자살 대신 사고사 처리를 원할 때

- 부모가 사고사 처리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경청한다. 부모의 바람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한다.
- 거짓 소식 전달이 학교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한다.

- 많은 소문과 억측이 나돌 수 있으며 이는 자살한 학생과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과 모방자살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돕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 자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보 전달방법과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여 ‘자살 사실 전달’에 대한 합의를 이끈다.
 - 자살로 공표되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과 불편함에 대한 대처방안을 충분히 함께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부모가 학교의 책임을 물을 때(예, 따돌림과 같이 선행사건이 있을 경우)**
 - 학교의 책임을 묻는 이유와 부모의 고통과 괴로움을 조용히 경청하며 공감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한다.
 - 유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살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따돌림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전달한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살자 본인 외에 어느 누구도 질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부모가 신뢰하는 주변 자원(친척, 이웃, 성직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분들에게 부모의 애도를 조력하도록 도움을 구한다.
 - **부모가 학교의 공식적 추모행사를 요구할 때(교내 운구행렬 등)**
 - 우선 부모의 바람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한다.
 - 자살한 학생에 대한 공식적 추모행사가 자살에 취약하거나 자살위험에 놓인 학생들에게 미칠 과장을 설명하여 공식적 추모행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협의한다.
 - 장례식 절차 및 참여 등에 대한 학교의 협조 방법을 소개한다.
- ④ 도움이 될 만한 지역사회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더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역사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원한다면 연락을 취해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장례식 날짜 및 기간을 확인하고, 학생 및 교직원 참석 가능여부를 물어본다.

사후개입 점검 체크리스트

☀ 학교 안전 확보 관련

항 목	내 용	확 인
1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장소를 통제한다.	<input type="checkbox"/>
2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목격자를 격리, 보호한다.	<input type="checkbox"/>
3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시신 수습 및 사고 뒤처리를 관리한다.	<input type="checkbox"/>
4	교내 위험 시설 목록 및 담당자 명단을 확보한다.	<input type="checkbox"/>
5	위험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6	교내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다(옥상, 계단, 창문, 창고, 화학약품 등)	<input type="checkbox"/>
7	방법·방화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	<input type="checkbox"/>
8	자살 사고 발생 직후 학생의 출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input type="checkbox"/>
9	자살 사고 발생 직후 학사 일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input type="checkbox"/>

☀ 언론 대응 관련

항 목	내 용	확 인
1	모든 언론매체를 담당할 언론대응담당자를 정한다.	<input type="checkbox"/>
2	공식적 사안 보고서(fact sheet)를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3	언론 요청시, 사안보고서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4	전화 응대 직원에게 언론 대처 양식을 제공하고 대처방법을 안내한다.	<input type="checkbox"/>
5	언론매체의 모든 인터뷰를 담당한다.	<input type="checkbox"/>
6	언론과 접촉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input type="checkbox"/>
7	언론매체와 접촉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input type="checkbox"/>
8	교육청에 구두보고 및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input type="checkbox"/>

☉ 지역사회 연계 관련

항 목	내 용	확 인
1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2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기관(상담센터,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및 자원을 목록화한다.	<input type="checkbox"/>
3	자살위험이 높거나 자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청소년을 정신건강전문기관에 의뢰한다.	<input type="checkbox"/>
4	도움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연계한다.	<input type="checkbox"/>
5	타학교(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 친한 친구/이성친구가 있는)에 자살상황 및 유의사항을 알린다.	<input type="checkbox"/>
6	외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요청 사항을 합의한다.	<input type="checkbox"/>
7	지역사회 연계 결과를 보고한다.	<input type="checkbox"/>

☉ 학생지원 관련

항 목	내 용	확 인
1	학생들에게 배포할 자살 소식 안내문을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2	학급단위로 위기개입을 실시한다.	<input type="checkbox"/>
3	자살위험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 학생 명단을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4	특별상담실을 운영한다.	<input type="checkbox"/>
5	필요에 따라 학생을 상담전문기관 및 정신과에 의뢰한다.	<input type="checkbox"/>
6	상담 개입 결과를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7	개입 및 의뢰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8	자살한 학생의 생일, 기일, 졸업식 관련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input type="checkbox"/>

☼ 교직원 지원 관련

항 목	내 용	확 인
1	사안보고서에 기초하여, 교직원에게 제공할 자살 소식 내용을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2	교직원에게 자살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긴급연락망을 가동한다.	<input type="checkbox"/>
3	교사 대상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input type="checkbox"/>
4	교사에게 자살 소식 전달 및 특별상담실 안내 방법을 교육한다.	<input type="checkbox"/>
5	필요시 교사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input type="checkbox"/>

☼ 학부모 지원 관련

문 항	내 용	확 인
1	유가족과 접촉하여 상황을 파악한다.	<input type="checkbox"/>
2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현한다.	<input type="checkbox"/>
3	부모님이 알고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학생(자살한 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 등)을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4	유가족이 학교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5	장례식 날짜 및 기간을 확인하고 학생 및 교직원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6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작성하고 전송한다.	<input type="checkbox"/>
7	도움이 될 만한 지역사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input type="checkbox"/>

4. 공식적 사안보고서 작성

가. 목적

- 자살 상황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사안보고서로 작성하여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시 사실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한다.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

다. 수행 절차

1) 공식적 사안보고서(fact sheet) 작성

① 공개할 정보 내용 및 범위, 대상 결정

-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살 관련 공식 서한, 가정통신문, 학급위기개입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될 공식적 사안보고서를 작성한다.
- 위기관리위원회, 언론 대응 담당자, 담임교사가 함께 만든다.
- 본 내용은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관리부 및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부 소속 모든 교직원들은 모두 공유하되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교육청에는 자살 발생 당시(자살 소식 접촉 당시) 신속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추후 문서를 작성한 후 교육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자살에 관한 사실 정보(예시 : 사망 일자, 학교급, 학년, 성별)
 -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 이름은 노출하지 않음
 - 자살 수단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음(소문이 아직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살 수단과 정황을 굳이 공개하지 않으며, 이미 사고소식

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추락, 목매 등 공식적 자살 사인 용어 수준
에서 공개)

- . 자살자의 자택 주소, 부모의 근무처 등 공개하지 않음
- 사인이 자살임을 명기(예시 :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로 사망하였
습니다. 자살로 숨졌습니다)

• 공식적 사안보고서(예시)

<p>공식적 사안보고서 양식(예시 1)</p> <p>일자 : _____ 보고자 : _____</p> <p>사실 정보 요약 :</p> <p><u> 월 일 본교 1학년 여학생이 오전 11시경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u></p>	
<p>1. 어떤 일이 발생했나?</p> <p><u>여학생이 아침 정시에 등교하였고 오전 2교시 수업시간에는 교실을 이탈하여, 3교시 수업 도중 학교 건물에서 추락하였음</u></p> <p><u>(교내 자살로 이미 소문이 퍼졌기에 자살 방법에 대해 공식적 수준에서 공개함)</u></p>	<p>정보 출처</p> <p>-학부모</p> <p>-담임교사</p> <p>-2교시 수학과목 교사</p>
<p>2. 관련된 사람은?</p> <p><u>본관 경비원 ○○○</u></p>	<p>-본관 경비원</p> <p>-1층 1반 과학 과목 교사</p>
<p>3. 그 사람들은 어떤 일로 관련되었나?</p> <p><u>경비원 ○○○은 건물 밖에 누워있는 여학생을 발견하였음</u></p>	<p>-경비원</p>
<p>4. 어디에서 발생했나?</p> <p><u>본관 건물 옥상</u></p>	<p>-옥상관리 담당자</p>
<p>5. 무엇 때문에 발생했나?</p> <p><u>알려지지 않음</u></p>	<p>-담임교사</p>
<p>6. 언제 발생했나?</p> <p><u> 월 일 오전 11시</u></p>	<p>-경비원</p> <p>-의료진</p>
<p>7.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가?</p> <p><u>사체 목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u></p>	
<p>8. 기타 사항</p> <p><u>여학생의 친구들, 반 학급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u></p>	

- ② 자살한 학생의 실명, 자살시간 및 수단, 정황, 추정 원인 등 비밀을 보장한다.
- 위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교직원들은 교내 자살관련 정보 제공시 불필요하게 자살한 학생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 위기관리위원회 및 교직원들은 자살관련 정보 공유시 구체적 사망시간(예, 오전 10시 30분), 자살 수단(예, 아이폰 줄로 옷장 문고리에 걸어서), 자살 정황(자살 전후 상황), 추정된 원인(예, 따돌림), 유서의 유무 및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5. 관련 기관 협조 요청

Ⅰ 가. 목적

- 관련 행정기관(교육청)에 보고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일관된 대응책을 공유한다.
- 다른 학교에 자살한 학생의 형제, 자매, 친구(이성친구)가 있을 때 소식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외부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 교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Ⅰ 나. 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

Ⅰ 다. 대상

교육청, 다른 학교, 외부 전문기관

Ⅱ 라. 수행절차

1) 교육청

① ‘학생 사안 보고서’ 자료 작성 및 제출

-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 규정을 살펴본다.
- 교육청의 학교생활안전지침을 참고하여 ‘학생 사안 보고서’ 자료를 작성한다.
-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 작성한다.

〈작성해야 할 것 내용〉

- 자살한 학생 혹은 교직원 성함, 성별, 학년, 학급, 집 주소, 가족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자살 발생 일시 및 장소
- 자살 관련 선행 사건 유무 및 내용
- 가족 배경
- 평소 학교 생활 태도 및 학업 성적
- 학교의 특이사항(이전 자살 시도·사망자 발생 경험 등)

〈작성하지 말아야 할 내용〉

- 자살 원인의 추측, 자살 정황

〈교육청에서 요청할 때 추가적으로 작성〉

- 자살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 및 교직원 명단
- 자살한 학생과 매우 친했거나 갈등했던 학생 및 교직원 명단
- 지역교육청의 학생 생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교육청과 일관된 대응책을 공유한다.

- 교육청에 제출한 사안보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 교육청에 자살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 추후 사후개입 세부계획을 마련한 후 교육청에 제출하여 일관된 대응책을 공유한다.

③ 지원 사항을 논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지원을 받는다.
(예시 : 학생생활지원단(WeeCenter) 상담자 파견 등)

[학교 현행 보고서 사례 예시]

학생 사안 보고서

OO고등학교장 <직인>

1. 학교	OO고등학교 (☎:)	학교장	OOO
2. 인적사항	학생	성명: OOO (3)학년 (2)반, 성별(여)	
		성적(상·중·하) 근태상황(불량) 상벌관계(없음)	
	보호자	성명: 박현철 직업: 연구원	
3. 사안명	자 살		
4. 발생일시	2010. 4. 15. 10시~12시 경	장소	OO동 OO 아파트
5. 사안개요			
<p>○ 2010년 4월 15일(목) 오전 10시~12시경 본교 3학년에 재학 중인 OOO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목맨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음</p> <p>○ 사고 2일 전(4월 13일, 중간고사 이틀 째) 학생이 등교한다고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1일 전에 부모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음</p> <p>○ 학생은 가출한 지 이틀만에 본인 집 아파트 옥상에서 목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로 신고되었고 경찰이 학교에 사고 소식을 전달함</p> <p>○ 학년 초부터 질병 등의 이유로 결석 및 조퇴가 잦았음</p> <p>○ 학생은 친한 친구가 거의 없었고, 부모와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 자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함</p> <p>○ 유서가 없으나 시기적으로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시험성적이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보아 학업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부적절한 내용)</p>			
6. 조치 및 지도내용(향후 지도계획 포함)			
○ 학생의 부모님께 심시한 조의를 표함			
7. 보고일자	2010. 4. 17.	보고자(직): 교감	성명: OOO (인)

※ 사안발생 즉시 수문없이 모사전송(FAX : 000-0000-0000)

※ 발생보고(유선)→서면보고→종결보고(경찰입건, 학교 징계 등)

※ 관련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관련자'와 '보호자' 인적사항을 별지에 작성 제출

2) 다른 학교

- ① 자살한 학생에게 형제·자매/친구·이성친구가 있는지 조사한다.
- ②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친구·이성친구 목록을 만든다.
- ③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친구·이성친구가 속한 학교 연락처를 확보한다.
- ④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친구·이성친구가 속한 학교에 연락하여 자살 상황 및 유의사항을 알린다.
 - 자살 소식을 이미 접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친구·이성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반응을 관찰한다.
 - 도움이 될 만한 외부 전문기관 정보를 공유한다.

3) 외부 전문기관

- ① 상시 활동 중 외부 전문기관 목록을 준비하고 연계를 맺는다.
 - 외부 전문기관 목록을 확보한다.
 - 학교는 평소에 정신건강전문가가 부재할 경우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외부 정신건강전문가 1인을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기관, 법률관련기관 목록을 마련한다. 각 기관의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등 정보들을 목록화한다.
 -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기관 대상 지원 요청사항을 협의한다.
(예시: 학급위기개입, 자살위험스크리닝, 교직원 대상 사후개입 교육, 자살 현장 목격자·시신 발견자 대상 위기개입 / 자살에 대한 책임소재로 부모와 학교간 분쟁 시 중재)
- ② 자살 발생 후 연계된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을 지원받는다.
 - 외부 전문기관에 연락한다.
 - 추후 자살위험에 처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학생(교직원)을 발견했을

때 의뢰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 거주지로 가까운 전문기관을 선택한다.

- 학교에서 먼 기관으로 추천해주길 바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문기관 목록을 최대한 확보해둔다.

- 현재 위기상황에 가장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소개받는다.
-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방문시기, 개입 대상, 개입 장소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 외부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면 개입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장 및 위기관리위원회와 함께 긴급회의를 갖고 외부전문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추후 외부 전문가의 개입 계획을 듣고, 협조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전문가가 개입을 마치면 개입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회의를 갖고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적용하고 관리한다.)

II. 사후개입

1. 교내외 자살 소식 전달

Ⅰ 가. 교사

1) 목적

- 관련 교사들에게 신속하게 자살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살 소식에 영향받는 교직원이 있다면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2) 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교직원 지원 담당자

3) 대상 및 시간

- 대상 : 모든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목 담당 교사 등 전체 교직원
- 시간 : 40~50분(1교시)

4) 수행 절차

- ① 자살 관련 사실을 공유한다.
- ② 사후개입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개입과정 소개
 - 위기관리위원회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후개입 활동, 관련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 학급별 위기개입 계획과 일정을 알린다.

- 예상되는 학생 반응 및 대처방법 안내
-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 학생들의 예상 질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살사건 발생 후 학급에서의 행동관리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전달한다.
- 자살위험이 엿보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이 있는지 관찰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위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한다(비밀 유지 엄수 조항 강조).

- 자살에 대한 사전 취약성이 있는 학생(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취합할 것)
 -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
 -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학생
 - 자살한 학생의 친구(이성친구)나 형제·자매
 -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험이 있는 학생
 - 정신과 입원·통원 경험이 있는 학생
 - 평소 개인, 가족문제, 관계문제(따돌림 등)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 자살 소식에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관찰할 것)
 - 매우 가까운 친구가 자살했거나, 직접 목격했는데 정서적 반응이 전혀 없을 때
 - 울며불며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할 때
 - 극단적인 자기비난 혹은 자신을 처벌하는 분노반응을 보일 때
 -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암시적인 표현을 할 때
 -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말이나 표정과 매우 다르게 행동할 때

- 교사 개인의 예상 반응 및 대처방안 안내
- 교사 역시 자살에 따른 충격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현재 떠오르는 생각, 심정에 대해 서로 공유할 기회를 갖는다.
- ‘멍한 상태/ 불안, 죄책감 등의 고통스런 감정/ 불면, 악몽 등 신체반응이 동반될 수 있으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처 전략과 도움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시) 혼자 있기보다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 힘든 마음을 나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쉽게 몰두 할 수 있는 일도 좋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 언론 및 기타 외부기관 응대
 - 만약 언론에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접근해온다면 학교에서 '언론 대응 담당자(혹은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가 별도로 있음을 밝히고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 학부모 응대
 - 학부모 응대 담당자(예를 들어, 학교장 비서실이나 행정직원)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학부모 가정통신 발송시 연락처를 이 담당자로 통일하여 안내한다.

③ 의견을 교환하고 마무리한다.

- 사후개입 안내를 마치면 교사들의 생각, 감정,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는다.
- 사후개입 관련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④ 교직원 대상 후속 심리적 경험보고 기회를 마련한다.

- 자살 발생 후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후속 심리적 경험보고 시간을 마련한다.
- 후속 심리적 경험보고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자살 소식 전달 등 학교 위기상황 수습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겪은 스트레스와 고충을 경감시키고, 자살에 영향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심리적 경험보고 시간을 마련한다.
 - 우선 자살 사고 발생 전 후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지, 이에 대해 현재 떠오

르는 생각, 심정에 대해 서로 공유할 기회를 갖는다.

- 급성 스트레스 반응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처 전략과 도움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다시 강조하여 안내한다.

Ⅰ 나. 학생

1) 목적

- 학생에게 신속하게 자살에 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소문과 억측의 유포를 막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영향과 고통을 줄인다.

2) 담당자

담임교사, 교과목 담임교사

3) 대상 및 시간

전체 학생(사안에 따라 규모 조정) / 10분(1교시)

4) 수행 절차

① 담임교사가 학급 단위로 전달한다.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일원화한 '사안보고서' 수준에서 소식을 전달한다.

② 아래에 제시한 사항을 강조하여 전달한다.

- 사실적 정보만 명료하게 전달한다.
- 자살은 자살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자살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강조한다.
- 어느 누구도 이번 자살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다.
- 자살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이며,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려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신뢰할 만한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와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자살은 예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아래 사항을 강조한다!!

▶ 사실적 정보만 전달

☆☆이가 오늘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 자살은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

☆☆이가 어떻게 자살하게 되었는지는 실제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 누구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을 강조

여러분이 사전에 알았다고 해서 도움을 주려해도 그 친구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자살은 결국 당사자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책하거나 서로 비난한다면 상처만 될 뿐 숨진 친구나 유가족,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도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 자살은 예방될 수 있음을 강조

그렇지만 자살은 예방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살 생각을 했다가도 도움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보면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도 힘을 내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③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자살하였다’ 정도의 사실을 전달하되 시신이 어떻게 보였는지,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 학생이 왜 자살했는지를 다른 학생들과 의논하지 않는다.
- 자살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미화하지 않는다.
- ‘아무도 자살을 막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 시신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는다.

화단에 누워있었는데 가보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표정이 슬퍼보였어요(×).

▶ 학생들과 자살의 원인을 의논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가 왜 자살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많이 놀랐을텐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 자살행위를 미화하지 않는다.

그애가 참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행동은 흉내낼 수 없을거예요(×). 마음이 참 착한 아이라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자살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도 ☆☆☆의 자살을 막을 수 없었어요(×).

☆☆☆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 유의사항

- 자살 소식은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지하거나, 교내방송 등 **대규모로 동시에 전달하지 않는다.** 대규모 집단에서 학생들이 격한 정서반응을 보이거나 실신하는 등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교사나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자(전문상담교사 등) 등 학생들과 이미 친숙한 성인들이 자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Ⅰ 다. 학부모

1) 목적

- 학부모에게 자살 소식 및 학교의 대처행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소문과 억측의 유포를 막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영향과 고통을 줄인다.
- 자살 사고의 영향에 노출된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학생·교직원·학부모담당자), 학부모 응대 담당자, 교사

3) 대상 및 방법

전체 학부모(사안에 따라 조정) / 가정통신문 발송(e-mail 활용) / 전화

4) 수행 절차

- ① 자살 소식을 전달받은 교사들은 학급별로 학부모 긴급연락망을 가동한다.
- ② e-mail이나 서신을 통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렸음을 안내한다.
- ③ 자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학부모 응대 담당자 연락처를 알린다.
- ④ 자살 소식에 대해 추측이나 짐작한 내용을 학부모님들끼리 서로 주고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자살 사고 소식
공지문(학생 대상)**

오늘 우리학교 학생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을 때 실명 공개)이 자살로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고 힘들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학생이 어떻게 자살하게 되었는지 실제로는 알 수 없지만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둘째, 어느 누구도 비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알았다고 해도 사망한 친구가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면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서로 상처만 남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일로 주변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반응하더라도 서로 존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충격 때문에 멍한 상태일 수도 있고 너무 슬프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망한 친구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이야기들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유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둘째, 자살 행동을 좋게 바라보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살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짓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예방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생각했다가도 도움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다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사고 소식
공지문(학생 대상)**

학생 여러분!

상담선생님들이 이번 자살 사고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특별상담실(본관 몇 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다면 특별상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먼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특별상담실로 가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

학교는 예정대로 정상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머물면서 선생님의 보호 하에 수업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른 일로 상담실을 찾고 싶은 학생들은 본래 상담실로 찾아가면 됩니다(본관 몇 호).

20 . . .

교장 (인)

문의처 : _____

자살 사고 소식 공지문(학부모 대상)

학부모님께

우리학교 학생에게 일어난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편지를 올립니다.

월 일 오전, 우리 1학년 여학생 중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학교 분위기를 정상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 특별상담실을 개설하여 상담자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분들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아래 사항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생이 어떻게 자살하게 되었는지 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고,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점을 자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어느 누구도 비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학생들이 친구가 자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해도 사망한 친구가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결국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 서로 상처만 남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자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은 충격 때문에 멍한 상태일 수도 있고 너무 슬프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어 산만한 상태에 있거나 반대로 학업에만 열중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시면 좀더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살 사고 소식 공지문(학부모 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망한 학생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이야기들은 자녀들과 주고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유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둘째, 자살 행동을 좋게 바라보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살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짓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예방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생각했다가도 도움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다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녀가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너무 산만해졌거나 무감정이 불안정해지는 등 자녀의 반응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인식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_____ (학부모 응대 담당자의 성함 및 전화번호)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이 기간에는 자녀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녀분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혹시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 측에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 . . .

교장 (인)

문의처 _____

교직원 상담신청서(교직원 메모용 2)

성명 : _____ 학년 _____ 반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혹시 힘든 경험을 하셨거나 걱정거리가 생기셨다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불안해질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뭔가 하지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은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 앞에서 너무 감정을 표출하게 될까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원하는 시간을 작성해 주십시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2:00)						
오후 (12:00~18:00)						

20 . . . (인)
위기관리위원회 학생·교직원·학부모 지원담당자

문의처 _____

Ⅱ 라. 언론 매체 및 방송 대상 자살 소식 전달

1) 목적

-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실적 정보를 전달한다.
- 학교가 어떤 자살 사후개입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살 영향 감소에 기여한다.

2) 담당자

- 언론대응 담당자(교장 혹은 교장이 지정한 자)

3) 대상

기자, 리포터, 각종 언론 매체

4) 수행 절차

① 언론매체에 먼저 자살 정보를 주지 않는다.

- 학교 내에서는 자살 소식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살 소식을 일부러 언론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자살을 전달하는 것은 자살한 학생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자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언론에서 먼저 알고 정보를 요청한다면 사실적 정보를 제공한다.

언론에서 요청했을 때 거절한다면 잘못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에서 요청하면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사후개입 준비시 마련한 공식적인 사안보고서(fact sheet)를 활용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사안보고서’의 내용을 다음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 . 정확한 정보인가?
 - . 언론 공개가 합법적인가?
 - .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 . 부모가 공개를 허용한 내용인가?
- 언론에서 요청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응답 내용을 준비한다.
 - . 학생이 자살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 . 학생이 혹시 반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은 아닙니까? 등

③ 전 직원이 공식적 사안보고서 내용을 숙지하게 하되 언론대응담당자만이 언론과 접촉하도록 한다.

- 직원에게 언론이 접촉해온다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대처한다.
 - . 무조건‘전혀 모릅니다’,‘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지 않는다.
 - . 언론대응담당자가 별도로 있음을 밝히고 연결한다.
 - . 언론대응 담당자와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직원이 응대하지 않고 대기하게 한다.
 - . 언론에 대한 전화 응대시 보고서에 적힌 사실적 정보만을 언론에 노출한다.
 - . 그 외의 부적절한 질문(원인에 관한 내용, 자살 수단 및 자살방법, 자살 정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잘 알지 못함’을 명료하게 말한다.

④ 학교의 사후개입 대처 및 지원기관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다.

- 자살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개입하는 활동들을 소개한다(자살소식 공지문 참조).
-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조력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가정통신문 참조).
- 위기상황 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경찰서, 상담센터,

정신건강전문기관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언론 브리핑 시간 마련

교내 자살 발생으로 주변에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면 사안보고서를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브리핑 시간을 마련하여 위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⑤ 접촉 언론 리스트 작성, 자료 수합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 언론과 접촉하거나 전화로 응대할 모든 교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하여 위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접촉한 언론 매체의 종류, 접촉한 기자 및 리포터의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전달한 정보 등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 접촉 언론 매체 리스트 양식 참조

- 위기대응기간 동안 기록된 자료, 스크랩한 뉴스, 방송 CD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합한다.
-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목록화한다.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및 방송 접촉 활동 내용을 평가한다.
- 수집된 자료와 평가 내용을 보관한다.

☼ 유의사항

- 기자가 학교를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론대응 담당자 이외의 **학생 또는 교사를 촬영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은 금지**시킨다.
- 언론매체가 **학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언론매체는 위기현장에 있을 권리는 있지만 학사 일정 및 학교 활동(예를 들어, 수업, 위기개입 등)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 언론매체에 **언론대응 담당자의 연락처만** 제공한다.
- 많은 수의 리포터가 도착한다면 **미디어 센터**를 마련한다. 미디어 센터는 리포터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밖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수 없다면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마련한다.
- 학생이 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한 추측은 결코 허락될 수 없으며 자살에 관한 자세한 정보 노출은 의학적 검사관 또는 다른 전문가들의 책임이다.
- 학교에서는 자살한 학생의 개인 정보(사진, 가족, 인적사항 등)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언론매체 리스트(전화응대자용)

날짜	접촉시간	접촉한 사람 (기자/리포터 이름, 연락처)	처리사항	비고
예시	12:30	인터넷 뉴스 기자	언론대응담당자에게 연락처 전달	

2. 학급 위기 개입

가. 목적

- 학급 위기개입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에 따른 충격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살위기청소년,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여 의뢰한다.

나. 담당자 구성

- 1그룹 당 개입전문가(정신건강전문가) 1인, 보조진행자 1인 2명으로 구성
- 외부 전문가가 개입전문가일 경우, 최소한 한명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위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학교상담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

다. 대상 및 시간

- 학급당 약 10~15명 단위로 1 그룹 구성, 약 45~50분(수업 시간 내)

나. 장소

- 교실 등 학생들이 익숙한 장소,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

라. 수행 절차

1) 학급 위기 개입

개입 1단계 : 소개

① 소개단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진행한다.

- 소개단계 진행 목적 : 개입자와 학생들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학급 위기개입의 의미와 목적,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② (개입자 개인 및 기관 소개) 개입 목적·시간·진행과정·규칙 등을 안내한다.

- 자기 소개 및 개입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이면서도 힘있게 진행한다.
- 진행 규칙을 안내한다.

진행 규칙 예시

1. 한번에 한사람씩 이야기한다.
(※ 이때 개입자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말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비난하지 않는다.
3. 오늘 서로 나눈 이야기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비밀을 지킨다.
4.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든다.
5. (학생들의 추가 의견)_____

- 시작 전에 다른 의견은 없는지 확인 후 다음단계로 들어간다.
- 어려운 용어 사용을 삼가고 학생의 발달적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한다.

③ 개입전문기는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다.

학생들 한명, 한명 관심있게 눈을 맞추면서 자세, 표정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정신적으로 불안해보이거나 힘겨워 보이는 학생은 없는지 관찰한다. 보조진행자 역시 학생들을 관찰한다.

■ 소개 단계 예시

(자기소개, 기관소개, 보조진행자 소개, 개입 시간 및 목적 안내)

(외부 전문가일 경우 자기소개 : 처음 뵙게요. 저는 ☆☆기관에서 왔어요. 저희 기관은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연구나 상담을 하는 기관이에요.)

담임선생님께 여러분이 반 친구를 (어제) 잃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염려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제 얘기를 사전에 들으셨나요?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학생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듣는다).

오늘 여러분을 방문한 목적은 여러분이 좀더 빨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괴로운 마음도 진정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보다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될텐데 우리가 이제부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를 도와주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외부 전문가일 경우 보조진행자 소개 : 자 준비가 되었으면 잠시 후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이야기 진행을 거들어주실 분이 여기 함께 오셨어요. 저희 ☆☆센터에서 함께 상담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룹 형성 후 개입과정 안내)

지금부터 여러분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친구가 자살로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잘 건디고 극복하고 있는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에 한사람씩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확인)

중간에 이야기하기가 힘들거나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다른 선생님(보조진행자)께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안내해주시실 거예요.

게임 2단계 : 사실 확인

① 사실확인단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진행한다.

- 사실확인 단계 진행 목적 : 자살 소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보고 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실적 정보와 추측성 정보를 구분하도록 도움으로써 소문과 루머의 확산을 막는다.

② 친구의 자살에 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개입자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며 학생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답이 너무 없을 때에는 이와 비슷한 반응이 없는지 유사반응을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③ ‘공식적 사안보고서’에 입각하여 사실적 정보가 무엇이고, 추측된 정보가 무엇인지 밝힌다.

- 자살 수단(칼, 농약, 옥상)이나 방법(음독, 추락, 목매 등)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자살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마음을 수용하되 이러한 정보를 아는 해로움에 대해 간략히 말한다.

(예시)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을 듣고 나면 자꾸 생각나거나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같은 상황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해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더라도 그런 정보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살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 상태가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해요.

-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게 응답하며, 학생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친구의 자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공식적 사안보고서에 있지 않으며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추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 사실 확인 단계 예시

여러분께서 ☆☆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 지가 궁금하네요. ☆☆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듣게 되셨나요?

학생 1: ☆☆가 죽기 직전에 엄마랑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옥상 가서 떨어졌다고.

개입 1: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다른 친구는?

학생 2: ☆☆는 이전부터 엄마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학생 3: 중간고사 때 성적이 떨어져서 맞았다고 하던데...

개입 2: 그런 얘기를 이전에 누구에게...(☆☆가요). 그럼 ☆☆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나요? (다시 사실을 다루도록 전환 질문)

학생 4: 아이들이 다 그러던데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입 3: 네 그렇군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은 사람?

학생 5: 며칠 전에... 여자 친구랑 헤어졌는데 대개 괴로워했는데요...

학생 6: 네 그 일로 애가 진짜 속상해했어요.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중략).....

개입(마무리) :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가 등교 길에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가 무슨 이유로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자살에 관한 사실은 단 한가지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친구가 엄마랑 싸워서 죽었다’,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그랬나봐’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다면 그 친구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만드는 것이 돼요.

개입 3단계 : 경험 공유

① 경험 공유 단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진행한다.

- 경험 공유 단계 진행 목적 : 학생들이 자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공유하여,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돕는다.

② 친구의 자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때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하도록 조력한다.

• 학생들이 자살을 목격한 경우

- 학급 학생들이 모두 자살과정을 목격하였을 때 : 친구의 자살 전후로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만졌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학급에 목격한 학생들과 목격하지 않는 학생들이 섞여 있는 때 : 이들을 별도 그룹으로 구성한다. 왜냐하면 목격한 학생이 자기 경험을 자세하게 말할 경우 목격하지 않는 학생들이 들음으로써 2차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자살을 목격하지 않은 경우

- 친구의 자살 소식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소식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어린 학생들이라면, 이 과정을 그림 그리기 등 창조적 활동으로 작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반응을 떠올리고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학생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경험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개입자의 의견을 되도록 덧붙이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친구의 자살 경험 후 현재까지 떠오르는 생각, 느낌, 행동 등 자살로 자신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한다.

- 친구의 자살 이후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 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예) 바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나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죽음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죽고 사는 게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또 죽을까봐 걱정되요.

④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학생들이 자살을 목격했을 때(소식을 접했을 때)의 경험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
- 친구가 자살한 이후 나타난 생각, 느낌, 행동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

⑤ 자살 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임을 알도록 돕는다.

- 공통 반응을 설명한다.

- **신체적 반응** : 집중하기 어렵고,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뻣뻣하고, 잠을 잘 수가 없거나, 악몽을 꿀 수도 있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위가 아프다는 느낌, 기운이 없고,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거나 혹은 과식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음

- **정서적 반응** : 가슴이 멍멍하고 ‘멍’하기만 함. 자꾸 눈물이 나고, 슬프거나 우울해질 수 있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 있고, 불안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음.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떠오름. 마음 속으로 자꾸 자살 사고가 떠오를 수 있음

- **행동적 반응** :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거나 같이 행동하기가 싫어질 수 있음.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공부가 안될 수 있음. 두통약,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친구도 있음

※ 이러한 반응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니 차후라도 이런 반응들을 찾아와 힘들어지면 반드시 도움을 청할 것을 강조한다.

- 설명한 반응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말로 표현하게 한다. 혹은 다른 경험이 떠오른다면 말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다.
- 이때 주의할 사항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반응들이 모두 ‘정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학생들 중에는 ‘마땅히 더 관심을 보였어야 하는데,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등 죄책감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러한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친구의 자살’에 책임이 없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아래와 같이 충격에 따른 영향이 계속될 때에는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음을 알린다.**

- 감정에 압도되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낄 때
- 자기관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 충격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 친구가 죽은 지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 경험 공유 단계
유의사항

- 진행시 학생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약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 개입전문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한으로 반응한다.
 - 학생(○○) : 그냥 멍하니 아무 느낌도 없어요.
 - 개입 : ○○이만 그렇게 느끼는 아닌 것 같죠.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
 - 학생(◇◇) :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그냥 죽을 수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요.
 - 개입 :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가 느끼는 마음 이해가 가네요..
 - 학생 : 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마지막에 봤던 그 친구 얼굴이 계속 생각나요.
 - 개입 : 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들을 해요...
- 개입자는 학생들간 일치되는 경험, 불일치되는 경험이 활발히 공유되도록 연결하는 반응을 한다.
 - 학생(◎◎) : 다른 친구들은 다 우는데 나는 눈물이 안나서... 나는 감정도 없나? 하고..
 - 개입 : ◎◎이만 그렇게 그런 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바라보며) 비슷하게 느낀 사람들이 있죠?
 - 학생(△△) : 그 아이가 우울증 같은 거 걸렸었나? 생각했어요.
 - 개입 : △△는 ☆☆가 마음이 아팠었나 생각했나봐요.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 리더는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말해서는 안되며 개입의 초점은 학생에게 맞추어지도록 주의한다.

게임 4단계 : 대처

① 대처단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진행한다.

- **대처 단계 진행 목적** : 친구의 자살과 같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장례식 등 자살에 관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는다.

② 스트레스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 비록 친구는 떠났지만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될 수 있음을 알린다.
-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게 하고 평소 사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때 개입자는 각 스트레스 방법의 효과성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예시 : 앞으로도 이와 같이 놀랍고 힘든 상황은 발생할 수 있을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나가지겠어요?(‘게임해요, 그냥 참아요’ 등의 학생들의 대답) 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미 해보기도 했고 효과를 보거나 별로 효과를 못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참는 것은 어때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본 효과적인 스트레스 방법은 당연히 사용하고 거기에다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실천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몇가지 소개해드릴게요.

- 기초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소개한다.

- (1) 현재 떠오르는 생각을 ‘잠깐’ 멈춘다. 잘 안되면 ‘잠깐!’, ‘잠깐!’ 큰소리를 낸다.
- ⇒(2) 호흡을 가다듬는다. 이때 빠르게 호흡하다가 점차 긴 호흡으로 옮겨간다.
- ⇒(3)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구구단(거꾸로 100세기 등)을 외운다.
- ⇒(4)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작한다.
 -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목욕을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마음을 열고 자기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듣고, 과일향을 맡거나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 그밖에 쉽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 ⇒(5) 기분이 전환되면 본래의 활동으로 돌아간다.

- 이밖에도 다른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이 있는지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돕는다.
- 친구의 자살과 같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구나 경미한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우울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린다.
 - 극도로 슬픈 감정을 느낌
 - 너무 슬퍼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거나 좋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짐
 - 많은 시간 피곤하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느낌

③ 장례식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 오늘 이시간 이후 장례식 및 기타 활동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게 한다.
 - 장례식에 참석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후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결정하게 한다.
 - (학생이 자살한 학급) : 자살한 학생의 책상이나 조의를 표하는 꽃을 언제까지 둘 것인지, 소지품은 누가 어떻게 정리하고 유가족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이후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친구의 자살’에 관한 기억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에 대한 추억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줄고 앞서 말한 증상들도 어느새 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자살한 학생의 형제·자매가 있는 학급의 경우, 그 학생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이 내용은 핸드아웃을 참조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진행 상 유용하다.

☀ 유의사항

- 학생이 이런 대처방법을 익히는데 대해 '친구는 고통 속에 떠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만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 같아요' 하고 죄책감을 표현할 수 있다.
⇒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살로 떠난 친구라면, 몹시 아끼는 친구가 자신의 죽음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살길 바라겠어요? 이러한 대처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살한 친구에게 수치를 주거나, 그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잊어버리려는 행동은 아니에요' 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게임 5단계 : 종결

① 종결단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진행한다.

- **종결 단계 진행 목적** : 자살과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교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인식하도록 돕는다.

② 개입에 대한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이제까지 개입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낀 점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예시 : 내가 이렇게 멍한 게 정상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친구가 마음 편히 갔으면 좋겠어요.

③ 교내 특별상담실을 안내한다.

- 특별상담실의 운영 기간, 장소, 운영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청할 수 있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 힘 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믿을만한 어른이나 상담실로 도움을 구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한다.

혹시 이전에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응급전화번호를 주고, 특별상담실에서 직접 연결해줄 수 있으니 반드시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한다.

- ④ 핸드아웃(관련기관 자료, 1388 안내 등)을 나눠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에 대해 안내한다.

2) 고위험 학생(자살위험에 처한 학생,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스크리닝

스크리닝 1단계 : 준비

① 사전에 고위험 학생 명단을 확보한다.

-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한 경험이 있는 학생, 자살한 학생의 친구(이성친구)나 형제·자매,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험이 있는 학생, 정신과 입원·통원 경험이 있는 학생, 평소 개인·가족·관계 문제(따돌림 등)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 되도록 모든 학급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빠른 시간 내 확보가 어렵다면 적어도 학생이 자살한 학급의 고위험 학생 명단은 학급 위기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구할 필요가 있다.

스크리닝 2단계 : 관찰 · 고위험 학생 스크리닝

① 학급 위기개입을 하면서 고위험 학생이 있는지 관찰한다.

- 개입전문가 및 보조진행자는 사전에 예측된 고위험 학생이 불안정한 태도나 기분 변화를 보이는지를 관찰한다.
-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지 관찰하여 스크리닝 한다.
 - 매우 가까운 친구가 자살했거나, 직접 목격했는데 정서적 반응이 전혀 없을 때
 - 울며불며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할 때
 - 극단적인 자기비난 혹은 자신을 처벌하는 분노반응을 보일 때
 -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암시적인 표현을 할 때
 -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말이나 표정과 매우 다르게 행동할 때

② 학급 위기개입 도중 심각한 증상을 보이면 보조진행자가 개별상담을 한다.

- ‘숨을 못쉬겠다’, ‘어지럽다’,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면 보조진행자는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보건교사와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하도록 돕는다.
- 전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한 상태에 있으면 보조진행자는 특별상담실로 데려가서 특별상담실 상담자에게 의뢰하고 되돌아온다.

3) 고위험 학생의 개별 상담 및 의뢰

① 고위험 학생 명단을 작성한다.

- 학급 위기개입전문가, 보조진행자는 각자 관찰한 대로 고위험 학생 명단을 작성하고 합의하여 결정한 최종 명단을 특별상담실에 전달한다.

② 특별상담실에 의뢰한다.

- 학급 위기개입전문가(담임교사)는 고위험 학생들에게 개별상담의 의뢰과정을 설명하고 특별상담실로 보낸다.
- 이러한 절차는 상담에 대한 사전인식 등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만약 본래 상담에 대해 학교 분위기가 부정적이었다면 이러한 의뢰절차는 자칫 낙인화과정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급 전체 학생을 학습상담, 진로상담 등의 명칭으로 일괄 단회성 상담(면담)을 하면서, 고위험학생들에게만 특별상담실의 의뢰과정을 설명하고 특별상담실로 보낸다. 이때 특별상담실 방문을 학생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놓으면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적 선택에 맡기지 않고 반드시 특별상담실을 방문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③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위기개입 과정 이후에 고위험학생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병원 등 정신건강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학급 위기개입 학생용 핸드아웃

친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은 일이겠지만 친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충격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감정, 평소보다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감정의 동요는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자살하면 흔히 경험하는 현상

- 머리를 갑자기 얻어맞은 것처럼 멍함
 - ‘설마 아니겠지’, ‘꿈이겠지’ 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음
 -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고 슬프지 않음
 -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하는 수궁하는 마음
 -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났지?’ 하는 원망이나 짜증
 - ‘내가 뭘 잘못했나’, ‘신경을 못써줬나’, ‘내가 의지가 못되었나’하는 자책감
 - 슬픔과 고통으로 계속 터져나오는 울음
 - 집중이 잘 안되고,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뻣뻣하고 가슴이 답답함
 - 잠을 잘 못자거나 반복되는 악몽
- ⇒ 이 모든 것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아무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기는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제각각이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과 친했다면

‘그 사람을 도왔다면...’하고 죄책감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도왔다 해도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살에 따른 충격을 잘
극복하려면...

□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 ‘너무 힘들구나. 마음이 괴롭다’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 친한 친구나 신뢰하는 어른들과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 친구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풀어봅니다.
- 쉽게 몰두할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만화를 읽거나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경쾌한 음악을 듣습니다.

□ 언제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 우울 등 감정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낄 때
- 자기관리가 잘 안될 때
- 몇 주가 지났는데도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

□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 부모님 혹은 감정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친구들, 형제·자매들
-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학교선생님이나 어른
- 상담기관(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 #1388)

□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자살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 ‘네가 어떤 상태인지 걱정된다’하고 말을 걸어봅니다. 그 친구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 만약 친구가 계속 힘들어한다면, 주변에서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도록 격려합니다.

3. 특별상담실 운영

가. 목적

- 자살에 영향받은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개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에 영향받은 것으로 의뢰된 학생들을 신속하게 스크리닝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학생·교직원·학부모 지원 담당자) 혹은 외부정신건강전문가

다. 대상 및 시간

- 학생 자살에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괴로움을 느끼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은 학생이나 교사

라. 장소 및 준비물

- 특별상담실(음향시설, 녹음 및 녹화시설 등), 식수, 휴지, 글쓰기 및 그림그리기 활동 준비물

마. 수행 절차

1) 특별상담실 설치 및 안내

① 학생이 자살한 직후 교내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한다.

설치 후에는 위기관리위원회 위원 혹은 외부 정신건강전문가가 항상 자리를 지키도록 한다.

- ② 가급적 조용하고, 조명이 밝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한다.
- ③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을 전달할 때 특별상담실 운영을 안내한다.

이때, 특별상담실은 개별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찾아가며, 수업 중에는 담당과목 선생님의 허락 하에 방문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친한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방문할 경우 자칫 자살 동조적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자살전염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적 방문을 강조한다.
- ④ 학급 담임교사의 협조 하에 사전 취약성이 있는 학생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어떤 학생이 속하는지 미리 숙지한다(학급 위기개입 시 자살위험스크리닝 참조).
- ⑤ 특별상담실 담당 상담자는 학급 위기개입에서 드러난 도움이 필요한 학생 명단을 확보하고 어떤 학생인지 미리 숙지한다.

2) 특별상담실 위기개입상담 운영 절차

- ① 자발적으로 학생이 찾아온 경우
 - 학생이 찾아오면 우선 방명록을 작성한다.

만약 수업 중에 찾아왔다면 담임교사 및 담당과목 교사의 허락을 받고 찾아왔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 긴급회의 때 특별상담실 운영에 관해 미리 안내하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 학생 이름이 이미 확보한 취약성이 높은 학생 명단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학생이 이를 알아차리지 않도록 사전에 학생 명단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경청하고 바로 이어 위기개입 상담을 실시한다.

이때, 학급 위기개입과 마찬가지로 위기개입 과정 소개-사실 확인-경험 공유-대처 단계를 거쳐 상담을 진행한다(학급 위기개입 참조).
 - 개입과정 중 학생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자살위험스크리닝을 실시한다(학급 위기개입 참조).

- 학생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추후 언제든지 다시 도움을 청하러 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종결한다.
- 학생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살위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으로 들어가 자살위험성 수준에 따라 상담 및 정신과에 의뢰한다(자세한 사항은 3) 자살위험 수준 평가 및 의뢰 참조).

② 의뢰된 학생이 찾아온 경우

- 우선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여 어떤 경위로 학생이 의뢰되었는지 숙지한다.
 - 담임교사 혹은 주변 학생, 학부모에 의해 이전부터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으로 관찰되어 특별상담실에 의뢰된 경우
 - 다른 학급의 담임교사, 학생들, 학부모에 의해 이번 자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으로 관찰되어 특별상담실에 의뢰된 경우
 - 학급 위기개입 과정에서 강한 감정적 동요를 보여 보조진행자의 긴급 상담으로 연결된 경우
- 의뢰된 상황에 대한 학생의 느낌이나 생각을 경청하고 위기개입 상담을 적용한다.
 - 교사, 주변학생, 학부모 등에 의해 의뢰된 경우 : 위기개입상담(위기개입과정 구조화-사실 확인-경험 공유-대처단계)을 진행한다.
 - 학급 위기개입 과정에서 긴급상담으로 연결된 경우 : 학생이 현재 상황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떠오르는 생각 등을 최대한 경청하며 존중하여, 학생이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살위험 스크리닝 혹은 자살위험수준 평가를 수행한다.
 - 교사, 주변학생, 학부모 등에 의해 의뢰된 경우 : 관찰을 통해 자살위험 스크리닝을 실시한다(학급 위기개입 참조).
 - 학급 위기개입 과정에서 긴급상담으로 연결된 경우 : 자살위험수준을 평가한다.

- 학생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추후 언제든지 다시 도움을 청하러 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종결한다.
- 학생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살위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으로 들어가 자살위험성 수준에 따라 상담 및 정신과에 의뢰한다(자세한 사항은 3) 자살위험 수준 평가 및 의뢰 참조).

3) 자살위험 수준 평가 및 의뢰

- ① 우선 최근에 '더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이때, 학생들은 자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아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말로 다시 정리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 이제 모든 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 내가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 길을 가다 차가 알아서 쳐주면 좋겠다(누군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 자살한 친구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등

- ②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교내외 상담실에 의뢰한다.

(이 경우, 상담자는 애도반응에 중점을 둔 단기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면 된다. 부록 참조)

그렇지만 언제든지 자살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알려달라고 당부할 필요가 있다.

- ③ 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자살 위험 수준 평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 탐색 절차
 - 자살 생각의 빈도, 강도 탐색 ⇒ 자살 계획 여부 및 구체성 탐색 ⇒ 자살 의도의 심각성 탐색

- 본인 및 가족의 자살시도 경험 유무 등
- 평가 절차에 따라 자살위험성을 ‘최고’, ‘고’, ‘중’, ‘저’로 평가

④ 자살 위험 평가 결과, 위험도 수준에 의뢰 여부 및 기관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 자살위험 ‘저’ : 교내 상담실에 의뢰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단기 안전관리상담을 받도록 돕는다(배주미 외, 2009).
- 자살위험 ‘중’, ‘고’, ‘최고’ : 학생에게 자살위험이 심각함을 공지하고 ‘자살 및 자해, 타살 및 타해’에 관해서는 비밀 유지를 보장할 수 없고 교사와 보호자에게 알려서 학생을 돕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

이때, 학생이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두려운지,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여 마음을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보호자 동석을 통한 추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 자살 위험성이 낮은 학생 대상 애도상담

(특별상담실에서 의뢰, 학교상담실 혹은 외부기관 전문가의 상담으로 진행)

① 자살위험성은 없지만 자살한 학생과 매우 친했거나, 혹은 마음으로 좋아했던 학생들 중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일 경우 상담에 의뢰한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 죽음 관련 개인적 경험, 가족력,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전통 등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 다르므로 학생 반응을 신중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아래와 같은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경험할 수 있는데 현재 학생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경험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신체적 증상 : 집중하기 어렵고,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뻣뻣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없거나, 악몽을 꿀 수도 있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위가 아프다는 느낌,

기운이 없고,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거나 혹은 과식하고 싶은 싶다고 느낄 수 있음

- 심리적 증상 : 가슴이 먹먹하고 ‘멍’하기만 함. 자꾸 눈물이 나고, 슬프거나 우울해질 수 있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 있고, 불안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음. 전혀 집중이 안되고 자꾸 딴 생각이 떠오름. 마음 속으로 자꾸 자살 사고가 떠오를 수 있음
- 행동적 증상 :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거나 같이 행동하기가 싫어질 수 있음.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공부가 안될 수 있음

③ 특히 학생이 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돕고, 학생 자신의 현재 애도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사실이 아닐거야’, ‘믿을 수 없어’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 ⇒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살한 만큼 충격이 클 수 있고, 충격이 크면 눈물도 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멍한 상태’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도록 돕는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애도반응들(슬픔, 분노, 죄책감 등)을 미리 소개하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나?’

친구가 자살한 사실에 대해 사망한 친구를 닮고 싶고 화가 나는 마음 ⇒ 우선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경청하면서 학생이 경험하는 분노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화가 났음을 말로 표현하고 시인하는 것은 분노의 강도를 약화시킨다. 분노가 조절된 상태에 이르면 ‘친구의 자살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에서 이유를 찾다보면 일반적으로 화를 내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 역시 애도하는 정상 반응’임을 설명한다.

• ‘그때 내가 전화를 했더라면’, ‘그애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애한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살한 친구를 돕지 못했다고,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다며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는 마음 ⇒ 죄책감은 죽은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는 주변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마음임을 알도록 돕는다. 그렇지만 친구가 아무리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자살한 친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자살은 매우 복잡한 반응으로 그 친구가 선택한 행동이며, 다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다른 친구도(부모도) 그렇게 죽어버리지 않을까?’, ‘친구가 자살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주변사람들이나 자신도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불안한 마음 ⇒ 그러한 불안 역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불안임을 이해시킨다. 그렇지만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사망한 친구와 다른 사람(성별, 나이, 자라온 환경 등)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격려한다.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불안에 머무르기 보다는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버려서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요’하는 외로운 마음 ⇒ 매우 친했던 친구가 자살하게 되면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겪게 될 수 있고, 생전 친구와의 추억만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활동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 역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태임을 알게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그만두지 않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유가족을 방문하여 고인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다른 친구들의 노력을 거절하지 말고 힘겹더라도 함께 하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힘든 마음 자체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④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조력한다.

친구의 죽음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이 진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많이 나아졌음을 깨닫게 된다. 그 친구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죽은 친구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참고사항1 :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평가기준⁶⁾

자살위험수준	내용	자살위험성 요소	보호요인
매우 높은 위험수준 (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하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 □ 자살 수단의 접근 가능성이 높음 □ 분명한 정신장애 □ 분명한 알코올/ 약물 남용 □ 급박한 위기가 있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 □ 자살 위험의 증가 경향 보고 	자살 생각 + 자살치명성 + 자살의도	없음
		자살 생각 + 자살치명성 + 자살의도	있음
* 정신과 입원평가 의뢰 조치			
높은 위험수준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하고 고정적인 자살 생각들 □ 특정한 자살 방법 고려 □ 정신장애의 가능성이 큼 □ 급박한 위기가 있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 	자살 생각 + 자살치명성	없음
중간 위험수준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대한 지속적 생각 □ 약간의 자살 계획 있음 □ 약간의 정신장애 증거 □ 약간의 약물/알콜 남용 증거 □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 □ 잦지 않은 위험한 행동 	자살 생각 + 자살치명성	있음
		자살 생각 + 의도	없음
		자살 생각 + 의도	있음
* 자살위기상담 의뢰(정신과 협의)			
낮은 위험수준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대한 일시적 생각 □ 자살 계획 없음 □ 정신 장애 없음 : 우울증상이 전혀 혹은 거의 없음 □ 약물/알코올 사용 없음 □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 	자살 생각	없음
		자살 생각	있음
* 자살위기상담 의뢰			
자살위험성 관련 개념			
자살생각	-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속적이고 빈도가 잦으며 그런 생각을 통제할 수 없을수록 자살생각의 위험수준이 높음		
자살치명성	- 자살계획이 구체적이고, 자살수단이나 방법이 치명적이고 접근가능성이 높을수록 자살치명성이 높음		
자살의도	- 자살하기 위한 준비행동(유서 쓰기, 물건 정리 등)을 하거나 정말 죽을 생각을 하는 등 자살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자살의도성이 높음		
보호요인	- 주변에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의 존재, 기타 애완동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이 해당됨		

6) 배주미, 양윤란, 김은영(2009). Life 자살위기청소년상담개입프로그램 상담자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 p14. 참조.

4. 장례식 참석

가. 목적

- 학생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적절한 안내와 개입을 통해 애도과정을 잘 겪도록 조력한다.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교내 정신건강전문가), 담임교사 등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다. 장소

- 장례식장

라. 수행 절차

1) 장례식 참여자 결정

- ① 학급 위기개입 과정 중 대처 단계에서 학생들은 장례식 참여 문제나 유품, 조화 등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본다.

이때, 장례식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만 참여토록 하되 학교 규칙과 절차를 따른다.

- ② 학급 위기개입 시간 이후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들은 장례식 참여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 유품은 누가 언제 전달할지, 책상 위에 놓아둔 조화는 언제까지 놓을 것이며, 청소시간 등 책상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결정하지 않으면 방치되어 학생들 간 갈등의 요소가 되거나 자살한 학생에 대한 실례를 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명료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유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유가족과 상의하여 처리절차를 결정한다.

③ 학생들은 부모 및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고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 장례식은 되도록 수업 시간이 끝난 방과 후에 참석한다.

수업 도중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살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자살 행위가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오인될 수 있다.

2) 장례식 참여 및 나누기

① 인솔자(담임교사 및 위기관리위원회 위원)는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예를 표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학생들 중에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장례식 참여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실례를 범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생들이 장례식장에서 잘못된 소문을 접하지 않는지를 유의하여 관찰한다.

장례식장 역시 소문이 퍼지는 장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방법,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소문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인솔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학생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③ 장례식 참여 후 함께 모여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살한 학생과 친했던 학생들은 자살 소식을 처음 들을 때 친구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깨닫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함께 이야기하고 평온한 감정을 되찾도록 도운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가?

(예시) 자살한 학생의 부모님이 ‘너희가 대신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친척분이 그 친구가 마음이 약해서 죽었다고, 애가 너무 어려서 죽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마음 굳건히 먹으래요. 등

• 장례식 참여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어떤 느낌이었는가?

(예시) 친구가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이제야 실감나네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요, 등

- 인솔자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문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낀 생각을 편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유의사항

■ 새학기 초에 자살이 발생했다면 **매우 친한 친구가 다른 학급에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교사의 협조를 얻어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 아무리 부모의 요구가 있다 해도, 학교에서 중요한 인사(교장 등)가 숨진 경우라도 **학교를 장례식 장소로 쓰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살 문제를 학교에서 호의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며, 취약성이 높은 학생들의 자살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장례식이 거행된 공간으로 영원히 학교를 죽음과 연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가족들이 교내 운구 행렬을 요구하더라도 완곡하게 거절한다.**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전에 학생이 몸담고 있던 교정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게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운구행렬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측 입장이 자살을 미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므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충분히 동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가족들이 교내 장례식이나 운구행렬을 요구한다면, 자녀를 잘 떠나보내고 싶은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드리면서, ‘학교에서 모방자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학교측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5.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및 심리적 경험보고

가. 목적

- 학생(교직원) 자살이 발생한 후 이루어진 위기관리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얻는다.
-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경험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긴박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경험했을 충격과 영향을 잘 마무리한다.

나. 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교내외 정신건강전문가

다. 대상 및 시간

위기관리위원회 / 사후개입 기간(준비단계~개입단계) 매일 40~50분 실시

라. 수행 절차

1)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발표 및 평가, 심리적 경험보고

- ①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교장, 교감 등)은 학생 자살 발생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 ② 사후개입 준비과정 및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평가한다.
 - 자살의 진위 파악하고 경찰 협조과정을 간략하게 보고한다. 또한 이 과정에 서 어려웠던 점, 파생된 문제점을 파악한다.
 - 공식적 사안보고서,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 준비과정에서 놓친 일은 없는지, 혼선을 빚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의논한다.

③ 사후개입 과정 및 경험에 대해 담당자별로 간략하게 발표하고 공유한다.

- 자살 소식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 느낌을 공유한다.
- 장례식 참석, 유가족과의 접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발표하면서 이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 느낌을 공유한다.
- 학급 위기개입 담당자는 학급 위기개입 과정 및 자살위험스크리닝, 특별상담실 운영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 느낌을 공유한다.
 - 학급 위기개입 과정 상에서 발견된 위급 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 학교 상담 및 외부 기관에 의뢰된 학생 수, 개입방법에 대해 요약하여 발표한다. 이때, 학생 명단에 대한 비밀 유지 엄수 사항을 강조한다.
 - 개별상담 내용은 특이사항(자살·타살 위험)을 제외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 이러한 과정에서 위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혹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고통을 경험한 경우 모두 함께 지지와 격려를 제공한다. 또한 추후 개별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를 찾도록 권고한다.

☀ 유의사항

- 사후개입은 학교가 학생 및 교직원의 자살 소식을 접한 **당일 혹은 그 다음날까지** 모든 개입 절차(언론 대응을 제외하고)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후에는 사후개입 추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 만약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사후개입이 '2~3일'이상 진행된다면 위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하루일과가 끝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당일의 경험을 보고하고,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며 다음 날 일정을 계획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 향후 개선 사항 및 활동 계획

- ① 사후개입 절차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협의한다.
- ② 앞으로 다가올 자살한 학생의 기일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 ③ 현재 외부기관에 의뢰된 자살 고위험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과 가족에 대한 개입과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협조사항에 대해 의논한다.

Ⅲ. 사후개입 추후관리

1. 지속적 관찰 및 개입

Ⅰ 가. 목적

- 자살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되므로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개입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여 학교의 자살 예방에 이바지한다.

Ⅰ 나. 담당자

위기관리위원회, 학급 담임교사

Ⅰ 다. 대상

학생 및 교직원

Ⅰ 라. 수행 절차

1) 전체적 학교 관리

① 자살에 따른 후유증의 지속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학생들에게 학급 위기개입 시간 등 여러 사후개입 단계에서 자살의 영향력과 지속성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② 위기관리위원회 및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 자살한 학생의 생일, 기일
- 시험, 졸업식 등의 주요 학사 일정

-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전학, 졸업 또는 취업)
 - 학생의 개인적 어려움이 커질 때(부모의 이혼, 학업 성적의 하락 등)
- ③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행동 상의 변화(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음, 표정이 어두움, 잦은 결석이나 지각 등)가 감지될 때 개별적으로 불러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면담한다.

2) 생일 및 기일에 대한 관리

- ① 기일이 다가올 때 자살한 학생의 주변 친구,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 기일이 다가오면 가까운 사람들은 다시 자살로 인한 고통스런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는 관심을 두고 관찰한다.
-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살한 학생의 친구,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

- ② 그 학생이 현재 문제상황에 있을 때 상담을 권고한다.

- 그 학생이 부모의 이혼 등 다른 문제 상황에 놓이면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위기관리위원회의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 담당자(교내외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학생과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학생·교직원·학부모지원 담당자(교내외 정신건강전문가)는 개별상담을 통해 현재 학생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자살위험스크리닝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상담기관 및 정신과에 의뢰한다.

3) 졸업식에 대한 관리

- ① 졸업식이 다가오면 자살한 학생의 주변 친구,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 졸업식 역시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고통스런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로 담임교사는 관심을 두고 학생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자살 당시와 담임교사가 바뀌었다면 이전 담임교사와 현 담임교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관찰 후 어려움이 엿보이면 학생과 부모에게 상담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② 학교에서는 졸업 앨범 제작 등 졸업식 행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두에게 일관적이고 공평하도록 지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죽음을 맞이한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③ 졸업앨범에 자살한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길 부모가 요청할 경우,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졸업 앨범에다 자살한 학생을 위한 헌정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기타 활동에 해당된다.
- 이때 다른 학생들과 같은 양의 공간을 할당받아야 하며 이 공간 안에는 사진, 성명, 출생일과 사망일, 개인이 했던 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의 기일, 졸업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주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자살한 학생의 생일, 기일 등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교 측 입장을 '사람에 대한 고려와 존중이 없다' 고 판단할지 모른다.
- 자살한 학생에 대한 학교 규모의 기타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정 행사(예 : ☆☆를 기리는 걷기대회), 영구적인 추모(액자, 장식판, 나무 심기, 동상 등) 활동과 같은 일들은 잠재적으로 학생들을 자살로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액자, 장식판, 나무 심기, 동상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추모하는 활동들은 권장하지 않는다.
- 추모하는 에너지를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일로 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유족들을 찾아 뵙고 부모님과 동생들의 안부를 살피거나 함께 산소를 방문하는 것, 사랑했던 사람을 기릴 수 있도록 유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의 활동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제 3 장

위기관리위원회의 상시 활동

I. 자살 예방

1. 자살 예방을 위한 준비 작업

Ⅰ 가. 목적

- 학교의 자살 예방을 위해 개입시기별, 대상별 준수 사항을 점검하여 사전 준비도를 높인다.

Ⅰ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

Ⅰ 다. 수행 절차

1)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 ① 학교장, 중간관리자, 교내외 정신건강전문가 등 위기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 ② 학교 건물이 여러 채일 경우 모든 건물의 위기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위기관리위원회에 소속시킨다. 이때 운동장, 매점, 식당 등 교내 모든 곳을 포함한다.
- ③ 자살예방, 위기개입, 사후개입 전반에 걸친 업무를 개발한다. 협의를 통해 각자 해야할 업무를 결정하고 위기관리업무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개발한다. 위기관리위원회의 연간 업무 추진일정 및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

2) 위기관리위원회 업무 구성 시 갖추어야할 사항

- ① 학교 위기 관리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위기관리위원회 업무 내용은 구체적인 절차로 구성한다.
- ③ 학교 안팎의 자살행동을 관리할 방법에 관한 위기관리계획 세부지침을 명문

화한다.

- ④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
- ⑤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기적인 훈련을 받도록 한다.
- ⑥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이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시 대체 인력을 지정한다. 이 인력 역시 사전에 정기적 훈련을 받게 한다.
- ⑦ 위기관리위원회는 월 1회 혹은 격월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 ⑧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개입 진행시 신속하게 학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교내 자살 발생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 ⑨ 학교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했을 때 모든 교직원에게 배포하여 승인을 얻는다.
- ⑩ 위기 발생 후 위협평가, 위기관리, 교직원 대상 디브리핑과 같은 학교시스템 밖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외부 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때 외부에 의뢰할 경우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교내 자살 사고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법률기관을 선정한다.
- ⑪ 자살 예방 관련 교육은 학교관리자 및 위기관리위원회→교직원→학생 순으로 실시한다.
- ⑫ 모든 학급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 긴급 연락망을 확보한다. 학교 내 선 전화 등을 통해 학교 안 어디에서든 쉽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

- ① 학생의 자살 행동이 의심될 때 학부모에게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미리 정한다.
- ② 부모가 연락이 안 닿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을 지 미리 계획한다.
- ③ 학생이 살해당하거나, 사고, 자살로 숨졌을 때 부모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둔다. 부모가 도움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미리 계획한다.
- ④ 수업 중에 응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사전에 마련한다.
- ⑥ 자살행동을 포함해서 정신 장애로 인해 결석하거나 입원했다가 학교로 복귀

한 학생을 어떻게 조력할지를 미리 계획한다.

- ⑦ 약물남용, 우울, 자해 등 고위험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미리 계획한다.

4) 사후개입 관련 갖추어야할 사항

- ① 자살 발생시 언론 매체를 어떻게 대할지, 누가 대응할지 사전에 담당자를 선정한다.
- ② 자살에 취약한 학생들을 발견하여 도울 방법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한다. 특히 모방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 절차를 상세하게 개발한다.
- ③ 학생 및 교직원이 숨진 후 장례식 참여, 기타 활동 등에 관한 학교의 역할과 한계를 명문화한다.

5) 교직원 관련 지원사항

- ① 모든 교직원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② 모든 교직원들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학교 지침을 모두 배포한다.
- ③ 교직원들에게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학교 건물별 위기관리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린다.
- ④ 교직원들이 자살 사망자 혹은 사건 피해자를 처음으로 발견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숙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직원들은 학생들이 자살이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보낼 때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훈련을 받게 한다.
- ⑦ 학생들이 보이는 모든 자살 행동(농담 형식의 죽고 싶다는 말 등)은 반드시 심각하게 다루고 학교 방침에 따라 보고하게 한다.
- ⑧ 학교 내 잠재적 자살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
- ⑨ 자살위험이 있거나 취약한 학생 명단을 확보하기 전에 교직원 간에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격한 교육을 실시한다.

6) 학부모 관련 지원 사항

- ① 학부모에게도 자살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자살위험요인, 경고사인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자살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약, 칼, 수면제 등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안내한다.
- ③ 학부모들에게 위기관리위원회 업무 및 구성원, 교내외 정신건강전문가, 지역 사회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학생 관련 지원 사항

- ①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제공해야한다. 특히 자신이 자살위험을 겪거나 여러 가지 취약성을 경험할 때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지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주변에서 자살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보이거나, 따돌림, 학교폭력 등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걱정될 때 학교 안팎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II. Gatekeeper 훈련

I 가. 목적

- Gatekeeper 훈련을 통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을 식별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자살 사망을 조기에 예방한다.

I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학생·교직원·학부모 지원담당자), 외부 정신건강전문가

I 다. 대상·장소·시간

- 교직원, 학생 팀당 15~30명 / 약 250분(교시당 50분, 총 5교시)

I 라. 수행 절차

1) 교육 준비

- ①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교 분위기 및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Gatekeeper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② 위기관리위원회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 교육하도록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프로그램의 구성 필수 요소
 - 우리나라 자살의 실태, 청소년 자살의 특성
 - 자살 행동과 관련이 높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 자살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지식
 - 자살위기청소년 인식을 위한 프로파일
 - 자살위기청소년 접촉시 개입방법 등
- 프로그램 훈련 방법
 - 사전에 요구조사를 통해 훈련방법을 채택한다.

- 강의 뿐 아니라 실습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훈련 관련 준비물을 갖춘다.

2) 교육 실시

① 강의형 1교시, 실습형 4교시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한다.

② 위기관리위원회 및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Gatekeeper 훈련프로그램을 받는다.

③ 학생들 중에는 또래상담자, 학급임원,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Gatekeeper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3) 평가 및 개선

① 훈련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도움이 되는 부분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진실과 오해

- 진실 1. 자살을 언급하거나 혹은 자살하고 싶은지를 묻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들게 하거나 자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진실 2. 자살 시도나 자살은 경고 사인 없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 진실 3. 자살 시도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 진실 4. 자살하려는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도울 수가 있다.
- 진실 5. 자살 “비밀”이나 “노트”는 감춰지지 말고 알려져야 한다.
- 진실 6. 우울증, 불안, 정서장애, 약물중독과品行장애는 자살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히 발견되는 요인들이다. 그렇지만 많은 자살위기청소년들이 이러한 진단가능한 장애가 없는 경우도 있다.
- 진실 7.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 진실 8. 청소년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 문제,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 진실 9. 자살은 고통으로 인한 것이며, 쉬운 결정이나 방법이 아니다.
- 진실 10. 대부분의 자살위기 청소년들에게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진실 11. 자살 시도 혹은 우울증 기간 후 갑작스럽게 좋아진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 진실 12. 자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다.
- 진실 13. 자살은 유전이 아니다.
- 진실 14. 자살 행동은 관심을 끄는데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 진실 15. 성적 소수자인 청소년들이 또래보다 더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향이 높다는 증거가 있다.

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자살하는 사람의 전형적 특성은 없다.
- 자살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다.
- 자살 경고 사인에 관한 완벽한 리스트는 없다.
- 자살은 항상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죽음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 만약 당신이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살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 만약 당신이 보호요인을 늘릴 수 있다면, 당신은 자살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자살청소년들의 마음속은

- 스트레스/고통/불안에 압도되어 있고
- 대처능력이 적절하지 않고
- 자살을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는 반면, 타고난 충동성을 지닐 수 있고
- 절박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 자살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과 친구나 가족이 받을 죽음의 영향은 생각해볼 수 없고
- 그들의 생각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는 보호요인

내적/개인적 보호요인들

-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포함하는 태도, 자살을 금지하는 기준들
- 생활 기술들(예, 의사결정, 문제해결, 분노조절, 갈등조정 및 사회기술들)
- 좋은 건강, 건강관리 기관이 가까이 있음
- 친한 친구들, 지지적인 의미있는 주변 사람들
- 종교적이고/영성있는 믿음
- 미래에 대한 희망
- 절주
- 의학적 순응성
- 충동조절능력
- 강한 자아가치감
- 개인적 통제감

외적/환경적 보호요인들

- 강한 대인관계 유대감, 특히 가족이나 다른 돌봐주는 성인들과의 관계
- 학교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 치명적인 자살 수단들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짐
- 애완동물들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프로필

자살행동과 관련이 높은 위험요인들

-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자살시도 경험(가장 강력한 자살예언지표)
- 두 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불안
- 자살생각과 자살위험들, 타살위험들
- 가족성원이나 친구들의 자살
- 하나 이상의 스트레스 사건들(부모의 사망·이혼 등 상실, 전학 등 환경의 변화,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
- 자살 시도(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 치명적인 자살 수단들, 특히 무기에 접근이 용이함

자살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경고 사인들

- 학교수행문제; 학업적 문제; 학습장애; 학업중단가능성 등
- 심각한 가족싸움과 갈등, 부모의 폭력적, 학대적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
- 알콜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이나 남용
- 가족이나 또래로부터의 고립, 소외(가출 등)
- 품행장애 – 항상 극단까지 밀어붙이기
- 법적인 문제에 관여되는 것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프로필

청소년자살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측 요인들

1. 총이나 치명적인 수단(특히 취약한 청소년에게 위험한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고 수단들이 부적절하게 관리됨
2. 무망감, 수치심, 절망, 분노, 강한 자괴감, 완벽주의 등과 같은 각성되거나 견디기 힘든 마음상태
3. 최근에 경험한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
 - 대인관계 문제; 또래로부터의 놀림
 - 개인적인 문제(성적, 도덕적인 것 등)
 - 가족성원들의 죽음 및 상실, 중요한 관계의 상실
 - 자존감의 상실 및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결과; 실질적, 지각되는 혹은 예상되는 모멸감, 질책, 부모의 실망이나 불승인
 - 훈육 상의 위기, 자유의 상실(감금)
 - 자살한 타인의 기일
 - 임신이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
 - 신체적 혹은 성적인 학대

자살행동에 대한 반응들

자살은 아무일 없이 발생하지는 않는 충동적인 행동이다.

자살이 아무일 없이 발생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사람들은 갑자기 아무 이유없이 삶을 끝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신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다룰 적절한 대처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만약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일단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시간, 장소와 방법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10분, 2주, 혹은 전생애가 소요될 수도 있으나, 전형적으로는 몇 일이나 몇주, 몇 달이 걸린다. 어떤 젊은이들은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살로 매우 빨리 이어지고, 평균 위기 기간은 보통 약 2주가 소요된다. 종종 이러한 시간동안에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가능한 빨리 개입하는 것이다.

당신이 개입을 시작할 때, 당신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와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안전은 청소년이나 당신 모두에게 일차적인 목표이다.

자살행동에 대한 반응들

게이트키퍼들은 반드시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차분한 태도로 이야기해야 한다.
- 자살에 대해 묻는다. 할 수 있는 한 직접적으로 묻는다.
- 경청한다. 경청은 당신이 진심으로 학생의 안전을 걱정하며 학생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경청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 안전을 확보한다. 치명적인 수단에 대해 질문하고 제거한다.
- 도움을 구한다.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을 파악하고 접근한다.

게이트키퍼는 다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판단하고, 강요하고, 화내지 말아야 한다.
- 자살행동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지 말아야 한다.
- 문제들을 모두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 비밀유지를 약속해야 한다.
- 과도한 개입이나 과도한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자살위험성이 큰 사람을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자살위기 청소년들에게 취해야 할 초기 반응

직접적인 언급이나 위협을 통해 자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경우

- ① 침착함을 유지하기
- ② 자살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혼자 두지 않음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그들에게 당신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한다.
- ③ 시간 벌기
자살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말을 하도록 격려하고 당신이 잘 경청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말을 하면 할 수록, 실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④ 인정
당신이 들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전달한다.
동시에 다른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한다.
“네가 지금 전혀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구나.”
- ⑤ 경청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줌으로서 당신이 듣고 있음을 알린다.
“너는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고, 이것을 다룰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지.”
- ⑥ 전달
청소년이 자살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당신은 이것을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⑦ 자살계획 확인 및 자살수단 소지 여부 확인
자살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현재 자살수단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본다.
“약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렴.”
- ⑧ 시간 기록
약을 복용했다면 언제 했는지 등의 정보를 청소년을 인계하는 전문가에게 함께 알린다.

자살위기 청소년들에게 취해야 할 초기 반응

경고신호를 보이거나 의뢰받은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를 다루기

① 증거 살피기

“○○야, 지난번 성적이 너무 나빴고, 부모님께 심하게 야단을 맞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최근 매우 나빠졌다는 것을 알겠어.”

② 당신이 보거나 들은 상태 혹은 감정이 어떠한지 질문하기

“부모님이 성적 때문에 너를 심하게 야단치셔서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너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지?”

③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계속 질문하기

“그래, 네가 정말 이제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네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④“가끔”사용

“○○야, 가끔 사람들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자신을 해치거나 자살을 하려는 생각도 한단다.”

⑤ 직접 묻기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니?”

⑥ 돕고 싶은 마음 전달하기

“○○야,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⑦ 거부당하거나 확신이 없더라도 그들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알리기

“○○야, 너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걱정이 되는구나.”

⑧ 안전 확보하기

- 청소년을 혼자 두거나 혼자 보내지 않는다.
-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 그가 하는 말과 행동 등에 의해 충격받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염려, 걱정, 판단하지 않고 가까이 들을 수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

Ⅲ. 시설 안전 관리

Ⅰ 가. 목적

-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자살 수단 접근을 차단한다.

Ⅰ 나. 담당자

-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안전관리담당자, 건물 및 시설별 안전관리자

Ⅰ 다. 대상

- 옥상, 창문, 화학물질 등 각종 시설물

Ⅰ 라. 수행 절차

1) 학교 시설 안전 관리

① 학교 시설의 전반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건물 및 시설별 안전관리 대상을 파악하여 목록화한다.
(예시) 옥상, 교실 창문, 과학실 약품 및 기구 등
- 건물 및 시설 안전관리 정규점검 시기를 정한다.
(예시) 매일, 매주, 격주 등
- 건물 및 시설별 안전관리 방법을 정한다.
(예시) 안전 여부 점검 후 일지 작성 등

②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결정한다.

- 시간별 담당자를 결정한다.
(예시) 교실 창문-09:00~17:00 담당교사, 17:00~21:00 경비원
- 담당자 부재시(휴가, 출산, 출장 등 기타 사유) 대체자를 결정한다.
(예시) 휴가 시 다른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대체근무허가원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는다.

- 담당자 교체시 안전 책임 인계·인수 방법을 정한다.
(예시) 위기관리위원회에 의한 안전관리근무일지 및 기타 비품을 확인·인수 하여야 하고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위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 ③ 평소 안전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 방법·방화 기타 보안 상태에 대한 순찰·점검
 -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기타 자살의 예방조치
- ④ 자살의 발생 등 긴급사태 시 시설 안전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
- 안전관리자는 긴급사태시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위기관리위원회 사고 현장 수습 협조
 - (위기관리위원회 지도·감독에 따라) 긴급연락망을 통해 전 교직원 연락
 -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지체없이 경과를 보고한다.
 - 119구조대 등 긴급구조 요청
 - 관할 경찰서에 연락
 - (방화에 따른 자살 사고시) 관할 소방관서 연락, 원내 화재 경보,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⑤ 시설 안전관리자는 서류 및 물품이 비치되어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예시) 안전관리근무일지, 긴급연락망, 안전관리 교칙, 관할지역 응급실, 정신건강전문기관 연락처, 기타 안전관리 근무에 필요한 물품
- ⑥ 시설 안전관리자는 점검 근무를 마치면 위기관리위원회의 학교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일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⑦ 위기관리위원회의 학교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 안전관리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 이를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⑧ 보고받은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교직원에게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살 보도기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개발, 2004)

자살보도 권고기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고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고를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실천 세부 내용

【1】 자살은 전염된다.

- 자살에 대한 보도는 대중의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자.
-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등의 표현을 피한다.

【2】 자살은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 실연, 실업,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유일한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 자살자의 90%이상이 사망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유명인사의 자살은 일반인의 자살보다 모방을 유발하기 쉽다. 유명인사의 자살이 특별한 주목을 받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명성 때문에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자살 보도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거나 사인이 자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험

하다.

- 자살한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헤드라인에 이름, 나이, 거주지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 ‘자살’, ‘자살하다’ 보다는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표현은 기사의 초점이 죽음에 국한되어 있거나 그 죽음을 최악시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 ‘자살 사망’ 혹은 ‘자살 미수’란 표현이 ‘자살 성공’ 내지 ‘자살 실패’라는 표현보다 바람직하다.

【4】 자살 보도문이 암시하는 태도가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 자살이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변화 내지 타락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급을 삼간다.
- 자살한 사람을 순교자로 미화하거나 자살 행위 자체를 용감하거나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할 경우,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길 수 있다. 그보다는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한다.

【5】 자살의 특성도 모방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히 유명인사일 경우 자살을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앓고 있었을지 모르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특히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 장면, 자살 방법에 대한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1면 머리기사로 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특히 자녀를 포함한 가족동반자살의 경우 희생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살해한 부모의 비정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살을 결심한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6】**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연구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자살 빈도보다는 자살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특정한 절벽, 고층빌딩, 철도 같은 전통적으로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보도하면 대중의 관심을 환기·집중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예: 한국의 반포대교).
- 【7】** 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 자살에 대한 기사에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언급되어야 한다.
 -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을 수 있음을 자세히 보도하면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8】** 자살보도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 자살률의 추이와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신 치료법을 알려 준다.
 - 자살한 사람이 자살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을 함께 알려 준다.
(위기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위기를 넘긴 사람의 사례를 보도한다.
- 【9】** 시민들이 자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자살에 대한 편견을 소개하고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포함한다.
 - 통계수치는 반드시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인용해야 한다.
 - 자료 출처는 정확하게 제시한다.
 -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터부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 시민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살 징후가 무엇인지, 그런 징후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Media Tip

■ 이것은 피해라

- ☞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기
- ☞ (새로운) 자살 방법을 소개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기
- ☞ 작은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기
- ☞ 자살이 아무런 예고나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기
- ☞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나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를 쉬쉬하기
- ☞ ‘자살’이란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거나, 사인(死因)을 자살로 밝히기
- ☞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 ☞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실기

■ 이것을 넣어라

- ☞ 자살률의 최근 경향
- ☞ 최근의 치료 및 상담의 발전 양상
- ☞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자살위기에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 ☞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사례
- ☞ 자살의 신화(잘못된 상식)
- ☞ 자살 징후들 소개
- ☞ 자살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상담 관련 기관

	기관명	인터넷 주소 및 연락처
1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02) 2250-2000
2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teen1318.or.kr 02) 2285-1318
3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cando.or.kr 051) 804-5001
4	대구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http://www.daeguyouth.net 053) 659-6240
5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inyouth.or.kr 032) 432-0717
6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kycc.or.kr 062) 1388
7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dj1388.or.kr 042) 1388
8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counteen.or.kr 052) 227-2000
9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hi1318.or.kr 031) 248-1318, 844-1388
10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gycc.org 033) 256-2000
11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http://www.cyber1004.or.kr 043) 258-2000
12	충남청소년육성센터	http://cnyouth.or.kr 041) 554-2000, 2131
13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jb1388.kr 063) 276-6291
14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http://www.we7942.or.kr 054) 853-3011 ~ 3
15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http://www.gnyouth.net 055) 276-0924
16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http://www.jeju1388.or.kr 064) 759-9951 ~ 2

〈자살예방전문가교육〉

1. AIR(Awareness, Intervention, Referral), 한국생명의 전화

-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상담원 또는 일반 / 10회기 / 강의 시청각, 집단 활동

- 1회: 자살현상의 이해와 원인 2회: 멘탈히트니스와 자살예방
- 3회: 자살의 위험요인 평가방법 4회: 스트레스 관리와 자살예방
- 6-7회: 자살 사후예방 방법 8회: 전화상담과 자살예방
- 9회: 사이버 상담과 자살예방 10회: 자살상담 역할실습

2. 청소년자살예방상담학교,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교사 / 1회(4시간) / 강의, 시청각 자료, 집단 활동

- 청소년자살 사회적 고찰, 위기상담기법, 지역사회 네트워킹, 청소년자살성향 분석, 청소년자살예방 프로그램 (외국 대 한국)

3. 청소년자살예방전문가교육(기본과정), QPR KOREA

- 자살위기 평가 및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상담자, 위기관리자, 정신건강 관련자) / 1회 3시간(기본) 8시간(전문)
- 자살예방 기본교육 (QPR Gatekeeper Training)
 - 자살의 역학, 위험신호, 돕는 방법, 도움받기 및 인도, 자살위기 평가 등
- 자살예방 전문교육 (QPR Suicide Rriage Training)
 - 자살의 역학, 정신병리와 자살(진단척도), 자살위기 평가, 자살 심리치료기법, 평가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

기 관 명	인터넷 주소 및 연락처
1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02) 413-0892
2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	http://www.savelife.or.kr 02) 763-9195
3 부산생명의 전화	http://www.bsllifeline.or.kr 051) 804-0896
4 전주 생명의 전화	http://www.jeonjulifeline.or.kr 063) 286-9192
5 대전생명의 전화	http://www.lifelinedj.org 042) 522-9193
6 대구생명의 전화	http://www.dglifeline.or.kr 053) 475-9193
7 수원생명의 전화	http://www.suwonlifeline.or.kr 031) 237-3120
8 울산생명의 전화	http://www.ulsanlifeline.or.kr 052) 265-5570
9 충주생명의 전화	홈페이지 준비 중 043) 842-9191
10 제주생명의 전화	http://www.jejulifeline.or.kr 064) 744-9190
11 수원시자살예방센터	http://www.csp.or.kr 031) 214-7942
12 서울시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blutouch.net 02) 3444-9934
13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http://www.mentalhealth.or.kr 031)212-0435 ~ 7, 212-0443
14 대구광역시서구정신보건센터	http://www.sgmhc.co.kr 053) 564-2595
15 고려대학교 자살예방연구소	http://www.qprkorea.co.kr 02) 412-7845

Development of The Manual for Youth Suicide Postvention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9 (2009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ort), suicide was (has been) the most serious problem for the adolescent because it has been the top-rated cause of death for the adolescent. Especially, adolescents' suicide was the important issue among the various risks because it could affect the surviving adolescents around the completed suicide adolescents. School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living environment, and the place in which adolescents closely affect each others. Considering these facts, the post-intervention with the adolescents' suicide is no longer the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 or family, but those of school and the n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ost-intervention manual for the survival adolescents in school settings after adolescents' suicide. In this study, we examine extant literature, interview with the adolescent, and survey adolescents, teachers and professionals. First of all, by examining the literature and post-intervention manuals of another countries such as Australia, New Zealand, U.S.A. Japan and Hong-Kong, we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uals.

11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adolescents whose friends were in their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were given. 21 adolescent's suicide professional, 201 teachers or principals and 1,49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first draft of post-intervention manual for school students has been prepared. The purpose of the manual is to set up the risk management team to deal with the crisis at school, describe the detailed actions in various situation. It proposes three stages, that is,

preparing stage, post-intervention stage and follow-up stage. To confirm the validity, the manual has been reviewed by twelve teachers who were responsible for crisis interventions in their schools and five counselors who were in charge of crisis intervention teams in Youth Counseling and Support Center.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Knowledge Scale for Post Intervention and Self-Efficacy Scale tests were given. The test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both scales.

Although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with the test of effectiveness because we cannot experiment the suicide, it has some implications. The most important one is that the first manual for suicide post-interven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has been developed. Second, this manual has the detailed processes and tips for teachers and staffs who are not experienced with the intervention.

We suggest the effectiveness study,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on post-intervention in suicide, and the collaborative efforts among government agencies to decrease the adolescent suicide rate in Korea.